

결과 보고서

과업명	무안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	----------------------------------

2013. 09. 30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제 출 문

무안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무안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09. 30

책임연구자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장 강봉룡

무안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

목 차

제1부 과업 개요 및 무안동학농민혁명의 의의	001
1. 과업 개요	002
2. 무안동학농민혁명의 의의	005
제2부 무안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 고증	013
1. 원전자료에 나타난 무안동학농민혁명	014
2. 유적과 유물로 본 무안동학농민혁명	081
3. 무안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배상옥	096
제3부 무안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 기본계획	111
1. 타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사례와 시사점	112
2. 무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방향	140
제4부 부록	163
1. 무안농민혁명의 문헌자료 소개	164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과 인증서식	218

※ 별첨: CD(기본계획, 동영상, 음성)



제1부 과업 개요 및 무안동학농민혁명의 의의



1. 과업 개요

2. 무안동학농민혁명의 의의

- 1) 혁명운동의 배경
- 2) 무안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 3) 무안동학의 의의





1.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무안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

2) 과업의 배경

-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발단이 되었고, 각종 사료에 의하면 당시 무안군민은 각종 집회와 전투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이 전사하였거나 처형당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무안군 각처에 집강소, 훈련장, 처형장소 등이 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적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진정한 고증, 가치 평가를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태임.
- 따라서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현장사업 즉, 기념물의 조성, 사적지 지정, 추모 사업, 정신교육 등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구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과업의 목적

- 무안군 동학혁명농민운동과 관련한 기왕의 조사에 대하여 역사적 고증과 추가 조사와 아울러 무안군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구축함.
- 이를 토대로 무안군 동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한 각종 기념사업 추진을 하고자 함. 이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 방안을 모색함.

4) 과업의 내용

- 무안군과 관련된 동학농민혁명 즉, 인물, 사건 장소 등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자료 수집
 - 엄정한 역사적 고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상세히 조사하고, 영상자료, 사진, 유물을 수집(목록 작성)하여 무안군 동학혁명 기념사업에 있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의 활동사항, 참여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사료 정리 및 역사성을 평가한다.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무안군 관내 유적지의 위치, 규모, 입지, 역사적 위상, 유물 등의 조사와 타 지역의 동학농민혁명과의 역사적 관계 등을 조명한다.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하여 고증한다.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역사고증자료 및 타시·군 사례 분석 기초 자료를 토대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사업지 선정, 기념물(시설물, 기념비),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소요 사업비 산정한다.
 - 참여자 및 희생자에 대한 추모, 제례의식 및 절차 등 기념행사에 관한 기준 제시한다.
 - 위의 기념사업을 통한 기대 및 파급효과 등

5) 과업기간 및 연구진

(1) 과업기간

2012년 12월 28일 ~ 2013년 09월 27일 (9개월)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료수집 및 조사									
3 연구보고서 작성 추진									
4 중간보고회 개최									
5 계획수정 및 보완									
8 최종보고회 개최									
9 성과품작성 및 제출									

(2) 연구진

역할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위 (직명)	전공 및 학위				비고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 책임자	강봉룡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사	1994	한국사	서울대	사업총괄
공동 연구원	변남주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연구 교수	박사	2010	한국 지방사	목포대	역사고증 및 사업PM
	최성환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HK연구 교수	박사	2010	한국 지방사	목포대	기념사업방안
	백창석	무안문화원	원장	석사	2005	역사 교육	목포대	무안군 동학사
연구 보조원	최은정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행정실장	석사	2007	역사 교육	목포대	행정업무
	정종관	목포대학교 사학과	석사 수료	학사	2008	한국사	목포대	연구지원, 자료수집
	이광록	목포대학교 사학과	석사 수료	학사	2010	한국사	목포대	연구지원, 자료수집, 영상 촬영
	신동범	목포대학교 사학과	석사 수료	학사	2009	한국사	목포대	조사 및 편집
자 문 위 원	이병규	동학혁명기념재단	학예팀장					
	박석면	무안군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배종렬	무안군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전 이사장					
	최효섭	무안군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배석오	무안군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자문위원					



2. 무안동학농민혁명의 의의

1) 혁명운동의 배경

19세기에 들어서자 봉건사회의 모순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재해로 인해 세입은 감소되는 반면, 재민진휼 등의 이유로 재정지출은 증가하여 국가재정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더군다나 관리들의 수탈로 삼정이 문란하여 짐에 따라 농민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 농촌사회는 극도로 피폐하였다. 따라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농민들은 왕조에 이를 항의하는 형태로 봉기하였다. 이 시기에 농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거칠게 탈곡한 곡식을 지주에게 납부하거나, 지대납부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는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양반으로 신분상승을 꾀하거나, 또는 세력 있는 양반가에 빌붙어 묘지기, 산지기가 되어 균역을 회피하기도 하였으며, 유리 도망하기도 하였다.

세도가에 의한 매관매직이라거나, 관리의 임기 단축, 잦은 교체 등으로 관리의 탐학은 더욱 조장되었다. 또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은 도시 소비생활의 향상을 가져온 반면, 사치 욕구를 자극시켜 집권양반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의 지출을 증대시켰다. 이를 메우기 위해 대동미 중 중앙에 상납할 몫을 더욱 증가시켰고, 환곡의 총액도 증가시켜 지방관청의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키었다. 이처럼 재정 형편이 나빠지자 지방관청에서는 각종 잡세의 부과나 환곡, 고리대 등의 이식행위를 통하여 재정 부족을 보충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 농민층에의 수탈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른바 삼정의 문란이라는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철종 13년(1862)에 일어난 임술민란은 2월 경상도의 단성(丹城), 진주(晉州)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3 - 5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갔다. 경상도 지역에서 20개 군현, 전라도에서 37개 군현, 충청도에서 12개 군현을 위시하여 전국의 72개 군현에서 항쟁이 일어났다. 전라도 지역에서의 봉기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발생한 고을의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전라도 전체의 군현 수(53)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 25개 고을에서 18개 고을이 봉기하여 전 지역이 거의 동요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무안에서도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과 비슷하여 주동자 박창응(朴昌應) 등이 농민들을 모아서 봉기하고 동헌에 진정서를 올리고 동헌을 습격하기도 하였다.¹⁾ 그러나 그의 진정서는 묵살되었고 오히려 잡혀 들어가 태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²⁾

무안을 비롯하여 봉기한 농민들의 요구조건은 관리들의 경제적 수탈 방지와 삼정의 폐단을 제거하라는 것이었고 따라서 부정한 관리와 탐학을 일삼던 양반토호나 아전 들을 징치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었다.

농민군들은 어느 지역 어느 고을을 가릴 것 없이 대개 관아를 습격, 파괴하고 그 장부들을 불태웠으며 창고의 곡식을 탈취하였다. 또 이서나 양반, 토호의 집을 때려 부수고 곡식이나 재화를 약탈하였으며, 혹은 감옥을 깨고 죄수를 풀어 내 주기도 하였다. 이 시기 농민항쟁의 성격은 농민층이 사회변혁을 위한 반봉건항쟁이었으나, 그 요구 수준이 봉건국가와 지배층의 조세수탈 해소에 그쳐 있어 봉건적 토지소유의 철폐나 신분제 폐지의 단계까지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또 군현 단위의 국지적이고 일회적인 항쟁에 그치고 인근지역과의 연대를 모색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었다.³⁾

이때 최제우에 의해서 창도된 동학은 그 속에 평등사상과 척양척왜의 민족주의 그리고 새 세상을 연다는 후천개벽사상이 들어 있었다. 창도 당시 동학은 시천주(侍天主)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서민이 내 몸에 한울님을 모시는 한울님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군자가 되고 나아가 보국안민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비교적 추상적인 신앙이었으나, 2대 교주 최시형에 가서는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한다'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실천적 가르침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산천초목에 한울님이 내재한다고 보는 범천론(凡天論) 사상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관리들의 부패와 탐욕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에게 동학은 복음이 되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이런 동학이 경상도와 강원도 산간에서 점차 경기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에 전파된 것은 188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후 1890년대 들어서는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무안에는 언제 누가 동학을 전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동학군의 활동이나 무안의 마을 여러 곳에서 동학의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과 서-남부의 대접주인 배상옥이란 큰 인물이 있는 것을 보면 무안으로의 동학전도는 상당히 빨랐을 것으로 보인다.

1) 망원한국사연구실, 1988. 《1862년 농민항쟁》

2) 龍湖閑錄三, 第十三冊 營奇

3) 김동수, 1997. 전남대학교 박물관 문화강좌 '사회변화와 농민항쟁'

2) 무안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동학농민혁명에서 광주 및 전라도는 동학이 가장 성했던 지역이었으며 농민의 시위나 혁명을 주도하였던 지역이었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남접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 집강소가 설치되어 혁명과업을 수행했던 이 지역은 농민군의 최후 항전지역이었고 민족민주운동의 마지막 보루였기에 그 피해 또한 막심하였다.

그 중에서도 무안의 동학운동은 임술봉기인 1862년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무안 농민들의 부정에 대한 항의와 올곧은 정신은 1892년 11월의 삼례집회나 1893년 2월의 서울 집회 등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후 각종 농민 집회에서의 무안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봉준과 김개남에 버금가는 대접주 배상옥을 키워냈던 것이다.

실지로 천도교에서 나온 자료 ‘교리교사연구’에 의하면 1892년에 천도교에 입도한 자는 고군제(청계면 도림리), 김의환, 이병경, 이병대(청계면 남안리), 조병연(청계면 남성리), 한용준(몽탄면 당호리), 함기연(청계면) 등이 나온다. 1893년에는 청계면 상마리의 송두옥, 송두옥, 청계면 청계리의 한택률, 청계면 하마리의 송군병과 박인화, 그리고 외읍면(무안읍) 교촌리의 정인섭이 천도교에 입도했다.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수치이지만 실지로는 훨씬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 지역 동학도들이 활발하게 동학활동을 시작한 것은 1893년부터다. 1893년 2월 광화문 복합상소 때 교도 대표로 배상옥의 친동생인 배규찬이 참여하였다. 이어 1893년 3월 원평과 보은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흔히 척양척왜의 창의를 외친 집회로 알려졌는데 영암과 무안등지에서 260여명이 3월 30일에 참여했다. 4월 3일에 보은으로 떠나간 동학도는 영암집에서 40여명, 나주집에서 70여명, 무안집에서 80여명이었다고 한다.⁴⁾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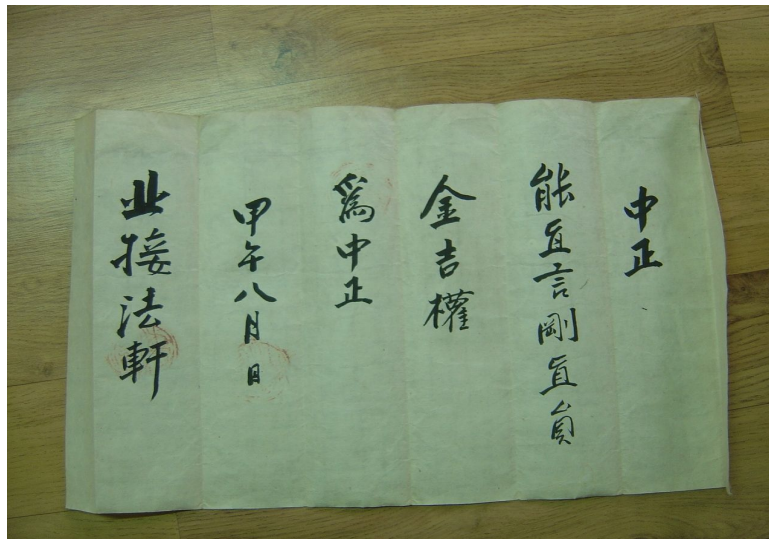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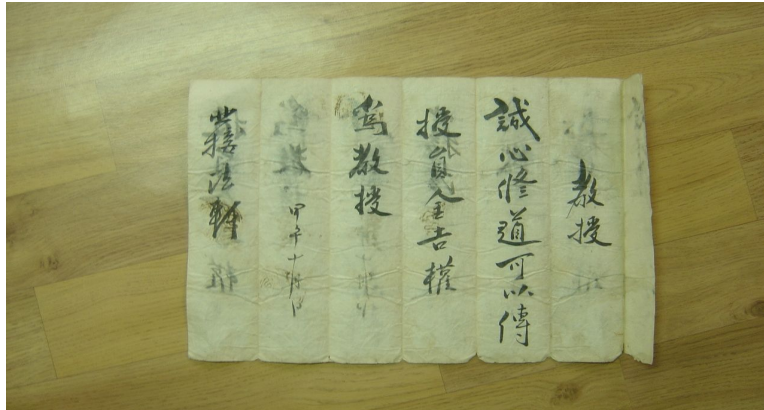
사실로 미루어보아 1893년 초반에는 이미 무안에도 동학의 교세가 크게 확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학의 세를 바탕으로 1894년 3월 백산 집회 때 전라도 53개 고을 중에서 33개 지방의 동학농민군이 운집하였는데 기록에 남아있는 자료만 하여도 참여한 지방 중에서 장령급이 제일 많이 참여한 곳이 무안이었다. 그때 참여한 무안의 장령들은 15명(裴圭仁·裴圭贊·宋寬浩·朴琪雲·鄭敬澤·朴淵教·魯榮學·魯允夏·朴仁和·宋斗玉·金行魯·李敏弘·林春京·李東根·金應文)이다.

4월 6일 동학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최초로 관군과 맞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둔다. 당시 전라 감사의 제보에 따르면 황토현 전투 직후 부안 근처 13읍의 수령이 모두 감영으로 피신하였으며 군기와 전곡은 모두 농민군에 탈취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런 기세를 모아 농민군은 정읍을 거쳐 흥덕으로 그리고 무장을 지나 4월 12일에 영광에 도착하였다.

영광은 동학의 깃발이 올라가기 전 2월 28일에 이미 농민 봉기가 있었던 곳이다. 즉 ‘폐막(弊瘼)을 바로 잡는다’며 죽창을 들고 청사에 난입하여 군교를 죽였으며 군수를 쫓아냈다. 이런 봉기의 고을 영광에서 4일간 머문 후 4월 16일에 농민군의 반은 영광에 주둔하고 나머지 반은 함평과 무안으로 들어갔다

4) 취어. ‘영암집 40여 명, 나주집 70여 명, 무안집 80여 명’



<마을 탐방 중 발견한 동학 첩지. 무안읍 교촌리 상봉마을에서 발견한 임명장은 1894년에 북접 최시형이 발행한 것이다.>

4월 23일, 동학농민군은 장성 황룡에서 중앙군을 격파한 후 전주로 진출하여 전주를 점령하고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었다. 그리고 농민통치기관인 집강소를 전라도 전역에 설치하였다. 이후 농민군들은 해산하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집강소는 민과 관의 합의로 설치된 역사상 최초의 주민 자치기구 이자 민 주도의 협의 기구였다. 민이 행정에 관여하고 정책결정에 민이 참여하고, 잘못된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민이 합법적으로 실행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그것은 비록 민과 관의 합의체이고 주요기능이 전시체제하에서 치안질서를 바로잡는데 있었을지라도, 민이 주도하는 집강소조직과 행정조직이 병립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 속에서 집강소는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고 부정한 정치와 행정을 개혁하는 구심체 역할을 다하였다. 또한 집강소는 청일전쟁이라는 전시상황에서 동학농민군을 통제하고 마비된 행정력과 치안질서를 바로잡으면서 정부와 공동으로 민족적 위기에 대응하기도 하였다. 이는 민족적 위기상황에서 민 스스로 자치능력을 보여준 것일 뿐 아니라, 아래로

부터의 새로운 국가 및 사회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이었다.

무안의 집강소는 전주화약 이후에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무안을 비롯한 전라도 전역에서 탐관오리의 징계, 신분해방운동과 사회신분제의 폐지 추진, 횡포한 부호의 응징과 그들의 전곡 몰수, 삼정의 개혁과 무명잡세의 폐지 등을 실시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시기에는 반상과 귀천, 적서와 남녀노소의 차별 없는 평등세상이 펼쳐졌고 이제까지 농민대중을 착취하고 탄압했던 수령과 아전 그리고 이에 빌붙어 백성을 괴롭혔던 토호나 양반 그리고 불량한 유림이나 부호들을 징벌하고 농민이 원하는 대로 농민의 정치, 농민에 의한 세상이 전개되어 갔다.

이때 무안의 농민들이 얼마나 동학군에 많이 가담한 정도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무안읍은 멀리 떨어진 해안에 위치한 곳으로 교화와 은택을 입지 못하여 동학농민군이 창궐할 때 모두 가담하게 된 것을 요행으로 여겼고, 좋아하여 아주 혼란스럽고 약탈과 보복이 심했으며 평민으로 동학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아주 드문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강소가 중심이 되어 농민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간에는 농민들의 대부분은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넘쳐 희망찬 나날이었지만 한편으론 약탈과 보복이 심해 혼란스러운 세상이기도 하였다.

정부의 개혁이 부진하고 일본의 침략과 내정 간섭이 강화되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하여 외세를 몰아낼 목적으로 다시 모였다. 9월의 삼례모임이 그것이다. 이 때 무안에서는 배상옥의 지휘 아래 2,000여명의 동학군이 참여하였다.⁵⁾ 그러나 동학군의 지도부는 일본군에 의한 배후 세력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남부의 세력들은 남아있게 하였는데 무안의 동학군도 북상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11월 17일에 무안 함평 농민군이 나주 고막원 일대에 집결하였다. 『금성정의록』은 이때 모인 농민군의 숫자를 5만에서 6만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어 11월 18일에는 무안 함평 농민군이 나주 수성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윽고 11월 21일에는 수성군이 고막원 일대에 넓게 포진해있는 농민군을 공격하여 농민군은 참패를 당한다.

참패를 당한 농민군은 11월 27일 광주에 들어와 전봉준을 기다렸다. 그러나 전봉준이 11월 27일 태인 싸움을 마지막으로 장성 노령에서 농민군을 해산하고 은신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광주에 모인 동학지도자들은 12월 1일 농민군을 해산하고 모두 흩어졌다. 배상옥은 광주 해산 이후 농민군과 함께 무안으로 돌아오다 수성군과 충돌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다.

12월 8일 관변 기록에 따르면 “배정규 · 박순서 등이 체포당하여 즉시 총살을 당했다. 또한 같은 일당인 서여칠 등 6명은 경중에 따라 처리했으며 동학당 18명은 12월 9일에 체포했는데 거괴 김응문 · 김자문 · 정여삼 · 김여정 · 장용진 · 조덕근 등은 심문을 받고 죽었다. 그 외 일당인 12명은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⁶⁾. 뒤이어서

5) 오지영. 1973. 『동학사』. 문선각

6)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什物并錄成冊』

“무안 망운 목장의 동학 우두머리인 이익선 등 4명은 체포하여 우진영에 압송하여 엄중 심문하여 정보를 얻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오지영의 동학사 무안 부분에서는 박기운, 송두옥을 추가했으며 동학란 기록(下) 죄인록에는 ‘박정환이 접주로 활약하였다’고 기록 했다.

이어 12월 12일에는 토포사 이규태가 무안현에 보내는 감결에서 배규찬 · 오덕민 · 조광오 · 김문일 · 박경지 · 박기운 · 김효문 · 양대숙 · 서여칠 · 박기년 등 10명을 잡았다고 통고 했다. 무안에서는 이들을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배상옥의 동생인 배규찬을 효수하고 나머지 9명은 총살하였다.⁷⁾

이때 배상옥은 관군의 추적을 피해서 해남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상금을 탐한 은소면에 사는 윤규룡에게 잡혔다. 윤규룡은 일본군 대위 松本正保에게 배상옥을 인계하였는데 일본군 대위는 그 자리에서 배상옥을 죽였다. 그리고 윤규룡은 현상금 천 냥을 받았다.⁸⁾

해제의 최장현, 선현, 기현 등 3의사도 동학군 최후의 항전이었던 나주성 싸움이 실패로 끝나자 관군과 일본군들의 눈을 피해 고향에 숨어 지냈다. 그러나 많은 농민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같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밀고를 당해 12월 25일 체포되었다. 이어 나주로 끌려가 12월 27일 일본군에 의해 사형을 당했다.

이어 12월 28일에는 배상옥의 마부와 김종곤 그리고 배상옥을 수행하였던 윤석호, 윤문여도 청계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1895년 정월 5일에는 무안읍 교동(향교 마을)에 사는 박정환이 죽었다⁹⁾.

7)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8) 『순무선봉진등록』

9) 『각읍장졸성책 범죄인물 물금첩 등』

3) 무안동학의 의의

1894년에 전국적 규모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부패척결과 신분제도의 타파 및 일제의 국권침탈에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등 반봉건·반외세의 근대민족운동이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과 그 유족들은 이에 상응하는 명예로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고 제출하여 국회를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외면 받고 따돌림 당했던 동학이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사적 재평가에 의해서 바르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다.

군데군데 나와 있는 각종 기록을 포함하여 주민들 사이에 은밀하게 전해오는 이야기나 흔적들을 살펴보면, 무안동학농민혁명은 동학혁명을 주도했던 고부나 삼례, 보은, 공주 지역 등에 못지않은 규모와 인원들이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활동했던 만큼의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장성과 나주는 동학혁명 당시 치열한 항쟁이 벌어져 발굴이 많이 된 편이었으며 혁명의 마지막 단계에는 광주, 나주, 장흥, 강진의 전투가 있어서 이에 대한 사료발굴과 증언 채집 등 연구가 활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투의 외곽 지대에 있었던 함평, 무안, 해남, 영암은 일본군과 관군이 마지막으로 농민군을 바다로 쓸어 넣으려고 시도했던 작전지역이었다. 해서 자료나 흔적 등을 철저히 은폐시켜 이 지역 동학연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여건이었는지 몰라도 무안의 동학은 역사적 평가에서 늘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이 지역에 관련된 역사적 자료나 현지 사료가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이를 수집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제 이를 반성하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그간 흘시해왔던 무안동학 관련 원전자료를 재검토하고 무안 각 지역에 전해오는 자료들을 모아 무안동학의 역사성 고증에 나서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무안동학농민혁명을 현창할 기념사업의 기본계획을 설계하고자 한다. 마침 내년(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발발 2주갑(120년)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이 보고서가 계기가 되어 동학농민혁명 2주갑이 되는 2014년이 무안동학의 연구와 현창에서 새로운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제2부 무안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 고증



1. 원전자료에 나타난 무안동학농민혁명

- 1) 교조신원 운동시기(1892 ~ 1893)
- 2) 반봉건 1차 봉기 시기(1894.1 ~ 1894.8)
- 3) 반왜양 2차 봉기 시기(1894.9 ~ 1894.11)
- 4) 동학농민군의 수난시기(1894.12 ~ 1895.1)

2. 유적과 유물로 본 무안동학농민혁명

- 1) 무안읍 2) 일로읍 3) 삼향읍
- 4) 몽탄면 5) 청계면 6) 현경면
- 7) 해제면 8) 목포시

3. 무안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배상옥

- 1) 무안동학 참여자
- 2) 무안동학에서 배상옥의 위상





1. 원전자료에 나타난 무안동학농민혁명

무안동학농민혁명을 원전자료로 고증한 결과 무안지역(현 무안군역에 목포시와 함평군 일부 포함)은 서남부연해지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에서는 크게 네 시기 구분하여 무안동학의 실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교조신원 운동 시기(1892~1893), 반봉건 동학혁명 1차 봉기 시기(1894.1~1894.8), 반왜양 동학혁명 2차 봉기 시기(1894.9~1894.11), 동학혁명군의 수난시기(1894.12~1895.1)가 그것이다. 무안동학과 관련된 해당사료를 찾아 해석문, 원문, 해설문을 수록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미지 자료까지 첨부하여 정확도를 기하기로 한다.

1) 교조신원 운동 시기(1892~1893)

(1) 개요

○ 동학교도들은 1893년 2월 삼례에서 수천 명이 집회를 열어 전라감사에게 소장을 올리고, 대표자는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에서 복합 상소를 하였다. 여기에 호남유생은 7명이 참여하였는데, 무안에서는 배상옥의 동생 배규찬이 참석하였다.

○ 1893년 3월에 해월 선생은 모인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접조직을 배로 강화하였는데, 당시 무안에서는 배규인이 접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이어 3월 30일 무렵 보은집회에는 전라도에서 5,6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이중 무안접에서는 80여 명이 참석하였다가 4월 2일에 해산하여 귀향하였다.

(2) 주요 일지(중서체는 무안 일지)

1892 8월 손화중이 선운사 도솔암 석불의 비결책 탈취
1892년 10월 20 교조의 신원을 위한 공주 모임
1892년 11월 2일 삼례 집회 수천 명이 모여 전라감사에게 소장을 보냄
1892년 12월 1일 공주 등지에서 집회
1892년 12월 6일 전봉준 동학에 입도
1893년 1월 10일 전봉준 창의문 작성하여 전라도 각지로 발송
1893년 2월 10일 삼례에서 수천 명이 다시 모여 전라감사에게 소장을 올림
1893년 2월 11~13일 동학도 광화문 앞에서 상소문 올림(무안 유생 배규찬 참석)
1893년 2~3월 왜, 외국 공관에 척왜척양 패서를 부착함
1893년 3월 11일 보은군 장내리 집회 수만 명 운집, 동시에 금구 원평에도 만여 명 운집
1893년 3월 26일 선무사 어윤중이 보은 집회에 가서 국왕의 효유문 전달하고 해산 독려
1893년 3월 30일 일부는 귀가 하는 도중에 전라도 무안, 영광, 장수, 순천 등 동학도 도착
(무안 배규인 등 참석)
1893년 4월 2일 보은 집회 해산 시작하고, 5일에는 금구에서도 해산(무안집 80여 명 귀향)
1893년 11월 전봉준이 고부민 40명과 함께 고부군수에게 폐정개혁 요구하다 체포 됨

(3) 무안동학 원전사료

① 『海月先生文集』 癸巳(1893) 二月 各道道儒有伏閣伸冤之議 : 호남유생 대표 7인중 한 사람으로 무안의 배규찬이 광화문 상소에 참여하다.

◇ 원문

先生不得已許之疏 首 姜時元 幹事 徐丙鶴 孫天民 金演局 忠清道 儒生 朴禹鉉 朴光浩 朴根瑞 林貞準 金汝三 朴元七 趙在壁 黃河一 孫秉熙 任奎浩 湖南儒生 金錫允 金洛鳳 南啓天 張敬夏 趙東賢 孫華中 裴奎贊 嶺南儒生 李文贊 金敬化 金文入 金君五 餘 不盡記 (1893)二月十一日上京幾[畿]萬人爲嫌煩瀆只九人伏閣于光化門前矣 至十三日司謁口傳傳教內各歸安業十四日十五日舉皆下來後譏察校卒下來

◇ 해설

1892년 11월에 전라도 삼례에서 대규모 동학집회를 가졌다. 이어 보은 집회는 1892년 12월 충청도 보은 등지에서 열렸다. 그리고 40여 명의 대표를 경복궁 앞으로 보내 상소를 올렸던 동학교도들은 이 집회에서 동학 포교의 자유와 억울하게 죽은 교조 최제우의 누명을 벗겨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동학교도들은 1893년 2월 삼례에서 다시 수천 명이 집회를 열어 전라감사에게 소장을 올리고, 대표자는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에서 복합 상소를 하였다. 여기에 호남유생은 7명이 참여하였는데, 무안에서는 배상옥의 동생 배

규찬이 참석하였다. 이 집회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배척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이 집회를 계기로 동학은 종교적 성격을 넘어서 사회 개혁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②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東學史)』(초고본)의 보은집회(報恩會集)와 경성집회(京城會集) : 해월 선생이 접조직을 배로 강화하였을 때 무안에서는 배규인이 접주로 활동하다.

◇ 원문

同年(1892년)十二月에 各地 道人들은 다시 忠淸道 報恩 帳內里(海月 先生 住在所)에 會集하여 書를 政府에 致하여 強硬한 辭意로써 質問을하고 翌年 癸巳(1893) 二月에 道人이 다시 京城에 會集하니 其數數萬에 達하였더라 會集한 本意는 朝廷과 一場激論을 이르게 左右를 決코저함에 잇더라. 이제 司謁이 王命을 大衆에 傳하니 曰你等은 各歸安業하라 當所願에 依하여施 하리라하였더라. -중략- (1893년 3월) 道人들은 할 수 업시 다시 報恩에 모이여 善後의 策을 講究하더니 -중략- 이제 海月 先生은 道衆들을 團束하기 爲하여 接組織하기를 倍나 더 힘을 썼다 -중략- 古阜에 宋柱玉 全琫準이오 金堤에 金奉年 黃敬三이오 -중략- 務安에 裴圭仁이오 任實에 李龍舉 李炳春이오. -하략-

③ 『취어(聚語)』 선무사 어윤중의 장계 등을 모음 : 4월 3일 무안접 80여 명이 보은집회에 참석하고 돌아가다.

◇ 원문 해석

남면(南面) 원암(元巖)의 장리들이 기록하여 보고한 내용에는 이 달 초 3일(1893년 4월 3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학의 무리들로 돌아간 사람들은 전라도 한 도에서 빠진 고을이 거의 없어 이를 합하면 5,600여 명이 됩니다. -중략- 전라도에는 장수접(長水接)이 230여 명, 영암접(靈巖接)이 40여 명, 나주접(羅州接)이 70여 명, 무안접(務安接)이 80여 명, 순천접(順天接)이 50여 명이고, 영남에는 하동접(河東接)이 50여 명, 상주접이 20여 명, 선산접이 60여 명, 김산접(金山接)이 18명, 진주접(晉州接)이 60여 명, 인동접(仁同接)이 4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 해설

1893년에 다시 보은에 동학교도들을 집결시키고 왕조정부에 정치개혁과 외세배격을 요구한 집회가 다시 열렸다. 음력 3월 11일(4월 26일)부터 음력 4월 2일(5월 17일)까지 충청북도 보은군 장내리에 수만 명의 동학교도들을 집결시켜서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의 깃발 아래 대대적인 집회를 열었다. 『취어(聚語)』에 의하면 전국에서 동학교도들이 장내리에 몰려왔는데, 조정에서는 선무사로 어윤중(魚允中)을 보내서 해산을 종용하는 한편 청주병영의 병대를 파견하는 등 강력히 압박하여 집결한 동학교도들을 해산시켰다. 이런 동학운동과 관련하여 1893년 3월에 해월 선생은 모인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접조직을 배로 강화하였는데, 당시 무안에서는 배규인이 접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이어 3월 30일 무렵에는 전라도에서 56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이중 무안접에서는 80여 명이 참석하였다가 4월 2일에 해산하여 귀향하였다.

2) 반봉건 1차 봉기 시기(1894.1~1894.8)

(1) 개요

○ 동학의 조직은 전봉준의 신문서(訊問書)에서 알 수 있다. 법헌(장로= 교주, 최시형) 아래 접주, 접사가 있는데 이들은 영술의 호칭이자 지휘자이다. 접사는 접주가 지휘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접주는 다 동학도이나 그 나머지는 충의로 참여한 자이다. 접주 접사 이외에 교장, 교수, 집강, 도집, 대정, 중정 등 6종이 있었다. 하는 일은 교장, 교수는 우민을 교도하는 자이고, 도집은 풍력 있고 기강에 밝아 경계를 알아야 하고, 집강은 시비에 밝아 기강을 잡고, 대정은 공평을 갖고 삼가 후원하며, 중정은 직언, 강직하고 말하는데 능해야 한다.

○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이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3월 20일 무장에서 고부 백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러자 태인, 무장, 금구, 부안, 고창, 흥덕 등의 접주들이 각기 병력을 이끌고 전봉준이 있는 고부군 백산으로 모였다. 그 수는 1만 명에 가까웠으며, 전봉준은 그곳에서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을 선포하는데 살인금지, 보국안민, 척왜양창의, 제폭구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관리들의 탐학에 시달리던 인근 각처의 동학군과 농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앞을 다투어 백산으로 모여들었다. 무안에서는 15인(裴圭仁, 裴圭贊, 宋寬浩, 朴洪雲, 鄭敬澤, 朴淵教, 魯榮學, 魯允夏, 朴仁和, 宋斗玉, 金行魯, 李敏弘, 林春景, 李東根, 金應文)이 다수의 동학도 인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백산에 모여든 동학농민군은 4월 7일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퇴하고 불과 한 달 만에 호남 일대를 휩쓸었다.

○ 1894년 4월 7일 동학군들은 황토현 전투이후 경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하하였다. 흥덕, 고창을 거쳐 반은 영광에 머물고, 반은 함평을 거쳐 무안에는 17일 동학군 7~8천명이 읍내면에 이르렀다. 이들의 반은 말을 타고, 반은 걸었으며, 갑옷을 입고, 죽창과 칼을 들었다. 이들은 하루를 머문 뒤 4월 18일 나주로 향하다가 함평으로 발길을 돌려 4월 19일에 함평에 도착하였다.

○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홍계훈(洪啓薰)이 양호초토사에 임명되어 장위영과 강화영 병력을 이끌고 4월 5일 군산을 거쳐 7일에 전주에 도착하였다. 또 『양호초토등록』 4월 17일자에 의하면, 서울에서 파견한 군함이 목포항에 정박한다고 하였으나 무안지역은 동학이 성하여 목포에 정박하지 않고 4월 19일 강화도 심영의 군사들을 실은 군함은 부안의 곰소와 군산에 정박하였다. 4월 22일에는 경군의 일부인 이학승 부대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군이 장성 황룡촌에서 접전하여 동학군이 승리하였다. 이때 동학군의 숫자는 4천 명이라 하였으니 장성에 이르러서는 동학군 상당수가 귀향하였거나 타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룡촌 전투 승리로 동학의 세력은 급속히 확산되어 4월 말에 전라도에 12포가 설치되었다. 큰 포는 1만 명, 작은 포는 600~700명이었다. 하지만 나주읍성과 운봉읍성은 동학의 세력권에 들어오지 않았다.

○ 『백석서독(白石書牘)』에서 이중필(李重弼=重益)은 1894년 4월 경에 무안군수로 전임하였다. 무안의 객사에서 아내가 사망한 사실과 동학군에 모욕을 당하고 빼앗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1894년 5월 7일 전봉준과 농민군은 전주를 점령하고 정부와 화약을 맺었다. 정부와 농민군은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여 대개혁을 실천하고, 전라도 지방의 개혁 사무를 담당할 자치 기구인 집강소의 설치와 동학군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 실시가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5월 8일 동학군은 전주에서 철수하였고, 정부군도 16일 서울로 돌아갔다. 해산한 동학농민군은 무기를 손에 든 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집강소 같은 자치 기구를 만들어 폐정 개혁에 나섰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도 시작되었다. 1894년 6월, 해남지역의 대규모 동학도의 활동과 그 경비의 관민 공동 부담 내력 그리고 7월 말에는 동학군이 침입하여 전라우수영의 무기를 탈취하였다. 연해읍성에서도 무기탈취가 이루어졌는데, 무안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목포진의 경우는 6월에 이미 무기 탈취되었으며, 다정진이나 임치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12월 목포진의 군사들이 대월리에서 되찾은 무기는 목포진에서 빼앗긴 양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서 알 수 있다.

○ 1894년 8월 1일 이규태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당시 무장의 손화중과 무안의 배상옥의 세력이 매우 컸음을 알려주고 있다. 동학군 몇 만을 이끌어 거괴로, 전봉준의 2배 김개남의 5배가 되며, 무안의 동학이 심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2) 주요 일지(궁서체는 무안 일지)

1894.01.10 전봉준이 고부 농민군 1천여 명으로 고부 관아 점령

1894.03.20 남집 농민군, 무장에서 전면 기포 (1차 봉기)

1894.03.25 백산에 호남창의대장소 설치(남집 농민군 8천여명) - 총대장 전봉준, 총관령 손화중·김개남 추대 - 격문(檄文)과 4대 명의(名義), 12개조 기율 선포

1894.03.25 백산집회 시 다수 영술(접주)하고 온 무안지역 참여자는 15명

1894.04.07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 격파 후 정읍 관아 점령

* 양호초토사 홍계훈의 경군(京軍) 전주성 입성

1894.04.08 ~ 16 전라도 서남해안(홍덕·무장·영광·함평) 점령

1894.4. 중순~ 무안현 등 29개소 무기 탈취

1894.04.17 무안 삼내면(읍내면)에 동학도 7~8천명이 내려와 하루 머물렀다 함평으로 감

1894.04.17 무렵: 일본군은 무안과 가까운 목포는 경영(관군) 배의 정박은 위험하나 법성포는 양호하다고 보고함

1894.04.23 장성 황룡촌에서 경군과 1차 접전,

1894.04.27 호남의 수부(首府) 전주성 입성

1894.04.28 무렵 전라도 12포에 도소 설치

1894.05.01 ~ 03 전주성에서 경군과 2차·3차 접전,

1894.05.04 청국군(淸國軍) 아산만 상륙

1894.05.06 일본군 인천항 상륙

1894.05.07 남집 농민군, 경군과 전주 화약(和約) 체결, 전라도 53군현 집강소 설치 및 농민군 해산 합의

1894.05.07 화약 이후 집강소 나주, 운봉을 제외하고 모두 설치

1894. 6월의 해남: 동학도 4700명의 체류 경비를 관에서도 부담

1894. 6월 목포진 등 무기 탈취(배상옥)

1894.06.21 일본군 조선 경복궁 침입

1894.06.27 청국군과 일본군, 성환에서 교전

1894.07.01 일본군, 청·일전쟁 선전 포고

1894.07.06 전봉준과 순변사 김학진 간에 전주회담 개최, 전라도 군·현 집강소 전면적 설치,
전주성내 전라좌우도 대도소 설치

1894.07.26 조·일공수동맹조약(朝·日攻守同盟條約) 체결

1894. 7월 말 무렵, 배상옥 세력은 몇 만 명에 이르러서 전봉준과 김개남의 2~5배

1894. 7월 5일 나주성 서문 전투

1894.06월말 ~ 08월말 전라·경상·충청도 각지 봉기

1894.08.17 일본군, 청(2만여명) : 일(1만여명)간 평양전투 승리

(3) 무안동학 원전사료

① 全奉準 再招問目(제2차 심문과 진술) 乙未 二月 十一日(서기 1895년 2월 11일,陰)

◇ 원문 및 해석

▽ 問 네가 기포할 때 거느린 바는 모두가 동학인가? 汝起包時所率 皆是東學取

→ 供 소위 접주는 다 동학이나 그 나머지 술하는 충의의 사로써 일컬은 자가 많았다.
所謂接主 皆是東學 其餘率下 稱以忠義之士居多

▽ 問 접주사란 어떤 명색인가? 接主司何名色

→ 供 영솔의 호칭이다. 領率之稱

▽ 問 그런즉 기포시에는 군기 군량을 조관하는 자인가? 然則起包時 軍器?軍糧 措辦者取

→ 供 무슨 일에 있어서나 다 지휘한다. 凡於事皆爲指揮者也

▽ 問 접주와 접사는 본래부터 있었는가? 接主 接司 自本來有取

→ 供 이미 전부터 본래 있었으나 기포시에는 혹 창설한 것도 있다. 既往固有 而起包時或有創設

▽ 問 동학중 영솔명색이 접주 접사뿐인가? 東學中領率名色 接主接司而已乎

→ 供 접주, 접사 이외 교장, 교수, 집강,도집, 대정, 중정 등 6종이 있다. 接主 接司之外
有敎長, 敎授, 執綱, 都執, 大正, 中正 等 六種矣

▽ 問 소위 접주라 하는 사람은 평상시는 어떤 일을 하는가? 所謂接主者 平居時行 何事乎

→ 供 별로 행하는 일이 없다. 別無以行之事

▽ 問 소위 법헌이란 어떤 직책인가? 所謂法軒何職責 (*법헌=교주)

→ 供 직책이 아니라 장로의 별호이다. 非職責 而乃長老別號

▽ 問 이상의 여섯 직책은 각각 어떤 일을 하는가? 以下六種之稱 行何事乎

→ 供 교장 교수는 우민을 교도하는 자이고, 도집은 풍력있고 기강에 밝아 경계를 알아야

하고, 집장은 시비에 밝아 기강을 잡고, 대정은 공평을 갖고 삼가 후원하며, 중정은 직언 강직을 말하는데 능해야 한다. 敎長敎授則敎導愚民者 都執則有風力?明紀綱知 經界 執綱則明是非 執紀綱 大正則持公平 謹厚員 中正 能直言剛直云矣

▽ 問 접주와 접사는 같은 직책인가? 接主接司則同職責乎

→ 供 접사는 접주가 지휘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接司聽行接主指揮者也

▽ 問 이상 많은 명색은 누가 차출을 하는 것이냐? 以上許多名色 誰差出乎

→ 供 법현으로부터 교도가 많고 적은 것을 보아 차례로 차출한다. 自法軒視敎徒多少策次差出矣

◇ 해설

전봉준의 심문에서 알 수 있는 동학의 조직이다. 법현(장로= 교주, 최시형) 아래 접주, 접사가 있는데 이들은 영술의 호칭이자 지휘자이다. 접사는 접주가 지휘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접주는 다 동학도이나 그 나머지는 충의로 참여한 자이다. 접주 접사 이외에 교장, 교수, 집장, 도집, 대정, 중정 등 6종이 있었다. 하는 일은 교장, 교수는 우민을 교도하는 자이고, 도집은 풍력 있고 기강에 밝아 경계를 알아야 하고, 집장은 시비에 밝아 기강을 잡고, 대정은 공평을 갖고 삼가 후원하며, 중정은 직언, 강직하고 말하는데 능해야 한다.

② 오지영 『東學史(草稿本) 三』 檄文 : 백산 집회에 다수의 도인을 영술하고 무안에서 15명이 참석하다.

◇ 원문

甲午 正月 十七日 湖南倡義所 在古阜白山 -중략-

義軍이 古阜城을 陷落한 後 白山에 도라와 陣을 치고 再度의 檄文을 發한 後로 湖南一帶는勿論이오 全朝鮮 江山이 古阜 白山을 中心으로 하고 흔들흔들 하엿섯다. 當時 白山에 모여든 사람은 누구누구나 中心人物로는 全琫準, 孫和中, 金開南, 金德明, 崔景善 等 五人이잇섯다. 다섯사람 中에도 孫和中 金開南(名箕範) 金德明 等 세 사람은 全羅一道에 最高頭領格으로 잇든사람들이엇고 崔景善 全琫準 二人은 其次頭領으로 잇섯든 사람이엇섯다 **또 多數한 道人을 領率하고 온 사람으로는 이리하다.** 高敞에 林亨老, 林天瑞, 吳時泳, 吳河泳, 洪樂觀, 洪桂觀, 等이 茂長에 宋敬贊, 宋文洙, 宋鎮浩, 張斗一, 姜敬重 等이오, 古阜에 鄭一瑞 金道三, 洪景三, 鄭宗赫, 宋大和, 宋柱玉, 鄭德源, 鄭允集, 田東人, 洪光杓, 朱寬一, 朱文相, 尹尙弘 等이오 興德에 高永叔이오 靈光에 吳正運, 崔時澈 等이오 井邑에 孫如玉, 車致九, 林正學 等이오 -중략- 務安에 裴圭仁, 裴圭贊, 宋寬浩, **朴洪雲**, 鄭敬澤, 朴淵敎, 魯榮學, 魯允夏, 朴仁和, 宋斗玉, 金行魯, 李敏弘, 林春景, 李東根, 金應文 等이오 - 중략- 白山天地는 人山人海로 數萬群衆의 包圍 中에 잇서 정말 白山이란 地名이 어울엿섯다.

◇ 해설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이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3월 20일 무장에서 고부 백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러자 태인, 무장, 금구, 부안, 고창, 흥덕 등의 접주들이 각기 병력을 이끌고 전봉준이 있는 고부군 백산으로 모였다. 그 수는 1만 명에 가까웠으며, 전봉준은 그곳

에서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을 선포하는데, 살인금지, 보국안민, 척왜양창의, 제폭구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관리들의 탐학에 시달리던 인근 각처의 동학군과 농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앞을 다투어 백산으로 모여들었다. 무안에서는 15인(裴圭仁, 裴圭贊, 宋寬浩, 朴洪雲, 鄭敬澤, 朴淵教, 魯榮學, 魯允夏, 朴仁和, 宋斗玉, 金行魯, 李敏弘, 林春景, 李東根, 金應文)이 다수의 동학도인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백산에 모여든 동학농민군은 4월 7일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퇴하고 사기충천한 동학군은 불과 한 달 만에 호남 일대를 휩쓸었다.

③ 『백석서독(白石書牘)』 권14 : ‘선산(善山) 김봉수(金鳳洙)에게 편지를 한다’

◇ 원문 및 해석

乎呵呵東擾雖曰大同無前狂氛何以堪過耶弟之所遭尤被其 酷東避西隱室人昨年三月二十九
奄逝于務安客館 六十年偕老之餘未得面訣半千遠程艱辛返柩葬于親山傍麓懇悼之懷居窮之傷
去益甚焉而其他見辱見奪何足盡提付之一笑耳

동요(東擾)의 전에 없는 광분(狂氛)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제(무안현감 이중빈)가 겪은 것은 더욱 참혹합니다. 이곳저곳으로 피신하였다가 아내는 작년(1894년) 3월 29일에 갑자기 무안(務安)의 객관(客館)에서 죽었습니다. 60년을 해로한 뒤에 직접 영결(永訣)하지 못하고 500리의 먼 길을 간신히 운구(運柩)하여 선친의 옆 산기슭에 묻었습니다. 비통한 마음과 외로움에 처한 상처는 갈수록 심합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모욕을 당하고 빼앗긴 것을 어찌 모두 들어 말하겠습니까? 한 번 웃는 것에 부칠 뿐입니다.

◇ 해설

『백석서독(白石書牘)』은 이용목(李容穆 1826~?)의 편지를 모은 책이다. 이용목은 서울 출생이다. 아들 이중필(李重弼=重益)은 보은군수, 무안군수를 역임했다. 1894년 4월경에 무안군수로 전임하였으므로 당시 무안 사정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데, 1894년 3월 29일 무안의 객사에서 아내가 사망한 사실과 동학군에 모욕을 당하고 빼앗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④-1 조의곤(趙毅坤) 『갑오사기』: 동학도와 정부군의 이동, 황룡전투, 4월 말 도소의 설치와 그 규모에 대하여 설명함.

◇ 원문 해석

4월 5일 다시 고부 천치(天峙: 고창의 덕정 당촌과 정읍 부안면 사이의 있는 고개)에 모였는데 본도(本道) 감사(監司)가 본영(本營)의 군대를 보내 그들을 물리치고는 이에 각 벼슬아치들로 하여금 성을 지키고 적들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이때 적의 기세가 바야흐로 성하였다.

4월 8일 본 읍성(邑城)을 도륙하였다. 다음 날 무장읍(茂長邑)을 도륙하고 인가를 불사르며 노략질하는 것이 더욱 심하였다. 이때 왕사(王師, 경군)의 행차가 이웃 경계에 있다

는 소문을 듣고 여항(閭巷)의 잔민들은 두려워하며 병사를 모으고 산길로 가서 노숙하는 자들이 꽤나 많았다.

4월 10일: 적병(賊兵)이 영광(靈光)에서 함평(咸平)으로 내려와 머물렀다.

4월 15일: 초토사(招討使) 홍재희(洪在禧, 禧는 羲의 오기)가 경군(京兵) 3,000 명을 이끌고 과연 본읍(本邑: 고창)에 와서 머물러 진을 쳤다. 다음 날 무장에서 영광으로 와서 묵고 곧바로 함평에 도착하자 적병(동학군)은 벌써 나주에서 장성의 황룡강에 이르러 월평(月坪)에 주둔하였다. 다음 날 경병대관(京兵隊官) 선전(宣傳) 이학승(李學承)이 기병(騎兵) 200명(전봉준 판결문에는 경군은 7백명이고, 동학군은 4천여 명)을 이끌고 뒤쫓아 신촌(莘村)에 진을 치고 맞붙어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하여 학승은 전사하였으니 이날은 바로 4월 22일이다. 적의 사망자도 매우 많았다. 적들은 군대가 후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오합지졸들이 각자 제 살기를 도모하여 밤낮을 따지지 않고 이험(夷險) 평탄함과 험준함(險峻)을 가리지 않으며 노령(蘆嶺, 갈재)에서 다시 정읍에 모였다가 며칠이 되지 않아 완성(完城)을 함락시키고 그곳을 근거지로 삼았다. 감사는 달아나고 도성(都城)은 잃어버려 적의 기세가 더욱 떨쳐졌다. 집들은 불타고 남녀 사상자는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

4월 28일 초토사 홍재희가 군사를 되돌려 본읍(고창)에 이르러 머물렀다. 다음 날 흥덕(興德)으로부터 와서 정읍에서 묵었다. 세 번째날 전주(全州) 인근에 도착하여 용두현(龍頭峴)에 진을 쳤다. 이때 평양(平壤)의 군대 500명이 합병하자 기세가 크게 떨쳐졌다(오류). 서로 몇 과녁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적들은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다음 날 순식간에 맞붙어 크게 적진을 깨부수자 적들은 되돌아가 성문을 굳게 닫고서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강화를 요청하자 초토사는 무릇 백성들이 무고하게 전쟁의 피해를 보는 것을 애처롭게 여기고 임금으로부터 또 고유문(告諭文)이 있는 터라 그들의 요청을 들어 주었다. 적들은 이에 흠어들고 초토사는 본영에 병기를 남겨둔 채 군대를 돌려 북으로 올라갔다. 이로부터 적들은 포박한 것을 함부로 자행하여 각 고을에 도소(都所: 전라도 각 고을에 집강소를 차리고 농민통치를 단행한 사실을 말하는데, 그 규모에 따라 도소, 대도소라 불렀다.)를 크게 설치하였으니 모두 12포(包)였다. 큰 포는 1만 명, 작은 포는 600~700명이었다. 적들이 이르는 열읍(列邑)은 그들의 소문만 듣고도 달아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도 굳게 지키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직 나주(羅州)와 운봉(雲峯) 두 고을만은 끝내 잃지 않았다.

④-2 『임하유고(林下遺稿)』 1894년 4월[四月] : 4월 초 동학도와 정부군의 대치상황과 이동을 설명하다.

◇ 원문 및 해석

四月初四日入扶安監司金文鉉以李昆陽爲領官昆陽者借衙也率監營兵隊三百人募列邑閑丁及負商白丁輩萬餘名追至白山留陣東學輩逃避而走與營軍相遇於古阜黃土峙

4월 4일 감영군이 부안(扶安)으로 들어가니 감사 김문현이 이곤양(李昆陽)을 영관(領官)으로 삼았는데, 곤양은 차함(借衙)이다. 감영(監營)의 병대 300명과 열읍(列邑)의 한정(閑丁)·부상(負商)·백정(白丁) 등 1만여 명을 이끌고 뒤쫓아 백산에 이르자 머물러 진을

치고 있던 동학의 무리들이 달아나다 고부의 황토치(黃土峙)에서 영군(營軍)과 만났다.

初七日曉營軍敗績李昆陽見殺死者數百人盡奪軍器直向全州府一省之力更無可爲之勢以電報告急於朝朝廷以洪在喜拜招討使率京軍一千五百名到全州留陣東學走靈光務安咸平而羅州守城而甚堅不敢入招討使到靈光邑遣京軍三十人偵探東學去處與東學全軍遇長城華龍市京軍以大砲殺東學數百人京軍七名中丸而死還歸本陣東學由長城更向全州

4월 7일 새벽에 동학군이 이곤양의 영군을 패배시키고 죽인 사람이 수 백 명이나 되었다. 군기(軍器)를 모두 빼앗고 곧장 전주부(全州府)로 향했지만 한 성(省)의 힘만으로는 다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급히 전보를 보내 조정에 알리자 홍재희(洪在喜=洪啓薰, 喜는 義의 오기)를 초토사(招討使)로 임명하였다. 홍계훈이 경군(京軍) 1,500명을 이끌고 전주에 도착하자 진을 치고 머물러 있던 동학도(東學徒)가 영광(靈光)·무안(務安)·합평(咸平)으로 달아났지만 나주(羅州)에서는 매우 견고하게 성을 지키고 있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초토사가 뒤이어 영광읍에 도착해서 경군 30명을 보내 동학의 거처를 정탐하게 하였다. 동학의 전군(全軍)과 장성(長城) 화룡시(華龍市)에서 만나 경군이 대포를 쏘아 수 백 명의 동학들을 죽이고 경군은 7명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 경군이 본진으로 돌아오자 동학도는 장성을 경유하여 다시 전주로 향하였다.

④-3 『양호초토등록』 1894년(甲午) 4월 17일 : 법성 첨사와 무안 현감에게 전령함, 한양의 정부군이 목포항에 도착하면 그 뒷바라지를 법성첨사와 무안현감에게 당부함.

◇ 원문 및 해석

『兩湖招討謄錄』 甲午四月十七日 傳令 法聖僉使務安縣監

爲星火舉行事京營兵艦似於日間來泊木浦矣支供等節各項差備着意舉行為旣另定鄉導官二員所向何邑善爲指導無或疎忽生梗之弊到泊形止先即馳報向事

신속하게 거행할 일이다. 경영(京營)의 군함이 며칠 안에 목포항에 와서 정박할 듯하다. 그들을 뒷바라지 하는 일과 각 항의 준비를 착실하게 마음을 먹고 거행할 것이며 특별히 향도관 2사람을 정하여 어느 읍으로 향하든지 잘 지도하여 혹 소홀히 하여 지장을 생기게 하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한다. 군함이 도착하여 정박한 전말을 먼저 보고 하라.

④-4 『양호전기(兩湖電記)』 1894년 4월 17일 계해 : 관찰사가 동학도의 현황과 대책을 정부에 보고함.

◇ 원문 및 해석

完伯電于政府曰偵探彼徒情迹則一邊留在靈光一邊將 向咸平地云而京軍倍道追往于彼住將擬接今曉又發二隊兵倍道前進 電報于政府曰彼徒半留靈光半向咸平務安等地云日前派二隊兵今曉又送二隊兵次次連進後援 伏計 自本營使道宅來電曰出住將兵衣次木一疋式 上下事有教答曰木一疋式上下伏幸今日又派二隊前進 次次後援伏計 又電 公事廳曰彼徒一邊留靈光一邊向務安咸平地云今日又派二隊前進更探知後援伏計 華人丁得鵬爲探情形昨日抵完出駐將兵木一疋上下事一一曉諭昨達未承回電伏苑至今仔細消息聞之則皆爲平安爲旣 一行俱得無頃萬幸

萬幸 更報于 公事廳曰各邑報 狀因探吏之告而所謂探吏畏彼不敢近不過塗說不可深信別遣從事人員散四廣探變服流乞樣周行幾日今日戌時入來詳問彼之情形則十三四兩日夜或六七十名或四五十名持銃槍劍歷走興德向扶安留駐靈光者日益添付收聚藁草以沙土補築城堞只開南門運糧積置勢漸猖狂云

완백(관찰사)이 정부에 전보하기를, “저들 무리의 정적을 정탐하니 **한편은 영광에 머물러 있고 한편은 함평(咸平)으로 향한다고 하니 경군이 길을 재촉하여 저들이 머문 곳으로 쫓아가 장차 접전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2개 부대의 병력을 출발시켜 길을 재촉하여 전진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정부에 전보하기를, “저들이 받은 영광에 머물고 받은 함평, 무안(務安) 등지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일전에 2개 부대의 병력을 파견하고 오늘 새벽에 2개 부대의 병력을 보내어 차차 연속 전진하고 후원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였다. 본영의 사또덕으로부터 온 전보에 이르기를, “외지에 나가 머물고 있는 장병의 옷감으로 쓸 무명[木] 1필씩을 내려주라는 전교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답전하기를, “무명 1필씩 내려주시니 다행한 일이며 오늘 또 2개 부대를 파견하여 전진하게 하고 차차 후원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공사청에 전보하기를, “저들이 **한편으로는 영광에 머물고 한편으로는 무안·함평 등지로 향한다고 하니 오늘 또 2개 부대를 파견하여 전진하게 하였으며 다시 정적을 탐지한 뒤에 후원할 계획입니다.**

공사청에 다시 보고하기를, “-전략- 별도로 종사인(從事人, 특정한 일을 보는 심부름꾼)을 사방으로 보내어 널리 정탐하게 하였고, 길인의 모양으로 복장을 변복하여 며칠을 두루 다니게 하였습니다. 오늘 술시 경에 염탐꾼이 들어왔기에, 자세히 저들의 형상을 물으니 (4월) 13·14 양일 밤에 혹 6·70명씩 혹 4·50명씩 총과 창·칼을 가지고 흥덕을 지나 부안으로 향하고 영광에 주둔한 자가 날마다 더욱 늘어나 짚을 모아 사토(沙土)를 섞어서 성첩을 쌓고 남문만을 열어 군량을 운반하여 쌓아두니 그 기세가 점점 성대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④-5 『東學黨ニ關スル彙報』 陰 四月二十一日(我 五月二十五日) 全羅道監司電報 : 무안읍에 도착한 동학도 동태를 알 수 있는 일본군의 회보

◇ 원문

即見靈光十七日所報、即東徒數千名不知何處來向、直入郡中、沖火於軍器庫、戶藉亦爲燒火、破碎官門、而當日還去、不知何處、又接 務安所報、則本縣 三內面(邑內面?) 東徒 七八千名、半騎半步、身被甲冑、各執長槍大刀、十八日 留駐一夜後、往向羅州云。

④-6 『東學黨ニ關スル彙報』 第六七七八號 음력 1894년 4월 23일 (양, 1894년 5월 27일)

◇ 원문

又接務安所報。則本縣 三內面(邑內面?) 東徒 七八千名 半騎半步 身被甲冑 各執長鎗大刀 十八日留住一夜後 向往羅州云

④-7 『萬朝報』 明治 27年(1894) 6月 7日(양력)

◇ 원문

- 務安に在る黨人 本縣 三內面(邑內面?)に在る 東學の徒七八千名 半は馬に騎り半は徒步なるが身には孰も甲冑を被むり手に亦長槍大刀を取り 陰十八日 一夜留宿の後 羅州路指して進發せりと

- 黨軍三所の根據 東學黨今や三所に分れ前軍は靈光に據り中陣は咸平に駐り面して後軍は務安の地を守り 三所奇角聲援をなして旌旗百里の間に翻翻たりと

- 全羅西海岸の動靜 全羅西海岸を航して歸仁したる或る海員に就て彼地の動靜を聞くに左の如し

海岸線騷亂地の南部 務安地方は相變らず賊勢猛烈の由にて務安の西南五里許を距る木浦の如きは危險の患ひ大に之れあり船舶を碇繫すること能はず北方法聖に向へり

④-8 『戰亂日記』 (九) 京軍と東軍との概勢 : 음력 4월 중순 무렵, 동학군과 경군의 움직임을 설명함.

◇ 원문

曩に發したる招討軍なるものは其本旨按撫するにあるを以て敢て戰を好まず只完營近傍に屯集するものを遠卷にして追拂ふのみたまたま戰ひしことあるも巡羅又は斥候などの途に偶然と出遇たるまゝ發したる小せりあひのみ 是まで互に勝敗ありしは監司との戰のみなりと知るべし而して一局部一個所の勝敗によらず大體より考ふれば以て兩軍の大勢を窺ふを得べし抑も今回の戰の起りは古阜にありて東徒は暫く此地を根據として其近傍なる金頃 萬頃 金講 泰仁等の間に出没せしが招討軍の一隊全州を出で 井邑に進むに及び東學軍は茂長に退ぞきたり 次第に官兵そのあとを追ふ 而して靈光に至り東軍三分し一は靈光に止り一は咸平に一は務安に引揚たり 招討軍尙追擊せしが五月廿二日(음력 4월 18=양력 5월 22) (배이름)顯益 海龍に乗じて仁川を發したる紅華の軍隊木浦より(금소)上陸して敵の前路に出づ招討軍その尾を收む而て夾擊せんとする略なりしか東軍早くも之を察し三分屯營の兵を合し長驅して羅州を越え長城に入る 東徒分三股、一駐靈光、一駐務安、一駐咸平、互相犄角聲援、

◇ 이상 ④의 자료들에 대한 해설

1894년 4월 7일 동학군들은 황토현 전투이후 경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하하였다. 흥덕, 고창을 거쳐 반은 영광에 머물고, 반은 함평과 무안으로 이동하였다가 4월 19일 함평에 머무르고 있었다. 당시의 상황을 아래의 자료들이 말하여 주고 있다. 무안에는 동학군 7~8천명이 읍내면에 이르렀다. 이들의 반은 말을 타고, 반은 걸었으며, 갑옷을 입고, 죽

창과 칼을 들었다. 이들은 하루를 머문 뒤 4월 18일 나주로 향하다가 함평으로 발길을 돌려 4월 19일에 함평에 도착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홍계훈(洪啓薰)이 양호초토사에 임명되어 장위영과 강화영 병력을 이끌고 4월 5일 군산을 거쳐 7일에 전주에 도착하였다. 또 『**양호초토등록**』 4월 17일자에 의하면, 서울에서 파견한 군함이 목포항에 정박한다고 하였으나 무안지역은 동학이 성하여 목포에 정박하지 않고 4월 19일 강화도 심영의 군사들을 실은 군함은 부안의 곰소와 군산에 정박하였다. 4월 22일에는 경군의 일부인 이학승 부대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군이 장성 황룡촌에서 접전하여 동학군이 승리하였다. 이때 동학군의 숫자는 4천 명이라 하였으니 장성에 이르러서는 동학군 상당수가 귀향하였거나 타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룡촌 전투 승리로 동학의 세력은 급속히 확산되어 4월 말에 전라도에 12포가 설치되었다. 큰 포는 1만 명, 작은 포는 600~700명이었다. 하지만 나주읍성과 운봉읍성은 동학의 세력권에 들어오지 않았다.

⑤-1 『도인경과내력(道人經過來歷)』(해남현 이방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문서) : 해남읍 동학도가 머무르고 이에 대한 경비의 내력을 쓰다.

◇ 원문 해석

이번 1894년 6월 12일에 동학(東學, 동학군) 20명이, 6월 17일에 2,000여명이, 6월 23일에 30여명이, 6월 29일에 60여명이, 7월 3일에 240여명이, 7월 8일에 200여명이, 7월 16일에 2,200여명이 지나갔다. 전후에 걸쳐 지나간 사람은 4,700여 명이다. 그들이 들어올 때에 각각 창과 총 및 칼을 가지고 포를 쏘며 성(城)에 들어왔다. 그 기세가 위협적이고 두려워서 인민(人民)이 소란스러웠다. 음식접대는 주(州)의 각 집과 시장가의 술집에서 차례를 나누어 하였다. 배소(配所, 유배지)의 윤 병사(尹 兵使: 尹敦夏 1863~? 백포마을)택에서 낸 돈 4,300냥 중에서 1,110냥은 민간에 주었고, 500냥은 노령(奴令)과 각 관아의 노비 및 고인(鼓人, 북을 치는 사람) 등에게 주었다. 접대비용 6,000여 냥 중에서 1,000냥은 관아에서 담당하였고, 나머지는 집강소(執綱所)에서 각 면(面)의 요호(饒戶: 넉넉한 집)에게 배정하였다. 조총 25자루, 천보총(千步銃) 6자루, 환도(環刀) 3자루, 화약(火藥) 5두(五斗), 연환(鉛丸, 납으로 된 총알) 1,000개를 위협하여 빼앗아 갔다. 도인(道人)이 지나가면서 그것에 소용된 비용은 모두 6,482냥 9전 4푼이다. 119냥 5전은 윤 병사택의 쌀값으로, 72냥 6전은 이방(吏房) 집의 접대비용으로 계산하고 남은 돈은 6,290냥 8전이다. 이 돈 중에 관아에서 1,000냥, 기 감역(奇監役, 감역은 벼슬이름)이 1,000냥, 손 감역(孫監役)이 300냥, 장한익(張漢益)이 300냥, 양재연(梁在淵)이 300냥, 양상택(梁相宅)이 300냥, 양 감역(梁監役)이 300냥, 노창석(盧昌錫)이 300냥, 윤경수(尹京洙)가 300냥, 신덕보(辛德甫)가 160냥, 퇴기(退妓)인 연보(蓮甫)가 160냥, 박연수(朴連洙)가 160냥, 정 감역(鄭 監役)이 160냥, 정태삼(鄭台三)이 160냥, 안정희(安正熙)가 160냥, 김석전(金錫?)이 160냥, 박월봉(朴月峰)이 160냥, 윤우삼(尹右三)이 160냥, 민중범(閔仲凡)이 160냥, 전택진(全澤辰)이 160냥, 구장훈(具章勳)이 160냥을 내었다. 이번 16일에 도인(道人) 2,000여명에게 든 비용은 아직 구별하지 못하였다.

⑤-2 『계초존안(啓草存案)』 1894년 7월 30일 : 동학군이 우수영을 침입하여 무기를 탈취하다

◇ 원문 및 해석 해석

甲午七月三十日

啓曰卽見全羅右水使李圭桓狀本 啓下者則東徒數千名不意 入城打破軍器庫所存軍器一一搜去將校所帶環刀及民戶什物沒數奪去至於公錢見奪之境云矣近日匪類之出沒沿邑掠奪軍器在在有之各地方官竝由道帥臣 啓請拿問而豈料水營重地不能先事備禦任其搶掠而莫之禁乎揆以戎政極爲駭然 判付內既有勿待罪之 命而未可以事出不意全然參怨該水使姑先從重推考仍令嚴飭所屬邑鎮該匪徒刻期緝捕先斬後 啓所失軍器等

아뢰기를, “계하(啓下)된 전라 우수사(全羅 右水使) 이규환(李圭桓)의 장본(狀本)을 지금 보니, ‘동도(東徒) 수천 명이 갑자기 성에 들어와서 군기고(軍器庫)를 부수고, 비축해둔 무기를 일일이 찾아 갔으며, 장교들이 차고 있던 환도(還刀)와 백성들의 집기도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는 공전(公錢)도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 일에 비류(匪類)들이 연해의 고을에 출몰하여 무기를 약탈하는 사건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관들에 대해서는 모두 관찰사와 병사(兵使)·수사(水使)의 계청(啓請)에 따라 잡아들여 문초하겠지만, 어찌 수영(水營)과 같은 중요한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저들이 약탈하도록 내버려두고 금지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였겠습니까? 군정(軍政)으로 헤아려볼 때 매우 놀랍습니다.

◇ 이상 ⑤의 자료들에 대한 해설

: 1894년 5월 7일 전봉준과 농민군은 전주를 점령하고 정부와 화약을 맺었다. 정부와 농민군은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여 대개혁을 실천하고, 전라도 지방의 개혁 사무를 담당할 자치 기구인 집강소의 설치와 동학군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 실시가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5월 8일 동학군은 전주에서 철수하였고, 정부군도 16일 서울로 돌아갔다. 해산한 동학농민군은 무기를 손에 든 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집강소, 도소 같은 자치 기구를 만들어 폐정 개혁에 나섰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도 시작되었다. 이제 신분제와 지주제에 바탕을 두고 농민을 수탈하던 낡은 체제가 무너지고, 농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새 세상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다.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이 경북 궁궐을 점령하여 개화 정권을 세우고(1894. 6. 21.) 조선에 있던 청군을 몰아낸 뒤(1894. 8. 17.) 농민군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아래의 자료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1894년 6월, 해남지역의 대규모 동학도의 활동과 그 경비의 관민 공동 부담 내력 그리고 7월 말에는 동학군이 침입하여 전라우수영의 무기가 탈취되었다. 연해읍성에도 무기탈취가 이루어졌는데, 무안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목포진의 경우는 6월에 이미 무기 탈취되었으며, 다정진 이나 임치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12월 목포진의 군사들이 대월리에서 되찾은 무기는 목포진에서 빼앗긴 양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서 알 수 있다.

⑥ 1894년 8월 1일 이규태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

◇ 원문 및 해석

初四日領率各隊無事仍留於長城是乎旅派送兵丁於潭陽府之由已爲馳報爲乎在果昨日酉時量隊官吳昌成自潭陽府與日本大尉還陣而該府則倡起義兵防守邑底淳昌義兵亦爲來援故匪類輩已於京兵抵過前逃散是乎所住宿後還陣是乎遣隊官申昌熙爲其勦捕匪魁姑爲分駐是如是乎旅他邑所報別無他警是乎緣由云云

初五日我父領率名隊無弊經宿於長城府是乎旅井邑匪類巨魁孫德秀卽孫賊化中之族也自邑民捉納而有龍大旗一面及手旗一面是乎所竝與孫化中棍杖手丁及本府鵝谷捉納巨魁李吳三漢昨日午時量大會軍民於獨定不待時梟警是乎遣昨日申時量隊官申昌熙自潭陽府還陣是乎所潭陽接主兩漢捉來而自日陣捉囚姑未決折是乎遣當日午時量因日本大尉知委兵丁二十名派送興德縣是乎遣三十名與日兵二十人派送高敞縣是乎遣兩隊所餘兵丁及日兵丁則使領官容鎮隊官申昌熙吳昌成領率與日本大尉森尾雅一合兵進發于靈光社倉五十里地是乎旅先鋒領率巡撫各色及兵丁三十名仍留長城邑緣由云云

(7월)4일에 각 부대를 인솔하여 무사히 장성(長城)에 머물렀고, 담양(潭陽) 관아에 병사를 보낸 연유는 이미 치보(馳報, 급히 보고하다)하였습니다. 어제 유시(酉時, 오후 5시~7시) 쯤에 대관(隊官) 오창성(吳昌成)이 담양 관아에서 일본군 대위와 함께 진중에 돌아왔는데, 해당 관아는 의병이 일어나서 읍내를 지키고 순창(淳昌)의 의병도 구원을 하러 왔기 때문에 비류들이 경병(京兵)이 도착하기 전에 흩어졌으므로 가서 묵은 뒤에 진중에 돌아왔으나 대관 신창희(申昌熙)는 비괴(匪魁)를 토벌하기 위해 우선 나누어 주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읍의 보고는 별다른 변경이 없기에 그 연유를 《아닙니다.》

5일에 나의 아버지가 각 부대를 인솔하여 폐단이 없이 장성 관아에서 묵었습니다. 정읍(井邑)의 비류들의 거괴(巨魁) 손덕수(孫德秀)는 바로 손화중(孫化中)의 친족인데 읍민(邑民)이 잡아 바쳤고, 용(龍)을 그린 큰 깃발과 수기(手旗)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손화중과 곤장(棍杖)치는 사람인 정(丁)과 본부(本府) 아곡(鵝谷)에서 잡아서 바친 거괴 이(李)와 오(吳) 3명과 함께 어제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 쯤에 독정(獨定)에서 크게 군민(軍民)을 모으고 때를 기다리지 않고 효수(梟首)하여 경계를 하였습니다. 어제 신시(申時, 오후 3시~5시) 쯤에 대관 신창희가 담양 관아에서 진중에 돌아왔는데, 담양 접주 2명을 잡아왔으나 일본군 진영에서 잡아가두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날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쯤에 일본군 대위의 지시 때문에 병사 20명을 흥덕현(興德縣)에 파견하였고, 30명은 일본군 20명과 함께 고창현(高敞縣)에 보냈습니다. 부대 2곳에 남은 병사와 일본군은 영관(領官) 장용진(張容鎭)과 대관(隊官) 신창희·오창성으로 하여금 인솔하게 하여 일본군 대위 모리오 마사이치(森尾雅一)와 합세해서 영광(靈光)의 사창(社倉) 50리 되는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선봉진은 순무영의 각색(各色)과 병사 30명을 인솔하여 장성읍에 그대로 머무르고 그 연유를 《아닙니다.》

目今府內匪類類各有接接主卽其魁也而或有大小之別全瑋準金開南卽所謂渠魁而尤有大於此者茂長孫化中務安之裴相玉各擁包衆至於屢萬之多較之於全金當以倍蓰論第以全金則惡名喧藉京鄉至有入燭於朝家故必以此兩漢謂之以魁而若論其巨魁則當以孫裴爲拇指其次如崔敬善吳權

善李士明南應三李邦彦等屢十輩皆全金一類而罪惡陷(滔)天則與之無間焉而歷數各邑指不勝擣而以尤甚言之則茂長靈光光州潭陽長興務安咸平同福興陽扶安長城古阜等邑當爲大窟穴

지금 부내(府內, 장성)의 비류는 각자 접이 있고 접주(接主)가 바로 우두머리입니다. 크고 작은 구별이 있는데, 전봉준(全琫準)과 김개남(金介男)은 바로 거괴(渠魁)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보다 큰 자는 무장(茂長)의 손화중(孫化中)과 무안(務安)의 배상옥(裴相玉)입니다. 각각 포(包)의 무리를 이끌어서 많게는 몇 만명에 이르러서 전(全, 전봉준)과 김(金, 김개남)에 비교하면 2배와 5배에 해당됩니다. 다만 전봉준과 김개남은 그 악명이 서울과 지방에 퍼져서 조정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이 2명을 거괴라고 하지만 만약에 거괴를 말한다면 손(孫, 손화중)과 배(裴, 배상옥)를 가리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최경선(崔敬善)·오권선(吳權善)·이사명(李士明)·남응삼(南應三)·이방언(李邦彦) 등 몇 십명인데 모두 전봉준과 김개남과 같은 부류로 죄악이 하늘에 넘쳐나서 그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각 읍을 두루 세어도 손가락으로 이루 셀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읍을 말한다면, 무장(茂長)·영광(靈光)·광주(光州)·담양(潭陽)·무안(務安)·함평(咸平)·동복(同福)·흥양(興陽)·부안(扶安)·장성(長城)·고부(古阜) 등의 읍이 큰 소굴이 될 것입니다.

統而言之則無邑不窟穴設使全金被獲其外巨魁殆可斗量顧今勦除之會不得不一一殲魁然後可以望妥息 -중략- 昨又探咸平則彼徒聲言起包姑無動靜云第其閃忽形跡雖難質度而京軍壓臨近境招討軍又方起動云則彼以烏合之賊必無暇起包更聚故爲先以長興專力待事了後又以咸務爲用力而如有力不贍之歎則又當仰通冀有以京軍救後接應計矣諒下焉 -하략- 八月初吉子白是

통틀어 말한다면 소굴이 아닌 읍이 없습니다. 설령 전봉준과 김개남이 잡혔더라도 그 밖의 거괴(巨魁)가 거의 말로 셀 정도로 많은데 지금 그들을 토벌할 때에 일일이 거괴를 모두 없앤 뒤에야 편안하게 쉬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중략- 어제 다시 탐문을 해보니, 함평은 저들이 기포(起包)한다고 큰소리를 쳤으나 아직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형적이 비록 예상하기 어렵더라도 경군(京軍)이 경계 가까이에서 압박을 하고 초토군(招討軍)도 지금 출동했다고 하니 오합지졸(烏合之卒)과 같은 저 적들이 반드시 기포하여 다시 모일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흥에 온 힘을 다하고 일이 끝나는 것을 기다린 뒤에 다시 함평과 무안에 힘을 쏟다가 힘이 넉넉하지 않으면, 또한 통보를 할 터이니 경군으로 구원하고 뒤에서 호응할 계획입니다.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략- 8월 1일 자식 올림.

◇ 해설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 잡록[雜錄]은 좌선봉장(先鋒將) 이규태(李圭泰)의 묘지명(墓誌銘)[李承旭 撰(이승욱 찬)]과 그 아들 이종익(李鍾翊)의 1896년(建陽 元) 호적(戶籍)과 1894년 10월, 11월 동학농민군 토벌 기간 중의 이규태(李圭泰)와 각 부대 지휘관, 친지(親知) 및 가정 사이에 왕복한 사신(私信)을 수록한 자료로 개인사 관련 기록이다. 이 중 8월 1일 이규태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당시 무장의 손화중과 무안의 배상옥의 세력이 매우 컸음을 알려주고 있다. 동학군 몇 만을 이끌어 거괴로, 전봉준의 2배 김개남의 5배가 되며, 무안의 동학이 심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3) 반왜양 2차 봉기 시기(1894.9~1894.11)

(1) 개요

○ 일본군의 침략으로 인하여 동학농민군은 9월 재봉기 하였다. 이후의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은 반봉건 운동에서 반외세운동으로 급격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근대적인 민족의식의 대두와 아울러 저항의식도 높아져 가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은 ‘진멸왜이(盡滅倭夷)’를 실천하기 위하여 재 기병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남 53주의 집강소에서 봉기하였다. 이때 무안에서는 배규인(裴圭仁=배상옥)이 2000군을 거느리고 무안읍에 진을 쳤다. 이로 보아 집강소는 무안읍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894년 10월에 이르러 법헌은 손병희로 하여금 각 포를 통솔케 하였다. 이때 모두 73읍 314명이 기포하였는데, 이때 무안에서는 15인의 접주가 기포에 참여하였다.

○ 1894년 10월, 해남 백포에 사는 윤종호(尹鍾浩)의 산송(山訟)관계 통문은 농민군의 남호도소(南湖道所)에서 문제 시정을 촉구하는 문서다. 집강소 시기 군현 단위로 집강소를 조직했으나 지역에 따라 특별 기구를 두기도 했는데 이중 하나가 남호도소이다. 전라 남쪽지역에서는 배상옥이 대접주가 되어 집강소 업무를 지휘했는데 이 조직으로 추정되고 있다.

○ 1894년 9월에 이르러 이전에 동학군에 무기를 탈취당한 전라 29개 읍치수령과 진장의 처벌에 관한 처리 상황을 적고 있는데, 무안 현감 이중익이 포함되어 있다. 인근 지역과 같이 4월중에 무기탈취가 있었을 것이다.

○ 1894년 10월 12일 전봉준은 직계 일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삼례를 출발하여 북상했다. 그는 강경과 논산을 들르며 군수품을 확보하고 모병을 하여 군세를 늘렸다. 최종 목표인 한양을 향하여 북상 길에 올랐다. 공주 인근 우금치에 이르렀고 11월 9일부터 관군과 동학군들의 격돌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러한 북상길에 손화중과 최경선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전봉준은 이들은 일본군이 바다로 온다는 말을 듣고 전라도 해안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안지역의 동학군도 해안방어를 위하여 북상길에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나주를 비롯한 인근의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주평적비 : 나주목사 민종렬은 처음 1894년 9월 29일 호남소모사로 임명된 뒤 이어 10월 28일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로 임명되어 이 지역 토벌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이후 관련된 6차례 전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무안(務安)에서 접전 : 무안접주 배상옥과 함평접주 이화진이 지휘하는 농민군이 연합해 목포, 함평 등지를 공격했는데 나주 영병(수성군)이 출동해 접전을 벌였다.
- ② 서문에서 전투 : 7월 5일 광주에 주둔해 있던 최경선과 나주접주 오권선은 집강소 기간, 나주 관아를 점령키 위해 나주농민군을 모아 나주 서문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실패했다.

- ③ 사창(社倉) 전투 : 남쪽 농민군은 장성 사창을 공격해 저장한 곡식을 수거했고
연이어 고막리로 나와 11월 11일 나주수성군과 접전을 벌였다.
- ④ 용진산(聳珍山) 전투 : 용진산은 광주와 나주 사이에 있는 산. 이곳에서 11월 10일
접전을 벌여 일진일퇴했으나 끝내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은
패주했다.
- ⑤ 고막(古幕) 전투 : 고막포(현재 함평 학교면)는 나주 외곽 30여리 지점에 있는
작은 포구다. 배상옥이 이끄는 농민군은 11월 18일 이곳에
이르러 나주수성군과 전투를 벌였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
- ⑥ 남산(南山) 전투 : 광주에 후퇴해 있던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은 수만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11월 23일과 24일 사이, 나주 금암면
남산촌에 집결해서 나주관아 북문을 공격해 여러 차례
공방전을 벌인 끝에 후퇴했다.

○ 『난파유고(蘭坡遺稿)』의 ‘초토사가 군공을 보고하는 별지’와 ‘갑오토평일기’에도 위
에서 요약한 나주 인근 6차례 전투가 기록되어 전하는데, 특히 ‘갑오토평일기’에 자세하
다. 고막포 전투에서 동학군은 5만, 6만이고, 진압군은 3000명이 동원되어 규모로 보아서
는 동학 전체의 전투 중에서 최대급이다. 여기에서 우두머리는 배상옥이다.

(2) 주요 일지(중서체는 무안 일지)

- 1894.09.07 김개남, 대원군의 밀지 접수
- 1894.09.08 남접 농민군 지도자 전봉준·김개남, 금구 원평에서 남접 농민군 2차 기포결정과
삼례 집결 통문
- 1894.09.18 동학 교주 최시형(68세) 무력봉기 선언
- 1894.09. 중순: 무안현 등 29개소 무기 탈취**
- 1894.09. 20무렵 무안 배상옥 이르면 대월리에 남호도소 설치**
- 1894.09월초 ~ 11월초 경기·강원·충청·경상·황해도 일대에서 농민군과 경군·일본 연합군과 전투
- 1893.10.02 우수영에 일본 군함 정박 확인**
- 1893.10.09 ~ 15 일본군 진압대대 인천항 상륙, 충청·전라·경상도로 진격
- 1893.10.12 전봉준 휘하의 남접 농민군, 삼례에서 논산 도착
- 1893.10.15 손병희 휘하의 북접 농민군, 논산 도착, 합류
- 1893.10.21 남·북접 농민군이 연합, 논산에서 공주로 진격
- 1894.11.08 공주 우금치로 남·북접 농민군과 경군·일본군 집결
- 1894.11.09 우금치 전투에서 남·북접 농민군(2만여 명) 패퇴
- 1894.11.11 고평에서 경군의 기습공격으로 노성으로 후퇴
- 1894.11.13 김개남 농민군(5천여 명), 청주 공격 실패 후 공주로 패퇴
- 1894.11.14~19 남북접 농민군, 노성·논산서 일본군과 접전 후 강경(김개남 합류)을 지나 전주로 패퇴
- 1894.10.21 광주 침산전투**

1894.11.10 용진산 전투,

1894.11.16~18,21 고막포 전투- 무안 거괴(배상옥), 함평 연합,

1894.11. 23, 24 나주 남산전투(손화중, 최경선, 오권선)

1894.11. 모일에 함평의 동학 박준상은 해제로 고부부민 황경여의 도조를 받으러 갔다가
접주 최문빈의 방해로 실패함

1894.11.23 경군·일본 연합군 전주성 장악

1894.11.25 ~ 27 원평·태인 전투 패배로 전봉준 휘하의 농민군 해산

(3) 무안동학 원전사료

① 오지영 『東學史(草稿本)』 권三, 再度舉義

◇ 원문

甲午 秋에 이르러 政府에서는 다시 東學黨을 치자는 議論이 盛行하였다 江華 兵丁 幾千名과 平壤兵丁 幾千名을 募集하여가지고 또 忠淸道 素砂成歡間에서 淸兵과 싸워 勝勢를 얻은 日兵 幾千名과 勢를 合하여 東學黨 討伐에 主力한다는 消息이 世上에 喧藉하였다. 이 所聞을 들은 湖南執綱所에서는 다시 軍을 이르켜 對敵하자는 議論이 成立되어 即時 軍令을 發하여 湖南 五十三州에 次第로 起兵할새 崔大鳳 姜守漢 等은 五千軍을 거나리고 全州府에 陣을치고 林天瑞 林亨老 等은 五千軍을 거나리고 高敞邑에 陣을치고 崔景善은 七千軍을 거나리고 泰仁邑에 陣을치고 金開南은 一 萬軍을 거나리고 南原府에 陣을치고 金鳳得은 五千軍을 거나리고 金溝邑에 陣을치고, 劉漢弼은 千軍을 거나리고 咸悅 黃登山에 陣을 치고, 宋敬贊宋文洙 等은 七千軍을거나리고 茂長邑에 陣을치고, 吳河泳 吳時泳 等은 八千軍을 거나리고靈光邑에 陣을치고 金奉年 黃敬三 等은 四千軍을 거나리고 金堤邑에 陣을치고, 鄭一瑞 金道三 等은 六千軍을 거나리고 古阜邑에 陣을치고 孫如玉은 五千軍을 거나리고 井邑邑에 陣을 치고 宋喜玉은 五千軍을 거나리고 參禮驛에 陣을치고, 吳東吳는 一千五百軍을 거나리고 淳昌邑에 陣을치고, 宋泰燮은 七千軍을 거나리고 坪市에 陣을치고, 李邦彦은 五千軍을 거나리고 長興邑에 陣을치고, 金炳泰는 三千軍을 거나리고 海南邑에 陣을치고, 裴圭仁은 二千軍을 거나리고 務安邑에 陣을치고, 奇宇善은 三千軍을 거나리고 長城邑에 陣을치고, 吳勸善은 三千軍을 거나리고 羅州邑에 陣을치고, 이화진은 二千軍을 거나리고 咸平邑에 陣을치고, 高永叔은 二千軍을 거나리고 興德邑에 陣을 치고, 姜敬重은 三千軍을 거나리고 靑松驛에 陣을 치고, 朴陽은 五千軍을 거나리고 順天邑에 陣을치고, 柳希道는 三千軍을 거나리고 興陽邑에 陣을 치고 文章은 三千軍을 거나리고 寶城邑에 陣을치고, 是은 四千軍을 거나리고 光州邑에 陣을 치고, 李龍舉 李炳用 等은 三千軍을 가[거]나리고 任實邑에 陣을 치고, 金重革은三千軍을 거나리고 潭陽邑에 陣을치고, 孫和中 金德明 等이 摠指揮가 되고 全瑋準이 大將이 되며 全羅一道의 大軍을 摠히 領率하고 全州城에 雄據하니 此時義風은 다시 大振하야霜雪같은 威儀는 湖南五十三州 江山을 흔들고 남은 바람이 震動하야 左便으로 嶺南一帶와 後面으로 湖西一方에 波及이 되엇었다.

◇ 해설

일본군의 침략으로 인하여 동학농민군은 9월 재봉기 하였다. 이후의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은 반봉건 운동에서 반외세운동으로 급격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근대적인 민족의식의 대두와 아울러 저항의식도 높아져 가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은 ‘진멸왜이(盡滅倭夷)’를 실천하기 위하여 재기병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남 53주의 집강소에서 봉기하였다. 이때 무안에서는 배규인(裴圭仁)이 2000 군을 거느리고 무안읍에 진을 쳤다.

② 조의곤(趙毅坤) 『갑오사기』 : 2차 봉기 당시의 현황을 설명하다

◇ 원문 해석

6월부터 9~10월까지 형벌로 억누르고 살육을 더하면서 군기(兵器)를 빼앗고 곡식을 탈취하는 등 말류(末流)의 폐단까지 하지 않는 것이 없자 일대가 소연(蕭然: 행하고 적적함)하여 사람들은 살고 싶은 의지가 없어 모두 왕사(王師)의 군대가 출정하기를 마치 큰가뭄에 구름을 기다리는 듯하였다. 이 때 전명숙(전봉준)은 이미 전주에서 군기를 탈취하고 북으로 올라가 금강(錦江)에 주둔하고, 김기범(金箕範: 김개남)은 남원에 모여 15일을 주둔하면서 남원부사와 장흥부사를 죽이고(오류), 이어서 북으로 올라가 모든 포(包)를 합하여 공주에 모아자, 본영의 병정(兵丁)이 출격하여 크게 쳐부수었다. 이때 조정에서 출병하라는 명령이 있어 신정희(申正禧,禧는 熙의 오기)를 도원수(都元帥)로 삼고, 이규태(李圭台, 台는 泰의 오기)·이두황(李斗璜)을 좌우 선봉으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전명숙과 접전하여 크게 쳐부수었다. 신원수(申元帥)가 공주에 머물고, 좌우 선봉은 승기(勝氣)를 타고 달아나는 적을 뒤쫓아 나란히 정읍의 천원(川原)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곱 번 싸워 일곱 번 이기면서 추격하자 전명숙은 노령을 넘어 사거리에 이르렀다. 전명숙은 밤을 틔타 달아나고 왕사는 이미 장성부(長城府)로 들어가 진을 치고 머물렀다. 왕사의 한 부대는 흥덕에서 고창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때 나주목사 민종렬이 초토사로 굳게 본성(本城)을 지켰는데 적을 막아낸 방법과 적을 토벌한 꾀는 일찍이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매일 죽인 적이 적어서 20 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적에게 욕을 당한 것이 자못 여러 번 이었다. 이때 손화중·최경선(崔景先, 先은 善의 오기)·홍낙관(洪洛觀, 觀은 寬의 오기)·오중문(吳仲文, 仲文은 勸善의 자)등이 금성(錦城)을 도륙하고 각 포(包)의 흩어진 무리들을 수습하여 장성의 황룡(黃龍), 나주의 북창(北窓) 등지에 모여 적의 기세가 크게 떨쳐졌다. 그 사이 민생은 도탄에 빠져 아녀자들은 울부짖고 통곡을 하니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 해설

아래는 2차 봉기 시의 현황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 “남원부사와 장흥부사(長興府使)를 죽이고”에서 김개남은 남원에 49일을 머물렀다고 했고 남원부사와 장흥부사를 죽인 사실은 없으니 오류이다. 장흥부사 박현양은 장흥전투에서 시기 죽었다. 그리고 “나주의 북창(北窓) 등지”는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 그리고 무안의 배상옥이 이끈 농민군은 1894년 11월 나주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사실을 말한다.

③ 『天道敎書』 「第二編 海月神師」

◇ 원문

九月十八日 道人慘殺의 報를聞하시고 將次 天陞에따? 코저하사 通諭文으로 各包道人을 招集하시니 各處道人이 靑山丈席에 來詣한者 十餘萬人이라 時에 竹山府使 李斗璜이 京兵千餘人을 率하고 三南 大討伐을 하다. 徐丙鶴은 本히道 人으로써 被捉하였다가 其時 捕將兼都巡撫使申正熙에게 反付하여 偵探을 密行하여 敎徒를捕하다. (1894) 十月에 神師, 各 包 道人을 引見하시고 孫秉熙로 하여금 各 包를 統率 케 하시다 是時 前後 起包한 人을 計할진대, - 中략- 務安은 裴圭仁、裴圭贊、宋寬浩、**朴琪雲**、鄭敬澤、朴淵敎、魯榮學、魯允夏、朴仁和、宋斗玉、全行魯、李敏弘、林春景、李東根、金應文 등이다. -計七三邑 三一四人-

◇ 해설: 1894년 10월에 이르러 법헌은 손병희로 하여금 각 포를 통솔케하였다는 내용이다. 모두 73읍 314명이 기포하였는데, 이때 무안에서는 15인의 접주가 기포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다.

④ 『도인경과내력(道人經過來歷) 등 文件』 1894년 10월 10일 ‘백포(白浦) 윤감역(尹監役)에게(白浦 尹監役座下) : 남호도소에서 해남 백포의 윤감역에게 보낸 통지문

◇ 원문 및 해석

白浦 尹監役 座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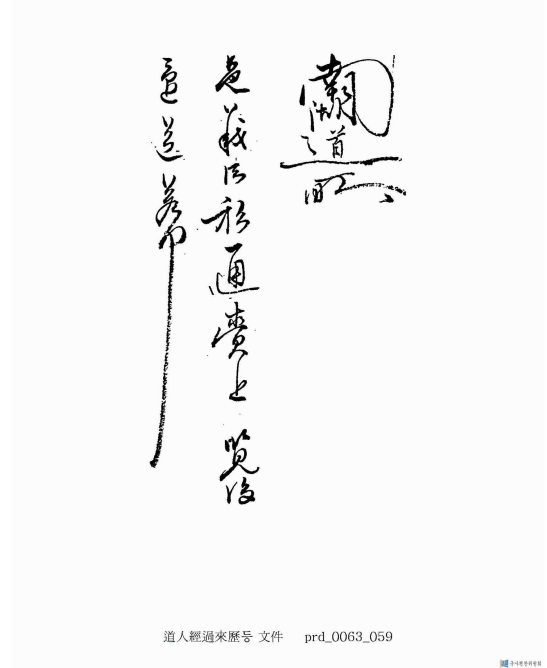
卽者邑都義所私通內比谷葛山吳接長先山迫近之地自宅內勒葬之後鳴冤於營邑既有得題終不掘移爲其子孫豈無冤抑之心乎自貴接諸會掘出回通之地亦爲置其在奉行之地卽當卽日掘移之不暇而卽聞吳接長言則以今十二日自掘之意有所牢約云貴宅與鄙 接其有慕愛之誼豈無一番許限之理哉第待限日玆以仰通右期日內期於掘移更無致煩爲乎矣若又過限不掘則雖云相愛之間承兼辭舉行之地諸會掘出斷不可已以此諒燭無彼此悔及之至千萬幸甚 右敬通 尹監役 座下 甲午十月初十日 南湖道所 邑義所私通齋上 覽後 還送若何

지금 읍(邑; 해남)의 의소(義所: 도소) 사통(私通)에, “비곡(比谷) 갈산(葛山)의 오접장(吳接長) 선산(先山) 가까운 곳에 덕(宅)에서 함부로 매장하여, 영읍(營邑)에 억울함을 하소연하여 이미 처분을 받았으나, <덕에서> 끝내 파내어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손이 어찌 억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귀접(貴接)에서 모두 모여 파내라는 회답 통지문이 있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받들어 실행하는 처지에서 바로 파서 옮길 겨를이 없었으나, 지금 오접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 달 12일에 스스로 파서 옮기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귀택은 우리 접과 존경하고 아끼는 교분(交分)이 있는데, 어찌 한번 기한을 허락해줄 리가 없겠습니까? 다만 기한을 기다려서 이에 통보하오니, 기일내에 파내어 옮겨서 다시는 번거로운데 이르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다시 기한을 어기고 파내지 않으면, 서로 친애하는 사이라고 해도 사소한 말도 받들어 거행하는 처지에서 모두 모여 파내고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헤아려서 서로 후회하는데 이르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삼가 윤감역에게 통지합니다.

갑오년 10월 10일 남호도소(南湖道所)

◇ 해설

아래의 문건은 해남 백포에 사는 감역의 명함을 지닌 윤중호(尹鍾浩)의 산송(山訟)관계 통문으로, 농민군의 남호도소(南湖道所)에서 그 시정을 촉구하는 문서이다. 집강소 시기 군현 단위로 집강소를 조직했으나 지역에 따라 남호도소와 같은 특별 기구를 두기도 했다. 전라 남쪽지역에서는 배상옥이 대접주가 되어 집강소 업무를 지휘했는데 이 조직으로 추정되고 있다.



⑤ 『계초존안』 음력 1894년 9월 17일 (양, 1894년 10월 15일)

◇ 원문 및 해석

啓曰即伏見全羅監司金鶴鎮狀本 啓下者羅州營將李源佑特爲仍任事令廟堂 稟處爲辭矣該營將當匪徒?攘之時與牧使同心堅守孤城獨全遽爾遞仕軍民惜去依狀請特爲仍任以責終始之效何如蒙允當日承批

아뢰기를, “계하된 전라 감사 김학진의 장본을 지금 보니, ‘나주 영장(羅州 營將) 이원우(李源佑)를 특별히 유임시키도록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나주 영장은 비도들이 소란을 피우던 시기에 목사와 마음을 하나로 하여 굳게 지켜 외로운 성을 홀로 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임(遞任)되니 군인과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계의 요청대로 특별히 유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완결 짓는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啓曰湖南匪徒在在作梗軍器見失前後邑宰鎮將之道 啓請勘爲二十九人之多矣當時苟能嚴束防禦則豈有是理國綱掃地寧欲無言事當一一如法拿勘而全省擾攘此時各邑鎮之勘處間曠務極爲可悶任實縣監閔忠植臨陂縣令宋淳嫻同福縣監俞致誠務安縣監李重益玉果縣監洪祐爽興陽縣監曹始永益山郡守鄭元成和順縣監閔泳爽龍安縣監閔進鎬法聖僉使權寅夏格浦僉使柳特令戴罪舉行右水使李圭桓前已問備今姑置之何如蒙允當日承批

아뢰기를, “호남의 비도들(동학군)이 곳곳에서 행패를 부려서 전후로 무기를 잃어버린 수령과 진장(鎭將)으로서, 관찰사의 계사에서 처벌을 요청한 자가 29명이나 됩니다. 평소에 엄히 단속하고 방어하였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생겨났겠습니까? 나라의 기강이 해이

해져서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일이 잡아다가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도(道) 전체가 소란스러운 이때에 처벌하는 동안 각 고을과 진(鎭)의 업무가 방치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임실 현감(任實 縣監) 민충식(閔忠植)·임피 현령(臨陂 縣令) 송순혁(宋淳赫)·동복 현감(同福 縣監) 유치성(兪致誠)·무안 현감(務安 縣監) 이중익(李重益)·옥과 현감(玉果 縣監) 홍우석(洪祐奭)·홍양 현감(興陽 縣監) 조시영(曹始永)·익산 군수(益山 郡守) 정원성(鄭元成)·화순 현감(和順 縣監) 민영식(閔泳奭)·용안 현감(龍安 縣監) 민진호(閔進鎬)·법성 첨사(法聖 僉使) 권인하(權寅夏)·격포 첨사(格浦 僉使) 유협(柳) 등은 특별히 죄를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하고,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해남) 이규환(李圭桓)은 전에 이미 문비(問備: 관리의 죄상을 관원 명부에 적어 두었다가 인사 행정에 반영하기에 앞서 심문하던 일)하였으므로, 지금은 잠시 두고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희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 해설: 1894년 9월에 이르러 이전에 동학군에 무기를 탈취당한 전라 29개 읍치수령과 진장의 처벌에 관한 처리 상황을 적고 있는데, 무안 현감 이중익이 포함되어 있다.

⑥ 『임하유고』 1894년 10월 2일

◇ 원문 해석

나주(羅州: 군도) 경계에 이르니 떠 있는 많은 섬들이 점점 멀어지고 해문(海門)과 평평하게 펼쳐진 바다와 열읍(列邑)의 산들이 차례대로 드러나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으로 돌아보면서 붓을 적서 기록할 만한 것이 많았다. 뱃사공들은 문자에 어두워 잘못된 말이 많아 모두 기록할 수가 없었다. (우)수영(水營) 앞바다에 이르자 성첩(城堞)이 산에 의지해 있고 나무들은 하늘에 맞닿아 있으며 민가는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은은하게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이때 왜선(倭船) 한 척이 바다에 정박을 하고 있어 배의 화려한 형상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니 좁던 입구가 더 좁아져 여울이 급히 흐르고 눈처럼 물결을 흘날리고 바람도 없는데 배가 흔들려 사람들은 모두 공경하고 조심하였으니 하늘이 베풀어놓은 위험이라고 할 만하였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이곳에서 왜적을 섬멸하고 공을 세웠다고 한다. 벽파정(碧波亭) 앞 바다에 정박을 하고 묵었다. 밤 조수에 배를 출발하였다.

◇ 해설

『임하유고』는 扶安 儒生 金邦善(1843~1901)이 서술한 일기로 아래 내용은 동학난 시 부안 염소포를 출발하여 제주로 가는 피난길 중 우수영 등에서 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우수영에 일본군함이 정박하여 있다는 점이다.

⑦ 全琿準 初招問目(제1차 심문과 진술)開國 五白四年 二月初九日(陰 1895년 2월 9일)
: 10월 공주 우금치 전투 참여 상황에 관한 질문

◇ 해석 및 원문

問 손화중, 최경선은 그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나? 孫化中, 崔慶善 其時無相關乎

供 그 두 사람은 광주(光州)일이 긴급하였으므로 오지 못하였다. 此二人以光州事緊急 未及來也

問 손(孫)?최(崔) 양인은 광주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孫 崔兩人 再光州行何事乎?

供 이 두 사람은 즉시 공주로 향하였다가 일병이 바다로 온다는 말을 듣고 안(海岸)을 막아 광주(光州)를 지키도록 하였다. 此二人 即時向公州 聞日兵來自各路 使之海防 故但固守光州

◇ 해설

1894년 10월 12일 전봉준은 직계 일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삼례를 출발하여 북상했다. 그는 강경과 논산을 들르며 군수품을 확보하고 모병을 하여 군세를 늘렸다. 최종 목표인 한양을 향하여 북상 길에 올랐다. 공주 인근 우금치에 이르렀고 11월 9일부터 관군과 동학군들의 격돌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러한 북상길에 손화중과 최경선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전봉준은 이들은 일병이 바다로 온다는 말을 듣고 전라도 해안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안지역의 동학군도 해안방어를 위하여 북상길에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나주를 비롯한 인근의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⑧ 나주평적비[羅州平賊碑]

◇ 원문 해석

금상(今上) 갑오년(甲午年, 1894)에 호서와 호남에서 일어난 적이 사설(邪說)과 주문(呪文)으로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협하였다. -중략-

나주의 목사는 바로 민종렬(閔種烈) 공(公)으로 유학을 공부하였는데, 나주에 와서 향약(鄉約)으로 인솔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위기를 보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알게 하여 정도를 지지하고 사도를 없애는 것을 의로 삼았다. -중략- 처음에 공(公)이 계획을 세워 성을 지킬 때에 영장(營將) 이원우(李源佑)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기무(機務)를 처리하고, 진영의 병사를 내어 뒤에서 후원하여 공적을 이루었다. -중략- 이 때에 나주의 선비들도 의병을 일으켜 안팎에서 도울 계획을 세웠다. 유기연(柳紀淵)·민주식(閔周植)·유병식(柳秉植)·박훈양(朴薰陽)·임노규(林魯圭)·오석환(吳碩煥)·나사집(羅史集)·임병한(林秉翰)·정재형(鄭在衡)·나도현(羅燾鉉)·이기우(李淇宇)가 바로 그 두령(頭領)으로 다른 읍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성을 지키는 병사의 사기가 날로 쌓여 1명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모두 한번 싸우기를 바랐다.

무안(務安)에서 적(敵)을 만나 여춘(汝春)이 죽음을 당했고, 두 번째는 서문에서 승리하여 경선(敬善)이 밤에 도망을 갔으며, 세 번째는 사창(社倉)에서 이겨 그 소굴을 태워 없앴고, 네 번째는 용진산(聳珍山)에서 이겨 오권선(吳權善)이 겨우 죽음을 모면하였다. 다섯 번째는 고막(古幕)에서 승리하였는데, 패배하여 죽은 시체가 들판을 메웠다. 여섯 번째는 남산(南山)에서 이겨 적이 멀리서 보고 저절로 무너졌다. 공(公)은 군대를 낼 때에 늘 많이 죽이는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에, 적이 도망을 가면 그만두고 끝까지 추격하려고

하지 않았다. 위협에 따른 사람은 귀화를 시키고 무기와 깃발을 마침내 빼앗으니 적도 사기가 떨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었다.(賊于務安汝春授首再捷于西門敬善夜遁三捷于社倉燒蕩巢穴四捷于聳珍權善身免五捷于古幕敗死盈野六捷于南山望風自潰 軍出常戒其多殺故逃竄則止不爲窮追計脅從歸化械仗卒獲賊亦氣索無更舉力)

◇ 해설

나주평적비(羅州平賊碑)는 현재 나주 금성관 동쪽에 있고, 별칭 「나주토평비(羅州討平碑)」라고도 한다. 나주토평비는 나주목사 민종렬과 수성군의 활동을 적어 나주 관아에 세웠다. 비문은 『松沙集』 권25에 실려 있으며, 장성의 유림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 지었다. 기우만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뒤 이 일대 유림의 수장으로 많은 관계 문건을 남겼다. 이 비문은 「錦城平義錄 乙編」에도 수록되어 있다.

나주목사 민종렬은 처음 1894년 9월 29일 호남소모사로 임명된 뒤 이어 10월 28일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로 임명되어 이 지역 토벌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이후 관련된 6차례 전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무안(務安)에서 접전 : 무안접주 배상옥과 함평접주 이화진이 지휘하는 농민군이 연합해 목포, 함평 등지를 공격했는데 나주 영병(수성군)이 출동해 접전을 벌였다.
2. 서문에서 전투 : 7월 5일 광주에 주둔해 있던 최경선과 나주접주 오권선은 집강소 기간, 나주 관아를 점령키 위해 나주농민군을 모아 나주 서문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실패했다.
3. 사창(社倉) 전투 : 남쪽 농민군은 장성 사창을 공격해 저장한 곡식을 수거했고 연이어 고막리로 나와 11월 11일 나주수성군과 접전을 벌였다.
4. 용진산(聳珍山) 전투 : 용진산은 광주와 나주 사이에 있는 산. 이곳에서 11월 10일 접전을 벌여 일진일퇴했으나 끝내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은 패주했다.
5. 고막(古幕) 전투 : 고막포(현재 함평 학교면)는 나주 외곽 30여리 지점에 있는 작은 포구다. 배상옥이 이끄는 농민군은 11월 18일 이곳에 이르러 나주수성군과 전투를 벌였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
6. 남산(南山) 전투 : 광주에 후퇴해 있던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은 수만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11월 23일과 24일 사이, 나주 금암면 남산촌에 집결해서 나주관아 북문을 공격해 여러 차례 공방전을 벌인 끝에 후퇴했다.

⑨-1 『난파유고(蘭坡遺稿)』 권3 부록 초토사가 군공을 보고하는 별지[招討使報軍功別紙]

◇ 해석 및 원문

지난 갑오년에 동도가 창궐하여 여러 고을을 남김없이 분탕질했을 때 나주의 정태완(鄭台完)은 분노가 치미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재물과 의기(義氣)를 내어 아전 및 백성과

협력해서 성지(城池)를 사수하였다. (昨年甲午東徒猖獗列邑蕩殘無餘之際羅州鄭台完不勝忿激出財出義協同吏民十朔死守城池)

7월 5일에 적도(賊徒) 수만 명이 바로 서문(西門)을 침범하여 성세(聲勢)가 매우 위급하였는데, 정태완은 아전과 백성을 엄중히 단속하여 항오(行伍, 대오)를 나누고 화살과 돌을 피하지 않으며 한바탕 크게 싸움을 하여 적도 100여 명을 사로잡았고 노획한 군기는 셀 수가 없었다. (七月初五日賊徒數萬名直犯西門聲勢甚危急鄭台完嚴束吏民分定行伍不避矢石大戰一場捕捉賊徒百餘名所獲軍器無數)

10월 21일에 광주(光州) 침산(砧山)의 적도가 거괴(巨魁) 손화중(孫化中)과 연계하여 10,000여 명을 이끌고 곧 나주를 도륙(屠戮)할 것이라고 하였다. 날마다 위급한 소식을 보내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놀라서 위태로웠고, 성안이 크게 동요하였으나, 태완은 도통장(都統將)의 직임으로 장령(將領)을 격려하고 군민(軍民)의 전군(前軍)과 후군(後軍)을 인솔하여 침산아래에 당도하였다. 적도 수천 명이 침산 뒤의 봉우리에 진(陣)을 치고 있었고, 그 뒤에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넓은 들판에 포진해 있었다. 태완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직접 포군(砲軍) 100여 명을 인솔하여 병사보다 앞장서서 먼저 침산을 격파하였다.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어지럽게 포를 쏘며 습격하니 뒤에 주둔하고 있던 적도들은 손쓸 방도가 없이 기세에 눌려 도주하였다. 이 때에 관군은 용기를 발휘하여 일당백(一當百)이 아닌 자가 없었다. 추격하여 적의 소굴인 사창(社倉)에 들어가서 기계를 빼앗고 소굴을 불태웠으며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十月二十一日光州砧山賊徒締結巨魁孫化中多率萬餘名朝暮間屠戮羅州云而日送危言群心驚危城中蕩沸台完以都統將之任激勸將領領軍民前後兩軍出城當到砧山下賊徒數千結陣于砧山後峯後黨無數布陣于廣野台完小不動心親率砲軍百餘名身先士卒先破砧山因破竹之勢亂砲急擊後陣賊徒罔措手足望風逃走此時官軍賈勇踴躍無不一當百追入賊窟社倉搜奪器械燒蕩巢穴捕獲甚多)

11월 11일에 동괴(東魁)가 창궐하여 수만 명을 인솔해서 나주 북쪽 40리 북창(北倉) 등지에 집결하여 불을 지르고 재물을 빼앗으며 사람을 죽이고 겁탈하니 5~6개 면(面)의 마을에서 인적이 끊겼다. 도통장 정태완이 분통을 건디지 못하고 군장(軍將)을 인솔하여 우영(右營)과 합세해서 출군하여 신속하게 일제히 토벌을 하니 적도들이 패배하여 용진산(聳珍山)위로 돌아갔다. 산길이 험악하고 적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의병(義兵)을 모집하여 산허리의 4면을 포위하고 한걸음씩 전진하며 총을 난사하여 적들을 죽였다. 적들이 산의 험악함을 사수하며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 태완도 각 부(部)의 장졸(將卒)들과 적들의 양식과 식수의 보급로를 끊고 3개 방면은 지키되 1개 방면의 작은 길을 열어놓고 요충지에 병사를 매복시키기로 약속하였다. 날이 저물자 도적이 정말로 물고기를 꼬챙이에 꿰이듯이 산을 내려왔는데, 매복한 병사들이 일시에 총을 쏘았고, 적의 우두머리 수십 명을 추격하여 사로잡았으며 노획한 무기도 매우 많았다. (十一月十一日東魁猖獗率數萬屯結於州北四十里北倉等地放火攘奪殺人劫掠五六面坊人烟垂絕都統將台完不勝痛憤領率軍將合勢右營出軍不意齊討神速賊徒敗歸聳珍山上山路險惡賊徒甚衆乃招集義兵環圍山腰四面步步前進亂砲廝殺賊徒死守險惡不避沖擊台完亦約諸部將卒距絕其糧路與水道防備三面開一面微路而伏兵于要路日暮盜賊果然魚貫下山伏兵一時放砲追捉賊魁數十名所得器械亦甚多)

11월 16일에 무안(務安)의 거괴(巨魁)가 나주의 서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는 고막포(古

幕浦)에 집결하니 연달아 급보가 왔다. 태완이 다시 군장을 이끌고 의병을 모집하여 적과의 거리가 10리쯤 되는 초동시(草洞市)에 가서 진을 쳤다. 적의 형세를 탐문해보니 적의 숫자가 숲처럼 많아서 단번에 격퇴하기가 어려웠다. 적의 수효가 많아 상대하지 못하고 힘으로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포를 잘 쏘는 포군(砲軍) 100여 명을 장등(長燈, 산등성이)의 요충지에 매복시키고 의병을 지휘하여 멀리서 호응하는 형세를 만들었고, 병사를 3개 진영으로 나누어 또한 기각지세(掎角之勢, 앞뒤에서 적을 몰아치는 태세)를 이루었으며 깃발을 내리고 북을 멈추어서 잠시 겁을 먹여 위축된 형세를 보였다. (十一月十六日務安巨魁屯結州西三十里古幕浦驚報連急台完又領率軍將招集義兵出陣於距賊十里許草洞市規探賊勢其多如林遽難輕擊衆寡不敵不可力取故先伏善手砲軍百餘於長燈要路指揮義兵以爲遙應之勢分兵三陣亦爲猗角之勢偃旗息鼓姑見劫弱之勢矣十七日巳時彼賊果然輕視兩路分派沖火放砲於相望之地如麻屯立官軍一邊放大碗砲前後伏兵一齊吶喊放砲風掣電擊賊徒本以烏合之卒豈能當數百忠義之軍乎一時風飛電散台完身先士卒追擊十里之地橫尸相枕所獲器械不可勝數又夜戰殺得無算至於中夜犒軍待明更舉矣不意北警又至城守疎忽卽爲回軍北警者聳珍敗賊尙包禍心更引十餘邑同類嘯聚數萬分陣三處聲言屠城宰食農牛殺害人民之禍罔有紀極形勢駭惡光景危懷堅壁固守姑觀動靜)

11월 17일 사시(巳時, 오전 9~11시)에 저 적들이 정말로 가볍게 보고 2길로 나누어 불을 지르고 포를 쏘며 서로 바라보는 곳에서 삼대처럼 모여 있었다. 관군은 한편으로 대완포(大碗砲: 지름 30cm쯤 되는 쇠나 돌로 만든 둥근 탄알을 넣어 쏘던 큰 화포)를 쏘고, 앞뒤로 매복한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포를 쏘면서 바람처럼 내달아 번개처럼 공격하였다. 적들은 본래 오합지졸(烏合之卒)인데, 어찌 수백 명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대를 감당하겠는가? 일시에 풍비박산(風飛電散) 되었는데, 태완이 병사보다 앞장을 서서 10리를 추격하니 시체가 뒤엉켜 쌓여있었고 노획한 기계는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또 밤에 전투하여 죽인 자는 셀 수가 없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다시 공격하기로 하였다. 뜻밖에 북쪽에서 위급한 소식이 다시 왔는데, 성을 수비하는 것이 소홀하다고 하여 바로 군사를 돌렸다. 북쪽의 변고는 용진산에서 패배한 적이 아직도 화심(禍心,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다시 10여 개 읍의 동류(同類)를 불러 모아 수만 명이 3곳에 나누어 진을 치고 있는데, 떠드는 말에 성의 수령을 죽이고 농우를 잡아먹으며 사람을 살해한다는 참화가 끝이 없다는 것이었다. 형세가 매우 놀랍고, 광경이 위태롭고 두려웠으나 견고하게 성을 지키며 그들의 동정을 잠시 관망하였다. (十七日巳時彼賊果然輕視兩路分派沖火放砲於相望之地如麻屯立官軍一邊放大碗砲前後伏兵一齊吶喊放砲風掣電擊賊徒本以烏合之卒豈能當數百忠義之軍乎一時風飛電散台完身先士卒追擊十里之地橫尸相枕所獲器械不可勝數又夜戰殺得無算至於中夜犒軍待明更舉矣不意北警又至城守疎忽卽爲回軍北警者聳珍敗賊尙包禍心更引十餘邑同類嘯聚數萬分陣三處聲言屠城宰食農牛殺害人民之禍罔有紀極形勢駭惡光景危懷堅壁固守姑觀動靜)

11월 24일에 태완이 그들이 조금 나태해진 것을 보고 총을 잘 쏘는 포군(砲軍) 수백 명을 세 갈래의 기병(奇兵)으로 나누고 갑절이나 빨리 추격하게 하여 금안면(金安面) 남산(南山)마을 뒤편 산등성이에 이르러서 일제히 쏘아 죽이니 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쏘아죽인 자가 350여 명이었고, 노획한 무기와 말은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 이때부터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 다시는 광주·나주·함평·무안 땅에서 난리를 일으키지 못하였다. 태완이 다시 남쪽으로 영암(靈巖)·동보(東保)·남평(南平)을 구원하여 6차례 출전해서 크게 이겼다. 이것은 모두 도통장 정태완이 충의를 격려하고 재물을 내어 성을 지키며 임기응변하고 병사보다 술선하며 백성과 아전을 화합시킨 힘 때문이었다. (十一月二十四日台完見其小懈使善手砲軍數百名分作三路奇兵倍道疾追到金安面南山村後嶺一齊廝殺賊徒四散砲殺三百五十餘名所獲器械馬匹不計其數自此賊勢大挫不復作亂光羅咸務之地矣台完又南救靈巖東保南平六次出戰大捷盡是都統將鄭台完所以激勵忠義出財守城臨時應變身先士卒和合吏民之力也)

⑨-2 『난파유고(蘭坡遺稿)』 卷之三 附錄, 갑오토평일기(甲午討平日記)

◇ 해석 및 원문

태상(太上, 황제)이 즉위한 31년, 곧 갑오년(甲午年, 1894) 봄에 동비(東匪; 동학군)가 사설(邪說)을 만들어 어리석은 백성을 속였다. 처음에는 하늘을 공격하여 복을 구한다는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천(射天)의 흉악한 계획을 세워 무리들을 모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무뢰하고 패악한 부류가 날마다 개미처럼 모여 들어 그 무리가 참으로 많아져서 각각 거수(渠帥)가 있었는데, 많은 자는 5,000~6,000명이었고, 적은 자는 300~400명이었다. 부(府)와 군(郡)에 들이닥쳐 군기를 빼앗고 명리(命吏)를 죽이며, 흩어져서 마을을 위협하여 재물과 돈을 갈취하고 평민을 구타해서 다치게 하여 피해가 더욱 늘어났다. 여러 군들이 무너졌는데, 먼저 고부(古阜)성이 함락되어 군수가 도망을 갔고 완영(完營; 전주)을 지키지 못하고 방백(方伯; 관찰사)이 달아나서 피하니 인심이 흉흉해지고 조정에까지 소식이 전해졌다. 임금의 분노가 대단하여 홍재희(洪在熙)에게 호남을 토벌하도록 명령하였고, 엄세영(嚴世永)에게 주(州)와 군(郡)을 감찰하도록 하였다. 동괴(東魁) 전봉준(全奉準)이 연달아 흥덕(興德)·고창(高敞)·장성(長城)·무장(茂長)·영암(靈岩) 등의 군들을 함락시켰다. 함평읍(咸平邑)에 근거하여 마치 유린하고 몰아가는 것처럼 나주로 쳐들어올 기세였다. 나주의 공형(公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글의 뜻이 매우 패악하고 오만하였다. 이때 지담(芝潭) 민종렬(閔鍾烈) 공이 본주(本州, 나주)에 부임하여 연좌(椽佐, 아전)와 군교(軍校)를 불러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를, “적의 위급함이 이와 같아 금성(錦城, 나주)을 잃어버린다면, 강회(江淮)의 보루와 장벽은 영원히 의지할 곳이 없어 조정을 욕되게 할 것이니 어찌하겠는가”라고 하고, 죽기를 맹서하고 함께 방어할 계책을 세웠다. 마침내 전적(全賊, 전봉준)이 보낸 편지의 뒤에 “명분 없는 거사로 법을 어그러뜨린 것은 죽어야 마땅하고, 도리에 어긋난 말은 듣고 싶지 않다”라는 16자를 써서 적의 진영에 돌려보냈다. 적이 편지를 받고 간담이 서늘해져 마침 밥을 먹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감히 주(州)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고 이 날 밤에 함평진(咸平津) 산장(山場)으로 진영을 옮기고 다음날에 장성으로 향하여 월평(月坪)에 이르렀다. 초토사(招討使) 홍재희가 영광에서 약간의 군대를 보내어 적을 살피게 했는데, 적과 마주쳐서 대관(隊官) 이도승(李道承, 이학승(李學承)의 오기)이 죽고 관군이 패배하였다. 이 날이 4월 22일이었다. 민후(閔侯, 민종렬)가 소식을 듣고 분통해서 말하기를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화(禍)가 홍수나 맹수보다 심해서 사람이 모두 죽을 것이

다”라고 하니, 마침 참막(參幕)에 있던 정석진(鄭錫珍)이 그 말에 호응해서 나와 말하기를, “땅을 지키고 적을 토벌하는 것이 맡은 일이고, 대장을 보좌하여 계획을 돕는 것도 맡은 일입니다. 원컨대 고립된 성을 죽음으로 지킵시다”라고 하였다. 민후가 칼을 빼어 책상을 치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내 뜻과 바로 들어맞는다. 하늘이 어찌 화(禍)를 다시 받지 않도록 나와 그대에게 고립된 성안에서 만나게 하여 토벌하여 회복할 기회를 주었던 말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방략을 세우고 군사를 지휘해서 한편으로는 훼손된 첩(堞)을 수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를 수선하며 군오(軍伍)를 모집하였다. 이때 민심은 무사안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갑자기 소요를 당하자 대부분이 두려워서 떨쳐 일어나지 못하였고, 아기를 업고 피하는 자와 부족하여 성을 넘는 자를 거의 제지하기가 어려웠다. 민후(閔侯)가 이에 맹서하여 말하기를, “지금 고립된 성을 지키는데 의지할 것은 인화(人和)이다. 가혹한 법령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 너희들이 만약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모두 떠나가서 살길을 찾아라. 나는 연좌(椽佐)와 함께 성을 사수할 것이다”라고 하고, 낮에는 병사를 훈련시키고 밤에는 성을 순찰하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복종하였다. 떠나갔던 자가 다시 돌아와서 군대의 사기가 점점 다시 진작되었다. (太上卽位三十一年甲午春東匪倡造邪說惑愚民始言敬天求福終作射天凶圖嘯聚徒黨下凌上賤凌貴無賴悖亂之類日益蟻附其徒寔各有渠師多者五六千名小者三四百名突入府郡攘奪軍器殺命吏散劫村閭攫竊財貨毆傷平民凶禍滋蔓列郡披靡先自古阜城陷郡守奔竄完營失守方伯避人情洵懼聞于朝廷王怒斯赫爰命洪在熙招討湖南以嚴世永按廉州郡東魁全奉準連陷興高長茂靈等郡據咸平邑有若蹂躪長驅將入羅州之勢致書于羅州公兄辭意極悖慢時芝潭閔公種烈本州召椽佐及軍校雪涕而語曰賊急如是錦城失陷則江淮保障永無依着之地奈辱朝廷何因誓死而共設守禦之策遂取全賊所送書帖背書無名之舉在法當戮不道之言非所願聞十六字還送于賊陣賊得書喪膽方食墮匙不敢犯州境是夜移陣于咸平津山場翌日抵向長城至月坪洪招討在熙在靈光遣一枝軍賊與賊相遇隊官李道承殉節官軍敗是四月二十二日也閔侯聞報憤歎曰此而不除禍甚於洪水猛獸人將盡殲矣鄭錫珍方在參幕應聲進曰守土討賊職耳佐幕協謀亦職耳願守孤城死生以之閔侯因抽刀斫案曰君言正合吾意天豈悔禍使吾與君會合於圍城中將有復之期耶於是措方略指麾衆軍一邊修完毀堞一邊繕器械募軍伍此時民情恬憺日久猝當擾攘舉皆慌劫不振襁負而避去者扶携而逾城者殆難止閔侯誓曰今守孤城所恃者人和也不可以苛令禁止汝等若死須盡去偷生吾當與椽佐死守之晝則訓兵夜則巡城衆皆悅服

去者還集軍威稍稍復振(至)

7월 5일 밤에 적의 괴수 최경선(崔景先)과 무리 수천 명이 금안동(金安洞)에서 벼랑을 타고 금산(錦山) 꼭대기에 올라와서 일제히 내려와 서쪽 성문에 다가왔는데 성세(聲勢)가 매우 급박하고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민후가 정석진을 불러 모의를 결정하여 대오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문을 활짝 열어 깃발을 내리고 북을 멈추어서 적막하여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였다. 적이 곧바로 문루(門樓)를 두드리자 관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장사가 먼저 올라가 대포를 한꺼번에 쏘고, 천보조총(千步鳥銃)과 뇌고(雷鼓)를 크게 울리니 적이 손을 쓰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져서 사방으로 도망하여 크게 전승을 거두었다. 민후가 이에 명령을 내려 추격하지 못하게 하였다. 병사가 모두 뿔 듯이 기뻐하니 온 성이 울렸다. 조금 전에 민후가 조용히 진정시키고 정석진이 계책을 내어 속임수를 세우지 않았다면 어찌 대

승의 큰 공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이어서 크게 병사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이때부터 성을 지키는 방비가 느슨하지 않고 더욱 충실하였으므로 적들이 침범할 수 없음을 알아 사방으로 흩어져 노략질을 해서, 마을이 텅 비고 인민이 어육(魚肉)처럼 되었다. (七月初五日夜賊魁崔景先卒黨數千自金安洞緣崖而上錦山?一齊滾下來逼西城門聲勢甚急困在核心閔侯招鄭錫珍決定謀議嚴束隊伍大開城門偃旗息?寂若不動賊直?門樓官軍一呼壯士先登大砲齊發千步鳥銃雷?大震賊措手不及一時潰散四下逃竄大獲全勝閔侯乃下令勿爲追奔士皆?躍喜動全城向微閔侯之靜而鎮之鄭錫珍之出謀設奇則?獲勝捷之奇功哉因大饗士卒自是守城之備不懈益勤賊徒知不可犯四散?略村落空虛人民魚肉)

10월에 이르러 출정하여 토벌할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였다. 그 때에 급보를 들었는데, 광주(光州) 등지에서 적도가 더욱 사납게 날뛰는 것이었다.

10월 20일에 민후가 장대(將臺)에 나가 앉아 김창균(金蒼均)을 선봉(先鋒)으로, 정석진을 후군(後軍)으로, 김성진(金聲振)을 중군(中軍)으로 삼아 각각 포군 200명을 인솔하고 대오를 엄중히 단속해서 읍과의 거리가 5리 되는 석현리(石峴里)에 나가서 진을 치게 하였다. 김창균이 나이가 많아 날씨가 추워서 한전(寒戰)이 갑자기 일어나니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하였다. 정석진이 선봉(先鋒, 김창균)에게 청하기를, “선진(先陣)과 후진(後陣)이 비록 장령(將令)이 있더라도 병세가 이와 같으니 내가 선진이 되고 당신이 후진이 되는 것은 어찌 임기응변(臨機應變)의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여 마침내 선후를 바꾸었다.

10월 21일 진시(辰時, 오전 7~9시)에 바로 행군을 하였다. 연이어 초탐(哨探)을 접하니 700여 명의 적들이 광주의 침산(砦山)에 진을 치고 있는데 기세가 대단하였다. 나팔을 불어 군대를 재촉하여 포를 쏘며 함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과녁 하나정도 되는 거리에서 군사를 1자로 나란히 배치하고 먼저 돌격하게 하였다. 포수 강춘삼(姜春三)이 대완포(大腕砲)를 쏘아 1차에 촛가를 맞추어 불빛이 일어났고 연이어 천보조총을 쏘았다. 일제히 쏘아죽이니 적이 상대하지 못하고 포와 창을 버리고 한꺼번에 흩어져서 도망하였다. 적진을 점거하여 깃발을 뽑고 포를 수거하였다. 한편으로는 본부(本府)에 승리를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기를 거두어 장대(將臺)에 보냈으며 평민을 잘 타일려서 안도하게 하였다. 이때 접응장(接應將) 손상문(孫商文)·박재구(朴在九)·구유술(具有述)·김학술(金鶴述)·전학권(錢學權) 등이, 아군에 실패가 있을 것을 걱정하여 포군 100명을 이끌고 크게 깃발을 내걸고 바람에 휘날리며 왔다. 이에 군의 사기가 더욱 진작되었다. 막 군사들에게 음식을 내려 위로하려고 할 때에 멀리 광주의 선암(仙巖) 등지를 바라보니 수만명의 적들이 강가에 진을 쳐서 깃발을 세우고 포를 쏘면서 성세를 과장하고 있었다.

정석진이 말하기를, “적이 멀리 있지 않은데, 오래 기다리며 관망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예리함을 키우게 하는 것은 올바른 계책이 아니다. 지금 승리를 얻은 군대가 바람처럼 내달아 우레처럼 공격한다면 기세는 마치 썩은 나무를 꺾는 듯이 쉬울 것이다”라고 하고, 바로 진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장수들이 적의 기세가 점점 대단해지는 것을 보고 모두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현격하여 승부를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바로 군사를 돌려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니, 정석진이 말하기를, “그렇지가 않다. 옛날 악의(樂毅)는 제서(濟西)를 의탁하여 한번 싸워 제(齊)나라를 깨뜨렸는데, 더욱이 저 보잘 것 없는 비류(匪類)는 방금 패한 나머지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지만, 우리 군대는 승리를 얻은 뒤라서 용기가 백배해 있으며, 게다가 적들이 비록 많다고 해도 대개가 오합지졸(烏合之卒)이고 우리 군사는 비록 적더라도 모두 정예의 병사들이니 이때를 틈타 토벌하지 않는다면 민심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관가(官家, 나주목사)에 걱정을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바로 본군(本軍)을 점검하며 말하기를,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 우리와 적은 함께 설 수 없는 형세이다”라고 하니, 박재구(朴在九)만이 말하기를, “정장군이 말한 것이 병법에 들어맞는다. 형세를 보아 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더욱 깊은 안목이 있다. 내가 비록 병약하나 싸움에 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로 군대를 지휘하여 먼저 나서며 말하기를, “뒤에 떨어지는 자는 군율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니, 병사들이 모두 앞을 다투어 한꺼번에 전진하였고 후군(後軍)이 호응하여 군사가 이어졌다. 우리의 진영과 적과의 거리가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에서 적이 조총을 난사하니 정장군(鄭將軍, 정석진)과 강춘삼(姜春三)이 강 언덕에 가까이 다가가서 먼저 대완포(大碗砲)를 쏘자 포환이 이르는 곳마다 적들이 많이 죽었다. 천보대(千步隊) 전공서(錢公西)·김기옥(金奇玉) 등이 천보조총을 연달아 쏘니 적들이 크게 무너지고 사람과 말이 서로 밟혀서 죽은 자를 셀 수가 없었다. 관군이 승세를 타서 추격하려고 했으나 깊이 들어가면 고립될 것을 걱정하여 깃발을 흔들어 군사를 불러들였다. 이름을 불러 점검을 하였더니 다친 사람이 1명도 없었다. 마침내 적의 소굴에 들어가 적의 등지를 불태우고, 각 초(哨)에 명령을 내려 평민을 침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서봉(西峯)과 산수(山水) 2곳으로 진군하여 강을 건너 작천(鵲川)을 따라 북면(北面)에 이르니 적의 기세가 더욱 창궐하였다. 추격하려고 했으나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전투를 한 군사들이 배고프고 피로한데다가 날도 칠흑같이 어두워서 바로 군사를 돌렸다. 지나는 곳의 인민이 모두 칭찬을 하였다. 성호(城壕, 해자) 가까이 오니 햇불이 하늘에 가득하여 대낮과 같았고, 북소리가 하늘을 뒤흔들고 환호하는 소리가 땅을 울렸다. 돌아와서 장대에 보고하니 민후가 크게 칭찬을 하고 이어서 소고기와 술을 내려 군사를 위로하며 더욱 성을 지키는데 힘쓰도록 하였다. (至于十月將行出討之計即聞警報光州等地尤爲跳?十月二十日閔侯出坐將臺命金蒼均爲先鋒鄭錫珍爲後軍金聲振爲中軍各率砲軍二百名嚴整隊伍出陣於邑距五里石峴里金蒼均年老日寒寒戰猝發衆情危懼鄭錫珍請於先鋒曰先後陣雖有將令病情如是我先君後豈非臨機制變之一道耶遂換先後二十一日辰時即爲行軍連接哨探則賊徒七百餘名列陣于光州砧山勢甚?張吹螺催軍放砲?喊相距一幘之地一字擺開先使突擊砲手姜春三放大碗砲一次砲搏村家火光沖發連發千步鳥銳一齊?殺賊抵敵不住棄砲拋?一時散亡奪據賊陣?旗收砲一邊報捷于本府一邊收拾軍器運送將臺曉諭平民使之安堵矣時接應將孫商文朴在九具有述金鶴述錢學權等慮我軍有失率砲軍一百名大張旗幟風擁而來於是軍威益振方欲?軍之際遙望光州仙巖等地賊徒數萬列陣江邊建旗放砲誇張聲勢鄭錫珍曰賊在不遠遲留觀望使賊長銳非計之得今因得勝之軍風?電擊則勢如拉朽即欲長驅則諸將見賊勢之彌滿皆以爲多寡懸殊勝負難知即爲班師以圖後舉何如鄭錫珍曰不然昔樂毅藉濟西一戰以破全齊況彼??匪類新敗之餘必然衆心疑懼我師則得捷而後勇氣百倍且賊衆雖多舉是烏合我軍雖少盡是精銳不因此時剿滅則非但民心失望必將貽憂於官家即爲點閱本軍曰不入虎穴不得虎子我與賊勢不兩立惟朴在九曰鄭將軍所言動合兵法見機應變尤有深識吾雖病劣願爲從軍即爲麾軍先進曰落後者依軍律軍皆爭先一時竝進後軍接應軍相繼以來我陣與賊相距一川之間賊亂放鳥銃鄭將軍與

姜春三迫近江岸先放大砲砲丸所到賊徒亂斃千步隊錢公西金奇玉等連發千步鳥銃賊衆大潰人馬自相踐踏死亡無數官軍乘勝追之而慮有孤軍深入揮旗招軍呼名點閱則一無所傷遂入賊窟燒蕩巢穴發令各哨勿侵平民進軍於西峯山水兩處越江路由鵲川北面賊勢尤爲猖獗欲爲追擊則自朝至暮轉鬪之軍目飢且疲日又昏黑卽爲班師所經人民舉皆稱歎漸近城壕火炬漲天與同白晝?樂喧天?聲動地還報將臺閔侯大加稱賞因賜牛酒勞軍使之加意守城矣)

11월 8일에 영암(靈巖)에서 온 경보가 시급했고, 동면(東面)에서 위급함을 알리는 보고가 답지(逕至)하였다.

11월 9일에 민공이 정석진을 도통장으로, 김재환을 부통장(副統將)으로, 김성진을 중군(中軍)으로, 최문협을 서기(書記)로 삼았다. 포군 300명을 인솔하고 동창(東倉)으로 달려갔더니 성세가 미친 바에 적들이 도망갔다. 마침내 진군하여 금마면(金馬面)의 용두(龍頭)에서 유숙하였다. 영암의 공형(公兄)에게 군령을 내려 적의 동태를 탐문케하였더니, 공형의 문장(文狀)에, “적들도 명령을 듣고 도망을 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10일에 군대의 위력을 과시하고 군사를 돌렸다. 김창균과 최윤용 등이 군사를 이끌고 접응하였고, 각 면의 민병(民兵)도 죽창(竹槍)을 가지고 도로에서 영접하였다. 멀리서 온 민병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각각 10전씩 숫자대로 계산하여 주었다. 신안원(新安院)을 거쳐 돌아와서 군사를 위로하는 것을 겨우 끝냈는데, 밤에 북면(北面) 등지에서 각 읍의 적들이 나주에 유감을 품고 재산을 약탈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죽여 그 형세를 막기가 어렵다는 급보가 눈이 내리듯 답지하였다. 민공이 바로 정석진·김재환·김성진에게 군대를 인솔하여 출전하도록 명령을 하였다. 11월 11일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에 행군하여 죽엽정(竹葉亭)에 머물렀다. (十一月初八日靈巖警報時急東面告急踏至初九日閔公以鄭錫珍爲都統將金在煥爲副統將金聲振爲中軍崔文協爲書記領率砲軍三百名馳往東倉則聲勢所及賊徒逃竄遂進軍宿留金磨面龍頭軍令於靈巖公兄探報賊情則公兄文狀內賊徒亦聞命逃散云故初十日耀兵旋軍金蒼均崔允用等領軍接應各面民兵各持竹?迎接道路遠來民兵不可虛送故各十錢計數而給路由新安院而回勞軍?畢當夜北面等地各邑賊徒含憾羅州掠奪財產?殺無辜其勢難?警報片雪踏至閔公卽命鄭錫珍金在煥金聲振領軍出陣十一日午時行軍止宿竹葉亭)

11월 12일에 북창(北倉)으로 진군하였는데, 날씨가 춥고 비가 내려 군사들의 심정이 매우 괴로웠다. 바로 적의 동태를 탐문해보았더니, 광주 두동(斗洞)의 뒷산에 주둔해있고 무리가 수만 명이라 하여 역시 숫자가 많아 상대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었다. 평리(平里)의 집강(執綱) 김대규(金大圭)·삼가(三加)의 집강 유영관(柳永觀)·금안(金安)의 집강 홍봉현(洪鳳鉉)·관동(官洞)의 집강 김경환(金敬煥)·이노(伊老)의 집강 이민상(李敏相)이 각각 민병(民兵) 수백 명을 데리고 명령을 받아서 왔다. 후응장(後應將) 손상문(孫商文)·최성순(崔成順)·김창균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군의 기세가 더욱 진작되었다.

그러나 비가 오랫동안 개이지 않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서 광야에서 진을 치는 것은 그 형세가 매우 불편하여 죽산(竹山)의 뒤편 산꼭대기로 옮겼다. 부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술과 음식을 보내와서 인심이 흠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후응장령(後應將領)이 회군(回軍)하려고 하니, 정도통(鄭都統, 정석진)이 말하기를, “명령을 받들어 적을 토벌하는데, 적을 보고 군대를 물리는 것은 계책이 아니다”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의막(依幕)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찰하며 탐문을 하였다.

비가 더욱 내리고 밤도 깊어져서 옷과 무기가 모두 젖었으며 한기가 뼈속까지 침입하였다. 장좌(將佐)가 모두 비의 형세가 이와 같고 산이 높아 바람이 차가운데 적이 만약 갑자기 온다면 적을 맞을 겨를이 없으니 회군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정석진이 말하기를, “회군해서는 안 될 3가지가 있다. 밤이 어둡고 비가 와서 반드시 적이 오지 않을 형세가 하나이다. 백성이 적의 포학을 피롭게 여겨서 그들을 소탕해주기를 바라는데 적을 보고 물러난다면 민심이 떠나가고 적의 기세는 갑절이나 커지는 것이 두 번째이다. 어두운 밤에 행군하면 매복의 염려가 있는 것이 세 번째이다. 지금 이미 닭이 울었고 곧 날이 밝을 것이고 비는 개일 것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탐문해보니, 적이 용진산 위로 옮겨갔다고 하여 마침내 중군 김성진에게 크게 깃발을 내걸어 적을 맞을 대책을 마련하게 하였다. 도통장 정석진·부통장 김재환·향도관(鄉導官) 임주호(林周鎬)와 유의근(柳宜根)·돌격장(突擊將) 강춘삼·천보대장(千步隊將) 전공서(錢公西) 등 33명이 입에 막대기를 물고[含枚] 길을 갑절로 재촉하여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갑자기 수천의 적들을 용진의 중봉(中峯)에서 만났다. 적이 아군의 숫자가 적고 약한 것을 보고서 바로 포를 아래로 난사하기에 즉각 강춘삼에게 대완포를 쏘게 하고 천보조총을 이어서 발사하니 양쪽 진영의 포소리가 하늘과 땅을 울렸다. 아군의 숫자가 적어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깃발을 흔들어 군사를 불러들여 중군으로 하여금 나누어서 한쪽은 왼쪽 산위에 진을 치고 다른 한쪽은 본진(本陣)에 속하게 하였다. 마침 후응장 손상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접응하니 군용(軍容)이 조금 진작되었으나 적은 산위에 자리잡고 아군은 산아래에 있어 지형상의 이로우를 잃어버리고 있어 걱정하고 있을 때에 접응장(接應將) 박근욱(朴根旭)·박재구(朴在九)·최윤용·구유술(具有述)이 병사를 이끌고 왔다. 그래서 왼쪽 산꼭대기에 주둔시켜서 적들에게 3방면을 상대하게 하고 다시 민병을 불러 좌우로 나누어 주둔하여 성세를 이루게 하니 군사들이 모두 고무되었다. 임여현(林如賢) 등 수십 명에게 분부하여 산의 왼쪽에 불을 놓아 양도(糧道, 보급로)를 끊게 하였고, 김성진에게 산의 오른쪽에 불을 놓아 도주로를 끊게 하였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밤중이 되어 적진에서 포소리가 점점 줄어들기에 강춘삼에게 몸을 바위사이에 의지하여 몰래 적의 동태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과연 저항하는 적이 남아 있지 않고 나무를 잡으며 벼랑을 타고 모두 도망하였다. 일제히 산에 올라 무기를 수습하였다. 밤이 깊고 산이 험하여 추격하지 못하고 바로 회군하여 북창의 큰 들판에 주둔하니 곧 날이 밝아 왔다. 본부에 승리를 보고하고 광주지역에서 후진군에게 음식을 먹였다. 적들이 서쪽으로 영광과 삼남(森南) 등지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굴을 소탕하려고 했다. 서쪽의 급보가 오고 성안이 비어있으니 회군하라는 명령이 매우 엄중하였다. 영장(營將) 이원우(李源佑)가 접응하러 중도에 와서 머물렀기 때문에 마침내 홍정(紅亭) 백진사(白進士)에게 격문을 전하여 그에게 계획을 세워 잡게 하고 바로 죽산으로 돌아와서 영장과 함께 군사를 재촉하여 돌아오는데 이르는 곳마다 인민의 칭송이 그치지 않았다. 일일이 잘 타일러서 생업을 안정시켰다. 날이 저무는 것을 무릅쓰고 성에 이르니 개성가를 번갈아 부르고 환호하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으며 진용(陣容)은 정연하고 군의 사기가 당당하였다. 민후가 직접 나와서 위로하고 포상을 하며 소를 잡아 군사들에게 먹였다.

11월 15일에 다시 서쪽 정벌을 시도하여 방략을 강구하였다.

11월 17일에 도통장 정석진과 부통장 김재환 및 중군장 김성진이 포군 300명을 인솔하여 20리 거리의 자지현(紫芝峴)에 나갔는데, 적이 무안(務安) 고막포(古幕浦)에 있는데, 그 무리가 5만에서 6만명이라고 하였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부통장에게 말하기를, “적은 많고 아군은 적으며 서로의 거리가 고개 하나 사이여서 지키는 데는 여유가 있으나 진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내가 100명의 포군을 거느리고, 강춘삼·전공서 등과 초동시(草洞市)에 가서 주둔하여 기각지세(掎角之勢; 앞뒤에서 적을 몰아침)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니, 모두 말하기를, “합당합니다”라고 하였다. 밤이 되어 초동시에 진을 쳤는데, 들판은 넓고 군사는 적어서 형세를 이룰 수가 없었다. 마침 전왕(田旺)·지량(知良)·상곡(上谷) 3개 면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통령(統領) 박훈양(朴薰陽)·임노규(林魯圭)·나사집(羅士集)이 민병 수천명을 인솔하고 와서 지휘를 기다리고 있기에 그들로 하여금 관군의 뒤에 진을 치게 하여 멀리서 성세를 이루고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경계하고, 또 부통장에게 진을 옮겨 합세하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 300명의 포군과 대포군(大砲軍)을 배치하고 먼저 대포를 쏘니 적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산을 내려갔다. 4면에 불을 지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했고 포성이 땅을 울렸다. 아군은 세 갈래의 군사를 1자로 배치하여 접전하려고 했는데, 후응장 최성순·박근옥·구유술이 계속 와서 관군(官軍)과 민병(民兵)이 합쳐서 3,000여명이 되었다. 적과 수다장등(水多長燈)에서 마주하여 진을 치고 바로 포를 쏘니, 산위의 적들이 해산하였다. 점차로 전진해가니, 적의 대대(大隊)가 가득하고 장등 아래위에 깃발이 늘어선 것이 숲처럼 많았으며 그 기세는 물꼬가 터진 것처럼 급박하였다. 대포군에게 먼저 쏘게 하고 천보조총을 뒤따르게 하였다. 도통장과 부통장(副統將)이 병사보다 앞장서서 화살과 돌을 회피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싸움을 독려하였다. 중군(中軍)이 적진의 왼쪽을 기습공격해서 포환이 향하는 곳마다 적들이 죽었다. 관군은 기세가 올라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시체가 들판에 널렸다. 10여 리를 추격하여 고막교(古幕橋)에 이르렀는데, 사람은 많고 다리는 좁은데다가 조수는 불어나서 물에 떨어져 죽은 자가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적이 마침내 궁지에 몰림을 헤아려서 죽음으로써 저항하였다. 지형이 이롭지 않아서 징을 쳐서 군사를 몰려 호장산(虎狀山)위에 진을 치게 하였다. 적의 기계(器械)를 수거하고 군사들의 수를 점검하였더니 다친 자가 1명도 없었다. 본부(本府)에 승리를 보고하고 크게 깃발과 북을 울리니 환호하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부근의 5개 면의 민인들이 술과 음식을 보내와서 산에 올라가 병사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토벌할 계획을 의논하고 있는데, 북쪽의 변고가 시급하여 회군하라는 장령이 연이어 이르렀으나 적과 대치해 있으며, 밤에 회군하면 뒤를 밟을 걱정이 있어 이유를 아뢰고 진에 머물러 밤을 지냈다. 해운(海雲)이 참담하고 삭풍(朔風)이 매서웠다. 부통장(副統將)과 천보군(千步軍)이 길의 왼쪽에 매복하여 그들의 동정을 살피다가 갑자기 포를 쏘아 10여 명의 적을 죽이니, 저들이 모두 놀라 산에 올라가서 감히 내려오지 않았다. 마침내 군사들을 단속하여 서서히 군대를 철수하였다. (十二日進軍於北倉則日寒雨注軍情勞苦卽探賊情則屯據于光州斗洞後山衆號數萬亦有衆寡不敵之慮平里執綱金大圭三加執綱柳永觀金安執綱洪鳳鉉官洞執綱金敬煥伊老執綱李敏相各率民兵數百名聽令以來後應將孫商文崔成順金蒼均領軍來到軍勢益振雨久不霽日漸向昏廣野留陣勢甚難便移陣於竹山後頂附近村人奔走來接爭饋酒食可見人心之向慕矣後應將領欲爲回軍鄭都統曰奉令

討賊見賊退軍非計也一邊依幕一邊巡探雨益注夜已深衣械盡濕寒氣侵骨將佐皆以爲雨勢如是山高風冷賊若猝至應敵不暇不如還軍鄭錫珍曰還軍三不可存焉夜黑雨注賊無必來之勢一也民苦賊?庶望掃蕩而見賊還退則民心離散賊氣倍熾二也黑夜行軍慮有埋伏三也今已鷄鳴天將曉雨將霽不必深慮翌曉探報則賊移陣於聳珍山上遂使中軍金聲振大張旗幟以備應敵之策都統將鄭錫珍副統將金在煥鄉導官林周鎬柳宜根突擊將姜春三千步隊將錢公西等三十三人含枚倍道暗?賊勢猝逢數千賊徒於聳珍中峯賊見我軍單弱卽爲亂砲放下即使姜春三試放大碗砲千步鳥銳[銃]隨而連發兩陣砲聲?天動地我軍數少接應甚難揮旗招軍令中軍分一半軍陣於左邊山上一半屬之本陣適有後應將孫商文領軍來接應軍容稍振而賊據山上我據山下地形失便方將憂慮之際接應將朴根旭朴在九崔允用具有述引兵來待使屯右邊山頂使彼三面受敵又招民兵分屯左右爲之聲勢軍皆?躍分付林如賢等數十名放火山左以絕糧道金聲振放火山右斷其走路?戰至夜半賊中砲聲漸衰使姜春三依身巖石間暗察賊勢則賊果抵敵不住攀木緣崖盡爲逃竄一齊上山收拾器械夜深山險不得追?卽爲回軍留陣于北倉大野天且明矣報捷于本府?饋後進軍于光州地聞賊徒西向靈光森南等地欲爲掃蕩巢穴矣西警告急城中空虛回軍之令截嚴營將李源佑接應次來住中路故遂傳檄于紅亭白進士使之設計捕捉卽回竹山偕營將促軍回程到處人民稱頌不已一一曉諭安業犯暮抵城凱歌迭唱歡聲如雷陣容井井軍威堂堂閔侯親臨勞賞宰牛?軍 十五日更圖西征講究方略十七日都都將鄭錫珍副統將金在煥中軍將金聲振領率砲軍三百出距二十里紫芝峴賊在務安古幕浦衆五六萬云而日已向昏矣因謂副統將曰賊多我寡相距于一峴之間則防守有餘而進擊誠難吾領一百砲軍及姜春三錢公西等往屯于草洞市以爲?角之勢 衆曰可矣當夜布陣於草洞市野闊軍少無可爲勢適田旺知良上谷三面義舉統領朴薰陽林魯圭羅士集率民兵數千來待指揮使列陣于官軍之後遙作聲勢戒勿輕動且令副統將移陣合勢翌朝布列三百砲軍及大砲軍先放大砲賊徒領軍下山四面衝火烟焰漲天砲聲震地我兵將三路軍一字擺開方欲合戰而後應將崔成順朴根旭具有述陸續繼進官軍與民兵合三千餘矣與賊對陣於水多長嶺卽爲放砲則山上賊徒解散次次漸進則賊大隊彌滿長嶺上下旗幟森列其多如林勢若決水急令大砲軍先放千步鳥銃隨之都統與副統身先士卒不避矢石賈勇督戰中軍掩擊賊陣之左砲丸所到賊黨斃倒官軍?躍無不一當百屍橫遍野追殺十餘里迫到古幕橋人多橋窄潮水漲溢落水死者不計其數賊遂計窮以死相拒地形不利使之鳴金退軍布陣於虎狀山上收拾賊械點閱軍摠則一無所傷報捷於本府大張旗??聲如雷附近五面民人供饋酒食上山?軍方議?滅之策北警時急回軍將令連次來到而與賊相對?夜回軍慮有?後稟達理由留陣經夜海雲慘淡朔風栗烈副統將及千步軍埋伏路左?察動靜突出放砲殺賊數十彼皆驚動登高不敢下山遂團束諸軍徐徐班師)

11월 18일에 해가 장대 몇 개 높이에 떠서야 장대에 돌아오니 민후가 크게 칭찬하여 말하기를, “뜻밖에 간성지재(干城之才,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인재)가 내 막하(幕下)에 있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지키고 방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고막의 남은 적들을 끝내 제어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함평과 무안등지에서 비도가 일어나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고 순리를 어긴다는 급보가 답지하니 장대가 특별히 엄명을 내려 먼저 중군 김성진에게 포군 50명을 인솔하게 하였다.

11월 20일 밤에 서부(西部)의 장등에 나가서 주둔하니 민병의 통령 조맹균(曹孟均)이 합세하여 진에 머물렀다. (十八日日高數竿還現將臺閔侯大加稱賞曰不意干城之才在吾幕下衆心?悅分把守備古幕餘黨終不知?更起威務等地匪徒肆逆犯順急報踏至自將臺特下嚴令先使中軍金聲振領率砲軍五十名二十日夜出屯西部長嶺民兵統領曹孟均合勢留陣而)

11월 21일 아침에 도통장 정석진과 도위장(都衛將) 손상문에게 포군(砲軍) 300명을 인솔하고 급히 행군해서 서쪽지방을 구원하게 명령하여 장등의 선군(先軍)과 합세하였다. 군관 김일운(金一云)과 김영환(金永煥)에게 포군 5명을 인솔하여 먼저 적의 동태를 살피게 하였더니, “적이 서창(西倉)의 세곡(稅穀)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고 급보를 했기 때문에 말을 달려 갑절이나 빨리 갔다. 적이 아군을 보고 고막산(古幕山)으로 달아나서 바로 20여 리를 추격하였더니 사람과 말이 지쳐서 군대를 주둔하려고 했는데, 선군이 이미 적과 상대하여 화급하게 진군해서 숨도 고르지 못했으나, 형세가 매우 위급하였고 적이 산에서 포를 쏘았기 때문에 조금 병사를 쉬게 하고 선군과 후군이 합세하여 산 가까이에 가서 주둔하였다. 군용이 비로소 진작되었으나 날이 어두워서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호장산(虎壯山)에 옮겨 주둔하였다. 온종일 전투를 한 군사들이 한 모금의 물도 먹지 못하여 군관 김일운에게 각 마을에 나누어 보내게 하였다. 촌민이 술과 음식을 주어 기갈을 조금 해결하였다. 급히 군졸에게 일제히 포를 쏘고 함성을 질러 진격하는 형세를 보이게 하였더니 적들이 기세가 꺾여 도망가려는 조짐이 있기에 중군 김성진에게 군사를 인솔하여 먼저 가게 하였다. 도통장 정석진과 도위장 손상문이 포군 40명씩을 인솔하고 호장산의 오목한 곳에 매복하였다. 선군의 먼 행군이 갑절이나 빨리 온다면 전군이 지현(芝峴)에 진을 치고 후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놓고 밤에 군사를 돌렸다. (二十一日朝命都統將鄭錫珍都衛將孫商文領率砲軍三百名急飭行軍以救西屬地方與長嶺先軍合勢使軍官金一云金永煥率砲軍五名先探賊情則急報以爲賊盡發西倉稅穀云故撥馬倍進則賊見我軍奔向古幕山卽爲追逐二十餘里人困馬疲欲爲駐軍則先軍已與賊相對火速進軍喘息未定勢甚危急而賊在山放砲故稍稍休兵先後合勢迫山而陣軍容始振而日已?黑難以相持故移駐虎壯山終日戰鬥之士未得一酌之水使軍官金一云分遣各村村民供饋酒食稍得解飢急令軍卒一齊放砲?喊以示進擊之勢賊徒?挫有逃散之勢使中軍金聲振領軍先行都統將鄭錫珍都衛將孫商文率砲軍四十名式埋伏虎壯山凹處計其先軍之遠行卽爲倍道以來則前軍留陣於芝峴以待後軍故乃釋慮當夜還軍)

11월 22일에 북면의 비도가 용진산의 패배에 유감을 품고 5~6개 읍의 도당(徒黨)을 불러 모았는데, 성세가 대단하여 백성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아 인연(人煙)이 끊어지려 하였다. 급보가 왔으나 여러 차례 싸움을 한 뒤라 장졸이 모두 피로하여 휴식하고 적을 상대하려고 하였다. (二十二日北面匪徒含憾於聳珍之敗招誘五六邑徒黨聲勢甚大?民奪財人烟將絕警報式至屢戰之餘將卒俱病欲爲休息以應敵)

11월 23일에 수만 명의 적들이 금안면 남산촌에 주둔하였는데, 읍과의 거리가 10리 정도로 가까웠다. 성을 도륙하려 한다는 소리가 나왔고, 이날 밤에 저들이 기습하려고 북문(北門) 밖의 함박산(咸朴山)에 올라갔다. 계책을 세우려고 멀리 동천(東川)가를 바라보니 도깨비불이 별처럼 늘어서서 마치 화승(火繩)모양처럼 보였다. 적이 놀라 달아나버렸다. 11월 24일에 장대에서 위무(威武)를 분발하여 도통장 정석진에게 군대를 정돈하여 출정하도록 명하면서 말하기를, “출정하여 토벌하는 일은 도통(都統)의 역할이 중요하니 경솔하게 상대하지 말고 일심으로 협력하라”고 하였다. 또한 도위장 손상문에게 화포군(火砲軍)과 천보초총군(千步鳥銃軍)을 인솔하고 전진해서 적을 상대하도록 명령하고, 초관(哨官) 박성로(朴成老)에게 100명의 포군을 데리고 산길을 따라 그 배후를 기습하여 교란하

게 하였다. 별장(別將) 전학권에게 100명의 포군을 인솔하고 들길을 따라 그 오른쪽을 기습하게 하였는데, 소위 3개 방면의 기병이라는 것이었다. 선군 정석진과 손상문이 군사를 인솔하고 남산에 바로 진입하였는데, 적의 깃발이 하늘을 덮고 적의 막사가 산에 가득하였다. 김기옥이 천보군을 이끌고 누워서 탄약을 재우고 적 진영의 주위로 용감하게 가서 일제히 포를 쏘았다. 장령들이 분발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포를 난사하며 전진하였고, 적도 응사하며 크게 함성을 질렀으니, 마치 솔개가 날개를 펼친 것 같았고 벌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양 진영의 총소리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질듯하고 화염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군사들이 일제히 포를 쏘면 저들도 일제히 응사하였다. 장수들이 힘을 내어 진격하니 적들이 바람에 쓰러지듯 넘어졌다. 이에 단병(短兵, 칼이나 창으로 하는 싸움)으로 접전하니 적이 마침내 도망을 갔다. 관군이 더욱 용맹을 발휘하여 좌우에서 추격하니 시체가 엉켜 들을 메웠고 피가 흘러 도랑을 이루었다. 기계를 거두고 평민을 잘 타 이른 뒤에 군사를 정돈하여 돌아와서 장대에 나아가 접전을 한 연유를 갖추어 말씀을 드렸더니, 민공이 슬픈 낯빛을 지으며 말하기를, “적을 격파한 것은 기뻐만하나 인명을 많이 해친 것은 가련하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우리 수령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날 조정에서 초토사로 특별히 제수하는 제서(制書)가 내려와서 온 성이 뛰고 기쁨이 전군(全軍)을 움직였으며 금산이 빛을 더했고 영수(靈水)가 맑음을 드러내었다. 한층 엄중하게 방비를 하여 이로부터 끝내 침범하지 못하였고, 관군은 여러차례 싸움을 치루어서 적들이 안중에 없었다. (二十三日賊徒數萬進屯於金安面南山村距邑十里而近聲出屠城當夜彼徒欲爲掩襲登北門外威朴山將欲施計望見東川邊鬼火星列有若火繩狀賊驚潰奔竄而去二十四日自將臺奮發威武命都統將鄭錫珍整軍出征曰征討之事惟都統爲重慎勿輕敵一心戮力又命都衛將孫商文領火砲軍千步鳥銃軍前進對敵使哨官朴成老率一百砲軍從山路掩其後面?後別將錢鶴權率一百砲軍從野路掩其右面所謂三路奇兵先軍鄭錫珍孫商文領軍直入南山賊旗蔽空賊幕滿山金奇玉率千步軍臥而粧藥勇往陣邊一齊放砲諸將領奮不顧身亂砲直前賊亦應砲大喊如?張如蜂起兩陣砲聲天崩地坼烟焰滔天諸軍一齊放砲彼亦一齊應聲諸將奮力長驅賊徒風靡於是短兵相接賊遂大奔官軍益勵勇威左右奮擊橫尸遍野流血成渠收拾機械曉諭平民整軍而還進謁將臺備陳接戰之由閔公?然作色曰破賊可喜多傷人命爲可矜此可見我侯好生之德而當日自朝廷特除招討使制書下來滿城?躍喜動全軍錦山增色靈水揚清嚴加防備從此以後終不敢犯官軍屢經戰陣目無賊徒)

◇ 이상 ⑨의 자료에 대한 해설

『난과유고(蘭坡遺稿)』의 ‘초토사가 군공을 보고하는 별지’와 ‘갑오토평일기’에도 위에서 요약한 나주 인근 6차례 전투가 기록되어 진하는데, 특히 ‘갑오토평일기’에 자세하다. 고막포 전투에서 동학군은 5만, 6만이고, 진압군은 3000명이 동원되어 규모로 보아서는 동학 전체의 전투 중에서 최대급이다. 여기에서 우두머리는 배상옥이다.

4) 동학농민군의 수난시기(1894.12~1895.1)

(1) 개요

○ 영광군 홍농면(弘農面)에 사람 이현숙 공초문에 무안의 배접주(상옥)가 등장한다. 무안의 배접주(배상옥)는 거짓의 성을 쓰는 사람이며, 이현숙이 탈취하여온 벼를 배상옥은 “내 배에 옮겨 실으라 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배상옥의 영향력이 영광에도 미치고 있으며, 배를 이용하여 식량을 구했음을 알 수 있다.

○ 선봉진 이규태는 동학접주를 체포할 때 “동학 접주들이 성명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으니 유의하라”는 지시하였고, 이에 함평 현감은 “동학이 활동한지 9달이 지나 거괴와 접주를 소상히 알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금성정의록』 갑편 무안의 동학군이 영암으로 넘어왔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좌선봉진 이규태 군이 무안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룡나루를 건너 영암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 『순무선봉진등록』에는 12월 11일 이규태가 무안에 도착하기 전 배상옥의 도주 사실과 그 세력의 크기, 각 면의 접주들의 처리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 12월 22일, 함평현감이 함평 동학도를 잡아 심문한 결과를 선봉장 이규태에게 보고한 공문에는 함평 이화진과 수졸들이 12월 3일 무안 배상옥에게 갔다오다 4일 한방에서 자다가 잡혀왔고, 박준상은 11월 해제로 황경여의 도조를 받으러 갔다가 접주 최문빈의 방해로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적고 있다. 12월 24일 해남 은소면에 사는 윤규룡이 충청하도의 거괴 배규인을 잡아와 현장에서 총살하였다는 사실과 윤규룡에게 상금으로 천 냥을 주었다.

○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이두환은 12월 무안의 동학군이 해남으로 도피할 것을 예상하고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 중앙정부에서는 10월에 호남을 토벌할 초토사로 나주목사 민종렬을 임명하고 초토영을 두게 했다. 패주 농민군이 남하하자 일본은 나주에 특별히 대대본부를 설치하고 미나미쇼시로(南小四郎) 소좌를 그 책임자로 임명하여 농민군 주요 지도자를 신문하거나 선별해 서울로 압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12월 8일 무렵, 무안 대월리에서 동학군이 남기고 간 곡물 100여 석, 돈 천 냥 등을 삼향 거주민이 거두어갔는데, 이에 관한 공문이 여러 건이다. 이로보아 10월 초 무안을 집강소는 폐쇄되고 대신 수성소로 전환되면서 동학군은 대월리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된다.

○ 『일본사관함등』 12월 10일자에서는 선봉장 이규태와 부하 200명(明朝八點은 일본인?)은 무안 목포를 출발하여 주룡, 남리역, 해남을 수색했다. 이때 거괴를 잡으면 즉시 토벌대의 본부(나주)로 압송하라하고 있다. 12월 25일자에서는 24일 배규인을 잡아 松木와 상의하고 주민의 원에 따라 총살한 사실과 12명은 아직 잡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나주의 일본 진영에서 12월 30일 94명 중에서 73명은 일본 진영에서 총살하였는데, 최문빈(崔文彬: 최장현)·최이현(崔二玄: 최선현)·최기현(崔基玄) 등은 접주(接主)로 확인되었다.

○ 선봉장 이규태는 12월 14일 해남으로 피신한 배상옥을 잡기 위하여 무안 수성군

오한수와 정춘섭에게 잡으라 명하였고, 12월 24일 배상옥이 잡히자 이들에게 무안으로 돌아가 잡지 못한 거괴들을 잡을 것을 독촉하였다.

○ 『전라도각읍매사읍작통규모관사조약별록성책』 작통질(作統秩)은 1895년 1월 29일에 동학도의 토벌을 담당한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 민종렬(閔種烈)이 도내 각 읍에 내린 문서로, 무안은 나주, 남평, 함평(4읍)과 함께 한 통(統)으로 편성되어 동학도 소탕에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2) 주요 일지(궁서체는 무안 일지)

- 1894.12.01 손화중·최경선 휘하의 나주성 포위 농민군 해산, 최경선(36세), 화순에서 체포
- 1894.12.02 전봉준(41세),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12.18 한양 도착)
- 1894.12.03 김개남(42세), 태인에서 체포, 전주에서 효수 처형
- 1894.12.03 영암에 무안의 비도가 강을 건너 침입, 황치와 덕진에 검문소 설치
- 1894.12.03 함평사람들 무안에 있는 배상옥에게 감.
- 1894.12.07 무렵 배상옥 해남으로 도주
- 1894.12.08 무안 대월리 동학군 수천 명 서서히 해산, 목포진의 무기 찾아옴
- 1894.12.08 무안 접괴 배정규 박순서 사살, 동당(同黨) 서여칠(徐汝七) 등 그 중에 거괴 김응문·김자문·정여삼·김여옥·장용진·조덕근은 심문을 겪은 후에 사망.
- 1894. 12월 10일 무렵 대월리에서 쌀 100석, 천냥 나머지 물건 압류(의병소)
- 1894.12.11 손화중(34세), 부안에서 체포
- 1894.12.11 좌선봉장 이규태 무안읍 도착
- 1894.12.12 70명 생포(30명 처결, 40명 구속), 배규찬 외 9명 사살
- 1894.12.13 이규태 목포진 도착
- 1894.12.14 목포에 주둔하고 있던 이규태군 쌀 40석 진도 세곡선에서 빌림
- 1894.12.14 이규태, 무안 수성군 오한수에게 해남에 있는 배규인 잡을 것 명령
- 1894.12.14 이후 여러 차례 공문을 나주목사 등에 보내어 대월리에서 가져간 쌀로 갚으라 함
- 1894.12.18 무렵, 이규태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등산진 거쳐 화원 감목관 들렀다 우수영 도착
- 1894.12.19 훈령: 대월리 비류의 거괴가 목포진 벼 7석을 뺏었다는 언급
- 1894.12.23 회령면 통수에, 무안의 접주(박치경, 박채현), 접사(임학), 김몽길 4명 잡힘
- 1894.12.24 배규인 해남 윤규룡에게 잡혀오자 마스끼세이보(松木正保)는 현장에서 총살
- 1894.12.24 북접 농민군, 충주 무극에서 경군에 패퇴(손병희 홍천 피난)
- 1894.12.28 해남에서 김종곤, 裴奎仁의 마부 패도 총살, 윤석호 윤문여 총살,
- 1894.12.30 94명중 73명 나주 일본진영에서 사살 함평의 최기현, 최문빈, 최이현 등(이상 접주)
- 1895.1.05 박정환 무안 교동인 일진영에서 사형
- 1895.1.29 초토사 민종렬, 동학군의 소탕을 위하여 나주, 남평, 무안, 함평(4읍 작통)
- 1895.02.09 ~ 03.10 전봉준, 일본 영사로부터 5회 심문
- 1895.03.30 전봉준·손화중·김덕명·최경선 등 교수형 처형

(3) 무안동학 원전사료

① 東學黨供招 (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膽書)

◇ 원문

靈光義兵將李賢淑東賊巨魁李賢淑家童金年淳招內李賢淑據宋文洙言 各鎮邑軍器奪取次 乘着完固船四隻 自弘農木麥津邊離發 而三隻船先發李賢淑所乘 一隻船落後泛于七山中洋逢着平壤船隻到泊于飛禽島 平壤船所載米二石及砲一柄奪取又逢茂長東賊十八名同入該島 朴禮中家主人翁繡(壽)衣所用明紬北布等物 茂長東賊奪取而李賢淑還爲推給蒙惠實多麻布二疋出給李賢淑以爲酬勞之資 茂長東賊處二百兩奪取入於道草島 奪取高亨兼錢三百兩及島民錢一百兩更入荷衣島則有何許一女人而卽該島笠子匠婦也 厥夫出外不在而賢淑向說于女人曰吾之妻甥鰥居汝爲同居似好云仍爲載來荷衣島錢二百兩奪取入于安昌島 逢着法聖東賊聞之則起坐津邊有米四十八石租四十石云李賢淑卽往該津同米租盡爲奪取矣

務安裴接主爲姓漢聞 此說捉致李賢淑以蕩亂島民之罪責問則賢淑曰此非吾之專管法聖東賊指示故果爲奪取云 裴接主曰此米租汝不必持去盡爲移載于吾之舟中云 李賢淑曰米租不足惜特貸殘命之意懇乞矣仍爲私和米十三石租二十石出給李賢淑載來弘農加馬浦而李賢淑曰此行專由於宋文洙指使則不必獨利云米十二石租十三石出給宋文洙接率而載來錢中李賢淑接率各分喫五六兩而其餘李賢淑盡喫四隻船雖爲同發李賢淑之船則落後而先發三隻船入於珍島 水營 等地奪取軍器盡給于宋文洙而李賢淑只取砲十三柄見奪於務安東賊近聞王師迫臨於高敞等地社倉市留陳宋文洙接率忽生畏怯散四奔走而宋文洙及李賢淑所去處彼此不知矣忽爲相逢於弘農地李賢淑責宋文洙曰汝欲圖生棄我而來事甚無據云云仍爲砲殺宋文洙其屍身押來于靈光邑射亭使白丁斬頭納官是白

◇ 해설

이현숙은 영광군 홍농면(弘農面)에 사람으로 처음에는 동학에 입당하여 활동하였으나 동학군이 수세에 몰리자 오히려 동학군 토벌에 앞장섰다. 1894년 12월 5일, 동학의 괴수(魁首)인 송문수(宋文洙; 무장 접주)를 잡아내 머리를 베어 가져와 바치고, 여당(餘黨) 10여 명도 잡아다 관아에 받쳤다(『선봉진정보첩』 12월 3일). 그러나 12월 6일 그의 전적이 탄로나 투옥되기도 했다.“의병장(義兵將)이라는 이현숙(李賢淑)은 동학도 중에서 행패가 심했던 거괴(巨魁)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포박해 와서 그 죄를 문초하였더니, 일일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잡아들인 다른 동도 15명과 같이 진중에 가두어 두었습니다”(『양호우선봉일기』 1월조).

아래의 내용은 동학군의 심문한 후 적은 글로 이현숙이 주를 이룬다. 대략은 이현숙이 동학이었을 당시에 영광의 목래진에서 출발하여 각 섬을 돌아다니며 식량과 무기를 탈취하여 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별히 무안의 배접주(상옥)가 등장한다. 무안의 배접주(배상옥)는 거짓의 성을 쓰는 사람이며, 이현숙이 탈취하여온 벼를 배상옥은“내 배에 옮겨 실으라 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배상옥의 영향력이 영광에도 미치고 있으며, 배를 이용하여 식량을 구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騰錄)』 1894년 12월 11일

◇ 해석문

함평현감이 보고합니다. 방금 도착한 비밀문서 내용에, “비류가 지금은 이미 흩어져 모여 있는 곳이 하나도 없지만, 거괴는 반드시 마을에 숨어 있을 것이니 각 면리와 바닷가에 엄하게 명령하여 흩어져 도망가는 자를 모두 붙잡아 들이라. 이름 있는 괴수와 각처에서 행패를 부린 접주는 반드시 성명을 바꾸었을 것이니, 위협에 못 이겨 따른 자라 하더라도 더욱 각별히 엄하게 조사하여,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실정을 알아내어 엄하게 가둔 뒤에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비류가 날뛰던 지 아홉 달이 되어감에 그 거괴와 접주의 성명을 현감과 이교가 모두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을》 체포할 때에 옥석이 모두 불에 타거나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薰蕕之莫辨]이 없습니다. 저들이 비록 성명을 바꾸더라도 자연 여러 사람의 눈이 있으며, 장차 혹 흩어져 숨더라도 여러 백성들의 입을 막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괴와 접주를 잡아들인 자에게 등급을 나누어 포상하겠다고 이미 각 면리에 명령한 바가 있는 후 숨은 놈을 포박하여 잡아들이는 일까지 있고 또 가리켜 주는 일도 있어서 놓치는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 해설: 좌선봉장 이규태는 동학접주를 체포할 때 “동학 접주들이 성명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으니 유의하라”는 지시하였고, 이에 함평 현감은 “동학이 활동한지 9달이 지나 거괴와 접주를 소상히 알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③ 『금성정의록』 갑편

◇ 해석문

1894년 12월 6일 장흥군(長興郡)에서 성이 거의 함락되었다는 비보(飛報)가 갑자기 도착하였다.

12월 8일 강진(康津)에서 급보(急報)가 또 이르렀다. 초토영에서 장좌(將佐)를 모두 모아 출정해 토벌할 것을 상의하고 영을 내리기를 “군사에 관한 일은 멀리서 헤아리는 것이 어렵다. 바로 영암(靈巖)으로 향하여 그 허실을 정탐하는 것이 만전을 기하는 방책이다”라고 하였다.

도통장·부통장·중군이 천보대 3백 명과 창군 2백 명을 영솔하고, 민병통령 유기연(柳紀淵)이 1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합세하여 곧바로 영암의 경계로 향하였다. 강진 수령 이규하(李奎夏)가 군대 앞에 급히 도착하여 장령(將領)을 보기를 청하고 적에게 함락된 상황을 갖추어 설명하고 군령을 행할 것을 재촉하였다. 강진 수령도 수행하여 화수원(火燧院: 부수원)에 이르렀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눈이 올 기색에 참담하였다. 산 옆 언덕을 의지하고 진을 벌여놓고 군사들을 먹이고 순경(巡更)을 새벽까지 하였다. 날이 아직 밝지 않았는데 영암 공형의 보고가 일시에 5, 6차례 연달아 도착하였다. “적도가 바야흐로 성

을 범하였다”고 했다. 또 들으니 “병영이 위급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신속하게 행군하였는데 백성들이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붙들고 난을 피해 길에 가득한 것을 보고 위무(慰撫)하게 하였다. 본취(本倅) 남기원(南起元)이 성을 나와 영접하였고 대월루(待月樓)에 진을 주둔시켰다. 갑자기 도착한 비보(飛報)에 의하면 병영(兵營)이 이미 함락되었고 동도(東徒)가 엄습했다고 하였다. 인심이 황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니 급히 영을 내려 조용히 진정시키고 성문을 파수하였다. 잠시 후에 병사(兵使) 서광복(徐光福)이 단신으로 말을 타고 도착하였다. 곧 영접하고 병영을 잃어버린 사유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 문을 열고 적을 받아들인 상황을 면하지 못했으니 비통함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무안(務安)의 비도(匪徒)가 강을 건너와서 침략하니 보발(步撥)이 연달아 이르렀다. 이내 병사를 보내 황치(黃峙: 노루치, 풀치의 서쪽)의 좁은 입구와 덕진(德津)의 중요한 길을 파수하였다(務安匪徒越江來侵步撥連至仍遣兵把守黃峙隘口德津要路). 적이 초토영의 병사가 와서 지킨다는 것을 듣고 곧바로 달아났다. 이 때문에 영암도 이에 힘입어 온전할 수 있어서 군대를 철수하였다. 민공이 말하기를 “장성(長城)보다 현명한 것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라고 하고 또한 적들을 토벌한 수고를 위로하였다. 이후에는 다시 출사하는 일이 없었다.

◇ 해설

『금성정의록』 **갑편** : 전라도 라주의 유생 이병수(李炳壽, 1855~1941)가 나주와 장흥일대의 동학농민혁명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갑, 을, 병 3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갑편에는 1차 고부봉기와 羅州의 守城사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2차 봉기 후 손화중(孫華中), 최경선, 오권선의 나주공격 등을 소상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남평, 장흥, 영암 등지의 후기 농민군 활동상을 부기하였다. 아래에서는 무안의 동학군이 영암으로 넘어왔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좌선봉진 이규태 군이 무안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룡나루를 건너 영암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④ 1894년 12월 일 전라도 각 읍에서 잡은 동도수효와 빼앗은 물건을 기록한 성책
[開國五百三年 十二月 日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爰及所獲汁物并錄成冊]

◇ 해석문 및 원문

무안 접괴 배정규(裴正圭)와 박순서(朴順西)는 12월 8일에 잡을 때 쏘아 죽였다. 동당(同黨) 서여칠(徐汝七) 등 6명은 (죄의) 경중을 가려 처리하도록 했다. 적당(賊黨) 18명을 9일에 잡았는데, 그 중에 거괴 김응문(金應文)·김자문(金子文)·정여삼(鄭汝三)·김여옥(金汝玉)·장용진(張用辰)·조덕근(趙德根)은 신문을 겪은 후에 죽었고, 동당(同黨) 12명은 (죄의) 경중을 가려 처리하도록 하였음.

務安接魁裴正圭 朴順西-十二月初八日捉得臨捉砲殺 同黨徐汝七等六名使之分輕重酌處賊黨十八名 初九日捉得內巨魁 金應文 金子文 鄭汝三 金汝正-圖…圖後致斃 張用辰 趙德根 同黨十二名 使之分輕重酌處

金時煥
 尹贊辰
 全京文
 朴京仲
 右鎮營使之嚴覈得情
 金京文
 同黨李在
 金京文
 初八日捉得臨捉砲殺
 務安趙興裴
 林順
 同黨徐汝七等六名使之分輕重酌處

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及所捉什物并錄成冊 prd_0045_011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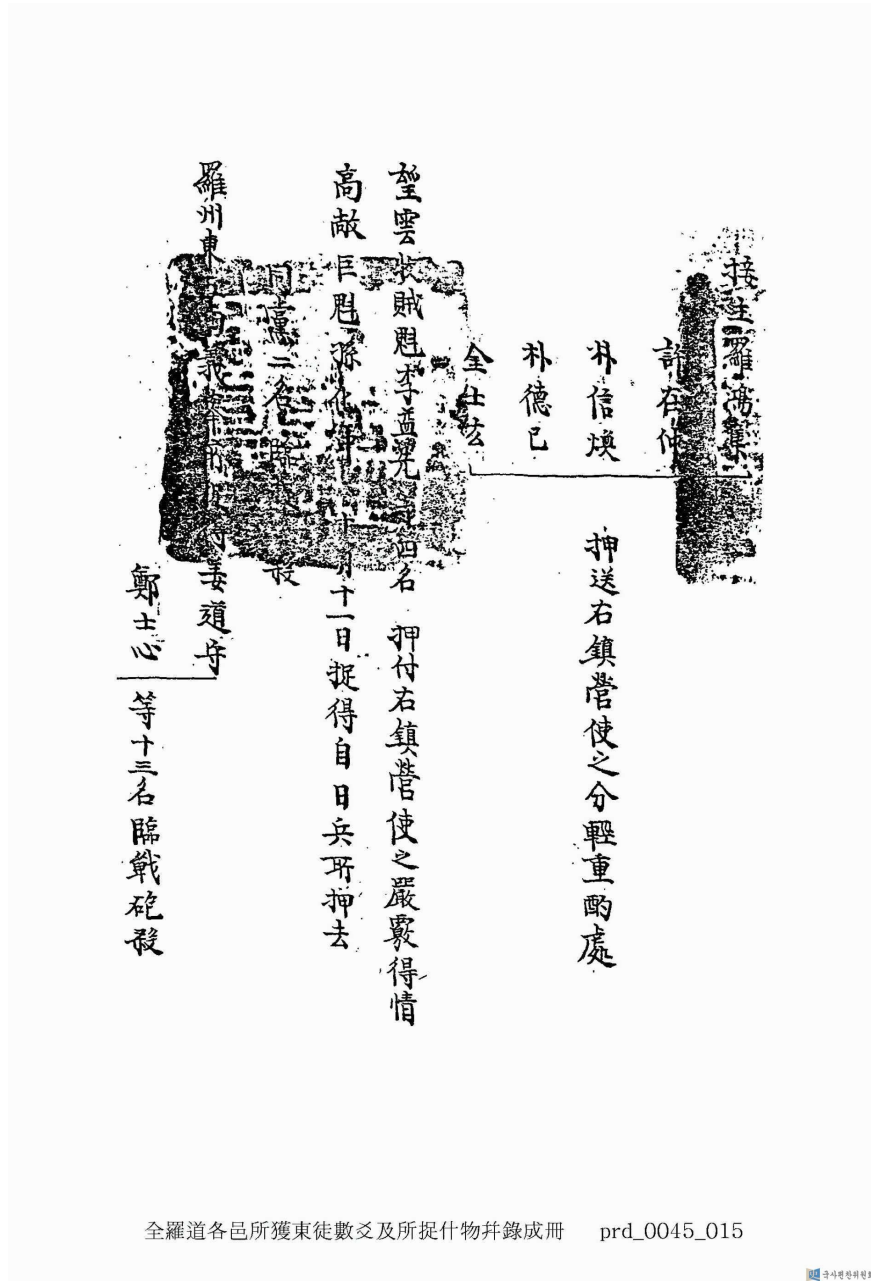
賊黨其名
 初九日捉得內
 金應
 金京文
 鄭
 金京文
 張用辰
 趙德根
 同黨十二名 使之分輕重酌處
 後致斃
 緩州賊黨
 十一名
 初十日捉得內
 殺

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及所捉什物并錄成冊 prd_0045_012

국립중앙박물관

망운목(望雲牧) 적괴(賊魁) 이익선(李益善)등 4명은 진영(鎭營)에 압송하여 넘기고 엄중히 조사하여 진상을 파악하게 하였음.

望雲牧賊魁李益先■四名 押付右鎭營使之嚴覈得情



◇ 해설

아래 성책은 1894년 12월에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 민종렬(閔種烈)이 전라도 각지에서 체포한 동학도들의 성명 및 수효와 그 처리사항, 노획품의 수량 및 그 노획자 등을 중앙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자료이다. 무안에서는 12월 8일 무안 접괴인 배정규와 박순서 사살, 동당(同黨) 서여칠(徐汝七) 등 그 중에 거괴 김응문·김자문·정여삼·김여옥·장용진·조덕근 등 그리고 망운장의 이익선 등 처리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⑤-1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騰錄)』 1894년 12월 12일 (양, 1895년 1월 7일)

◇ 해석문

초 10일에 발송하여 11일에 도착한 공문 내용에, “지금 비류 수천 명이 관군보다 먼저 이미 성 아래에 이르렀으니 급박함이 목전에 닥쳤습니다. 밤낮없이 와서 구원해서 본 병영을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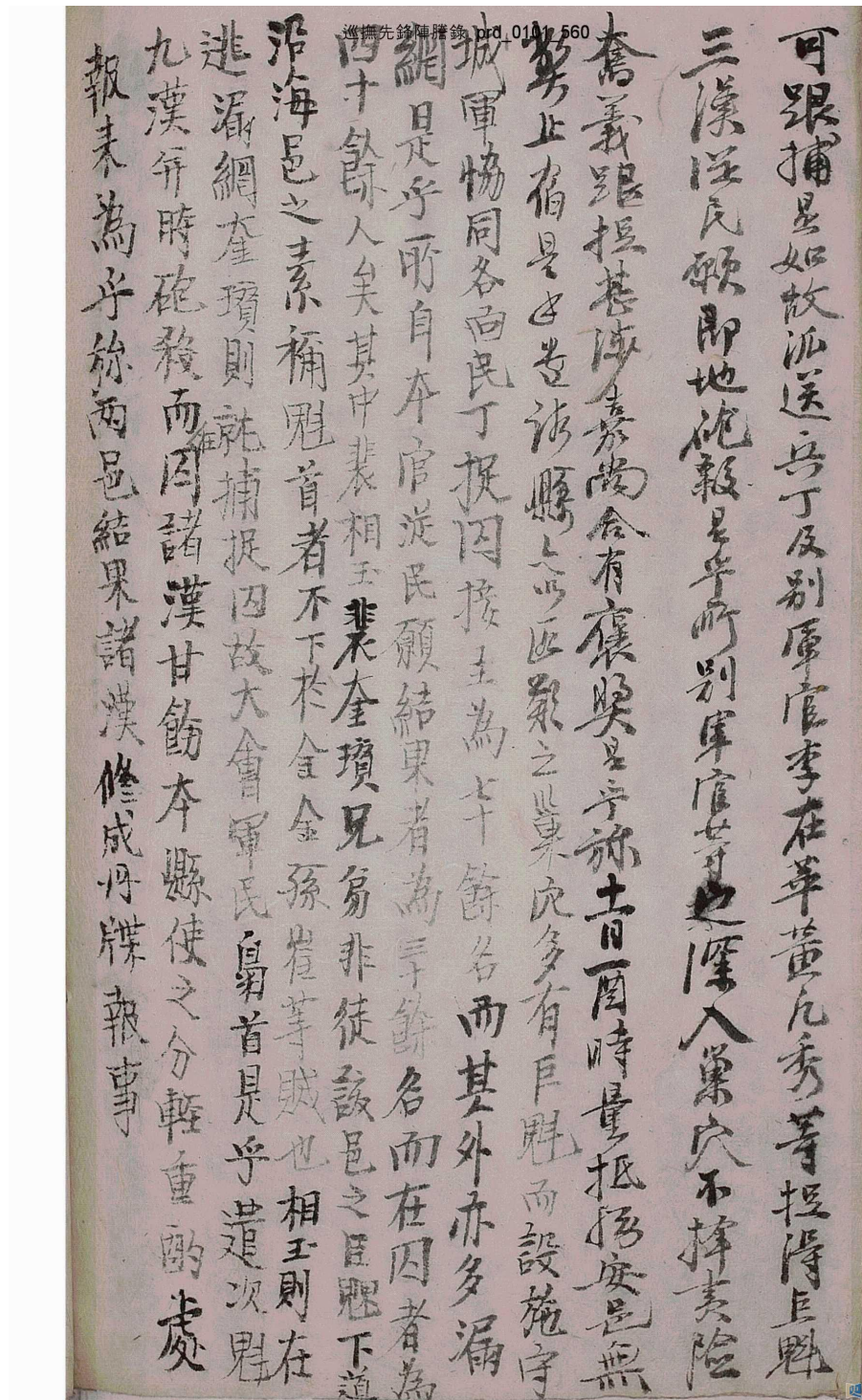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계속하여 일본 진영에 통보하여 대대장 미나미 쇼시로(西條 清)의 지시에 따라 세 갈래로 군사를 출동하였는데 대위 이시구로 고세이(石黒光正)는 그의 부하 1개 소대와 2개 분대·교도중대 2분대를 거느리고 영암 땅으로 나아가고, 제 1중대 1소대와 통위영의 군사 30명은 능주(綾州) 땅으로 나아가고, 히라기 중위는 그의 군사와 교도소의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장흥 땅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군사의 수는 모두 일본군의 진영에서 총괄하여 통솔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지적하여 보고하지 못하오며, 선봉진(이규태)은 휘하의 남은 부대를 거느리고 진시 경에 60리를 행군하여 유시 경에 무안읍에 도착하여 아무 사고 없이 숙박하고 군대에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고 드립니다(先鋒率所領餘隊辰時量行軍六十里酉時量到務安邑無弊止宿供饋是乎等以緣由云云).

제(題): 보고가 도착하였거니와 일의 상황을 계속해서 급히 보고하라. 1895년(乙未) 정월 초 4일에 발송.

⑤-2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騰錄)』 1894년 12월 14일 보고 내용

◇ 해석문 및 원문

12월 11일 유시 경에 무안읍에 도착하여 아무 사고 없이 머물러 지냈습니다. 무안현(務安縣) 또한 비류의 소굴로 거괴가 많아, 수성군을 설치하고 각 면(面)의 민간의 장정들과 협동하여 붙잡은 접주가 70여 명이나 되며 그 외에 또한 농친 자가 많았습니다. 본관이 백성들의 바람에 따라 처결한 자가 30여 명이며 잡아 가둔 자는 40여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배상옥(裴相玉)·배규찬(裴奎贊) 형제는 그 마을의 거괴일 뿐 아니라 하도 연해 지역의 괴수로 불리던 자로서, 전봉준·김개남·손화중·최경선 등의 적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배상옥은 범망을 피해 도주하였고 배규찬은 체포하여 잡아 가두었기 때문에 군민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효수하였고, 그 다음 가는 거괴 9놈은 한꺼번에 총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아 가둔 여러 놈은 본 현에 명령하여 죄의 경중을 가려 처리하고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고을에서 처결한 놈들의 성명을 책자로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十一日酉時量抵務安邑無弊止宿是乎遣該縣亦以匪類之巢穴多有巨魁而設施守城軍協同各面民丁捉囚接主爲七十餘名而其外亦多漏網是乎所自本官從民願結果者爲三十餘名而在囚者爲四十餘人矣其中裴相玉裴奎贊兄弟非徒該邑之巨魁下道沿海邑之素稱魁首者不下於全金孫崔等賊也相玉則在逃漏網奎贊則就捕捉囚故大會軍民梟首是乎遣次魁九漢竝時砲殺而在囚諸漢甘飭本縣使之分輕重酌處報來爲乎玆兩邑結果諸漢修成冊牒報事)



⑤-3 『선봉진정보첩(先鋒陣呈報牒)』 일백 12월 14일 [其一百 十四日]

◇ 해석문 및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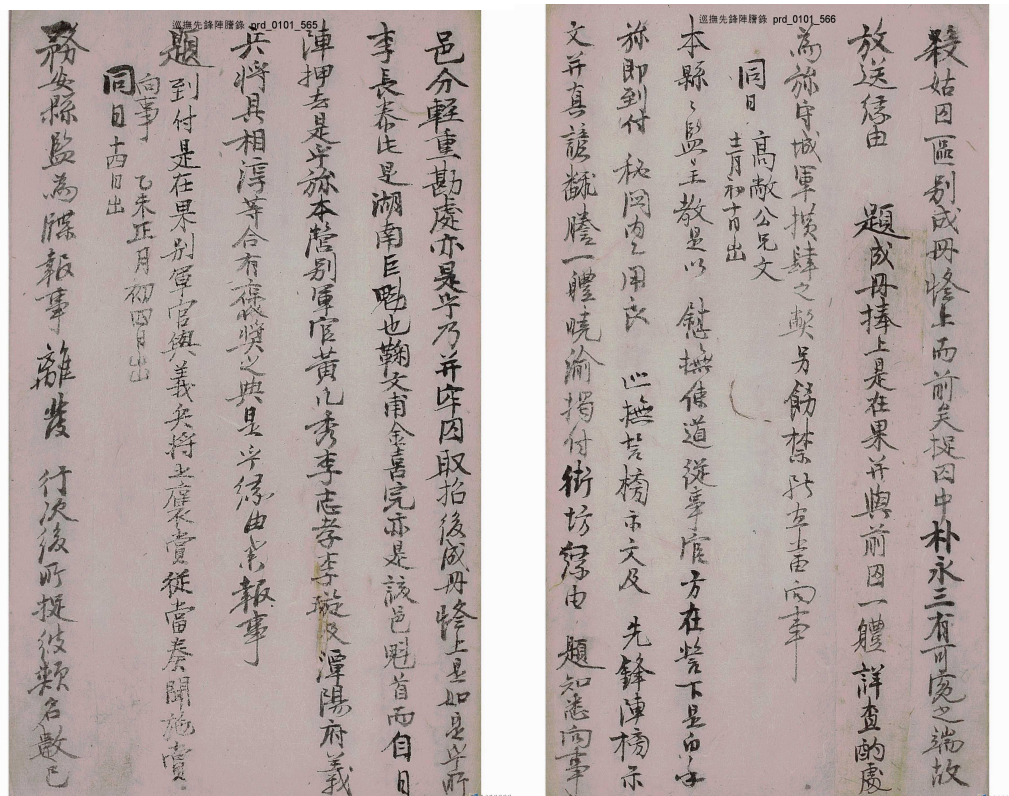
12월 11일 유시 경에 무안읍에 이르러 별 탈 없이 묵었습니다. 무안현 역시 비류들의 소굴로 거뢰가 많이 있어서 수성군을 조직하여 각 면의 민간 장정들과 협동하여 접주 70여 명을 잡아 가두었고 그 밖에도 빠져나간 자들이 많았는데 본관(本官)은 민원(民願)에 따라 30명을 처단하였고 40여 명을 가둬놓았습니다. 그 중에 배상옥(裴相玉)·배규찬(裴奎瓚) 형

제는 무안의 거괴일 뿐만 아니라 하도(下道)의 연해(沿海) 지역에서 당초부터 괴수로 일컬어진 자로 김개남·전봉준·손화중·최경선(催景善) 등의 역적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배상옥은 법망을 빠져나가 도주하였고 배규찬은 체포하여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목을 베었고 그 다음의 거괴 9놈은 동시에 포살하였습니다. 잡아 가둔 여러 놈들은 본현에다 감결로 신칙하여 본현에서 죄의 경중을 분간하여 처리한 뒤 보고하였습니다. 두 읍에서 죽인 여러 놈들은 책자를 만들어 순무사께 보고하는 일입니다. (十一日酉時量抵務安邑無弊止宿是焉遣該縣亦以匪類之巢穴多有巨魁而設施守城軍協同各面民丁捉囚接主爲七十餘名而其外亦多漏網是乎所自本官從民願結果爲三十餘名而在囚者爲四十餘人矣其中裴相玉裴奎瓚兄弟非徒該邑之巨魁下道沿海邑之素稱魁首者不下於金全孫崔等賊也相玉則在逃漏網奎瓚則就捕捉囚故大會軍民梟首是焉遣次魁九漢竝時砲殺而在囚諸漢甘飭本縣使之分輕重酌處報來爲乎於兩邑結果諸漢修成冊上使事 題)

⑤-4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騰錄)』 1894년 12월 15일. (14일 발송)

◇ 해석문 및 원문

무안현감이 보고합니다. 행차가 출발한 후에 붙잡은 저 무리의 숫자와 이미 죽인 자와 우선 가두어 둔 자를 구별하여 책자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전에 잡아 가둔 자 가운데 박영삼(朴永三)은 용서할 만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풀어 주었습니다. 제(題): 책자는 받았거니와 전에 가둔 죄인과 함께 일체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며, 수성군이 멋대로 행동하는 폐단은 각별히 명령하여 금지시키라. (務安縣監爲牒報事 離發 行次後所捉彼類名數已殺姑囚區別成冊修上而前矣捉囚中朴永三有可寬之端故放送緣由 題: 成冊捧上是在果竝與前囚一體詳查酌處爲於守城軍橫肆之弊另飭禁斷宜當向事)



1894년 12월 17일 좌선봉진이 보고합니다. 무안읍으로부터 목포(木浦)를 향하여 출발한 연유는 이미 보고하였거니와 13일 유시 경에 목포진(木浦鎭)에 도착하였는데 밤이 되어 비가 내린 뒤에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더니 16일에 이르러도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후퇴하자니 200여 리의 길을 돌아서 가야하고(용당나루를 이용 돌아가는 것을 말한 듯함), 전진하자니 30리의 험한 나루를 건너야 했으므로(해남 화원반도의 등산진) 결국 별다른 길이 없어 목포에서 나흘을 체류하였습니다. 군대의 행군을 생각하면 지극히 송구하고 민망합니다. 상민 보당(步塘: 보부상?)은 철수하라는 명령이 이미 해당 소임자(所任者)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상리국(商理局: 보부상 관할) 사람인 이원배(李完培)·송성운(宋成云)은 이제 올려 보내오나, 지나는 길가 고을들은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소식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경포교(京捕校) 또한 긴요히 관계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려 온 두 포교도 함께 올려 보냅니다. 상리국의 일을 맡은 두 사람은 천리 길을 종군하여 보초를 설 때나 정탐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를 다하였으며, 포교 정태식(鄭台植)·이성근(李成根)도 또한 《동학농민군을》 뒤쫓아 체포하고 문초하는 일에 수고를 많이 하였으니 모두 지극히 가상합니다.

또한 각 읍의 상민으로 말하자면, 비도가 날뿔 때 각자 화를 피하여 감히 몸 둘 바가 없다가 또 행군한 뒤에 조금씩 모여 들어 문득 임방을 만들기도 하고 혹 군대를 쫓아와 거행한 자도 있습니다. 보초를 설 때에는 부지런히 수고를 다하여 조금도 실수가 없었으니 마땅히 각 읍의 경내에서 권장함이 있어야 하나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흥·강진·영암·해남 등의 읍으로 각 부대를 동원하여 파병한 뒤로 비도의 정태를 아직 정탐하지 못하였으며 또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이는 군무(軍務)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고합니다. 제(題): 보고가 도착하였거니와 일의 상황을 계속하여 급히 보고하라. 그리고 상민의 보초 선 일과 경포교가 부지런히 애쓴 일은 가상하다. 1895년(乙未) 정월 초 4일 발송 (左先鋒陣爲牒報事自務安邑發向木浦之由已爲牒報是乎在果十三日酉時量到木浦鎭當夜雨後風濤 大作至十六日晝夜不止後退則迂回二百程道前進則三十里險津越涉末由其道滯留四日言念師行極爲悚悶是乎於商民步塘既有徹還之令飭於該所任是乎所商理所任李完培宋成云自此上送是乎乃此道沿邑尙此未淨公私替傳似有難便是乎遣京捕校亦無緊關故下來兩校竝爲自此發送而商理所任兩人千里從軍立塘之節偵探之際始終效勞是乎於捕校鄭台植李成根亦多勤勞於跟捕問招等事俱極嘉尙是乎於具以各邑商民言之匪類猖獗之際各其避禍無敢容措是乎如可又其行軍之後稍稍還集奄成任房或有從軍舉行者而立塘之際恪勤效勞少無差失是乎所宜自各邑境內合有勸獎是乎乃未敢擅便是乎於 長興康津靈巖海南等邑調派各陣後匪類情形姑未偵探 又無所報其在軍務極爲悶鬱是乎等以緣由事 題: 到付是在果形止連爲馳報而商民之步塘京捕校之恪勤嘉尙向事 乙未正月初四日出)

⑤-5 『선봉진일기』 1894년 12월 12일 군무아문에 보고함

◇ 해석문 및 원문

연이어 도착한 강진현감의 보고문에, “금월 초 7일 진시 경에 비류 10,000여 명이 장흥부로부터 내려와서 사면으로 돌입하여 성을 함락하고 인가에 불을 질러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장리(將吏)·별포(別砲)·수성군과 성에 가득한 백성들이 포에 맞아 사살되

고 도륙되어 살아 도망친 자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건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니 삼가 황공하고 두려움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연달아 일본 진영에 알렸습니다. 대대장 미나미쇼시로(南少四郎)가 명령하여 3갈래로 군사를 출동하였는데, 대위 이시구로 고세이(石黑光正)는 그의 부하 1개 소대와 2개 분대, 교도중대 2분대를 거느리고 영암 땅으로 나아가고 제 1중대 1소대와 통위병 30명은 능주(綾州)의 땅으로 나아가고 히라기(白木) 중위는 그의 군사와 교도중대의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장흥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군사의 수는 모두 일본의 진영에서 거느리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보고하지 못합니다. 선봉진에서 거느리는 남은 부대는 진시 경에 60리를 행군하여 유시 경에 무안읍에 도착하여 이상 없이 숙박하고 식사를 한 연유를 알립니다. (大隊長南小四郎知委三路調兵大尉石黑光正領其部下一小隊及二分隊教導中隊二分隊進靈巖地第一中隊一小隊及統衛兵三十名進綾州地白木中尉領其兵及教導餘兵進長興地軍數皆日陣總領故未得指數以報是乎 先鋒率所領餘隊辰時量行軍六十里酉時量到務安邑無弊止宿供饋是乎等以緣由云云)

◇ 해설

『순무선봉진등록』은 양호선봉장(兩湖先鋒將) 이규태(李圭泰)가 2차 동학농민혁명 진압과정인 1894년 10월 11일부터 1895년 2월 5일까지 각처와 주고받은 공문들을 수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12월 11일 이규태가 무안에 도착하기전 배상옥의 도주 사실과 그 세력의 크기, 각 면의 접주들의 처리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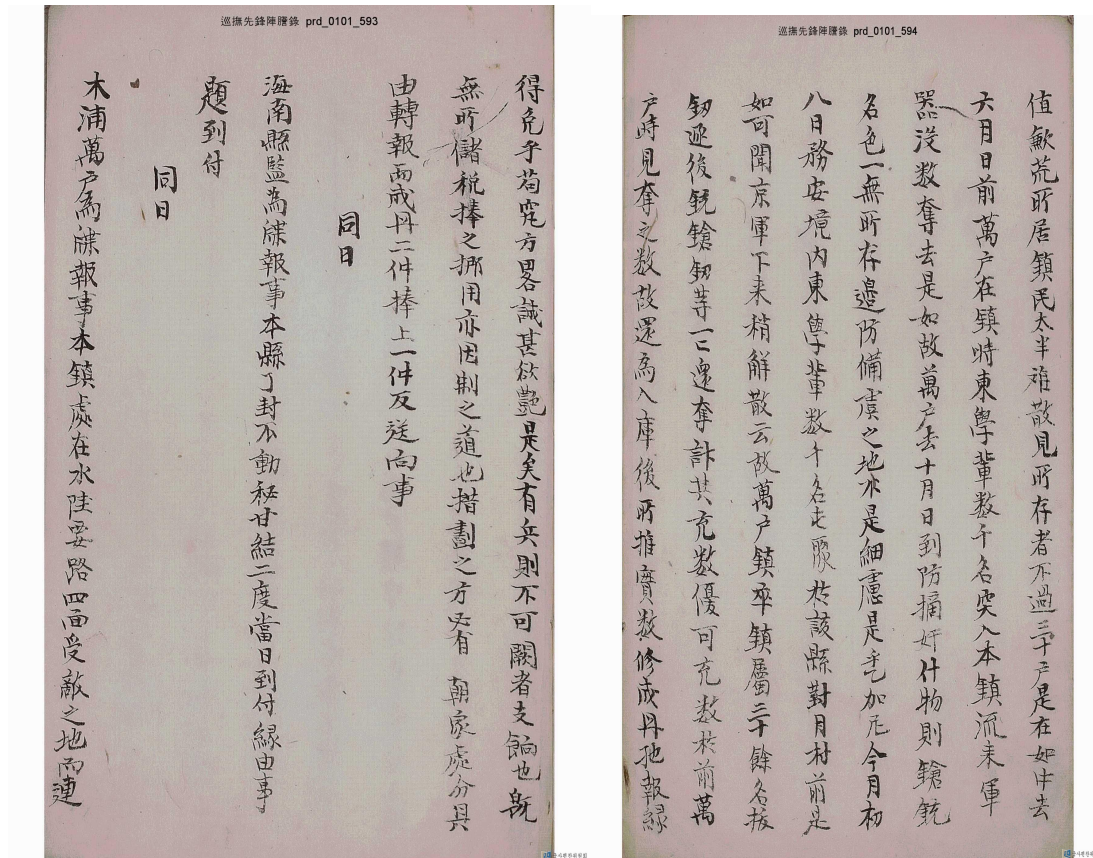
⑥ 『순무선봉진등록』 1894년 12월 20일

◇ 해석문 및 원문

목포만호(木浦萬戶)가 보고합니다. 목포진은 수륙(水陸)의 요로이고 사면에서 공격을 받는 곳에 처해 있는데다가 계속된 흉년을 만나서, 이곳 목포진의 백성들 태반이 떠나고 보아하니 남아 있는 자는 30호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모일 전 만호 재임 시에 동도 수천 명이 갑자기 목포진을 침입하여 내려오는 무기를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이 때문에 만호가 지난 10월 모일에 이곳에 도착하여 집기를 살펴보니 창과 총 등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변경을 방어하고 뜻하지 않은 일에 대비해야 할 처지에 적지 아니 염려하였더니, 이달(12월) 초 8일에 무안의 경내에 있는 동도 수천 명이 그곳 현의 대월촌(對月村) 앞에 모였다가 경군이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조금씩 해산한다고 하기에, 만호와 진졸(鎭卒)·진속(鎭屬) 30여 명이 칼을 뽑아들고 뒤를 쫓아 가서 총과 창, 칼 등을 낚낚이도로 빼앗아왔습니다. 그 수효를 계산해보니 전 만호 때에 빼앗긴 수효보다 많습니다. 이를 창고에 넣어둔 뒤에 찾아온 실제 수효를 헤아려서 책자로 작성하여 급히 보고합니다. (木浦萬戶爲牒報事本鎭處在水陸要路四面受敵之地而連值歉荒所居鎭民大半離散見所存者不過三十戶是在如中去六月日前萬戶在鎭時東學輩數千名突入本鎭流來軍器沒數奪去是如故萬戶去十月日到防摘奸什物則鎗銃名色一無所存邊防備虞之地不是細慮是豈加尼今月初八日務安境內東學輩數千名屯聚於該縣對月村前是如可聞京軍下來稍解散云故萬戶鎭卒鎭屬三十餘名拔劍逐後銃鎗劍等一一還奪計其充數優可充數於前萬戶時見奪之數故還爲入庫後所推實數修成冊馳

報緣 由事)

제(題): 책자는 받았거니와 군수물품을 이렇게 도로 찾아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칭찬할만하다. 마땅히 위에 전달하여 포상하고 장려할 것이다. (題: 成冊捧上是在果軍物之有此還推聞極可歎當轉報獎褒向事)



◇ 해설

1894년 6월 목포진에서 탈취된 무기를 12월 8일 무안 대월리에서 찾아옴. 그 양이 목포진에서 빼앗긴 양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아 각처에서 탈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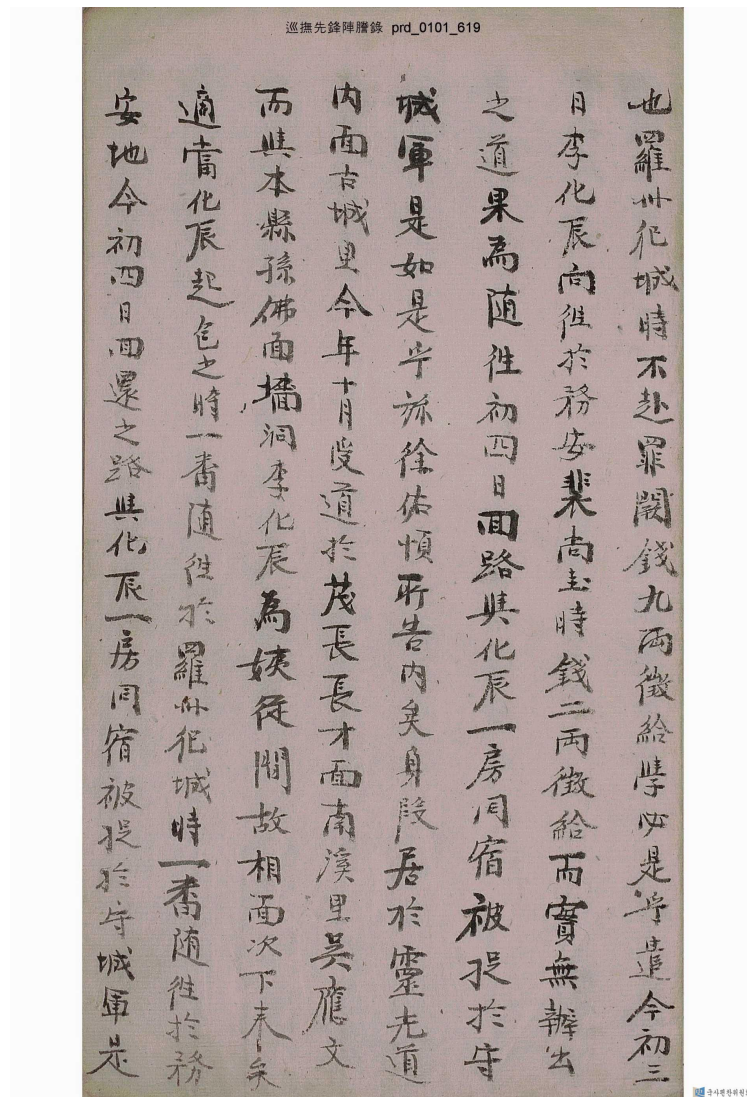
⑦ 『순무선봉진등록』 1894년 12월 22일

◇ 해석문 및 원문

함평현감이 보고합니다.“동학의 거괴 이화진, 접주 김경오·이춘익·노덕휘·이자면·이곤진·김성필·김인오·김성서·김치오·정곤서·김경선·윤경옥 등 14명을 잡아서 총살하고 이화진의 수종인 조병묵·서우순·김문조·이응모·김봉규·박준상 등 6명은 격식을 갖추어 엄히 가두고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또의 회답에, “열네 놈을 처형한 일은 마땅히 위에 전달하여 보고하겠다. 가두어 둔 6명은 심문하여 공초를 받아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그리하여 앞서 말한 죄인 6명을 엄히 심문하여 공초를 받았습니다. (咸平縣監爲牒報事東學巨魁李化辰及接主金京五李春益魯德輝李滋冕李坤辰金成必金仁五金成西

金治五鄭元五鄭坤西金京先尹京郁等十四名捕捉砲殺李化辰之隨從曹丙默徐佑愼金文祚李應模金奉圭朴俊尙等六名具格嚴囚以待 處分緣由牒報使題內十四漢之正法當轉報而在囚六名取招報來亦教是乎等以上項罪人六名嚴覈取招是如乎)

조병목이 아뢰기를, “이 몸은 손불면(孫佛面) 가덕산(加德山)에서 사는데 올해 9월 이 마을의 김학필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 학필은 바로 이화진의 사접(私接)입니다. 나 주성을 침범할 때에 나오지 않은 죄로 궤전(闕錢) 9냥을 학필에게 징수당하였습니다. 이달 초 3일 이화진이 무안 사는 배상옥(裴尙玉)에게 갈 때에도 돈 2냥을 주어야 하는데 실로 변통할 방법이 없어 끝내 따라 갔습니다. 초 4일 돌아오는 길에 이화진과 한 방에서 같이 묵다가 수성군에게 붙들렸습니다”라고 합니다. (曹丙默所告內矣身居生於孫佛面加德山今年九月受道於本村金學必而學必即李化辰私接也羅州犯城時不赴罪闕錢九兩徵給學必是乎遣今初三日李化辰向往於務安裴尙圭時錢二兩徵給而實無辦出之道果爲隨往初四日回路與化辰一房同宿被捉於守城軍是如是乎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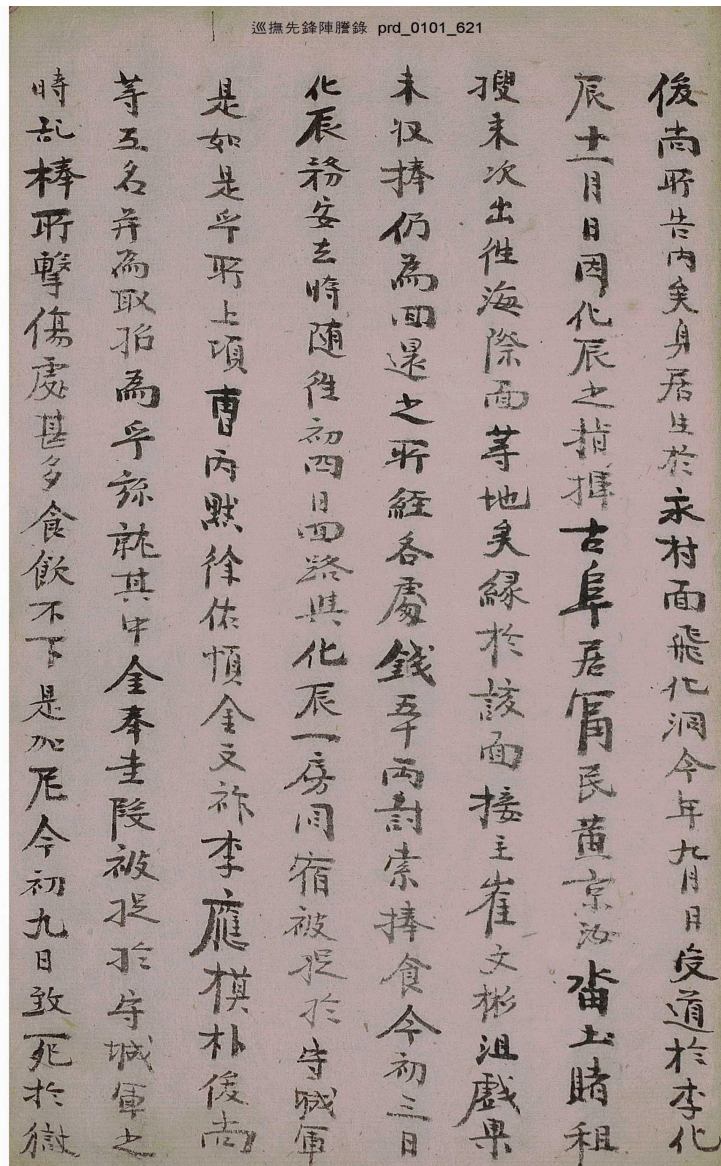


서우순이 아뢰기를, “이 몸은 영광 도내면(道內面) 고성리(古城里)에 사는데 올해 10월에 무장 장재면(長才面) 남계리(南溪里)에 사는 오응문(吳應文)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 본 현의 손불면 장동(牆洞)에 사는 이화진과는 이종간이 되기 때문에 만나 보기 위해 내려 왔다가 마침 이화진이 기포하는 때를 만나 한번은 나주성을 침범할 때에 따라 갔고, 한 번은 무안에 따라 갔었는데 이달 초 4일 돌아오는 길에 이화진과 한 방에서 같이 묵다가 수성군에게 붙들렸습니다”라고 합니다. (徐佑愼所告內矣身段居於靈光道內面古城里今年十月受道於茂長長才面南溪里吳應文而與本縣孫佛面牆洞李化辰爲姨從間故相面次下來矣適當化辰起包之時一番隨往於羅州犯城時一番隨往於務安地今初四日回還之路與化辰一房同宿被捉於守城軍是如是乎所)

김문조가 아뢰기를, “저는 손불면 가덕산에 사는데 올해 8월 모일에 이 마을의 접주 김학필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 학필은 바로 삼촌이라 사사로운 정이 없지 않았으나, 기포할 때에 끝내 따라가지 않다가 지난 달 모일에 이화진이 괴롭게 독촉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 부득이 이화진이 무안으로 갈 때 따라 갔습니다. 이달 초 3일에 이화진이 무안으로 갈 때에 또한 따라 갔으며, 초 4일 돌아오는 길에 이화진과 한 방에서 같이 묵다가 수성군에게 붙들렸습니다”라고 합니다. (金文祚所告內矣身居於孫佛面加德山今年八月日受道於本村接主金學必而學必卽三寸叔也不無私情終無隨行於起包矣去月日不勝李化辰之困督不得已一番隨往於化辰之務安去時今初三日化辰之務安去時亦爲隨往而初四日回路與化辰一房同宿被捉於守城軍是如是乎所)

이응모가 아뢰기를, “저는 손불면 가덕산에 사는데 올해 8월 같은 마을의 김학필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 이화진이 무안으로 갈 때 노자돈 200냥을 징수당하여 이를 마련해줄 길이 없어서 끝내 한번 따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화진과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붙들렸으나 달리 지은 죄는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李應模所告內矣身居在於孫佛面加德山今年八月受道於本村金學必而李化辰之務安下去時路需錢二兩徵給無路果爲一番隨往回還之路與化辰同房一宿至被捉無他所罪是如是乎所)

박준상이 아뢰기를, “저는 영촌면(永村面) 비화동(飛化洞)에 사는데 금년 9월 모일에 이화진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으며, 11월 모일에 이화진(동학군)의 지휘로 고부에 사는 부민(富民) 황경여(黃京汝, 장수 황씨로 종3품) 소유의 도조(賭租)를 수색해서 가져오기 위해 해제면(海際面) 등으로 갔다가 그 면의 접주 최문빈(崔文彬)의 저지로 인해 결국 거둬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돌아오면서 거쳐 오는 각 처에서 돈 50냥을 토색질해서 받아먹었습니다. 이달 초 3일 이화진이 무안으로 갈 때에 따라 갔다가 초 4일 돌아오는 길에 이화진과 함께 한 방에서 자다가 수성군에게 붙들렸습니다”라고 합니다. (朴俊尙所告內矣身居生於永村面飛化洞今年九月日受道於李化辰十一月日因化辰之指揮古阜居富民黃京汝畚土賭租搜來次出往海際面等地矣緣於該面接主崔文彬沮戲果未收捧仍爲回還之所經各處錢五十兩討索捧食今初三日化辰務安去時隨往初四日回路與化辰一房同宿被捉於守城軍是如是乎所)



이와 같이 위의 조병묵·서우순·김문조·이응모·박준상 등 다섯 놈을 모두 심문하여 공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김봉규는 수성군에게 붙들릴 때에 몽둥이에 마구 맞아서 상처가 매우 심하여 먹고 마시지를 못하더니 이달 초 9일에 옥에서 죽었기 때문에 문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보고합니다. (上項曹丙默徐佑愼金文祚李應模朴俊尙等五名竝爲取招爲乎旆就其中金奉圭段被捉於守城軍之時亂棒所擊傷處甚多食飲不下是加尼今初九日致死於獄中不得已取招緣由事)

제(題): 가두고 공초를 받아도 죄의 경중이 별달리 없을 것이 틀림없으며, 이런 따위의 죄수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조정의 명을 받드는 의미에서 아울러 다시 제사를 내린다. 그곳 읍의 공론을 따라 참작하여 처리한 뒤에 보고하도록 하라. (題: 必囚所供別無輕重而至於此等罪囚有何容貸者乎然而爲奉 朝家命意竝更題送自該邑從公議酌處後報來向事)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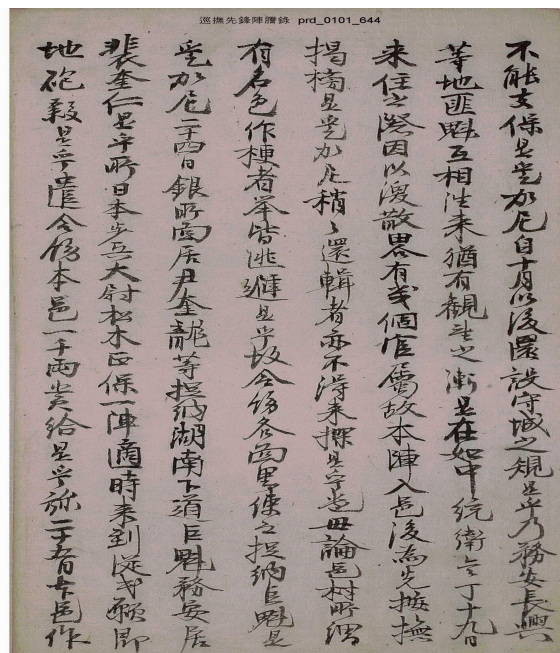
12월 22일, 함평현감이 함평 동학도를 잡아 심문한 결과를 선봉장 이규태에게 보고한 공문이 다. 함평 이화진과 수졸들이 12월 3일 무안 배상옥에게 갔다오다 4일 한방에서 자다가 잡혀왔

고, 박준상은 11월 해제로 황경여의 도조를 받으러 갔다가 접주 최문빈의 방해로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적고 있다. 여기에서는 배상옥의 영향력이 함평지역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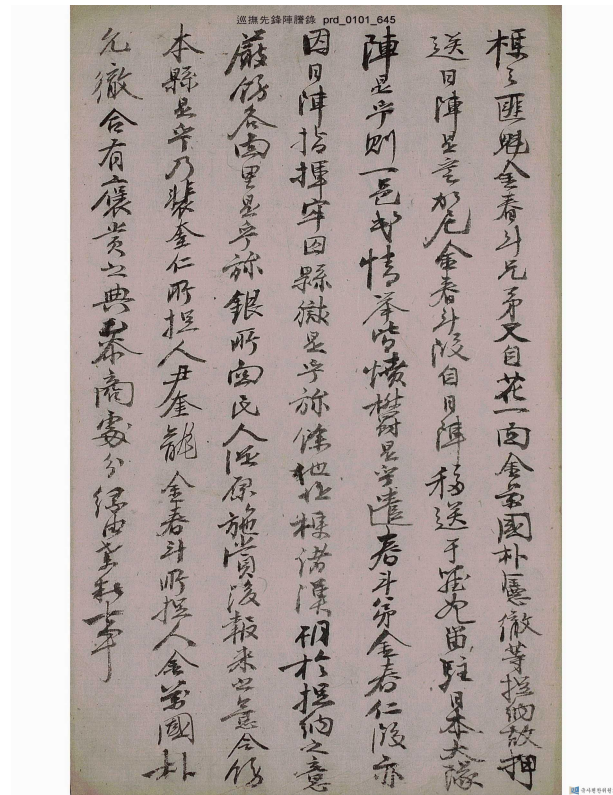
⑧ 『순무선봉진등록』 1894년 12월 26일

◇ 해석문

좌선봉진이 보고합니다. 22일 해남읍을 향해 나아간 연유는 이미 급히 보고하였거니와 미시 경에 읍에 도착하니 일본 병사와 교도병이 이미 일찍 떠났습니다. 성읍의 안팎에 열에 아홉이 빈집이라 보이는 것이 쓸쓸하였습니다. 우선 여론을 들으니 곧 여름·가을 이후부터 비류가 출몰하여 백성들이 지탱하여 보전할 수 없었으며, 10월 이후로 성을 지키는 규제를 다시 만들었으나, 무안·장흥 등지의 비류의 거괴가 서로 왕래하면서 오히려 관망하고 있던 추세였습니다. 그러던 터에 통위영 병사가 19일에 와서 머물자 비로소 《동학농민군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략 몇 명의 관속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본 부대가 읍에 들어온 뒤로 먼저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방문을 게시하였더니, 조금씩 돌아와 모이는 자가 있으나 또한 조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읍내나 촌락을 물론하고 이른바 명색이 못된 짓을 한 자는 대부분 도망갔기 때문에 각 면리에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거괴를 잡아들이게 하였더니, 24일 은소면(銀所面)에 사는 윤규룡(尹奎龍) 등이 충청도 하도(下道)의 거괴로 무안에 사는 배규인(裴奎仁)을 잡아들였습니다. 마침 일본의 보병대위 마스끼 세이보(松木正保) 일행이 도착하여 백성이 원하는 대로 즉시 그 자리에서 총살하고 본 읍에 명령하여 1,000냥을 상으로 주게 하였습니다.(1895년 1월 2일 좌선봉진의 보고: 본 진영은 일본대위 마스끼 세이보와 함께 (해남)주둔하고 있다. 일본 진영의 지휘로 능주로 파견한 교장 황수옥이 거느린 병사 30명이 장흥을 토벌한 후에 24일 일본 진영 소위와 함께 본 읍(해남)에 와서 주둔하다가, 26일 일본 소위와 함께 우수영(右水營)·진도 등지로 갔으며, 상황을 정탐하니 남면 칠량 등에서 농친 비류가 혹 산골짜기에 숨어 있거나 혹 바다를 넘어 섬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다. 본 (해남)현감은 각별히 수성소를 설치하여 날마다 저들의 뒤를 쫓아 붙잡는 것을 일삼고 있다. 이어 29일 松木正保도 우수영 등지를 향해 진군하였다)



25일 -전략- 은소면의 주민들에게는 민이 원하는대로 상을 내린 뒤에 보고하라고 본현에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배규인을 잡은 윤규룡과 김춘두를 잡은 김만국·박윤철(朴允徹)은 모두 칭찬하고 상주는 은전이 있는 것이 합당하니 참작하여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정을 보고합니다. (銀所面民人從原施賞後報來之意令飭本縣是乎乃裴奎仁所捉人尹奎龍金春斗所捉人金萬國朴允徹合有褒賞之典參商處分緣由牒報事)



◇ 해설

12월 24일 해남 은소면에 사는 윤규룡이 ‘충청도 하도의 거괴’ 배규인을 잡아와 현장에서 총살하였다는 사실과 윤규룡에게 상금으로 천 냥을 주었음.

⑨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 해석문 및 원문

1894년 12월 죄수는 본군(本郡)에서 교졸(校卒)과 민병(民兵)을 많이 징발하여 나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진영의 대대본부(大隊本部)에 압송하라”고 하였다.

이 날 도착하여 받은 일본군 진영의 대대장(大隊長) 미나미쇼시로(南小四郎)의 지시에, “행군하는 며칠 동안 지나온 곳의 적의 동태가 과연 어떠하고, 지금은 어느 곳에 도착했는지, 어찌 하여 보고를 하지 않아 답답하고 울적한 데 이르게 하는가? 연이어 남쪽에서 오는 보고를 들어보면, 비도(匪徒) 10,000여명이 장흥에서 해당 수령(부사 박헌양)을 죽이고 이어서 강진성을 무너뜨렸다고 한다. 그래서 병사를 세 길로 보내는데, 한길은 능주(綾州)에서 제 1중대가 바로 장흥과 강진으로 향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나주에서 바로

영암과 강진으로 향하는 길이며, 또 다른 한길은 무안(務安)과 목포(木浦)에서 해남과 강진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다. 비류가 대군이 오는 것을 보고 해남으로 도피할 것이다. 만약 그대 쪽의 적들을 소탕했다면 강진 등으로 가서 힘을 합쳐 토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착한 곳은 일에 따라 자주자주 빨리 보고하라. 순천 등지에 있는 적의 사정을 상세하게 빨리 보고하라. 만약 그들이 창궐한다면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된다. 남쪽으로 가서 상세히 보고하라”고 하였다.

12월 23일 맑고 추웠다. (二十三日晴寒) 회령면(會寧面: 지금 보성 회천면) 통수(統首) 등의 보고에, “본 면의 각 마을에 다른 곳에서 도망 온 자와 원래 거주했던 무안(務安)의 접주 박치경(朴致京)·박채현(朴采玄) 및 접사(接司) 임학(林鶴), 그리고 위협에 못 이겨 따른 김몽길(金夢吉) 등 4명을 결박하여 올려 보냅니다”라고 하기에, 답신하기를, “거괴를 잡아 보내는 일은 각 면(面)에 전령을 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본 면의 백성이 마음을 쓰고 힘을 내어 잡아서 바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으니 매우 가상하다. 계속 기찰하여 동도를 잡아 흔쾌하게 스스로 해명을 하라”고 하였다. (會寧面統首等所告內本面各里良中他處逃來者與原居 務安接主 朴致京 接主 朴采玄 接司 林鶴 脅從 金夢吉 合四漢縛上云云 題曰以捉納巨魁事傳令于各面已有多日尙今寥寥本面之民用心出力捉納居先殊庸嘉尙連)

是日果與日本陣另加相確期圖討滅後馳報云云○會寧面統首等所告內本面各里良中他處逃來者與原居務安接主朴致京接主朴采玄接司林鶴脅從金夢吉合四漢縛上云云題曰以捉納巨魁事傳令于各面已有多日尙今寥寥本面之民用心出力捉納居先殊庸嘉尙連加詞捉快自發明云云

二十四日晴

順天府兼仁樂安郡守報內同府排納白木二百疋去核二百斤內白木一百疋去核一百斤前已輸納是差在果餘在白木一百疋去核一百斤當日準數輸上緣由云云題曰依所納捧上○求禮縣監牒報內本縣罪人李起漢

右先鋒 二〇三〇年三月廿一日

◇ 해설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순무영(巡撫營) 예하 선봉장(先鋒將, 1894년 11월 26일부터는 兩湖右先鋒將) 이두황(李斗璜, 1858~1916)의 진중일기로 1894년 9월 10일부터 1895년 2월 18일까지의 일기체 기록이다. 이 일기는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전라좌도의 개황이 특히 상세한 것이 그 특징이다. 일본군 사령관 南小四郎의 지휘 하에 전라좌도 남원 방면으로 진출하여 순천·광양 등지에서 현지 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12월 무안의 동학군이 해남으로 도피할 것을 예상하고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⑩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 해석문

12월 21일에 나주에 있는 일본군 진영에 교장(敎長) 추광엽(秋光燁)을 보내고 돌아오는 인편에 온 미나미 쇼시로(南小四郎)의 편지에, “하나, 장흥과 강진 부근의 관민(官民)이 모두 동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엄중히 조치하도록 힘쓰고 처리하라. 둘, 해남지방에는 제 1중대와 제 3중대 및 교도중대를 이미 파견했기 때문에 귀관(貴官)은 장흥부근에 머물면서 잔여 적을 체포하라. 셋, 우리 해군이 좌수영에서 크고 작은 함선(艦船) 2척으로 남서(南西) 근해를 순행하는 것은 바로 달아나서 숨는 동도를 막으려는 것이다.

각 섬의 민인들에게 전령을 보내 말하기를, “좁은 섬에서 사는 것이 본래 괴롭고 힘들다. 돌밭을 갈아 심는 것은 차조에 불과하며 계를 잡아 살아가니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뿐이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매우 불쌍한데, 근래에 흩어진 비류가 섬 안에 도망가서 숨어 그들의 먹과 입을 것을 나누고 있다. 불쌍한 섬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비도 중에 행패를 저지르고 침탈을 하는 자는 바로 결박하여 진중 앞에 바치고, 침탈을 하지 않고 해치지 않는 자는 각각 돌아가서 생업을 안정시키게 하라. 거괴는 지금 이미 체포를 하였고 섬에 흩어져 있는 자는 모두 위협에 못 이겨 따른 자들이니, 특별히 《죄를》 다스리지 않는 은전(恩典)을 베풀 것이다. 혹시라도 의심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돌아가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삶을 즐기도록 일일이 타일러서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 해설

아래 함선(艦船) 2척은 쓰쿠바호와 그 부속선인 조강호(操江號)를 말한다. 이곳 농민군은 장흥, 강진 그리고 무안, 해남일대에서 패주한 뒤 완도 등 여러 섬으로 들어갔다. 이곳 토벌을 맡은 이규태의 좌선봉진은 전함이 없어 섬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따라서 두 일본 함선은 여수를 거쳐 해남의 전라우수영을 중심으로 섬으로 들어간 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 일본군 진영의 대대본부(大隊本部) : 중앙정부에서는 이해 10월에 충청도 해안지방 토벌을 담당할 초토사로 홍주목사 이승우를 임명하고 이어 호남을 토벌할 초토사로 나주목사 민종렬을 임명하고 각기 초토영을 두게 했다. 패주 농민군이 남하하자 일본은 나주에 특별히 대대본부를 설치하고 미나미쇼시로(南小四郎) 소좌를 그 책임자로 임명하여 농민군 주요 지도자를 신문하거나 선별해 서울로 압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⑪-1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전령 나주(羅州) 삼향면(羅州三鄉面) 민병소(民兵所) 도검찰(都檢察)에게 보낸 음력 1894년 12월 15일 (양, 1895년 1월 10일)

◇ 해석문 및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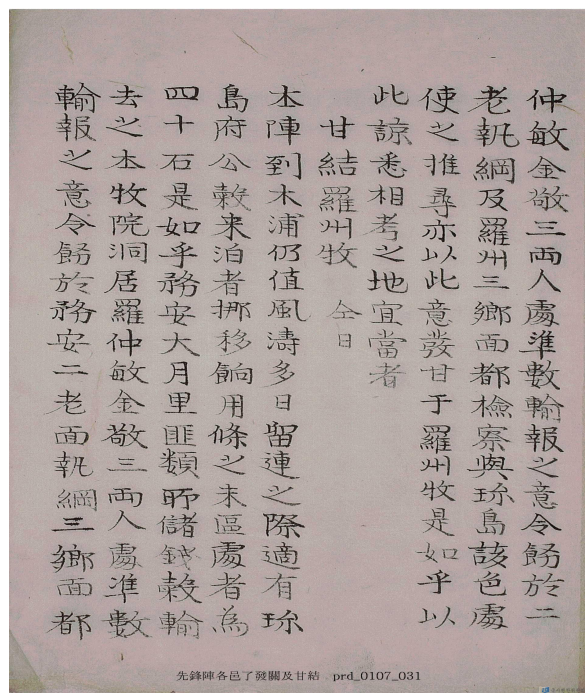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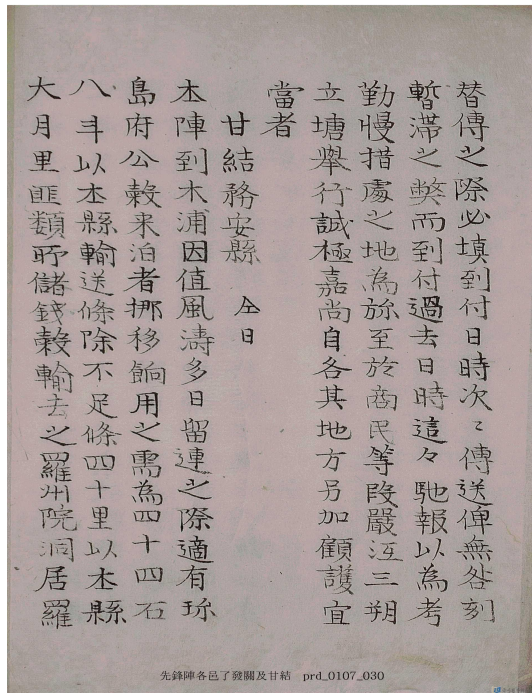
일전에 행진한 길에 여러 차례 거듭 신칙하였다. 과연 잘 단속하여, 몇 명의 거괴(巨魁)를 추적하여 잡았으며, 명의를 돌아보아 폐단을 끼치지 않는지? 몇 십, 몇 백 명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 두려워 하게 되니, 충분히 마음에 새겨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본진은 목포에 주둔하고 있는데, 마침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머물지 않을 수 없다. 연이어 흉년이 들어 돈과 곡식을 배정하여 사용할 길이 전혀 없다. 마침 무안(務安) 대월리(大月里)에 비류(匪類)가 저축해둔, 곡물 100여 석과 돈 1,000여 냥과 나머지 물건 들이 있는데, 너의 의병소(義所)에서 모두 집류(執留)하였다고 들었다. 이에 전령하므로 그 중에서 돈과 곡식을 뒤(後)에 기록한 것에 의거하여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운송하여 보내라. 짐을 질 민정(民丁)은 2읍의 부근 마을 중에서 절반씩 배분하여 동원하여 보내어, 군수를 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는 막중하고 긴급한 임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설혹 이미 너의 관가에 보고하여 집류(執留)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심하여 두 마음을 갖지 말고 빨리 거행하여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두민(頭民) 2, 3인을 시켜 입회하여 바치도록 하라.

이에 무안의 민정들에게는 여기서 지시할 것이다. 만일 지시가 있으면 도검찰(都檢察)과 부검찰(副檢察) 2인이 와서 보고하라. 후(後) 백미 55석, 돈 200냥, 김치 3동이 (日前行陣之路有所申復?飭矣果能操束而?捉幾漢巨魁顧名思義不至滋弊是喻十百爲群所見危怖十分?念毋或抵罪爲?本陣留駐木浦適有風濤不得不留連而值?錢穀萬無支排之道是在如中適聞務安大月里匪類所儲穀百餘石錢千餘兩餘他等物自汝矣義所盡數執留是如故玆以傳令爲去乎就中錢穀依後錄令到卽刻輸送是矣負持民丁段兩邑附近里中折半式配備發丁以爲軍需繼用之地是矣此係莫重緊急之務設或已報于汝矣官家而執留者毋或疑慮携貳星火舉行毋至大生梗之地而使頭民數三人眼同來納宜當向事 此亦中務安民丁段自此知委而若有知委都副檢察兩人來告次 後白米五十石錢二百兩沈菜三盆)

⑪-2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같은 날(1894년 12월 16일) 무안현에 발송한 감결[甘結務安縣 同日]

◇ 해석문 및 원문

본진이 목포에 도착하여 풍랑으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을 때에 마침 진도부(珍島府)의 공곡(公穀)이 와서 정박해 있기에 그것을 군량으로 대체한 것이 44석(石) 8두(斗)가 되니, 본현에서 수송할 것을 제하고 부족한 40석은 본현 대월리(大月里)의 비적이 저축해둔 전곡(錢穀)을 나주(羅州) 원동(院洞)에 사는 나중민(羅仲敏), 김경삼(金敬三) 두 사람한테로 실어가서 숫자에 맞게 실어다 갚는다는 내용으로 이르면(二老面)의 집강(執綱) 및 나주(羅州) 삼향면(三鄉面) 도검찰(都檢察)과 당해 담당자한테 영칙(令飭)하여 추심하도록 하라. 또한 이런 내용으로 나주목에도 감결을 발송하였으니, 이렇게 알고 서로 상고하도록 할 것. (甘結務安縣 十六日 本陣到木浦因值風濤多日留連之際適有珍島府公穀來泊者挪移餉用之需爲四十四石八斗以本縣輸送條除不足條四十里[石]以本縣大月里匪類所儲錢穀輸去之羅州院洞居羅仲敏金敬三兩人處準數輸報之意令飭於二老執綱及羅州三鄉面都檢察與珍島該色處使之推尋亦以此意發甘于羅州牧是如乎以此諒悉相考之地宜當者)



⑪-3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전령 무안(務安) 이로면(二老面) 집강과 나주(羅州) 삼향면(三鄉面)의 도검찰(都檢察)에게 보낸 음력 1894년 12월 16일(양, 1895년 1월 11일)

◇ 해석문 및 원문

본진(本陣, 선봉진)이 목포(木浦)에 주둔한 지 이미 4일이 되었다. 피폐한 진(鎭)에 흉년이 든 나머지, 민의 사정이 군량을 댈 형편이 전혀 안 된다. 마침 지나가다 정박한 진도읍(珍島邑)의 세미선이 있어 우선 유용〔挪移〕하여 군량으로 사용하였다. 또 무안(務安) 대월리(大月里)에 비류(匪類)들이 쌓아둔 돈과 곡물을 운반해 둔 것이 있다고 들었다. 그것으로 수량을 채우기 위해, 어제 삼향(三鄉) 의병소(義所)의 도검찰(都檢察)에게 전령을 보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듣기로 삼향의 원동(院洞)에 사는 나중민(羅仲敏)과 김기삼(金基三) 2인이 모두 가져가서 애초에 의병소가 관할한 바가 없다고 한다. 나중민과 김기삼 2민(民)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속공(屬公)한 돈과 곡물을 마음대로 옮겨두니 무슨 생각인가? 수요가 분명하니 마땅히 나중에 조치할 길이 있을 것이 거니와 우선 뒤(後)에 기록한 수량에 맞게 쌀을 옮겨서 진도(珍島)의 색리(色吏, 담당 구실아치)에게 지급하여 잠시라도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 만일 혹시라도 해당 색리를 지체시키는 폐단이 있으면, 나중민과 김기삼 2인을 군율로 시행하고 결코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 또한 그 죄를 면할 수 없으니 근심하는 듯 생각해 거행하여 죄를 지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本陣之留駐木浦已爲四日殘鎭之歎餘民情萬無餉支之道是在如中適有珍島邑過泊稅米船爲先挪移餉饋而又聞務安大月里匪類所儲錢穀輸去者故爲其充數昨有傳令三鄉義所都檢察矣矣今聞三鄉院洞居羅仲敏金基三兩人沒數輸去初無義兵所所管是如爲置羅金兩民未知何許人而以屬公之錢穀任自輸置抑何主見是喻數爰昭然自當有從後措處之道是在果爲先後錄米準數輸給於珍島邑吏俾無暫滯之弊是矣如或有該邑吏滯留之端則羅金兩人之施以師律斷不可容貸訖除良汝矣亦難免其罪惕念舉行毋至抵罪時後悔向事)

⑪-4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12월 16일 나주목에 발송한 감결[甘結羅州牧 同日]

◇ 해석문 및 원문

본진이 목포에 도착하여 풍랑으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을 때에 마침 진도부(珍島府)의 공곡(公穀)이 와서 정박해 있기에, 그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군량으로 대체한 것이 44석(石) 8두(斗)가 되니, 무안(務安) 대월리(大月里)의 비적이 저축해 둔 전곡(錢穀)을 나주(羅州) 원동(院洞)에 사는 나중민(羅仲敏), 김정삼(金敬三) 두 사람한테로 실어가서 숫자에 맞게 실어다 갚는다는 내용으로 무안 이로면의 집강과 나주 삼향면 도검찰 및 당해 담당자한테 영칙하여 추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런 내용으로 무안현에도 감결을 발송하였거니와, 만일 혹시라도 지체하는 일이 있거든 엄히 신칙하여 추심해 줄 것이며, 실어간 전곡 중에 계산하고 남은 것은 본 나주목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 (本陣到木浦仍值風濤多日留連之際適有珍島府公穀來泊者?移餉用條之未區處者爲四十石是如乎務安大月里匪類所儲錢穀輸去之本牧院洞居羅仲敏金敬三兩人處準數輸報之意令飭於務安二老面執綱三鄉面都檢察及珍島該色處使之推尋亦以此意發甘于務安縣是在果若或有遲滯之端是去等嚴飭照數推給爲?輸去錢穀餘在條段自本牧詳查措處宜當者)

⑪-5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12월 19일 무안 이로면의 집강과 풍헌에게 전달한 훈령[傳令務安二老面執綱及風憲 十九日]

◇ 해석문 및 원문

목포진(木浦鎭)에서 경작한 벼는 당초 사곡(私穀)이 아니고 바로 공곡(公穀)에 해당한 것이었는데, 대월리(大月里) 비류의 거물급 괴수가 빼앗은 벼가 7석에 이른다. 이들의 전곡(錢穀)을 가지고 간 사람한테 곧 조사해서 받아내 당해 진(鎭)에 수송한 뒤에 봉표(封標)를 받아 돌아오라. 만일 지체하거든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니, 이것을 단단히 각오해서 거행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木浦鎭且耕租初非私穀係是公穀而大月里匪類巨魁之所奪租至爲七石是如乎此輩之錢穀持去人處卽爲查出輸送該鎭後受封標考還是矣如或遲緩未免抵罪以此惕念舉行無至後悔宜當者)

⑪-6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같은 날(12월 19일) 진도의 색리에게 전달한 훈령[傳令珍島色吏 同日]

◇ 해석문 및 원문

지금 이 군수양곡(軍需糧穀)은 너희 배에 실린 곡물 중에서 대체해 썼는데, 무안(務安) 대월리(大月里) 비류가 쌓아 놓은 곡물 중에서 실어갈 것을 수량에 맞추어 실아다가 지급할 뜻으로 무안 이로(二老)의 집강(執綱)과 나주(羅州) 삼향(三鄉)의 도검찰(都檢察)에게 영칙하였으니, 백미(白米)는 후록에 의하여 수량에 맞게 추심하고, 마태(馬太)는 너희의 읍 모종의 공곡(公穀) 중에서 수량을 채운 뒤에 즉시 보고해 와서 징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今此軍需餉籌以汝矣船載穀中挪用而務安大月里匪類儲穀輸去條中準數輸

給之意才有令飭於務安二老執綱羅州三鄉都檢察是如乎白米段依後錄準數推尋是遣馬太段自汝矣邑某樣公穀中充數後卽爲報來以爲憑處之地宜當者)

⑪-7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같은 날 무안현에 발송한 감결[甘結務安縣 同日] (甲午 12월 12일)(양, 1895년 1월 7일)

◇ 해석문 및 원문

본 읍(무안)은 바다 한 귀퉁이에 궁벽하게 위치해 있어서 아직도 교화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학의 무리들이 창궐할 때에 강제로 포용을 당한 자는 그것을 요행으로 여기고 좋아서 따른 자는 이 때를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여겨서 점점 혼란한 지경으로 빠져들었으니, 거기에 물들지 않은 평민은 거의 드물 것이다. 그러니 탄식하고 통탄한 마음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미 효유한 방시문(榜示文) 중에 조가(朝家)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으니,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찌 깨닫는 마음이 없겠느냐? 다행히도 본현의 현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적의 신분을 밝혀내고, 의병들은 힘을 합쳐서 비적의 행방을 적발해내고, 촌민들은 끝까지 비적의 실상을 파악해서 괴수와 접주를 붙잡았다. 그래서 그들을 이미 처단하기도 하고 또는 수감하기도 하였다. 법망(法網)에서 빠져나간 놈들이 약간 있지만, 어찌 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본진(本陣)이 이 지방을 지나갈 때에도 보고 들은 것이 많다. 그러나 단지 엄한 군율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군민(軍民)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한편으로는 비적을 징계하였거니와, 그 밖의 수감되어 있는 놈들에 대해서는 다시 군수품의 소재처와 흉악한 행동을 한 사실을 조사하여 범죄사실의 경중을 분간해서 본 읍으로부터 조치한 뒤에 순무영과 순영에도 보고하고 본진에도 보고하도록 하라. 후록한 여러 놈은 수성군(守城軍)과 함께 잡아놓고 본진이 당도할 때까지 기다릴 것. 후록배규찬(裴奎贊), 오덕민(吳德敏), 조광오(趙光五), 김문일(金文日), 박경지(朴京之), 박기운(朴沂雲), 김효문(金孝文), 양대숙(梁大叔), 서여칠(徐汝七), 박기연(朴淇年). (本邑僻在沿隅猶有化澤之未及處是在如中際此東學輩猖獗之時被勒者謂之僥倖樂從者謂此時可乘駸駸然渾歸搶攘之域平民不染者幾乎希矣可勝歎惜痛恨哉已於曉諭榜示中洞盡朝家之盛意雖愚夫愚婦寧無回悟之意乎幸賴本倅之設力鉤覈亦有義旅之奮力摘發且有村民之到底核實捕得魁接略爾輩或已酌處亦有就囚縱有若個漏網豈無按法之道本陣行過此地亦所見聞亦多然不可只以莫嚴之律一施其法故一以謝軍民一以懲匪輩是在果餘他在囚之諸漢段更查軍物所在處及行兇情節分輕重自邑措處後兩報巡撫營及巡營一報本陣是矣後錄諸漢段眼同守城軍捉待本陣宜當者 裴奎贊吳德敏趙光五金文日朴京之朴沂雲金孝文梁大叔徐汝七朴淇年)

⑪-8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1894년 12월 13일 무안과 함평에 발송한 감결[甘結務安咸平 甲午十二月十三日]’

◇ 해석문 및 원문

본 읍(무안)에는 각각 방수(防守)하는 군사가 있고, 또한 각 면리(面里)에서는 세심히 살펴서 비적을 잡는 일이 있었으므로, 경내에 있는 거물급 괴수들은 각각 살펴서 모조리

잡아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각 읍의 수성군(守城軍)들이 기포(譏捕)한답시고 핑계대면서 마을에서 온갖 폐단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지경을 넘어가서 소요를 일으킨다니, 난을 겪은 고달픈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안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각별히 금칙(禁飭)하도록 할 것. (本邑各有防守軍亦有各面里調捉之舉境內巨魁之各其譏捕已所曲盡而今聞各邑守城軍輩稱以譏捕作弊閭里無所不至忿除良甚至有越境侵擾使此經亂困瘁民情其何以復奠厥居乎各別禁飭宜當者)

⑪-9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1894년 12월 14일 무안현에 발송한 감결[甘結務安縣 甲午十二月十四日]’

◇ 해석문 및 원문

어제 행진하는 길에 지나면서 보니, 나주(羅州) 삼향면(三鄉面)의 민병(民兵)이 ‘비적을 잡는다’고 칭하면서 열 명 또는 백 명이 무리를 지어 연로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부당하게 소란을 피우는 폐단에 대해 엄히 주의시켰다. 죄인 두 명을 잡아 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행진을 멈추고 사실을 조사하였더니, 한 명은 이미 잡힌 접주의 처남이고, 다른 한 명은 성찰(省察)하는 수종(隨從)이었으니, 여리(閭里)에 폐단을 끼친 단서를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죄인을 본현 의병에게 넘겨주어 각 해당 마을에 가두게 하고 봉표(捧標)를 붙인 뒤에 감결을 발송하니, 상세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 후록: 이로면(二老面) 내화촌(乃化村)의 박돌암(朴覓岩)과 도미동(道美洞)의 이병렬(李炳烈). (昨日行陣之路歷見羅州三鄉民兵稱以捕捉匪類十百爲群沿路遍滿故招致嚴飭其橫閭之弊矣及見捉得罪人二名而來故駐陣查實則一是已捉接主之妻男也一是省察之隨從也可知貽弊閭里之端故出付本縣義兵使之保囚於各該里捧標粘後發甘爲去乎詳細查實措處之地宜當者 後: 二老面 乃化村 朴覓岩 道美洞 李炳烈)

⑪-10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12. 14일 나주-삼향, 시랑, 거평, 수다, 곡강, 두동 각 면의 집강에게 전달한 훈령[傳令羅州-三鄉 侍郎 居平 水多 曲江 豆洞 各面執綱- 甲午十二月十四日]

◇ 해석문 및 원문

전번에 각처 비류(匪類)가 고막(古幕) 등지에 모여서 각 마을의 우마(牛馬), 전곡(錢穀), 집물(什物)을 마음대로 약탈하였으니, 이는 전에 없던 변괴다. 그러나 하늘이 벌을 내려서 오늘 거개가 사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너희 면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다른 고을의 경내로 들어가 침탈함으로써 변란을 겪고 남은 백성들이 또 흩어지게 되었다니, 듣고 몹시 놀랐다. 그러므로 어제 이런 내용으로 초토영(招討營)에 공문을 보냈고, 이에 또 영칙(令飭)을 하니, 일일이 각 면에 효유하여 다른 지경에 넘어가서 침탈하는 일이 없게 하라. 만일 이 영칙을 따르지 않고 무안(務安)에 올라와서 호소하게 만든다면 소요를 일으킨 당해 면의 집강은 단연코 엄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거행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向日各處匪類蝟集古幕等地各村牛馬錢穀什物惟意掠奪此乃無前變怪也天降斯罰今日舉皆伏誅是去乙汝矣面各人藉托失物越侵務境致使經怯

餘民又至渙散聞甚駭然故昨以此公移招討營茲又令飭面面曉諭於各面俾無越侵是矣如或不遵至登務安呼訴則作鬧該面執網斷不免嚴繩惕念舉行無至後悔宜當者)

⑪-11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같은 날(12월 14일) 무안 일로면의 도정에게 전달한 훈령[傳令務安一老面都正 同日]

◇ 해석문 및 원문

전번에 비도(匪徒)가 소요를 일으킨 것은 온 도내에 다 그랬는데, 하늘이 벌을 내려서 오늘 거개가 사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소위 ‘경영(京營)의 교졸(校卒)’이란 것들이 포착(捕捉)을 핑계로 침탈(侵奪)하는 폐단이 많다고 하니, 당해 면에서 속히 보고하여 조치할 소지를 삼도록 할 것. (傳令務安一老面都正 十四日向於匪徒之作鬧道內同然而天降斯罰今日舉皆伏法是去乙所謂京營校卒輩藉托捕捉多有侵漁之弊云自該面馳報以爲措處之地宜當者)

⑪-12 『선봉진정보첩(先鋒陣呈報牒)』 ‘무안현감이 첩보합니다.’務安縣監爲牒報事(開國五百三年十二月十四日)

◇ 해석문 및 원문

행차가 떠나신 뒤에 잡은 적들의 명수를 이미 죽은 것과 아직 갇혀있는 것을 구별해서 장부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에 잡아 가둔 죄인 중에 박영삼(朴永三)은 원통해 할 만한 단서가 있으므로 놓아 보냈으니, 그에 대한 연유도 아울러 첩보합니다. 이와 같이 첩정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첩정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첩보를 양호순무선봉께 올립니다. 개국 503년 12월 (인) 14일 행현감(行縣監) 이(李) (화압) 작성한 장부는 올렸거니와 아울러 전에 가둔 죄인도 일체 자세하게 조사해서 처리할 것이며, 수성군이 부정을 자행하는 폐단도 각별히 금하도록 할 것. 15일 (인) 목포(木浦)에서 양호순무좌선봉 (花押)

(務安縣監爲牒報事離發行次後所捉彼類名數已殺姑囚區別成冊修上而前矣捉囚中朴永三有可冤之端故放送緣由竝以牒報爲臥乎事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兩湖巡撫先鋒 開國五百三年十二月十四日印行縣監 李 花押 成冊捧上是在果并與前囚一體詳查酌處爲旆守城軍橫肆之弊另飭禁斷宜當向事 十五日印在木浦 兩湖巡撫左先鋒 花押 甲午十二月初十日)

◇ 이상 ⑪의 자료에 대한 해설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은 1894년 10월 14일부터 이해 12월 26일까지 장위영 좌선봉장 이규태가 장위영·통위영·경리청 등의 부대와 휘하 각지의 수령과 의병소와 수성군 등에게 내린 전령을 모은 책이다. 12월 8일 무렵, 무안 대월리에서 동학군이 남기고 간 곡물 100여 석, 돈 천 냥 등을 삼향 거주민이 거두어갔는데, 아래는 이의 처리에 관한 공문 내용이다.

⑫-1 『日本士官函牒』 음력 1894년 12월 10일 (양, 1895년 1월 5일)

◇ 원문

甲午十二月初十日 一 賊徒現在靈巖康津等地事 二 大隊明日滯在事 三 大尉石黑光正領其部下一小隊及二分隊與教導中隊二分隊午前八點出發經過靈巖討康津賊事

自 第一中隊出一小隊前往綾州寶城經過長興附近地擊康津賊事 四 白木中尉領其部下兵及教導中隊餘兵午前八點出發經過元亭收長興附近攻康津賊事但 第一中隊及第三中隊算定協力包圍攻擊事 五 統衛大隊長 先鋒將領 其部下 二百名 明朝八點 出發自務安木浦 駐龍浦 南里驛 海南搜索沿路捕縛賊徒是矣 若得巨魁則送付征討軍本部事 但 左件事嚴禁事掠奪民財駕坐步輦二件事絕禁事 六 統衛兵三十名士官一名增加於綾州附近所在第一中隊事

⑫-2 『公函日本大隊長(甲午十二月二十五日)』 음력 1894년 12월 25일 (양, 1895년 1월 20일)

◇ 원문

本月二十一日貴報二十三日領受海南作梗之匪類逋逃方跟捕而 務安巨魁 裴奎仁 昨日捉來果是巨魁與 松木相議 從民願當日砲殺尙有一二漢未捉也 彈丸姑無用處隨所用輸來計料而經理陣及教導所自貴所分派伏祝 第一中隊松木再昨抵邑聽其指揮也 錦營書報中青山報恩匪魁更肆請援似已照亮調派便否教示是希黃凡秀事感謝感謝

◇ 이상 ⑫ 자료에 대한 해설

『일본사관함등』은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고 있는 일본군 대대장 육군대위 南小四郎과 육군보병 대위 森尾雅一, 黑石光正 등이 선봉장 이규태에게 보낸 서한을 등록한 자료이다. 여기 12월 10일자에서는 선봉장 이규태와 부하 200명(明朝八點은 일본인?)은 무안 목포를 출발하여 주릉, 남리역, 해남을 수색했다. 이때 거괴를 잡으면 즉시 토벌대의 본부(나주)로 압송하라하고 있다. 12월 25일자에서는 24일 배규인을 잡아 松木와 상의하고 주민의 원에따라 총살한 사실과 12명은 아직 잡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⑬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권4 1895년 1월

◇ 해석문 및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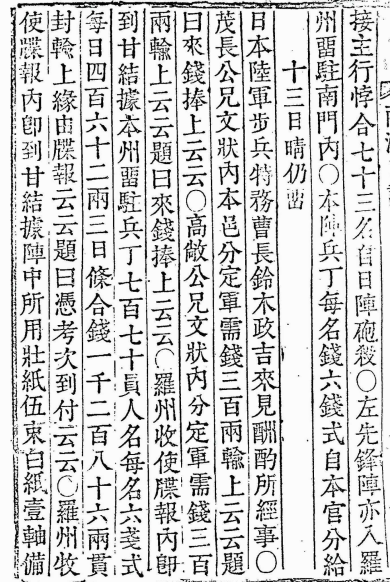
지난 12월 30일, 94명 중에서 73명은 일본 진영에서 쏘아 죽였고, ‘각처에서 획득한 돈·곡식·군기와 죽인 죄인들의 성명을 아울러 수정한 후 성책하여 급히 보고하라’하였기에, 성책하여 베껴 쓴 후 올려 보냅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중략-(領抵到羅州罪人等姓名修成冊納上于日陣大隊矣去[]月三十日九十四名中七十三名自日陣砲殺是妥)

각처에서 잡아들인 무장, 고창, 영광 등 동괴(東魁)-중략- 함평(咸平): 이상삼(李相三)-도독대장(都督大將),이익성(李益成)·이경식(李京植)·최유헌(崔有憲)·박용무(朴用武)·장소회(張所回)·박겸오(朴兼五)·최기현(崔基玄)·노인경(盧仁京)·노홍상(魯洪尙)·최문빈(崔文彬)·이오서(李五瑞)·장현국(張賢局)·서치운(徐致雲)·이계성(李季成)·이창주(李昌朱)·이순백(李順伯)·박만중(朴萬宗)·박문팔(朴文八)·윤상근(尹相近)·최이현(崔二玄)·김치오(金致五)·윤영국(尹永菊)·김덕

홍(金德洪)·김춘경(金春京)-이상은 접주(接主)로서 행패(行悖)를 부림. 이상 도합 73명을 일본 진영에서 쏘아 죽였다. (咸平李相三都督大將李益成李京植崔有憲朴用武張所回朴兼五崔基玄盧仁京魯洪尙崔文彬李五瑞張賢局徐致雲李季成李昌朱李順伯朴萬宗朴文八尹相近崔二玄金致五尹永菊金德洪金春京已上接主行悖合七十三名自日陣砲殺)



兩湖右先鋒日記 prd_0102_381



兩湖右先鋒日記 prd_0102_382

◇ 해설: 나주의 일본 진영에서 12월 30일 94명 중에서 73명은 일본 진영에서 총살함. 여기에서 해제면 석용리 최문빈(장현), 최이현(선현), 최기현 3형제가 등장하고 접주로 기록됨.

⑭-1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전령 무안 수성군 유사(有司) 오한수(吳漢洙) 통장(統長) 정춘섭(丁春燮)에게 보냄 12월 14일

◇ 해석문 및 원문

본읍 동학(東學)의 거괴(巨魁)인 배규인(裴奎仁)이 도망하여 해남(海南) 등에 있다고 하니, 너희들은 기필코 쫓아가 붙잡아 마치면 마땅히 상을 후하게 줄 것이다. (本邑東學巨魁裴奎仁逃在海南等地云爾則汝矣等期於跟捉以納當施重賞尙事)

⑭-2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전령 무안의 수성소에 보냄(傳令 務安守城所二十四日) 12월 24일(양, 1895년 1월 19일)

◇ 해석문 및 원문

본현(本縣, 務安)의 수성소 의병이 행군하여 이곳(해남)에 도착한 것은 거괴(巨魁)를 잡기 위함 때문인데, 배적(裴賊, 배규인)이 지금 이미 잡혔고, 의병들이 여러 날 비바람을 맞아

매우 불쌍하니, 이에 되돌아가서 방어하라. 추격하여 잡는 일은 더욱 힘써 단속하라. (本縣守城義旅赴陣到此者職由巨魁捕捉而裴賊今既就捕義旅之多日暴露殊涉可悶故茲以還赴防守? 捉之節另加團東宜當向事)

⑭-3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 12월 25일 해남 각 면에 전달한 훈령[傳令海南各面 甲午十二月二十五日]

◇ 해석문 및 원문

관군이 이른 뒤에 적괴(賊魁)로 지목된 배규인(裴奎仁)을 은소(銀所) 사람들이 붙잡아 바쳤기 때문에 이미 후한 상을 주었으니, 반드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다. 유독 본 면 사람들만 어찌 의리와 충성을 다하여 적괴를 잡을 마음이 없느냐? 지금 이 도망간 도당들을 만일 시간만 끌고 잡아다가 군진 앞에 바치지 못한다면 너희들 면 중에 반드시 크게 일이 생기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거물급 괴수’란 것들을 후록하여 영척하노니, 영척이 이른 즉시 사방을 정탐해서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모조리 잡아 바친 연후에야 백성들이 모두 기꺼이 직업에 종사하고 안도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을 포장하여 후한 상을 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거행하도록 할 것. 후록: 김춘두 김도일 박창희 강준호 김동설 정채호 강서옥 강점암 성신인 남처성 백장안 (王師所到之後賊魁指目者裴奎仁銀所民人等捉納已施重賞必無不聞不知之理矣惟獨 本面民人等豈無出義謀忠捕魁之心是喻今此散亡之徒黨若或遷延晷刻未得捉上於陣前汝矣面中必將大生事乃已故所謂巨魁等後錄令飭爲去乎令到卽刻散四跟探無或遺漏一竝捉納然後民皆樂業安堵除良褒獎厥功合施重賞惕念舉行宜當者 後: 金春斗金道日朴昌會姜準浩金東說鄭采鎬姜瑞玉姜點岩成臣仁南處成白長安)

◇ 해설

선봉장 이규태는 12월 14일 해남으로 피신한 배상옥을 잡기 위하여 무안 수성군 오한수와 정춘섭에게 잡으라 명하였고, 12월 24일 배상옥이 잡히자 이들에게 무안으로 돌아가라는 공문, 그리고 잡지 못한 거괴들을 잡을 것을 독촉하는 내용

⑮ 『일사(日史)』 12월 27일

◇ 원문

二十七日 己巳 余占明日入宅龍井里宜父母而得坤之屯又占將買土洞家宅吉凶而得姤之大過朝後余來龍井里午後往葛洞新基宿焉以長興堂叔避兵而日前移居于此處故也聞兵營軍往有治捉來數箇東學而斬云時道內各邑無日不斬東學而其所謂魁首者舉 已就刑 全菴豆 斷足 上京 金開南 前南原府使子弟 剖腹噬肝 崔時亨 孫化中亦皆就刑云 長興賊 李邦言 李士京 務安賊裴尙玉 海南賊金春徒輩俱 已伏罪 而其所謂各處私接主輩自該里探索捕捉連續納上云

◇ 해설

『일사(日史)』는 강진 작천면 유생 박기현(朴冀鉉, 1893~1895)이 1891년부터 1903년에 이르기까지 일기이다. 특히 갑오년을 전후한 시기 장흥, 강진 일대의 동학농민군측

과 관군측의 동향 및 당시 전투상황 등을 소상히 알려주는 자료이다. 여기에서도 무안의 배상옥을 거괴로 지목하고 잡혔음을 기록하고 있다.

⑩-1 『각진장졸성책(各陣將卒成冊)』 죄인록(罪人錄) 甲午十二月 日

◇ 원문

朴正煥 居務安 校洞 正月初五日 自日陣刺殺

接主 并囚獄 二十八日砲殺

裴圭仁 居務安 二十四日 砲殺

千寅炳 (해남)縣一古道旨二十五日砲殺 -중략-

金鍾坤 居務安 裴奎仁 馬夫佩刀 竝 二十八日 砲殺 -중략-

尹石浩 尹文汝 居務安 裴相玉隨從 淸溪民 捉納 二十八日 砲殺 -하략-

⑩-2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 군부 편(軍部 編)

◇ 원문

務安幼學 吳漢洙 捉得巨魁 裴尙玉 等

海南民 尹奎龍 捉納巨魁 裴奎磷 等

◇ 해설

『각진장졸성책』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 토벌에 종사한 선봉진 술하의 경리청, 장위영, 통위영, 敎導所 등 각 부대 장병의 성명과 직위를 열거한 「倡義人名錄」, 「勿禁帖記」, 「罪人錄」 등 각종 成冊 등이 있다. 다음 ‘죄인록’은 해남에서 잡혀 처리된 동학도 관한 것이다. 무안 출신으로는 박정환(1월 5일), 배규인(12월 24일 총살), 김종곤과 배규인 마부인 패도(12월 28일 총살) 윤석호 윤문여, 배상옥의 부하는 청계민이 잡아옴(12월 28일 총살) 그리고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에서는 무안 유생 오한수는 배상옥 등을 잡는데 공을 세웠으며, 해남인 윤규룡은 배규인(裴奎磷)을 잡아 공을 세웠다. 여기에서 배상옥과 규인은 동일 인물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오한수 등은 무안에서 배규인을 잡기 위하여 해남으로 파견되었는데, 아마 윤규룡이 배규인을 잡아오자 이를 확인한 듯하다.

⑪ 『전라도각읍매사읍작통규모관사조약별록성책』 작통질(作統秩)

◇ 해석문

-전략- 나주(羅州), 남평(南平), 무안(務安), 함평(咸平) 이상(4읍)을 작통 -후략-

◇ 해설

『전라도각읍매사읍작통규모관사조약별록성책』 작통질(作統秩)은 1895년 1월 29일에 동학도의 토벌을 담당할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 민종렬(閔鍾烈)이 도내 각 읍에 내린 문서이다. 매 4읍마다 한 통(統)으로 편성하여 동학도 소탕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작통성책(作統成冊)을 즉시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무안은 나주, 남평, 함평과 함께 작통되었다.



제3부 무안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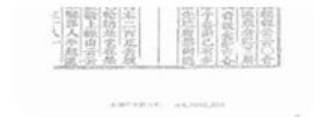


1. 타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사례와 시사점

- 1) 장흥군의 사례
- 2) 기타 전남지역 기념물 사례
- 3) 고창군의 사례
- 4) 정읍시의 사례

2. 무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방향

- 1) 기념사업 기본계획
- 2) 기념사업 세부 추진안
- 3) 계승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1. 타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사례와 시사점

1) 장흥군의 사례

(1) 장흥지역과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최후 전적지이자 4대 전적지

- 1894년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패한 동학농민군은 전봉준, 김개남 등 지도부가 체포되고 논산, 태인 등지에서도 잇달아 패해 남쪽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러나 농민군들은 전라도의 남쪽 끝 장흥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재기를 다지는 대반격을 도모하게 된다.

장흥의 이방언 장군이 이끄는 3만여 농민군은 석대들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르지만 화승총과 대창, 몽둥이로 무장한 농민군은 일본군의 신식무기 앞에서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패하고 만다. 이때 최후의 동학 농민군 지도자로 명성을 날리던 이방언도 체포되어 참형을 당하고 만다. 장흥 농민전쟁은 동학군 최후의 항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옥산리 전투

전남 일대의 농민군은 장흥 석대들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한 뒤 장흥 옥산리에서 또다시 항쟁을 벌였다. 여기서도 1백여 명의 희생자를 내고 패하였고, 옥산리 전투를 끝으로 장흥과 강진 일대 농민군도 해산하였다.

(2) 주요 기념장소와 기념물

○ 장흥석대들전적(長興石臺들戰蹟)

- 종목 : 사적 제498호
- 소재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일원
- 지정(등록)일 : 2009.05.11

장흥석대들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이자 당시 강진현(현 강진군 강진읍, 국도1호선)과 전라병마절도사영(현 강진군 병영면), 벽사역(현 장흥읍 원도리 방면), 장흥도호부(현장흥읍성 남문, 장흥읍 동동리), 자울재(현 장흥읍과 용산면 경계의 고개)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학농민혁명군과 관군사이에 많은 사상자를 배출한 전적지이다.

특히 장흥 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 혁명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전투로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체포된 이후에도 항전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로서, 동학농민전쟁의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지이며 반외세·반봉건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을 지향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장흥석대들전적지는 정읍황토현전적지(사적 제295호)와 공주우금치전적지(사적 제387호), 그리고 장성황룡전적지(사적 제406호)와 더불어 동학농민전쟁 4대 전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기 지정된 전적지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탑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렬리 산 8번지

전라남도 장흥·강진 일대의 이방언이 이끄는 농민군은 이들을 추격하는 관군과 일본군 본대와 장흥 석대들에서 전면적인 전투를 벌였다. 여기에서 농민군은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내고 패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의 후반기 격전지로 알려지고 있는 이곳 장흥읍 석대 옆 산허리에는 장흥 일대 동학농민군의 장렬했던 항쟁을 기리고, 당시 희생된 수백 명의 동학농민군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1990년 착공하여 1992년 5월 준공된 기념탑의 탑명은 서희환이 글을 짓고 김성식이 조각하였으며, 기념탑의 탑문은 송기숙이 짓고 김승남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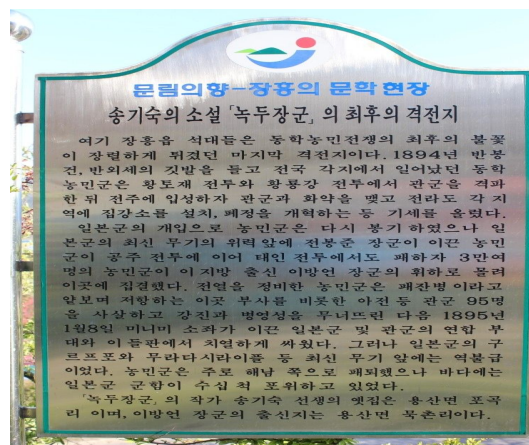
<그림 1>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 기타 - ‘동학루’와 소설 『녹두장군』 안내문

장흥 동학농민혁명의 격전지인 석대들 주변에는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쉼터로 ‘東學樓’라는 정자를 조성하였으며, 장흥 출신의 소설가 송기숙이 발표한 소설 『녹두장군』과 관련된 현장 안내문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2> 석대들에 설치된 동학루



<그림 3> 녹두장군 최후의 격전지 안내문

(3) 석대들 성역화 사업 추진 내용

- 위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5번지 등 51필지
- 위 치 :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 면 적 : 51필지 35,700m²
- 사 업 비 : 102억원
- 사업목적 :
 -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최후격전지를 이념과 전개과정을 간직할 수 있는 산 역사의 교육현장 조성
 - 군민에게 자긍심 제고 및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사에 대미를 장식한 곳이며, 혁명의 실마리를 제공한 곳
- 사업의 필요성 :
 - 동학농민혁명사의 대미를 장식한 곳일 뿐 아니라 동학농민전쟁의 4대전적지 (황토현, 우금치, 황룡, 석대들) 중의 하나로 동학농민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유적
 -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동학유적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
 - 한국 근·현대사의 전환점으로 민족, 민주운동의 상징적 유적으로 선양사업 필요
- 사업내용 : 홍보영상관, 상징조형물, 조경, 주차장 건립 등



(4) 기념사업회 내력

- 2004년 2월 27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설립, 이후 매년 기념식과 사료집 편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 2011년 11월 18일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 모금.
- 2012년 12월 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진을 선임하고, 2013년 금년 4월 11일 전라남도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완료.

(5)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계획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2014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① 장흥동학농민 대동한마당

- 행사개요 : 장흥동학농민혁명 제 120주년을 맞이하여 매년 실시해 온 기념식을 확대된 형태로 구성한 “장흥동학농민 대동한마당”을 펼침으로써, 120주년의 의미를 모든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사로 진행한다.
- 행사일시 : 2014년 4월 26일
- 장 소 : 장흥읍 탐진강변 공원일대
- 세부내용 : 제120주년 기념식, 장흥동학농민 대동제, 연합사물놀이 (12개 읍면농악대), 사발통문 작성, 동학체험행사 및 전시회, 강강수월래, 기념음악회
- 소요예산(안) : 3,500만원

② 장흥동학농민혁명 창작극 기념공연

- 행사개요 : 장흥동학 소재 창작극을 제작하여 120주년 기념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장흥동학의 정신과 의미를 군민과 함께 공유한다.
- 일시 : 2014년 4월 25일 19시
- 장소 :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공연주체 : 전남도립예술단 또는 전문 공연단체
- 소요예산 : 2,500만원

③ 장흥동학농민혁명 전국대학생 논문대회

- 행사 개요 : 장흥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전국의 대학생 논문을 공모전 형태로 시행함으로써 장흥동학농민혁명의 학술적 시야를 넓히고, 장흥동학정신을 계승 발전함.
- 공모기간 : 3개월
- 공모대상 : 전국 대학생(전공불문)
- 포상계획 : 대상(1명) 장학금 500만원, 금상(1명) 장학금 300만원, 은상(2명) 장학금 100만원, 장려상(5명) 장학금 50만원
- 시상식 : 120주년 기념식 때 거행
- 소요예산 : 2,000만원

이외에도 장흥동학농민 기념사업회에서는 장흥동학농민혁명을 알게 쉽게 풀어 쓴 이야기 기책 『이야기 장흥동학농민혁명』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6) 특이사항

○ 장흥군 지역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2009년 5월 11일 석대들이 국가지정 사적지가 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라남도과 장흥군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현장과 인물, 자료를 찾고 가꾸어, 체험교육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격전지였던 석대들 일대를 성역화 하는 사업(광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 최근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석대들의 사적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이 해제 요청의 이유가 되었다.

2) 기타 전남지역 기념물 사례

(1) 장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기념탑

- 소재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356번지 외 17필지
- 문화재지정 : 사적 제406호(1998.6.10)

동학농민혁명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으로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는 계기가 된 황룡 전투의 전적지이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전주 점령 계획을 세우고 가장 좋은 장소로 황룡을 선택했다. 총알을 막을 수 있도록 대나무를 원통모양으로 엮어 만든 장태라는 신무기를 이용하여 동학농민군은 이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주를 점령하였다.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서 역사와 시대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민 통치 기반을 마련했던 곳으로도 뜻깊은 유적이다.

1994~97년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라남도과 장성군의 보조로 황룡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승전기념공원>을 조성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탑>과 안내판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황룡전적지는 1998년 사적 406호로 지정·관리 되고 있으며, 매년 황룡전투 승전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그림 5> 장성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2) 함평동학농민혁명 장경삼, 장옥삼, 장공삼 선생공적비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 입구 장산들

함평지역은 이화진 접주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했던 지역으로 특히 장경삼, 옥삼, 공삼 삼형제의 활약이 유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함평 관리와의 유대를 형성하는 등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동학사상을 실천한 지역이다. 피치마을 부지는 당시 농민군이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삼정들(혹은 삼장들) 역시 경삼, 옥삼, 공삼 삼장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함평의 동학농민혁명은 적촌리 장터 등 함평 읍내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집강소는 함평 외곽부인 월야면에 위치하였다. 조정과 일본군은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자 동학군을 색출하기 위해 현상금을 걸어 밀고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함평은 영광·나주·강진·장흥·보성·순천 등과 함께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으로 오지영의 『동학사』에 기록되어 있다.

함평지역의 동학농민혁명정신은 이후 강인한 항일투쟁으로 이어져 일제는 악명 높은 '삼성삼평(三城三平)'이라는 호칭으로 함평을 칭했다. 1996년 4월 이상식의 비문을 이병현이 쓰고 나상옥이 조각하여 현재의 자리에 함평동학농민혁명 삼형제 공적비를 건립하였다.



<그림 6> 함평동학농민혁명 장경삼, 장옥삼, 장공삼 선생공적비

3) 고창군 사례

(1) 고창지역과 동학농민혁명

○ 전봉준 장군의 태생지이자 출발지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전봉준 장군의 태생지이며 동학의 대접주 손화중의 활동무대였다. 또한 1894년 3월 20일 구수마을은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선포하면서 일개 지역 봉기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봉기로 출발한 무장기포의 역사적 현장.

○ 손화중 장군의 근거지이자 동학농민혁명사의 후방기지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손화중포의 비기탈취 설화가 현재까지 전승되어 왔으며, 동학농민군의 훈련장 숙영지인 왕제산(여시피)과 손화중 도소 및 피체지가 당시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영학당전투지, 무장현 관아와 읍성, 고창읍성 등 동학농민혁명사의 많은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

(2) 기념사업회 내력

○ 설립목적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사단법인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도하고 있다. 고창이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의 출생지이자 손화중 포(包)의 활동 무대로서 지역 봉기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무장 포고문을 선포한 지역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려, 고창 지역의 민관이 협력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정신을 계승·선양·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 설립과 변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질 때 고창의 뜻있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준비되었다. 1994년 1월 4일 이기화 당시 고창문화원 원장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4월 25일 위령제를 지냈다. 이후로 매년 진행해 오던 위령제를 1997년부터 무장 포고문을 선포한 날[음력 3월 20일, 양력 4월 25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무장기포 기념제’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사단 법인으로 등록하였다.

○ 주요사업과 업무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문화 예술 사업, 동학농민혁명의 민족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한 사업,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술 편찬 사업,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위령제 및 무장기포기념제, 세미나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주요 학술대회로 1993년 11월 19일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1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주제: 전봉준은 고창 당촌 태생], 1994년 4월 23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주제: 고창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2007년 11월 30일 토론회[주제: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 등을 개최하였다.

주요 자료집으로 1996년 12월 『전라도 고창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2008년 3월 『동학농민혁명과 고창』 등을 발간했으며 주요 기념행사로 1994년 무장기포지 표지석 및 포고문 비석 설치, 2002년 4월 25일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상징 기념탑 건립, 2007년 10월 15일 고창동학농민혁명 계승을 위한 다짐 대회, 2008년 4월 25일~4월 26일 제1회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 2008년부터 녹두대상 시상식 등의 행사를 열었다.

주요 교육·홍보 사업으로 2008년부터 녹두교실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역사 기록화 사업, 학술·연구·문화 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녹두대상 시상제, 토론회·녹두교실 등의 정례적인 학술 사업, 무장기포 기념행사,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창 내 유적지 성지화 사업 등을 5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7>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3)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주요방향

고창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성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동학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스토리텔링화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다.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산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동학농민혁명의 중점추진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개발.

-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 원작을 만들어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발간 및 소설 창작, 동학농민혁명역사기록화사업 추진.

○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동학농민혁명대상제」 운영

- 무장기포일을 기념하고 동학농민혁명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사업으로 「녹두대상」을 운영.

○ 학술회의 정례화

-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킴.

○ 기념행사의 전국화 추진

- 무장기포지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부각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요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동학농민군로 걷기체험, 집강소운영, 포고문낭송, 관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전국적 축제로 승화

○ 동학농민혁명유적지 성지화사업 추진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 무장기포지, 전봉준장군 태생지, 동학농민군의 숙영지인 왕제산(여시피) 훈련장 테마파크조성, 손화중포와 도솔암마애불 비기탈취설화, 손화중도소 및 피체지, 무장도소, 영학당 전투지, 무장현 관아와 읍성, 고창읍성, 동학농민혁명군 진격로, 정백현생가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하여 왕제산 일대 신왕초등학교 등 토지 4만2천 평방미터를 매입.

(4) 역대 기념사업 주요 현황

고창군 지역에서 추진되어 온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 가운데 주요한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93.11.19 무장기포 백주년기념 학술발표회 '전봉준은 고창당촌 태생'
- 1994 공음주민 기포지 부지 매입 478m²
- 1994.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00주년 위령제 개최
 - 무장기포지 발상지 비석건립
 - 포고문 비석 건립(공음면 신촌입구)
 - 매년 무장기포일 기념 4.25개최
- 1994.10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세미나개최
- 1995.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01주년 위령제 개최, 이후 매년 개최
- 1997.10.11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세미나 개최
- 1998.4.23 동학농민혁명 기념학술대회
- 1998. 9.22 전봉준장군 출생지 토지매입 2,813m²
- 1998.12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단행본 발간
- 1999 무장기포지성역화사업 추진(토지매입 및 환경정비사업)
- 2000 전봉준장군 선대묘소 정비, 동학농민군진격로 표지석 시설 등
- 2000.7 기포지 상징조형물 건립추진
- 2001.3.24 전봉준 장군 생가 복원 - 주택 65.6m², 부속사48.0m²
- 2002.4.25 동학농민혁명군 상징 기념탑 건립
- 2002.7.31 동학혁명 발자취를 따라 걷기대회
- 2003.8.1~8.4 동학농민혁명 체험 청소년어울마당
- 2004. 동학농민혁명훈련장 조성
- 2004.4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기본계획수립
- 2004.10.6 동학농민혁명과 고창관계 정립을 위한 학술회의
- 2006. 동학관련시설물 설치(관광안내표지판 설치)
- 2007.6 동학농민혁명 5대핵심 전략 추진
- 2007.8.24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사단법인 등기
- 2007.8.31 고창 동학농민혁명유적지정비 기본계획 용역
- 2008.1.10 『새야 새야 파랑새야』 시비 건립 천안전씨 대종회
- 2008.3.20 '동학농민혁명과 고창' 홍보자료집 발간
- 2008.4.1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08.4.25~4.26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
 - 제1회 녹두대상 기념식
- 2008.7.4 동학농민혁명스터디그룹 '녹두교실'창립
- 2008.11.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홈페이지 구축
- 2009.9 고창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자료집 발간
- 2009.11 찾아 가는 녹두교실운영 - 읍면 순회교육 1,200명
- 2009.12 전라도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사례집 해제
- 2009.12.18 무장읍성 느티나무 기포지 이식
- 2010.2 고창지역동학농민혁명사 발간

(5) 주요 기념장소와 기념물

○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590번지 일원

1894년 1월(음력) 고부농민봉기 이후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로 내려와 잔혹하게 백성들을 진압하자, 전봉준은 일단 무리를 해산하여 이곳 무장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당시 호남 최대의 세를 떨치던 무장의 손화중 포를 기반으로 전면적 봉기를 단행(음력 3월 20일)한다. 당시 무장현 동음치면 구수마을이었던 이곳 무장기포지는 사그라질 뻔했던 고부농민봉기의 불씨가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다시 피어난 곳, 즉 '민란'이 '혁명'으로 발전된 의미 깊은 곳이다. 이 마을은 큰 팽나무인 당산나무가 있어 '당산마을'이라고 불렸는데, 마을 위의 아홉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에 근거해 '구수' 혹은 '구시내'라고도 불렸다.

이곳에는 지난 1994년 건립된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비>와 <무장창의포고비>가 있으며, 2002년에 고창군에서 상징조형물과 <동학농민군 훈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였다. 또한 무장의 농민군 접주로 1차봉기 때부터 전봉준을 보좌하면서 농민전쟁에 참가하였던 <고창주의 추모비>가 세워져있다. 그는 1895년 3월 3일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무죄 방면되었으나 귀향도중 정읍에서 체포되어 1895년 3월 27일 포살당하였다.



<그림 8> 고창 무장기포에 건립된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그림 9> 고창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기념석

○ 전봉준 장군 생가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 63번지 외 7필지

전봉준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북 정읍시 이평편의 조소마을(현재 전봉준 장군의 고택지가 조성된 곳)이라는 견해와 전북 고창군 죽림리 당촌이라는 견해에 논란이 많았으나, 근래 연구성과와 학술조사 등을 통해서 고창군 죽림리 당촌으로 확인되었다. 고창에서 무장 쪽으로 가다보면 죽림리 당촌마을이 나오고, 마을입구의 커다란 소나무와 모정을 지나면 왼쪽 언덕에 전봉준의 부친인 전창혁이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서당터가 남아있다. 지금은 밭으로 변해버린 전봉준의 생가는 2001년 고창군이 새롭게 복원한 것이며, 생가 1동과 헛간채, 안내문과 비석 등의 시설물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그림 10> 복원된 전봉준 장군의 생가

○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高敞 茂長縣 官衙와 邑城)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49-1외 일원
- 종목 : 사적 제346호

무장읍성은 1417년 무장진의 병마사에 마을을 다스리는 기능을 주어 무장진 병마사 김노(金蘆)가 쌓은 길이 약 1.2km의 평지성이다.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북상에 앞서 전력을 강화하고 뒤를 든든히 받치기 위해 전라도의 각 군,현을 차례로 점령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고창, 무장, 흥덕 등은 모두 농민군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이 있기 전부터 이 지역의 동학교도들은 가혹한 탄압을 당했으며 따라서 농민군의 진주와 함께 관리들과 관아는 강력한 보복을 받았다. 그 와중에 고창과 흥덕의 관아 건물들이 불타고 온갖 공문서들이 소각 되었지만 무장관아는 극적으로 화를 면했다. 여기에는 무장출신 농민군의 만류와 함께 농민군에 대거 동조한 그곳 서리들의 역할이 컸던 것

으로 보인다. 뒷날 무장 현감 조명호가 난이 일어났던 초기에 창의기를 제작하는 등 농민군과 연합했다는 죄목으로 파면당한 기록이 남아 있고,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상당수의 무장 관속배가 모여 ‘우리는 모두 동학에 입도했다’고 말했다는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손화중포의 핵심근거지에서 부패한 정부의 상징이었던 관아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당시 꺾박받는 농민들과 서리들까지를 포괄하는 민중혁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농민혁명이라는 긴장감 넘치는 역사 속에서 무장관아가 원형을 보존하고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장관아는 특별한 조명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무장읍성은 2002년부터 예전 성곽을 재현하여 새로운 전통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구심지로써 무장읍성복원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성역화하고 있다. 무장기포제 재현시 활용되고 있는 사적지이다.



<그림 11> 무장읍성을 활용한 무장기포 기념제 모습

○ 기타 고창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장소

고창지역에는 왕제산(여시되), 고창선운사동불암지마애여래좌상, 손화중도소, 손화중피체지, 고창읍성, 정백현 생가, 흥성동헌 등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장소로 의미가 부여되고 활용되고 있다.

(6) 고창군 관련 조례 제정 내역

고창군에서는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현재 관련 조례의 내용이다.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08.04. 01 조례 제1808호]

개정 2009. 5. 12 조례 제1867호

(일부개정) 2010.03.19 조례 제18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5. 12>

1.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대상"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예산의 지원)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
5. 그 밖의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업 <개정 2010. 3. 19>

제5조(대상수여 및 시상일) ① 대상 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 ② 대상 시상은 무장기포일(1894년 음력 3월 20일)인 매년 4월 25일로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특이사항

○ 무장기포 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를 연계하여 지역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봉준의 고향이자 동학혁명 최초의 창의문이 포고된 무장기포 기념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는 이미지를 지역의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 고창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고창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창문화원, 각급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동학농민혁명을 지역의 문화콘텐츠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08년 고창군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기념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4) 정읍시 사례

(1) 정읍지역과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의 중심 무대

- 정읍지역은 사발통문 봉기계획 수립된 곳이며, 1894년 1월 10일 고부농민들이 말목 장터에서 봉기하여 고부관아를 점령함으로서 봉기가 시작된 곳이다.
- 백산에서 호남 농민군이 봉기하여 전국적인 농민 혁명 단계로 발전 하는 등 정읍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중심적인 공간이었다.

○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의 승리

- 농민군과 관군의 첫 전투였던 황토현 전투의 현장이며, 농민군이 관군과의 전투에서 최초로 대승리를 거둔 지역이다.

○ 동학농민혁명의 주도세력 배출

- 농민군 지도자인 전봉준장군, 손화중, 김개남, 최경선 등이 모두 정읍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2) 기념사업회 내력

정읍 지역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되어 가장 중심된 지역으로 1960년대부터 동학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 관련 기념사업은 <사단법인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 기념사업 추진

- 1963년 10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형물인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을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건립한 것을 시작으로 1974년 5월 11일 만석보 유지비 건립,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건립, 동학농민군 영술장 최경선 장군 묘역 정비, 고부봉기 역사맞이곳, 정읍동학유적지 안내 책자 발간,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및 학술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 기념제 개최

- 동학농민혁명을 널리 선양하고 그 정신을 바로 계승·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69년부터 매년 정읍시내 일원과 황토현 전적지에서 5월 11일(동학농민군 최초의 전투일이자 전승일)을 기해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치러왔으며, 2007년부터 황토현동학축제, 2012년부터는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로 명칭을 바꾸었다.

매년 이 기념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든 문화공연과 다양한 현장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학농민혁명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청소년에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2> 정읍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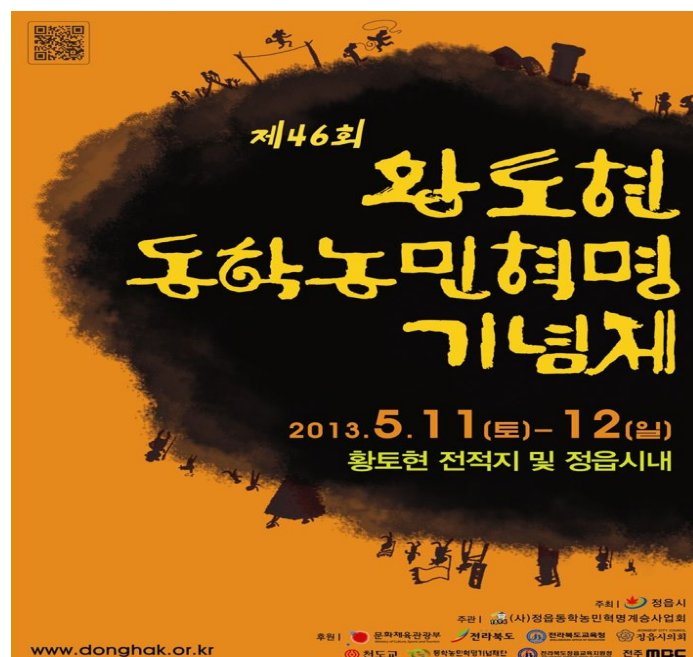
(3) 정읍 지역 기념사업의 주요방향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청소년 역사캠프, 유적지인 내, 시민강좌, 문화유산답사, 동학농민혁명 관련 서적발간 등 관련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정읍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 작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
- 회원 다수가 공감하고 함께 하는 사업
- 조직 강화 사업
- 분과 위원회 활성화 사업(1분과 1핵심 사업 추진)
- 조직 . 정책분과(조직의 내실화 사업) 홍보분과(분기별 소식지 발간 사업)
- 학술분과(기관지 제작 배포 사업)
- 사회개혁분과(각 시민단체와 연대 사업 추진)
- 후원회 조직 및 운영 사업
- 시민단체와의 연대 사업
- 이사회비 및 연회비 CMS 확대 사업

○ 중점 사업

-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전국화 사업
- 시민강좌 및 문화교육사업
- 황토현수련원 정상화 사업
- 아산 최현식 선생 기념관 건립 추진 사업



〈그림 13〉 정읍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포스터

(4) 정읍지역 역대 기념사업 주요 현황

정읍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을 전개해 왔다. 학술대회, 답사, 지역 축제, 역사 캠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중복되는 행사를 제외하고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63년 10월 3일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건립-최초의 기념물
- 1967년 12월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 창립
- 1968년 4월 26일 제1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백산 봉기일)
- 1974년 5월 11일 만석보 유지비 건립
- 1975년 5월 11일 제8회 기념문화제부터 위령제 시작
- 1979년 12월 기념공원 기본계획 수립 착수
- 1983년 12월 황토현 기념관 건립
- 1987년 12월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고택 확장사업
- 1992년 12월 황토현 사우 건립
- 1993년 4월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발족
- 1994년 4월 정주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발족
- 1994년 2.26~27 고부봉기 100주년 '고부봉기 역사맞이 곳' 거행
- 1994년 9월 무명동학농민군 위령탑 건립
- 1995년 5월 11일 제28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민간주도 환원
- 1996년 5월 31일 동학농민군 유해 봉환제례
- 1996년 9월 8일 동학농민군 영술장 최경선 묘역정비사업 참여
- 1997년 4월 27일 동학총령 손화중 추모사업 참여
- 1997년 5월 11일 갑오동학혁명백주년 기념탑 건립
- 1999년 6월 19일 기해정읍농민봉기 100주년 기념강연회 및 기념식
- 1999년 7월 제1차 청소년학교(정읍, 고창, 부안 유적지 순례)
- 2000년 12월 26일 사단법인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 허가증 발급
- 2003년 12월 19일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개최
- 2003년 12월 27일 동학농민혁명 캐릭터개발 협의회 개최
- 2004년 8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공식캐릭터 '갑오동이'개발완료
- 2004년 8월 27일 마당극 '황토현의 항전'공연
- 2004년 10월 20일~21일 국악 칸타타 '새야 새야 파랑새야'공연
- 2005년 2월 25일 2005 제1차 시민강좌
- 2005년 3월 28일 '녹두장군 전봉준' 만화제작 계약체결
- 2006년 5월 12일 ☆학생동학축전
- 2007년 10월 5일 녹두얼지킴이 양성교육1기
- 2008년 4월 20일 김개남장군 추모제 / 산외면 동곡리 장군묘소
- 2008년 4월 24일 전봉준장군 시향제 / 이평면 창동리 장군묘소
- 2008년 11월 22일 역사 길 걷기대회 / 입암면 하부리상부(입암산)
- 2012년 7월 25~27일 제14기 전봉준역사캠프(2박3일)

(5) 주요 기념장소와 기념물

○ 황토현 전적지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2
- 문화재지정 : 사적 제295호(1981.12.10)

최초의 관군과의 전투지이자, 최대의 승리를 기록한 황토현 전투 사적지이다. 현재 황토현 전적지는 사적 제 295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전적지 내에는 1983년 한옥양식으로 건립한 <황토현기념관>과 <갑오동학혁명기념탑>, 2002년 완공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조성되어 있고, <전봉준 장군 동상>, <제민당>, <제세문>, <구민사>, <보국문> 등 시설물이 함께 건립되어 있다.



<그림 14> 황토현 전적지에 건립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그림 15>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장군 동상

○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 소재지 :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하학리 산8)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0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의 최초 전승지인 황토현전적지 부근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에 개관하였다. 개관 이래 전라북도청 관리사업소에서 관리와 운영을 하다가 2011년 1월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무기, 생활용품, 전적류를 전시·보존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매년 2회의 기획전시를 하는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봉준 선생 고택지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458-1
- 문화재지정 : 사적 제293호(1981.11.28)

녹두장군 전봉준이 농민혁명 직전까지 생활했던 이 집은 1894년 고부농민봉기 이후 안핵사 이용태에 의해 불타버렸으나 다시 보수하여 사적 제 293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오늘날의 지명은 전북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이지만 갑오년 당시에는 고부군 궁동면이었다. 죽창문의 방 3개와 부엌이 딸린 본채가 있고 마당가에는 변소와 헛간으로 쓰이는 아래채가 따로 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시골집이다. 각지에서 유동생활을 했던 전봉준 장군은 태인 동곡에서 살다가, 고부농민봉기가 있기 5~6년 전에 이 곳으로 이사와 훈장 생활을 하며 고부농민봉기를 일으킬 때까지 생활하였다. 1970년에 지방문화재 19호로 지정되었고 1974년 가옥해체 및 보수공사작업을 마무리하여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 갑오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

- 소재지 : 정읍시 내장동 392번지 내장저수지 옆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리는 탑으로, 1997년 5월 11일 건립되었다. 내장저수지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바로 옆에 내장산조각공원이 있다. 주탑(主塔)과 부탑(副塔)으로 구성되었으며,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주탑은 동학농민혁명의 이상을 상징하는 4각뿔 형태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을 기리기 위하여 높이 1,894m로 조성하였다. 상층부에 3단의 금색 띠가 둘러져 있는데 이는 고부, 백산, 삼례 지역의 봉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부탑은 사민(四民; 사농공상 士農工商) 즉 온 백성들의 평등·수평사회를 상징하는 의미로 4개의 원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원기둥은 높이 1,100m, 지름 85cm 규모이다. 이 기념탑은 정읍 출신의 설치미술가 전수천(全壽千)이 조성하였다.

○ 전봉준 장군 묘역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산10-3

전봉준은 1855년 전북 고창군 죽림리 당촌에서 아버지 전창혁과 어머니 광산김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1892년 보은에서 교단중심의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될 때, 그는 금구에서 '척왜양'의 기치를 내건 독자적인 집회를 개최하며 농민혁명의 주도적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894년 1월 고부봉기 이후 무장의 손화중과 함께 대대적으로 3월 봉기를 주도하였으며, 전주화약 이후 급진파 김개남과 달리 관과 상화하여 최초의 민중자치시기인 집강소통치를 실시했다. 일본의 범궐과 내정간섭의 심화로 9월에 2차 봉기를 단행한 전봉준은 공주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려 하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만다. 1894년 11월 27일 원평 태인 전투를 끝으로 패주하던 전봉준은 순창군 쌍치면 피노리에서 옛 친구 김경천의 밀고로 체포된다. 일본군에게 인계되어 나주, 전주를 거쳐 12월 18일 서울에 도착한 전봉준은 다음 해 5차례의 심문을 받고 3월 30일 손화중, 최경선, 성두환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그의 나이 41세였다.

1954년 천안 전씨 문중에서 단비(壇碑: 유해가 없는 허묘)를 건립하였고,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시 가묘를 함께 조성하였다. 110주년이 되는 2004년 5월 11일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단장하였으며, 비문에는 갑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공봉준지단(甲午民主倡義統首天安全公捧準之壇)을 새겨 넣고, 묘역 좌측에 <전봉준 장군 절명시비>를 세웠다



<그림 16> 전봉준 장군 묘역

○ 갑오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탑과 영도자 동상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쌍암동 392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기념하여 정읍시가 국립공원 내장산 입구 <전봉준 공원>내에 <갑오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탑>을 건립하였다. 화강암, 대리석, 오석(烏石) 등으로 만든 탑으로, 주탑(主塔)과 부탑(副塔)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탑은 거창석(居昌石)이고, 높이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을 기리기 위하여 1,894cm로 하였으며, 하단부는 3m씩이다. 4각의 뿔은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이상(理想)을 상징하는 것이고, 흰 대리석은 민족봉기의 투철한 정신(精神)을, 3단 금(金)태는 고부봉기, 3월 봉기, 9월 봉기를 각각 상징한다. 부탑은 문경석(聞慶石)으로, 직경이 85cm이고, 높이가 1,100cm인 원기둥 네 개로서 4민(四民:士農工商)평등의 수평사회(水平社會)를 상징한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읍 출신 작가 전수천이 제작, 1997년 5월 11일 준공식을 가졌다. 기념탑 이외에 전봉준과 손화중, 김개남 장군을 기리는 <동학농민혁명 영도자 동상>(2002년 건립)과 동학농민혁명의 주요사건을 설명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17> 갑오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

(6) 정읍 동학농민혁명 캐릭터 제작 활용 사례

정읍시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위해 지난 2004년 8월 동학농민혁명 캐릭터 ‘갑오동이’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와 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담은 캐릭터 ‘갑오동이’(사진)를 개발하였는데, 전문 디자인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캐릭터 갑오동이는 몸체를 나타내는 기본형 1종과 불끈 쥔 주먹, 머리띠, 사발통문, 깃발 등을 담은 응용형 19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캐릭터는 이름없이 사라져간 동학농민군을 귀엽고 친근하게 표현했다. 이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혁명의 이미지화 작업 등으로 필요성이 대두하자, 정읍시가 혁명계승사업회에 보조금 3천만원을 지원해 이뤄졌다.



<그림 18> 정읍 동학농민혁명 캐릭터

(7) 정읍시 관련 조례 제정 내역

정읍시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관련 조례를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3.20 조례 제 8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동학농민혁명대상"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을 위한 시상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행사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제작
7. 기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

제4조(예산지원)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수여 및 시상일) ①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 ②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은 황토현 전승일(1894년 음력4월 6일) 매년 5월 10일로 또는 황토현동학축제 기간중에 한다.
- ③ 시상 대상자 선정은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특이사항

○ 정읍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무대이자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농학군 지도자들의 주요 활동무대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 주목 받아왔다. 1963년 최초의 동학관련 기념물 설치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지속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특히 2013년도 현재 제46회에 이르는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주도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지역단위의 행사가 아닌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전국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난 2009년 자치법규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황토현 전적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학관련 기념장소와 기념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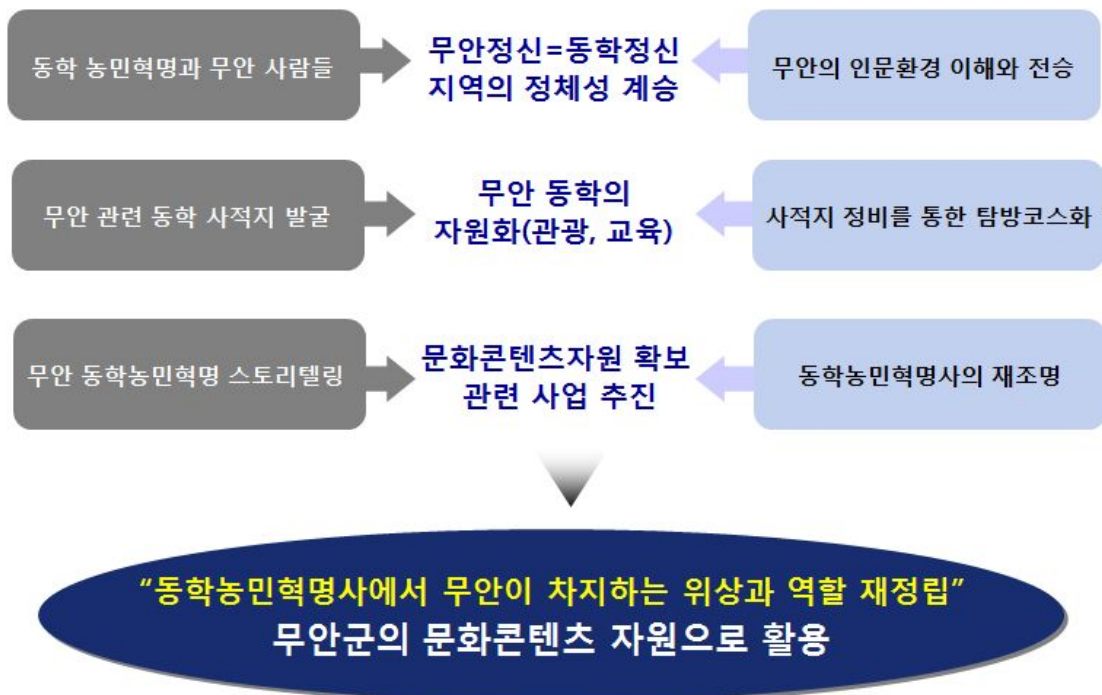


2. 무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방향

1) 기념사업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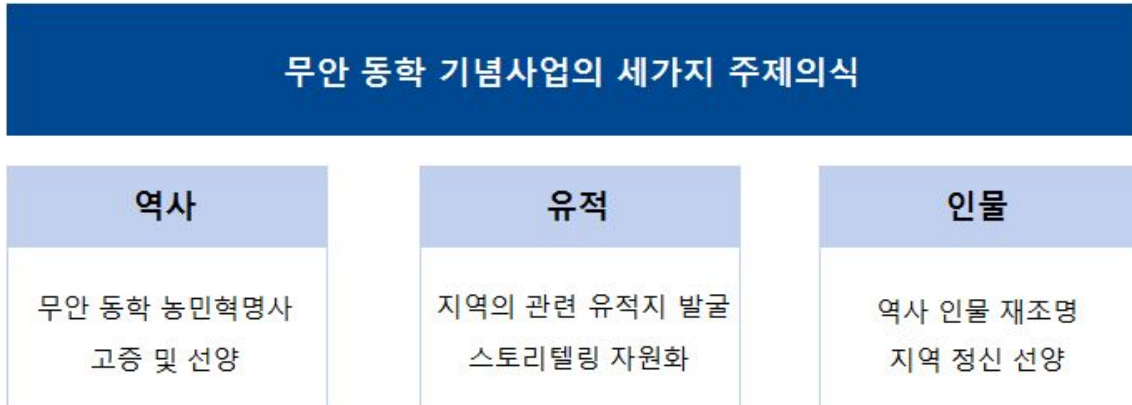
(1) 기본 방향

무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동학정신의 계승을 목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한다.



(2) 주제의식

무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역사 재조명, 유적 발굴, 참여 인물을 통한 지역 정체성의 계승을 주제의식으로 삼는다. ‘무안동학농민혁명’은 21세기 문화시대에 필요한 무안군의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무안동학’을 하나의 원소스로 삼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연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문화콘텐츠 자원화를 위한 기념사업안

무안동학 스토리텔링은 무안군의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계승은 물론 지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콘텐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크다. 다양한 분야의 원천소스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무안동학의 존재와 그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거점이 될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 ‘무안동학’ 기념공원 및 상징물 조성

- 무안동학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및 교육 현장으로 활용한다.
- 기념 공원 내에는 무안 동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념탑 형태의 상징물을 조성한다.

○ 기념행사 및 위령제 개최

-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타 지역(고창, 정읍)의 경우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무안 동학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선적으로 기념행사를 전 군민들과 전남도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참

여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무안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희생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이때 같이 개최하여, 유족회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되는 자리가 발전시켜야 한다.

○ 사적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명소화 및 답사 프로그램 운영

- 무안 동학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가장 쉽게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관광분야이다. 무안동학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장소들을 스토리텔링하여, 사적지를 정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안읍과 동학, 청천사와 동학 등을 연계하여 명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무안 동학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은 무안군의 전역을 꼼꼼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관광투어 프로그램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 대중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시민강좌의 정례화

- 무안 동학에 대한 학술적인 뒷받침과 재조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학관련 전문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행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무안이 차지하는 위상이 공론화 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무안동학의 의미를 대중할 수 있도록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강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목포대학교 및 무안문화원, 향토사연구회 등이 협력하여 시민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무안동학 스토리 뱅크’ 웹 사이트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안 동학의 역사성과 다양한 스토리텔링 소스를 집대성하여 제공하면, “무안 동학 스토리 뱅크” 역할을 하는 DB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 기본의 관련 홈페이지는 기념사업회 소개와 관련 유적지, 행사 안내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무안 동학이 널리 알려지고, 문화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원천 소스들을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 과업을 통해 무안 동학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원천사료와 설화들이 발굴되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무안 동학 스토리 뱅크’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안동학’ 영웅들을 활용한 캐릭터 개발

- 무안동학 스토리텔링은 무안군을 브랜드화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갯오동이’ 캐릭터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안 지역의 경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념사업의 경우 후발주자에 해당된다. 보다 대중적이고, 친밀하게 무안동학의 이미지를 선양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관련 캐릭터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배상옥을 중심으로 한 무안동학의 영웅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안군이 지닌 인문자연 환경을 접목시킨 캐릭터를 개발한다면, 이를 지역의 문화상품과 교육 자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무안동학과 함께 무안 지역의 문화자원이 되고 있는 ‘무안 품바 각설이’와도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해양영웅 캐릭터



<그림> 목포대학교에서 개발한 전남의 해양영웅 캐릭터 사례

○ 교육콘텐츠(education contents)의 개발

- 무안 동학의 경우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무엇보다 교육용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무안 동학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컸으며, 다양한 인물들의 스토리들이 발굴되었다. 이를 널리 홍보하고, 무안 동학의 정신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중심인물들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서, 무안 동학의 역사성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스토리텔링의 방식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동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무안교육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용 소책자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책자의 수준과 질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청소년들에게 무안 동학이 지닌 애국보민의 정신을 전승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영상콘텐츠(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 ‘무안 동학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리된 내용들은 영화,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 제작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동학과 관련된 스토리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전봉준과 같은 유명 인물 외에도 기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무안 동학에 얽힌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소재가 발굴 될 수 있다.

○ ‘무안 문학’ 콘텐츠로 활용

- 문학콘텐츠란 문학예술작품을 콘텐츠화 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문예텍스트를 기반으로 콘텐츠화한 분야를 이야기한다. 무안동학의 스토리텔링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그 자체가 문학콘텐츠이다. 여기에 문학적 상상력과 작가정신이 가미되면 이를 토대로 한 훌륭한 문학작품이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다. 때문에 무안 문학의 발전을 위한 소스로서도 무안 동학 스토리텔링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와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문학콘텐츠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2) 기념사업 세부 추진안

(1) 기초 추진 과제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의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무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초안>

구분	추진 시기	주요 내용	예산안
기념공원 조성	2014~2015	무안동학 안내문, 쉼터 등	16억원
상징물 건립	2014~2015	무안 동학 기념탑	1억원
기념제 개최	2014년부터	기념행사, 위령제, 축하행사	5천만원
유적지 정비	2014년부터	무안 동학 사적지 정비 자원화	10억원
학술대회	2014년부터	무안동학 관련 학술대회	2천만원
시민강좌	2014년부터	시민대상 교양강좌	1천만원
홈페이지 구축	2014년	무안동학 스토리 뱅크, 기념사업 소개	5백만원

(2)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① 무안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상징물 조성

○ 위치 : 무안군 무안읍 일대(불무제 또는 인접지)

○ 개발 목표 :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기념하는 중심 공간 확보.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기념물 건립.
- 무안군 무안읍을 무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거점화.

○ 개발 방향 :

- 무안읍과 무안동학의 역사성을 접목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조성.
- 무안읍을 명소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장소를 선정.
- 기념탑이 시각적으로 눈에 잘 떨어 수 있는 장소에 조성.

○ 기대 효과 :

- 무안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알리고, 그 역사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지역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 무안읍의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민들의 문화편의시설 확충

○ 세부 사업

도입시설	주요내용
상징물	무안동학농민혁명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기념탑 건립
홍보관 및 관리실	무안동학의 역사성을 소개하는 홍보관 건립 (가난한 소규모의 형태로 내실 있게 활용, 공원 관리실 겸용)
쉼터	지역민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조성 (누정 및 벤치 등)
조경시설	기념공원 주변 조경시설 확충
주차장	기념공원과 기념탑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 예산안

구 분	예산	비고
상징물 건립	1억원	건립 공사비 및 자료수집비
기념공원 조성	15억원	기념공원 시설비(홍보관, 배상옥장군 흉상 제작, 주차장 등)
설계비	5천만원	공원시설 설계비
기본계획 수립	2천만원	기본계획 수립비
합계	16억 7천만원	

○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중요성

사업구분	종합사업(분야총괄 혹은 여러 분야 연계필요사업)	단위개발사업
	○	

사업추진시기	단기(2014-2015)	중기(2016-2019)	장기(2017-2023)
		○	

사업중요도	상	중	하
	○		

② 무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개최

○ 위치 : 무안군 무안읍 일대(문화예술회관 외)

○ 개발 목표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기념하는 정례적인 기념행사 개최.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중요성과 지역민의 정체성 확립.

○ 개발 방향

- 무안군민들과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 군단위 기념행사.
- 기념공원과 기념탑이 조성되기 전에는 무안읍의 상징공간에서 개최.
- 기념공원 조성 후 매년 기념공원에서 기념식과 위령제 개최.

○ 기대 효과

- 무안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알리고, 그 역사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지역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 세부 사업

내용	주요내용
기념식	무안동학농민혁명을 선양하는 기념식
위령제	무안동학 농민혁명 희생자 및 농민군을 추모하는 위령제
유공자 시상식	무안동학 농민혁명 유가족 및 기념사업 유공자 대상 시상식
축하공연	기념제 참가자를 위한 축하공연

○ 예산안

구 분	예산	비고
기념식	2천만원	기념식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위령제	1천만원	위령제 개최 행사비
시상식	1천만원	유공자 시상식 및 시상금
축하공연	1천만원	축하공연 사례 및 진행비
합계	5천만원	

○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중요성

사업구분	종합사업(분야총괄 혹은 여러 분야 연계필요사업)	단위개발사업
		○

사업추진시기	단기(2014-2015)	중기(2016-2019)	장기(2017-2023)
	○	○	

사업중요도	상	중	하
	○		

③ 무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 위치 : 무안군 일대(대표유적지 10~20개소 등)

○ 개발 목표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기념하고 관광자원화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적지 정비 및 스토리텔링

○ 개발 방향

- 무안동학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통한 사적지 선정 및 주변 정비
- 사적지에 대한 안내문(무안 동학 스토리텔링 명소화) 설치.
- 무안 동학관련 사적지의 관광자원화하여, 탐방코스로 활용.
- 2014년부터 장기 지속하고, 무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 마을 유적지 정비

- 이번 과업에서 원전사료로 고증이 된 곳은 대표적인 마을로는 해제 석용리와 몽탄 다산마을 그리고 목포 대월리(대양동) 3처이나 추후에 확대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설계과업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① 해제면 석용리: 전체 현황판, 최장현 생가의 현황판, 동학 훈련 시 먹었다는 샘의 정비 그리고 옆에 쉼터로 정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읍 황토현 인근마을의 사례가 있다.
- ② 몽탄면 다산마을: 마을 현황판, 마을입구 도로의 주막과 정자목의 활용, 마을입구에 표시판, 김응문 생가의 현황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③ 대월리(대양동) 마을: 유적에 대한 현황판, 추정 생가터, 마을 입구에 안내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기대 효과

- 무안 동학의 역사를 상징하는 유적지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
- 청소년 및 지역민들의 내 고향 역사알기 교육 장소화.

○ 세부 사업

내용	주요내용
주변 정비	관련 유적지의 주변 정비, 진입로 개설
안내문 설치	무안동학 스토리텔링을 통한 명소화 안내문 설치(10~20개소)
홍보물 제작	무안동학 유적지 안내 홍보물 제작

○ 예산안

구 분	예산	비고
유적지 정비	6억원 5천만원	관련 유적지 발굴 및 주변 정비 (해제 석용리, 몽탄 다산, 목포 대양동 등)
안내문 설치	3억원	안내문과 도로 표지판 설치(10~20개소)
홍보물	5천만원	안내 소책자 및 리플렛 제작
합계	10억원	

○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중요성

사업구분	종합사업(분야총괄 혹은 여러 분야 연계필요사업)	단위개발사업
		○

사업추진시기	단기(2014-2015)	중기(2016-2019)	장기(2017-2023)
	○	○	

사업중요도	상	중	하
	○		

④ 학술대회 개최(2014년 동학 120주년 기념)

○ 위치 : 무안군 문화예술회관

○ 개발 목표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 개최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고, 무안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 개발 방향

- 무안 동학과 관련된 지역 연구자와 대외적으로 알려진 동학 연구자 초청
- 무안 동학과 관련된 연구성과 발표
- 언론을 통한 무안 동학농민혁명의 의미 홍보

○ 기대 효과

- 무안 동학의 역사성을 학술행사를 통해 뒷받침
- 청소년 및 지역민들의 내 고향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세부 사업

내용	주요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	국내외 동학관련 유명 연구자 초청, 관련 학술대회 개최
자료집 제작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제작 및 배포
홍보물 제작	학술대회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

○ 예산안

구 분	예산	비고
발표 및 토론비	7백만원	발표자(4인) 400만원 토론자(4인) 200만원 좌장 및 사회자(2인) 100만원
자료집 제작	1백만원	발표회 자료집
홍보물	1백만원	현수막 및 리플렛 등
행사비	1백만원	회의비 및 식비
합계	1천만원	

○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중요성

사업구분	종합사업(분야총괄 혹은 여러 분야 연계필요사업)	단위개발사업
		○

사업추진시기	단기(2014-2015)	중기(2016-2019)	장기(2017-2023)
	○		

사업중요도	상	중	하
	○		

⑤ 시민강좌 개최(2014년 동학 120주년 기념)

○ 위치 : 무안군 문화원 외

○ 개발 목표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알리는 교양강좌 개최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고, 무안군의 역사성 강조

○ 개발 방향

- 무안 동학의 역사성을 지역민에게 홍보
- 무안 동학과 관련된 연구성과 집대성하여, 교양 원고 개발

○ 기대 효과

- 무안 동학의 역사성을 대중화 시키는 시민강좌로 발전
- 청소년 및 지역민들의 내 고향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세부 사업

내용	주요내용
강연회	시민강좌 개최(청소년, 일반인 등 대상 아카데미 개설) 찾아가는 무안 동학 강연회
자료집 제작	강연회 자료집 제작 및 배포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

○ 예산안

구 분	예산	비고
강사비	6백만원	발표자(아카데미 강사 6인 외) 600만원
자료집 제작	1백만원	발표회 자료집
홍보물	1백만원	현수막 및 리플렛 등
추진비, 행사비	2백만원	회의비 및 식비
합계	1천만원	

○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중요성

사업구분	종합사업(분야총괄 혹은 여러 분야 연계필요사업)	단위개발사업
		○

사업추진시기	단기(2014-2015)	중기(2016-2019)	장기(2017-2023)
	○		

사업중요도	상	중	하
	○		

⑥ 홈페이지 개설(무안동학농민혁명 스토리 뱅크)

○ 위치 : 인터넷 사이트

○ 개발 목표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알리는 인터넷 사이트 구축
- 무안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자료를 DB화

○ 개발 방향

- 무안 동학의 역사성과 기념사업 추진 내용을 홍보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 무안 동학과 관련된 다양한 원천 소스를 제공하는 스토리뱅크로 활용

○ 기대 효과

- 무안 동학의 역사성을 대중화 시키는 인터넷 매체
- 각종 기념사업 홍보 및 무안군의 지역성 확립.
- 무안 동학에 대한 원천 소스를 파악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발전

○ 세부 사업

내용	주요내용
스토리뱅크 자료 구축	무안 동학관련 자료 정리, 소스 구분
홈페이지 제작	무안 동학관련 홈페이지 구축 기념사업회 내용 홍보
도메인 설정 및 서버 호스트 계약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도메인 결정 및 웹 호스트 사용 계약

○ 예산안

구 분	예산	비고
자료 정리비	1백만원	스토리 뱅크 자료 정리
홈페이지 제작비	4백만원	발표회 자료집
합계	5천만원	

○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중요성

사업구분	종합사업(분야총괄 혹은 여러 분야 연계필요사업)	단위개발사업
		○

사업추진시기	단기(2014-2015)	중기(2016-2019)	장기(2017-2023)
	○		

사업중요도	상	중	하
	○		

3) 계승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1) 지원 조례 제정

무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내실 있게 장기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조례안의 내용은 앞장에서 분석한 타 지역 기념사례(고창, 정읍)에 제시되어 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방 자치단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3>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제정 지역	자치 법규 명	제정(개정일)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09-03-20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5-03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3-19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09-05-12

무안군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원활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타 지역의 조례 제정을 참조하여, 관련 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장기 지속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무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내 자체 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의 지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동학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의 정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무안동학농민혁명 연구회 육성

- 무안 동학농민혁명의 경우는 외부의 학자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활동보다는 내부 활동가들에 의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활동이 필요하다. 무안문화원, 무안향토사연구회, 기념사업회 등의 회원들이 연대하여, 무안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관련 연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자체 및 관련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 무안 동학농민혁명을 대중화시키고,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일선의 교육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향토사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안동학 체험캠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안 동학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교육지청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현장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답사 프로그램 운영

-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설화와 유적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원들이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적지에 대한 정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찾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답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 이미 무안향토사연구회와 기념사업회에서 1일 코스의 “무안동학 답사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일일답사의 프로그램 예시안은 다음과 같다.

<표 4> 무안 동학의 현장을 찾아서 1일 답사 프로그램(안)

일정	주요내용
9시	집결(노인복지회관 3층)
9시 ~ 9시 30분	특강 - 무안의 동학농민혁명(사전교육)
10시 ~ 11시	해제 임치진, 민대들, 삼의사 비 답사
11시 30분 - 12시	무안읍 동학골, 붉은고개, 불무제 다리 답사
12시 ~ 13시	점심
13시 ~ 14시	몽탄 차뫼 인평 마을 답사
14시 30분	일로 개산제 답사
15시	삼향읍 대양리 배상옥 장군 생가 답사
16시	청계 바우백이 청천재 답사
17시	고막원 전적지 터 답사
18시	무안 승달예술회관 해산

- 이러한 답사 프로그램이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 탐방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답사해설가 양성, 홍보물 제작, 현장 정비 및 안내문 설치 등의 협력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3) 전국화를 위한 대표 브랜드 및 문화상품 개발 필요

○ 무안 동학의 상징, 배상옥 장군 관련 상품 개발

- 무안 동학 농민혁명의 상징적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장군 등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데 반해, 이 지역의 지도자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약한 실정이다.
- 무안군의 경우는 배상옥 장군 등을 대표 인물로 하여 그 활동내역과 생애를 토대로 한 대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활용해서 무안동학을 연계하고, 외부인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무안 동학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 등 상품 개발

- 무안 동학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과 설화 속의 스토리 등의 소스에 기반 한 캐릭터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기념품을 개발하여 문화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교육용 애니메이션의 제작 등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사갈 수 있는 인형 등의 캐릭터 상품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 무안 동학 만화 제작 및 보급

- 무안 사람들의 동학농민혁명 활동 내력과 역사사적 의미, 현 시대에서 계승하려는 시대정신 등을 내용으로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만화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무안 동학 동학을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한 문화사업이 될 수 있다.

(4) 무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 정립을 위한 제언

○ 고유 명칭에 대한 정립과 공식 사용

- '무안동학'을 고유명사화해서 문화브랜드 이름으로 쓰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식명칭은 '무안동학농민전쟁', '무안동학농민혁명', 혹은 '무안동학농민혁명전쟁' 등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느 편으로 해도 무방하다. 다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타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식 명칭(무안동학농민혁명)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무안동학'의 범주에 대한 설정

중심은 물론 '무안'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목포시, 함평군 등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고막원전투는 무안과 함평이 공동 위령제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무안동학 탐방코스를 ‘무안권 역사문화’와 연계 풍부한 스토리 창출

- 예를 들어 무안동학 탐방에 임치진, 해제면 석용리의 민대들 훈련장, 몽탄 접주 김응문 생가터의 고인돌, 창포 등을 포함시킬 수 있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목포진, 고막원 석교 등을 포함시킬 수가 있다.

○ 무안 창포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활용

- 전래 동요 ‘파랑새’의 문화적 원형과 관련하여 무안 창포와 관련된 발생설을 소스로 활용하여 다양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무안동학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무안동학'과 '하도의 영수 배상옥' 개념화를 통한 브랜드화 추진

- 전봉준이 전주에 대도소를 설치했고, 김개남이 남원에 좌도 대도소를, 김인배가 순천에 영호대도소를 설치했듯이 '무안동학'은 '남호도소(南湖都所: 목포시 대양동)'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상옥이 거느렸던 농민군의 규모가 전봉준과 김개남의 그것을 능가했다는 것을 의미 부여하여 예를 들어 '하도(下道) 영수 배상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무안동학농민혁명을 브랜드화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적으로 개념화를 통해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리고,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배상옥 장군의 개념화를 위한 상징물 제작

- 배상옥 장군의 유물이나 실체가 잔존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대안으로 초혼묘(1안)를 쓰거나 흉상제작(2안)을 할 필요가 있다.

1안) 초혼묘: 정읍 사례와 같이 전봉준 장군의 초혼묘를 쓰고, 여러 가지 석물을 제작하여 장식하는 방법이다. 장점으로 추모하는 실존물이 마련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묘역의 추후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또 공간의 확보, 장소 선정, 종교관 등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추진위와 문중간 면밀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2안) 흉상제작: 배상옥 장군의 방계후손들 인물 특징을 살려 복원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작된 흉상은 기념회관 바깥의 상징물과 같이 전시하거나 기념관 현관에 배치할 수 있다. 장점으로 전시 공간의 확보나 장소의 선정이 용이하고, 종교적인 갈등은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이 사업 또한 문중내에서 협의와 합의가 전제 된다. 예산은 약 4천만 원이 소요된다.

○ “섬으로 간 동학”이라는 이미지 확대와 관련 연구 진행

- 무안 동학이 미친 영향과 활동 범위를 더 넓히는 과정에서, 주변 다도해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안 동학농민혁명군의 최종 후퇴의 과정에서 해남과 관계가 있고, 섬으로 도주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무안동학'의 범위를 해남과 도서지역으로 더 넓히는 것도 타당하다. 무안에서 주도하되 이런 지역과의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면 더욱 힘이 실리고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 "섬으로 간 동학"이라는 주제의식은 섬이 민중들의 최종 유토피아라는 조선후기의 민중사상, 혁명사상(허균 등)과도 연계되어 일반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또한 "섬으로 간 동학"이라는 테마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과의 연계는 물론 '무안동학'과 '장흥동학'이 연계할 공통의 주제로 묶을 수도 있다.

- 실제 섬 지역은 현대정치사에서 전통적으로 야권 성향이 강하고, 민주주의의 투사들을 많이 배출해 왔다. 흔히 이와 관련 된 지역성을 이야기 하면서, “동학농민군들이 최후 진압되는 과정에서 섬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많았고, 그 영향력으로 생긴 기질이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송기숙의 소설 『암태도』에는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섬 주민이 사실 자기는 동학운동을 하다 섬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섬으로 간 동학”이라는 지역민들에게 전해오는 구전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대목이다.

- 실제 이번 연구과정에서 압해도의 경우 일제시기에 동학의 한 분파이자 천도교(天道敎) 다음으로 교세를 자랑하던 신흥종교인 상제교(上帝敎)의 신자들이 꽤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신도증과 발급해서 긴밀하게 동학과 관련된 종교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무안동학과 섬사람들의 관련성은 충분한 추정 가치가 있다. 그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무안 동학이 지닌 문화사적 의미를 확대해석하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제4부 부 록



1. 동학농민혁명의 문헌자료 소개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과 인증서식





1. 무안동학농민혁명 문헌자료 소개

1) 취어(미상) - 대상시기: 1893~1894

前司諫權鳳熙疏

伏以臣材質庸愚學識淺短不足備教於具臣之一而第
伏念太陽所照葵藿自傾魯國有憂婆婦亦憂茲將
萬死之計敢獻一得之愚伏願 殿下留神澄省焉願令
國家事勢凱旋存臻生靈塗炭肅清蕩竭經用不敷
紀綱解弛名分掃地正道寢微異教權行譬如火鼎煎
水東沸而追烘走水傷盡中虛而敝立若於此時不施
之以止火回生之方將見昂終破而木終顛矣可不懼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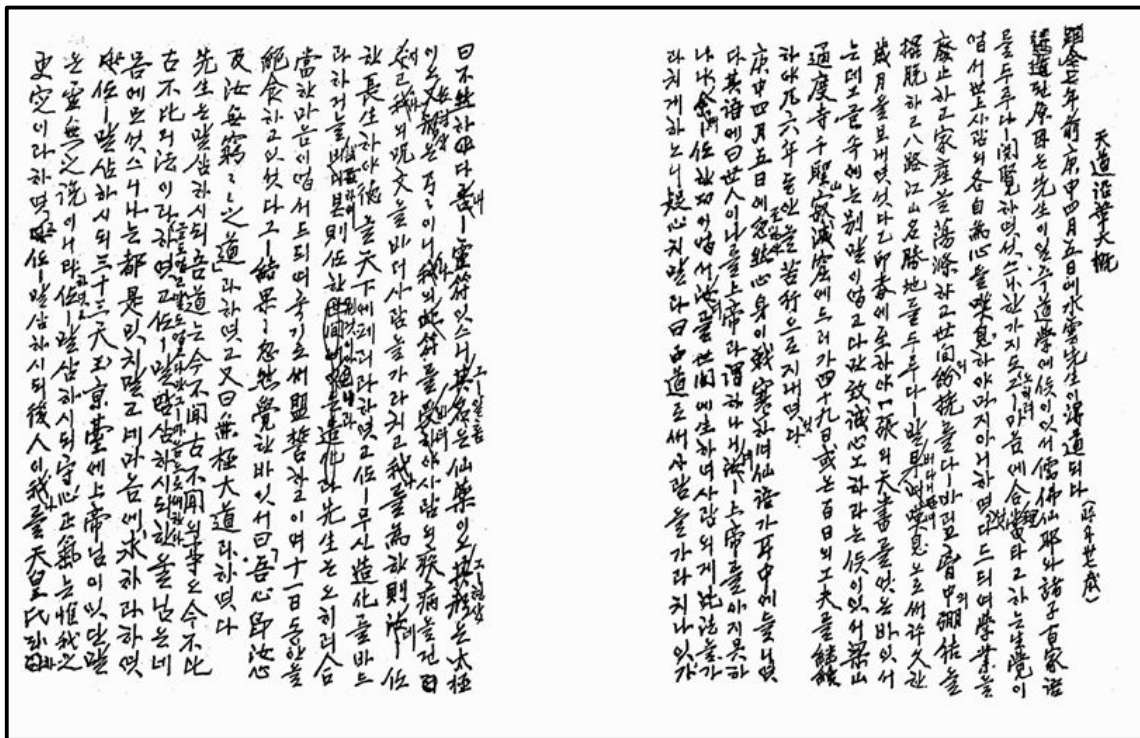
謹陳愚見臚列如左曰典 聖學以祈永命曰積誠心
以求賢才曰擇守令以安民生曰躬節儉以紓財用曰立
紀綱以定民志曰選將材以明軍律曰衛正道以闢邪說
是已逐條說用備乙覽焉所謂典 聖學以祈永命
者何也嗚呼惟精惟一允執厥中者大舜之學也無偏
倚達其有極者周武之學也恭惟我 殿下姿氣之統粹
仁心之藹蔚不下於舜武而臨御三十年澤未下究民
不見治者何也誠以上智之姿而未遑與于學不能明

이 책은 1893년 충청도 報恩官衙에서 주로 報恩集會를 탐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필사본 1책으로 되어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 보은집회 시 동학의 報恩官衙通告, 倡義의 목적을 밝힌 동학 교단의 榜文, 通文 등과 더불어 兩湖都御史 魚允中の 曉諭文, 國王의 飭諭文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兩湖宣撫使 魚允中이 조사한 忠淸監司 趙秉式的 貪虐 狀啓, 보은군 盧錫九의 獄事 檢案, 淸風民亂에 대한 탐지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전개상황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 茂長東學輩布告文 등이 실려 있다. 또 1차 봉기의 전개과정과 전라감영의 함락 전말도 곁들여 있다. 한편 前司諫 權鳳熙와 副護軍 李建昌, 前正言 安孝濟, 進士 鄭惺愚, 前都事 李宗烈, 前校理 李承九, 永川郡守 許斌의 상소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당시 정부의 폐정과 농민군에 대한 대책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1893년 보은집회의 전개상황 및 정부의 대책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1차 봉기 때 다른 지역의 사정도 알려주고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2) 동학사 초고본(오지영) - 대상시기: 1860~1930



이 책은 東學의 발생, 즉 1대 교주 崔濟愚의 創道에서 1930년대 천도교 혁신 운동까지 수록하고 있는 東學 또는 天道敎의 역사책이다. 4책으로 되어 있다. 저자가 직접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나름대로 겪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서술의 중심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저자인 吳知泳(1868~1950)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인물로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천도교 혁신운동에 종사한 운동가이다. 그는 全北 高敞郡 茂長面 德林里에서 몰락한 양반인 吳裁善의 장자로 태어나서 1891년에 동학에 입교하였다. 이듬해 고창 선운사의 石佛秘訣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益山에 머물러 활동하면서 1893년 익산민란에서 都狀頭로 활약했으며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익산대접주인 金方瑞 휘하에서 참여했는데 2차 봉기시 남북접의 화해에 중재역할도 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서해변에 피신하면서 楊州 妙寂菴에 은거하여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天道敎의 敎役者가 되었다. 1908년에 익산교구장, 1909년에 중앙총부 理文觀書計員을 역임하고 1911년에 典制觀長에 임명되어 서울로 이주하였다. 당시 중앙총부에서는 주로 『萬歲報』에 글을 게재하였고 『天道敎月報』 편집원으로서 道號인 源菴을 써서 글을 기고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20년대에 그는 天道敎聯合會의 창설을 주도하여 천도교의 혁신파를 이끌면서부터는 중앙총부와는 손을 끊고 지방의 교회를 중심으로 천도교의 폐단을 개혁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1926년 익산의 천도교도들과 함께 만주 길림에 집단이주하여 균등한 토지분배와 공동경작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1935년 서울에 돌아온 후, 이듬해 『新人乃天』, 『새사람과 새한울』, 1940년에 『東學史』를 간행하였다. 해방 뒤에는 천도교 대표로 정치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1915년 侍天敎主 金演局이 『侍天敎宗繹史』를 간행하여 동학농민혁명시 자신의 활약을 부각시켰던 것과, 天道敎 舊派가 1933년 『天道敎創建史』를 간행하여 오지영을 비롯한 천도교연합회 계통의 신파에 대해 비판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계열의 활동상을 부각시키고 천도교 혁신운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東學史』 草稿本은 모두 4책으로서 1책은 「附天道敎沿革大觀」이라는 제목하에 1926년 이후 만주지역에서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2책은 「東學史 序」에 「布德六十五年甲子三月 日于一序」라는 문구로 보아 1924년 3월에 于一(柳公三인 듯)이 서문을 쓴 것이다. 저자가 친필로 쓴 원고는 2책과 3책으로 추정된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우선 19세기 후반 정세를 분석하였으며, 1890년 초반 일어난 전라북도 일대의 민란을 배경으로 하여 古阜民亂이 일어났는데 고부민란은 全琫準을 비롯하여 孫和中, 金開南, 崔景善, 金德明 등 동학당 수령에 의해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1차 봉기 시기의 기록은 날짜나 인물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주로 傳聞을 통해 얻어들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癸巳年 11월에 일어난 사발동문의 等訴運動을 古阜民亂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으며 古阜官衙를 점령한 사실과 檄文, 倡義文을 발포한 시기를 甲午年 正月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 저자가 古阜民亂과 茂長蜂起 이후 전개된 1차 동학농민혁명을 서로 혼동하여 발생한 오류였다.

다음으로 1894년 5월 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맺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강화, 즉 全州和約에서 체결된 弊政改革 12개 條項에 대한 서술은 주목할 만하다. 草稿本에서는 「執綱所の 行政」이라는 항목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官民講和의 내용이 아니라 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執綱所の 綱領이라는 것이다. 내용도 刊行本의 것과 몇 조항의 出入이 있다.

「執綱所の 行政」부분에, ‘이제 全羅道 五十三州에 골골마다 執綱所가 아니 設立된 곳이 업시 一律로 다 되었섯고 執綱所의 안에는 幾千名의 義軍이 護衛를 하였섯고 行政에 잇서서는 執綱이 主務로 十數人의 議員이 잇서 協議體로 組織이 되었섯고 都執綱 一人을 뽑아 全道의 代表가 되게 하였섯고 已往잇든 大小官吏들은 오즉 事務에 責任만을 맞게 하였섯고 執綱所の 政綱은 이와갓다.’라고 하면서,

執綱所の 政綱

- 一. 人命을 濫殺한 者는 버힐 事
- 一. 貪官汚吏는 祛根할 事
- 一. 橫暴한 富豪輩를 嚴懲할 事
- 一. 儒林과 兩班輩의 巢窟을 討滅할 事
- 一. 殘民 等の 軍案을 불지를 事
- 一. 中文書를 불지를 事
- 一. 白丁의 머리에 胄梁이를 벗기고 갓을 써울 事
- 一. 無名雜稅 등은 革罷할 事
- 一. 公私債를 勿論하고 過去의 것은 并勿施할 事
- 一. 外賊과 連絡하는 자는 버힐 事
- 一. 土地는 平均分作으로 할 事
- 一. 農軍의 두레法은 獎勵할 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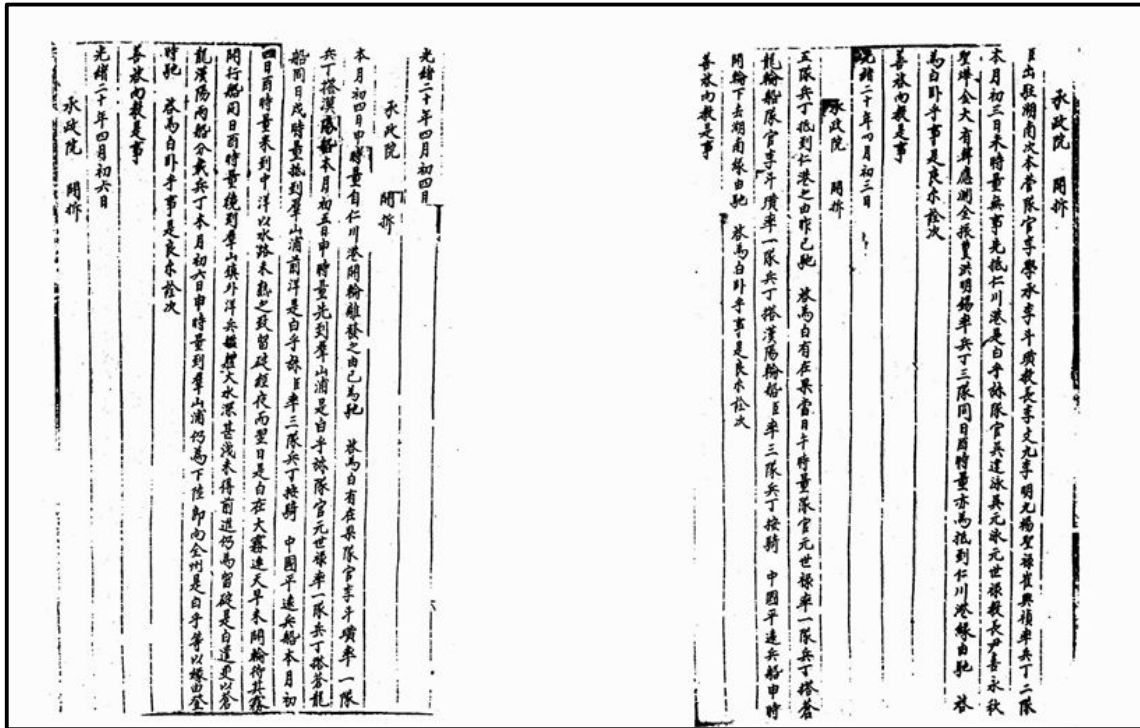
등을 열거하여 특히 탐관오리와 양반에 대한 토벌, 신분제의 혁파, 토지문제 등에 강경한 입장이 부각되고 있다. 간행본 『동학사』의 1) 도인과 정부 사이에는 수렴을 탕소하고 시정에 협력할 것, 2) 청춘과부는 개가를 허락할 것, 3) 관리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등이 누락되어 있다. 문구도 약간 달리 하였다.

한편 전봉준에 대한 법정 심문과정에 대해서도, ‘所謂 朝鮮政府의 사람으로써 自家의 內政을 自家로써 解決치 아니하고 外寇의 힘을 비려 自家의 百姓을 殘害하는 것은 그 心志가 어디에 잇는가를 可히써 알 수 잇는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갖고 있는 개화와 정권에 대한 비판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오류와 과장, 혹은 부정확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石佛秘訣 및 南北接의 爭端에 관해서는 자신의 역할을 과장되게 기록하고 있으며 교단운동에 관해서도 자신의 천도교 혁신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1940년 서울 영창서관에서 간행된 일제말기의 간행본과 비교해 보면, 내용 기술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사본에서는 ‘斥倭斥洋’과 농민군의 운동사실 등을 그대로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1894년 당시 동학농민혁명의 이념과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저자의 경험담과 더불어 정확한 사실이해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1920년대 동학농민혁명에 관해 쓰여진 어떠한 다른 저서가 뒤따를 수 없을 정도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서술이 이루어져 연구사상 중요한 古典으로 간주되고 있다.

3) 양호초토등록(미상) - 대상시기: 1894~1894



이 자료는 兩湖招討使 洪啓薰(?~1895)이 壯衛營軍과 江華營軍 등 京軍을 인솔하고 서울을 출발한 4월 초 3일부터 全州城을 收復한 직후인 5월 16일까지 양호초토사가 한 일을 日記體로 수록한 자료이다. 1책으로 되어 있는 精寫本이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甲午年(1894) 음력 3월 20일경에 農民軍이 무장에서 기포하여 전주성을 향해서 進軍하기 시작하자, 중앙정부가 洪啓薰(一名 洪在義)을 兩湖招討使로 임명하여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도록 남하시켰을 때의 招討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자료에는 日錄 뿐만 아니라 양호초토사가 승정원 등 중앙정부에 보고한 狀啓와 전라관찰사에게 보낸 移文, 각군에 보낸 甘結, 산하 군대에게 보낸 傳令, 도민에게 포고한 榜文, 농민군의 귀순을 권고한 曉諭文 등이 정확한 日字와 함께 原文이 수록되어 있다.

비록 양호초토사 자신의 자기변명이 충만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는 풍부한 사실을 담고 있어 사료비판을 하면서 활용하면 제1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진압군의 초토활동에 대한 여러 사실을 알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4) 양호전기(미상) - 대상시기: 1894~1894

兩湖電記
大朝鮮國五百三年甲午四月
初三日巳酉
諸軍無事劉仁港之意電報于 公事廳惠堂宅本營使道宅水橋
大臣宅
初四日庚戌
今初四日午時量隊官元世標率一隊兵丁輜重與大砲搭蒼龍船隊
官李斗瑣率一隊兵丁搭漢陽船其餘三隊兵丁按騎中國平遠兵
船申時量開輪下去湖南緣由電報于 公事廳惠堂宅本營使道
宅水橋大臣宅登船將接接見袁世凱電云洪招討使函悟已飭平遠
管帶仁川理事安照而有京予以兵船事有請書札故有此答電耳
初五日辛亥無電
初六日壬子無電
初七日癸丑
電于 公事廳惠堂宅本營使道宅水橋大臣宅曰初七日百時量
到完匪徒猖獗完軍挫銳不可晚論而止伏俟 處分又電華人徐
邦傑欲知形便願為同行故與十五人抵完似有張於外勢是白齊
自管理來電貴弟奇別平安見俄電東援何如放榜退再明
幸行停止回示朴主事平安其弟亦平安 答電一行無援今
日抵完東援猖獗完軍敗陣 又電四處中國兵船以大霧中洋

이 자료는 1894년 4월 3일에서 같은 해 5월 28일까지 招討使 洪啓薰과 各處사이에 서로 주고 받은 전보를 날짜 순서로 수록한 자료이다. 이 전보의 내용은 흥계훈이 1차 동학농민혁명 진압과 관련하여 진압군의 출발로부터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당시 전황과 정부의 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당시 電報를 주고 받은 곳이 집권층 내부의 핵심적 위치에 있던 인물이 많았으므로 全州城 공방전과 5월 8일 ‘全州和約’이 성립되기까지 집권층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월 5일 內署의 電報에서는 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에 대하여, ‘歸化之說是 믿을 수 없다. 기어이 소멸하도록 하되 평민에게 이르러서는 불가불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하라[歸化之說 不可準信 期圖剿滅 至於平民 不可不審慎十分]’라고 하여 농민군의 휴전제의를 거절하였지만, 5월 7일에는 그 使者가 日前에 所志한 바 민원을 上啓하고 실시하면[日前所訴 民願條條 升聞于天 陛 下諭列邑 裨至安民之地] 해산하겠다는 供文을 제출하였고 5월 8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供文을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사정을 소개하고 있다(5월 21일자 電報于四處의 내용).

흥계훈이 電報를 보낸 곳은 大內(高宗), 政府, 內署, 機器局, 公事廳, 壯衛營, 沁營, 錦營, 完營, 淸州鎮, 淸州營將, 惠堂宅(閔泳駿), 本營使道(壯衛營使)宅, 水橋大臣宅, 磚洞 閔判書宅, 徐邦傑(淸國人) 등이었다. 전보를 보내온 곳은, 大內(高宗), 政府, 內署, 商局, 商堂, 督辦, 總制營, 惠堂宅, 本營使宅, 磚洞 閔判書宅, 趙義淵, 袁世凱, 鎮南營, 錦營, 完營 등이었다.

이 책은 『兩湖招討臚錄』과 더불어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정부진압군의 입장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1차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5) 東學黨ニ關スル彙報(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소장문서)



일본 외무성 자료

明治維新을 통하여 天皇制 통일국가를 수립한 일본은 조선을 세력권 아래 두는 것을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876년 朝日불평등조약을 체결시킨 뒤 정치적·경제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던 일본은 1882년 壬午軍亂을 겪으면서 발걸음을 주춤하였다. 淸에 대한 힘의 열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침략의 과제가 淸에 의해 방해받고 좌절당하자 明治정부는 對淸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곧 대대적인 군비확장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그후 조선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취하면서도 淸佛戰爭(1884년)을 틈타 은밀히 친일개화파를 부추겨 甲申政變을 일으키도록 조장하였다. 그렇지만 淸에 대한 열세는 여전한 것으로 조선지배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甲申政變 이후 일본은 줄곧 군비확장을 전개해 가면서 조선에서의 경제적 이권침탈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조선의 지형, 역사, 사정, 문화 등을 열심히 조사하고 탐구하여 對淸전쟁과 조선침략의 준비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李重煥의 『朝鮮八域誌』(1881년)가 번역되고 林泰輔의 『朝鮮史』(5책)가 1892년에 발간되는가 하면, 육군참모본부에서는 『朝鮮地誌略』(1888년)을 간행하는 등 이루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1880년대에 藩閥정부를 비판하면서 국회개설을 주장하는 自由民權運動이 격화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체제위기적 상황이 심화되자 明治정부는 관료임용체제를 정비하고 ‘제국헌법’의 공포(1889년)와 ‘제국의회’의 개설(1890년) 등을 통하여 대내체제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武士라는 출신성분이나 기질을 통한 정치적 입신출세의 길이 막히고 새롭게 근대적 소양과 학식을 중시하는 시험제도를 통해서만 관계에 진출이 가능하고 선거를 통하여 정계에 입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권력지향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나 권력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옛 武士 계급 출신의 浪人들이 양산되었다. 그들은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 입신이 용이하지 않자 대륙팽창이라는

국가목적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조선을 비롯한 대륙으로 건너가기 시작하였다.

1890년을 전후하여 대대적으로 조선에 건너온 浪人들은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지형을 탐사하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선침략의 사전 준비작업이었고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행동이었다. 이들 ‘朝鮮浪人’ 중에는 육군참모본부, 외무성 등 국가기관의 첩자로 활동하는 자들도 있었고 본국의 전형적인 국가주의 단체인 玄洋社, 國權黨 등 정치단체에서 파견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신문사·잡지사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서 통신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조선사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나가면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대륙침략의 여론을 선동하여갔다. 이들의 주의·주장은 정부의 대조선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막강한 것이었고, 明治정부는 이들을 교묘히 활용하면서 조선침략이라는 목적에 접근하여 갔다.

1892년 12월(양력) 東學의 敎祖伸冤運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1893년 3월 광화문에서의 ‘伏閣上疏’, ‘掛書事件’ 등을 통하여 ‘斥倭洋’의 반침략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자, 일본의 朝野는 조선 문제로 들끓기 시작하였다. 동학교도가 王城인 서울까지 잠입하여 광화문 앞에서 복합 상소하였고 조선정부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던 점, 그리고 동학은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고 많은 교도를 확보하고 있는 반일주의적 종교집단이라는 사실 등은 그들이 충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재류일본인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스스로 자위책과 피난방법을 강구하고 공사관과 본국 정부에 군대의 파견을 요청할 정도였다.

일본정부는 거류민의 보호를 위하여 군함을 파견하는 등 만전의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공사관을 통하여 조선정부에 ‘동학당의 진압’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리고 외무성과 육군참모본부에서는 각각 첩자를 파견하여 동학에 대한 정보수집에 부심하였다.

그런데 5월 초부터 보은집회와 금구집회가 시작되면서 일본에게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전개되었다. 이 집회에서는 ‘斥倭洋’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었고 조직력과 동원력이 종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2,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교도가 집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에게 동학운동의 이같은 전개양상은 단지 거류민보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의 ‘일본의 권익’에 관계되는 문제였다. 즉 淸의 독점적 지배권의 강화와 일본 세력의 후퇴로 연동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인 사이에는 淸의 배후 조종설까지 유포되고 있었다.

동학운동이 일본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신문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자 일본의 朝野는 들끓었고 특히 군함 파견 소식은 전쟁 분위기를 느끼게 할 정도였다. 대외강경론자들은 군대를 파견하여 東學黨을 토벌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玄洋社 같은 단체에서는 ‘의용군’ 결성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전쟁 발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보은집회와 금구집회를 끝내고서 동학운동은 수면 아래 잠복하였으나, 일본은 동학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차후의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1년 뒤 동학농민군이 일어섰을 때 淸日전쟁의 도발과 閔族政權 타도, 친일개화정권 수립 및 농민군 진압이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여기에는 동학에 대한 적대감을 전제로 하여 對淸전쟁에 대비한 군비확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893년 동학운동을 계기로 하여 일본외무성은 부산·목포 등지의 각 영사관과 서울의 공사관을 통하여, 동학의 동태, 淸의 동향, 조선정부의 대응 등 다방면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정보수집에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浪人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浪人들은 외무당국뿐만 아니라 군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본국의 신문과 잡지에 투고하여 사실을 알리는 한편 그러한 문필활동을 통하여 ‘조선문제’ 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나가면서 일본의 조선침략을 선동했다.

1894년 봄에 접어들어 종래의 동학운동이 질적·양적으로 발전하여 동학농민혁명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5월 1일자(양력) 『東京朝日新聞』에 돌연 ‘東學黨의 再亂’이라는 기사가 실려 ‘東學黨 三千人 전라도에서 일어나 (중략) 京城에 침입의 勢 있고, 支那兵 八百名 파견하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 외 다른 신문도 5월 11일을 전후하여 일제히 ‘淸兵의 파병’, ‘동학당의 入京’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이 ‘淸兵 派兵’의 기사는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對淸전쟁을 목

적으로 한 여론조작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1년 전 동학운동의 발발 때부터 정보수집망을 구축하여 놓은 일본은 농민군의 동태 및 淸軍과 조선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일본의 관심의 초점은 ①농민군의 목적은 무엇인가, ‘斥倭洋’인가 아니면 반정부투쟁인가, ②농민군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군은 진압할 수 있는가의 여부, ③淸軍은 개입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일본이 내린 결론은 농민군의 목적은 閔族政權 타도에 있었다, 조선정부는 진압할 힘이 없다, 그리고 淸나라는 親淸의인 閔族政權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라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반정부투쟁’이라고 하여 동학농민군의 반일적 성격이 없어졌다고 결론내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반일적인 ‘배외주의’를 기본에 깔고 있으면서도 농민군 봉기의 계기가 관리의 가렴주구에서 출발하였고 그것이 반정부투쟁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판단 위에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적대감을 전제로 하여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일본의 朝野는 초기에 ‘동학당의 再亂’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점차 ‘朝鮮內亂’, ‘朝鮮兵亂’, ‘朝鮮禍亂’, ‘朝鮮騷擾’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바뀌어갔다. 그리고서는 이를 조선침략의 ‘절호의 기회’로 포착하고서 대응책을 마련해갔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거류민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親淸反日의인 閔族政權을 타도하고 친일개화정권을 수립함과 동시에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淸세력을 조선에서 구축하다는 것이었고, 그후 적당한 시기에 동학농민군을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그후의 역사과정은 그 실천을 여실히 보여준다.

閔族政權 타도, 청일전쟁, 농민군 진압의 세 가지 과제는 ‘조선의 보호국화’ 나아가서는 ‘조선지배’라는 국가목표 아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일본의 朝野가 국내문제에 관하여 각각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조선정책에는 일치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정부 당국의 발표나 언론매체들의 보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을 親淸의이며 ‘완고하고 썩어빠진’ 閔族政權 타도운동이라고 하면서도 동학농민군을 ‘무지몽매한 폭도’, ‘혹세무민의 사 이비 종교집단’ 등으로 매도하고 그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일본 朝野의 이러한 대조선책과는 달리 매우 독자적 발상과 방식으로 이에 접근하는 집단이 있었다. ‘天佑俠’이라고 하는 浪人團이 그것이다. 이 浪人團은 조선에서 오랫동안 기자, 통역, 사법서사, 행상 등을 하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던 전형적인 ‘朝鮮浪人’들로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조선을 일본의 세력권 아래 둘 절호의 기회로 삼고 농민군에 접근하였던 정치결사였다. 이들 天佑俠徒들은 조선 사정과 동학농민군에 대하여 당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해박하고 정통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문과 잡지의 많은 지면을 장식했고 이들이 남겨 놓은 관계기록들이 또한 많다.

일본은 1876년 조선과 수교한 뒤 서울에는 공사관을, 부산·원산·목포 등 각 개항장에는 영사관을 설치하였다. 각 영사관에서 수집된 자료는 공사관에 모아지고 공사관에서는 중요한 것을 뽑아 내어 본국의 외무성에 보고하였다. 외무성에서는 다시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50여년이 지난 후에 『日本外交文書』라는 제명으로 간행하였다.

본 자료집에서 외무성 자료라는 것은 ① 『日本外交文書』에 수록된 동학운동 및 동학농민혁명 관계자료, ② 현재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에 비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리킨다. 이외에 주한 일본 공사관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들로 일제가 1945년 8월 패전한 후에 일본에 반출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이라는 제명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편찬하였다. 여기에도 동학 및 동학농민혁명 관계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쉽게 구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외무성 자료에는 1893년 동학운동 자료에서부터 이듬해 동학농민혁명 때의 淸軍의 동향, 일본군의 토벌상황, 조선정부측의 대응, 일본정부의 훈령 및 공사관의 보고 상황, 청일전쟁 관련자료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좀처럼 구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는 전부 수록하였다.(姜昌一)

6) 萬朝報(일본신문자료) - 대상시기: 1984.06.26

放したる後此項仁川に入港したる處此事早くも京城政府へ照会與主事渡戸場へ足を踏ぐるや否京城捕吏に拘引せられたりと云ふ●上海米を兵船に充てん 當港渡戸場に堆積せる上海米の内一万三千餘石の清商同類泰の所有に係るものにて同店に在る十一日迄賣物として市場に出したるが翌十二日の二三の買手現はれたるにも拘はらず賣却を拒絶したり之れ全く兵の糧食米に充てられたるものなりと傳ふ●全羅西海岸の動靜 全羅西海岸を航して歸仁したる或る海員に就て彼地の動靜を聞くに左の如し●海岸線騷亂地の南部務安地方に相繼らず賊勢猛烈の由にて務安の西南五里許を距る木浦の如きの危險の患ひ大に之れあり船舶を碇繋すること能はず北方法軍に向へり●靈光の海岸線騷亂に對する官兵の本營を設けたる處なるが五月廿七日賊兵と戦ひたれども遂に敗れ取り爲めに營兵の脱走するもの甚だ多く到底支持すべからざるより翌々廿九日此地を引き揚げ全州に向へりと聞けり斯る次第なるを以て其後の靈光の賊の騒々する所となり毎夜山上に篝火を焚き人心を驚々として法軍の如き其餘波を受け危險少くなりざるより茲にも暫時碇泊するのみにて熊淵に向へり、熊淵より於て彼地の動靜を聞くに前日夜を徹して四方より賊徒喧しうりし趣きにて今尙ほ人心安堵の候子なく何時大事の起らんも測り難しとて恐怖一方寒らざりしといふ●熊淵に碇泊中陸上より左の二報を得たり●當地を距る五里許のヌナンと稱する村落にて五月廿八日東徒擾亂し火を放ちて人家八十有餘を烏有に歸せり●東徒の去る廿七日長城の戰に勝を得て

일본 신문 자료

明治維新을 통하여 天皇制 통일국가를 수립한 일본은 조선을 세력권 아래 두는 것을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876년 朝日불평등조약을 체결시킨 뒤 정치적·경제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던 일본은 1882년 壬午軍亂을 겪으면서 발걸음을 주춤하였다. 淸에 대한 힘의 열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침략의 과제가 淸에 의해 방해받고 좌절당하자 明治정부는 對淸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곧 대대적인 군비확장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그후 조선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취하면서도 淸佛戰爭(1884년)을 틈타 은밀히 친일개화파를 부추겨 甲申政變을 일으키도록 조장하였다. 그렇지만 淸에 대한 열세는 여전한 것으로 조선지배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甲申政變 이후 일본은 줄곧 군비확장을 전개해 가면서 조선에서의 경제적 이권침탈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조선의 지형, 역사, 사정, 문화 등을 열심히 조사하고 탐구하여 對淸전쟁과 조선침략의 준비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李重煥의 『朝鮮八域誌』(1881년)가 번역되고 林泰輔의 『朝鮮史』(5책)가 1892년에 발간되는가 하면, 육군참모본부에서는 『朝鮮地誌略』(1888년)을 간행하는 등 이루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1880년대에 藩閥정부를 비판하면서 국회개설을 주장하는 自由民權運動이 격화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체제위기적 상황이 심화되자 明治정부는 관료임용체제를 정비하고 ‘제국헌법’의 공포(1889년)와 ‘제국의회’의 개설(1890년) 등을 통하여 대내체제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武士라는 출신성분이나 기질을 통한 정치적 입신출세의 길이 막히고 새롭게 근대적 소양과 학식을 중시하는 시험제도를 통해서만 관계에 진출이 가능하고 선거를 통하여 정계에 입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권력지향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나 권력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옛 武士 계급 출신의 浪人들이 양산되었다. 그들은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 입신이 용이하지 않자 대륙팽창이라는 국가목적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조선을 비롯한 대륙으로 건너가기 시작하였다.

1890년을 전후하여 대대적으로 조선에 건너온 浪人들은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지형을 탐사하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선침략의 사전 준비작업이었고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행동이었다. 이들 ‘朝鮮浪人’ 중에는 육군참모본부, 외무성 등 국가기관의 첩자로 활동하는 자들도 있었고 본국의 전형적인 국가주의 단체인 玄洋社, 國權黨 등 정치단체에서 파견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신문사·잡지사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서 통신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조선사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나가면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대륙침략의 여론을 선동하여갔다. 이들의 주의·주장은 정부의 대조선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막강한 것이었고, 明治정부는 이들을 교묘히 활용하면서 조선침략이라는 목적에 접근하여 갔다.

1892년 12월(양력) 東學의 敎祖伸冤運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1893년 3월 광화문에서의 ‘伏閣上疏’, ‘掛書事件’ 등을 통하여 ‘斥倭洋’의 반침략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자, 일본의 朝野는 조선 문제로 들끓기 시작하였다. 동학교도가 王城인 서울까지 잠입하여 광화문 앞에서 복합 상소하였고 조선정부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던 점, 그리고 동학은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고 많은 교도를 확보하고 있는 반일주의적 종교집단이라는 사실 등은 그들이 충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재류일본인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스스로 자위책과 피난방법을 강구하고 공사관과 본국 정부에 군대의 파견을 요청할 정도였다.

일본정부는 거류민의 보호를 위하여 군함을 파견하는 등 만전의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공사관을 통하여 조선정부에 ‘동학당의 진압’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리고 외무성과 육군참모본부에서는 각각 첩자를 파견하여 동학에 대한 정보수집에 부심하였다.

그런데 5월 초부터 보은집회와 금구집회가 시작되면서 일본에게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전개되었다. 이 집회에서는 ‘斥倭洋’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었고 조직력과 동원력이 종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2,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교도가 집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에게 동학운동의 이같은 전개양상은 단지 거류민보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의 ‘일본의 권익’에 관계되는 문제였다. 즉 淸의 독점적 지배권의 강화와 일본 세력의 후퇴로 연동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인 사이에는 淸의 배후 조종설까지 유포되고 있었다.

동학운동이 일본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신문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자 일본의 朝野는 들끓었고 특히 군함 파견 소식은 전쟁 분위기를 느끼게 할 정도였다. 대외강경론자들은 군대를 파견하여 東學黨을 토벌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玄洋社 같은 단체에서는 ‘의용군’ 결성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전쟁 발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보은집회와 금구집회를 끝내고서 동학운동은 수면 아래 잠복하였으나, 일본은 동학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차후의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1년 뒤 동학농민군이 일어났을 때 淸日전쟁의 도발과 閔族政權 타도, 친일개화정권 수립 및 농민군 진압이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여기에는 동학에 대한 적대감을 전제로 하여 對淸전쟁에 대비한 군비확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893년 동학운동을 계기로 하여 일본외무성은 부산·목포 등지의 각 영사관과 서울의 공사관을 통하여, 동학의 동태, 淸의 동향, 조선정부의 대응 등 다방면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정보수집에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浪人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浪

人들은 외무당국뿐만 아니라 군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본국의 신문과 잡지에 투고하여 사실을 알리는 한편 그러한 문필활동을 통하여 ‘조선문제’ 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 나가면서 일본의 조선침략을 선동했다.

1894년 봄에 접어들어 종래의 동학운동이 질적·양적으로 발전하여 동학농민혁명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5월 1일자(양력) 『東京朝日新聞』에 돌연 ‘東學黨의 再亂’이라는 기사가 실려 ‘東學黨 三千人 전라도에서 일어나 (중략) 京城에 침입의 勢 있고, 支那兵 八百名 파견하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 외 다른 신문도 5월 11일을 전후하여 일제히 ‘淸兵의 파병’, ‘동학당의 入京’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이 ‘淸兵 派兵’의 기사는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對淸전쟁을 목적으로 한 여론조작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1년 전 동학운동의 발발 때부터 정보수집망을 구축하여 놓은 일본은 농민군의 동태 및 淸軍과 조선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일본의 관심의 초점은 ①농민군의 목적은 무엇인가, ‘斥倭洋’인가 아니면 반정부투쟁인가, ②농민군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군은 진압할 수 있는가의 여부, ③淸軍은 개입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일본이 내린 결론은 농민군의 목적은 閔族政權 타도에 있었다, 조선정부는 진압할 힘이 없다, 그리고 淸나라는 親淸의인 閔族政權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할 것이다라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반정부투쟁’이라고 하여 동학농민군의 반일적 성격이 없어졌다고 결론내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반일적인 ‘배외주의’를 기본에 깔고 있으면서도 농민군 봉기의 계기가 관리의 가렴주구에서 출발하였고 그것이 반정부투쟁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판단 위에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적대감을 전제로 하여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일본의 朝野는 초기에 ‘동학당의 再亂’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점차 ‘朝鮮內亂’, ‘朝鮮兵亂’, ‘朝鮮禍亂’, ‘朝鮮騷擾’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바뀌어갔다. 그리고서는 이를 조선침략의 ‘절호의 기회’로 포착하고서 대응책을 마련해갔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거류민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親淸反日的인 閔族政權을 타도하고 친일개화정권을 수립함과 동시에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淸세력을 조선에서 구축하다는 것이었고, 그후 적당한 시기에 동학농민군을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그후의 역사과정은 그 실천을 여실히 보여준다.

閔族政權 타도, 청일전쟁, 농민군 진압의 세 가지 과제는 ‘조선의 보호국화’ 나아가서는 ‘조선지배’라는 국가목표 아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일본의 朝野가 국내문제에 관하여 각각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조선정책에는 일치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정부 당국의 발표나 언론매체들의 보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을 親淸의이며 ‘완고하고 씩어빠진’ 閔族政權 타도운동이라고 하면서도 동학농민군을 ‘무지몽매한 폭도’, ‘흑세무민의 사이비 종교집단’ 등으로 매도하고 그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일본 朝野의 이러한 대조선책과는 달리 매우 독자적 발상과 방식으로 이에 접근하는 집단이 있었다. ‘天佑俠’이라고 하는 浪人團이 그것이다. 이 浪人團은 조선에서 오랫동안 기자, 통역, 사법서사, 행상 등을 하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던 전형적인 ‘朝鮮浪人’들로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조선을 일본의 세력권 아래 둘 절호의 기회로 삼고 농민군에 접근하였던 정치결사였다. 이들 天佑俠들은 조선 사정과 동학농민군에 대하여 당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해박하고 정통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문과 잡지의 많은 지면을 장식했고 이들이 남겨 놓은 관계기록들이 또한 많다. 그래서 天佑俠에 대하여 특기하여 둔다.

天佑俠는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동학농민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武裝浪人團이다. 그들의 목적은 농민군의 閔族政權 타도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조선에 친일적인 동학정권을 수립하려는 데 있었다. 이들 浪人輩 14명은 마산의 일본인 금광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총기와 다이내마이트 등으로 무장한 후 1894년 7월 8·9일 양일에 걸쳐 전라도 순창에서 전봉준의 농민군과 조우하여 전봉준을 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전봉준을 친견하는 자리에서 동학에 입

교시켜 줄 것과 전쟁에 가담시켜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전봉준은 완곡히 거절하고 이들에 막연한 재회의 약속을 해주면서 옷과 돈을 나누어 주고 되돌려 보냈다.

이들이 서울로 향하던 중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부는 일본군의 통역 및 첩자로 암약하였고, 일부는 일본인 금광 습격사건으로 부산의 일본영사관에 체포당하기도 하고 일본으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당시 20대의 젊은 청년들로서 본국에서 정치적 출세의 길이 막히자 조선에 건너와 대륙 침략의 뜻을 펼쳐나가던 전형적인 浪人들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일약 일본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문제 전문가가 되었다. 그후 그들은 明成皇后 시해사건에 가담하는 한편, 1901년에는 근대일본 우익의 본류인 黑龍會를 결성하여 일본근대정치사의 일익을 확고히 차지하게 되었다. 黑龍會는 조선지배를 위하여 대대적으로 露日戰爭을 선전·선동하고 일본이 노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한 뒤에는 조선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統監 및 일본 본국 군벌의 사적인 정보원으로 암약하면서 한일병합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들의 주구로서 매국·매족 행동을 한 것이 李容九·宋秉畯의 一進會임은 익히 알려진 대로이다. 동학의 한 분파인 一進會를 매국괴뢰단체로 만드는 데에 1894년 天佑俠의 동학접촉이 주요한 고리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天佑俠徒들은 당시에는 『二六新報』를 비롯하여 많은 신문·잡지 등에 글을 썼고 그후에도 동학 관계, 天佑俠 활동관계, 기타 조선 사정 등에 대하여 많은 글을 남겼다. 그들은 天佑俠 당시 동학과 제휴하여 한일연합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조선침략의 야욕을 달성하려 하였고 統監府 시기에는 ‘일한합방론’을 내세워 조선식민지화를 획책하여 갔다. 그들의 ‘일한연합론’, ‘일한합방론’은 얼핏보면 ‘양민족의 대등한 합방’이라고 하는 기묘한 연대론처럼 보이기 때문에 침략성을 은폐하여 위장하는 이론적 도구로 이용되어졌다.

당시의 신문기사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 일본 외무당국의 공식 발표 및 朝鮮浪人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6월 초에 淸日 양국의 군대가 아산만과 인천에 각각 출병하는 사태에 즈음하여 각 신문사에서는 기사를 특파원으로서 파견하고 있기도 하다.

종래 동학운동과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는 관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東京日日新聞』과 중립적 신문으로 가장 많은 부수를 발간하고 있던 『東京朝日新聞』이 이용되어졌다. 그런데 최근에 姜昌一이 天佑俠 연구과정에서 새롭게 『二六新報』를 발굴하여 많은 새로운 사료를 찾아냈다.

『二六新報』는 明治 26년(1893) 10월 26일 당시 26세였던 아키야마(秋山定輔)에 의해 창간되어 주로 明治 연간에 태어난 20대 청년들에 의해 운영되고 집필되었다. 그런데 1895년 재정난에 의해 폐간되었다가 露日戰爭 직전에 재창간되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눈에 좀처럼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 신문에는 天佑俠의 한 사람인 스즈키(鈴木天眼)가 주필로 근무하고 있었고 天佑俠 결성 과정에서 사장 아키야마가 깊숙히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天佑俠의 대변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어떤 신문 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많은 기사가 이 신문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관계 기사는 대부분 신문들이 날짜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당국에서 발표하는 것을 기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본 자료집에서 사실 관계는 『大阪朝日新聞』(東京朝日新聞과 같은 계열사)과 『大阪毎日新聞』,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二六新報』를 토대로 하였다. 大阪 지방은 한반도와 교통이 많아 풍부한 기사가 그 지방신문에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時事新報』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親韓派’로 널리 알려진 후쿠자와(福澤諭吉)가 발간하던 신문이다. 그는 계몽사상가답게 나름대로 확고한 사상을 가지고 대조선론을 펼치고 있다. 일본 근대 계몽사상의 일단을 살펴보고 그들의 동학농민관 및 조선인식이 어떠한가를 분석하는 데 참고하고자 수록하였다. 기타 여러 신문자료들도 수록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신문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은 특별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본 신문자료집에서 1893년 동학운동 관계기사는 자료수집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수록하지 못하였다. 차후에 부록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7) 도인경과내력 등 문서(미상) - 대상시기: 1894~1894

道人經過來歷

今六月十二日東學于人人十七日二千餘人二十三日三千餘人二十九日六十餘人七月初三日二百餘人初八日三百餘人十六日二千二百餘人前後過去為四百餘人入未

自各執槍銃鉤放砲入城其勢危懼人民騷動而供饋則自州內各家與市迎酒家分次為之是旅配所尹各使宅所捧錢四千三百兩內一千一百兩派給民間五百兩派給奴令及各廳漢婢子數人等慶而供饋浮費

系為六千餘兩內一千兩官當餘數自執綱所排定於各面鏡戶處是尹祿島銃二千五柄及千步銃六柄深刀三柄火藥五斗鉛九斗介威脅庫去是白齊

道人經過浮費合錢六千四百八十兩九毫四分內

一百九兩五毫 尹各使宅米価計

七十一兩六毫 吏房家支倍計

在錢六千二百九十八兩內

一千兩 官當 三百兩 梁相宅

甲午年 당시 海南에 관련되는 문서. 당시의 海南縣 吏房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① 道人經過來歷 : 帖紙에 1894년 6월 농민군 4천 7백여명이 지나가고 그 경비를 執綱所의 지시에 따라 捻出한 내용을 적었다. 그 捻出대상은 前兵使 尹敦夏와 土豪 地主와 酒家 官奴 使令에 미치고 있으며 武器 奪去사실도 부기하였다. 이어 양곡 기타 物品의 보관분을 기재하고 또 海南 管內의 民戶數를 기록하고 여기에 따르는 三政의 收取내용을 列記하였다.

끝에 常定秩에는 당시 각 官衙에서 드는 경비의 내역을 기재하였다.

「道人經過來歷」의 뒷 부분은 당시 이 고을의 財政상태를 알려주는 자료로 執綱所에서 활용한 것인지, 일반적인 기록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② 通文·完文等 : 9건의 자료가 있다. 맨앞에는 海南 白浦에 사는 監役의 명함을 지닌 尹鍾浩의 山訟관계 通文이 있다. 농민군의 南湖道所에서 그 시정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大義所에서 縣山接에 보낸 私通에서는 尹鍾浩의 협조사실을 기재하고 그 보호를 당부하고 있다.

그 다음은 羅州牧使 守城所 兩湖巡撫先鋒陣에서 보낸 文件으로 尹監役의 보호 및 縣山主人에게 白浦주민을 다치지 말게 하라는 傳令 또는 물품의 수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의 文件은 海南지방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그 지역의 事例를 통해 執綱所 및 그 사후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원광대학교 박승호 교수가 발견하여 공개하였는데, 현재 原本은 井邑 黃土峴記念館 관리사무소에 소장되어 있다.

8) 계초존안(의정부기록국) - 대상시기: 1894~1894

議政府에서 1894년 7월 21일부터 같은 해 11월 20일 사이에 上啓한 것을 의정부 記錄局이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 상황을 망라하고 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청일전쟁에 참여한 淸兵이 지나가는 고을에서 수령이 糧草牛馬 등을 민간에서 징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南陽府 民擾罪人 鄭寅植의 처벌문제, 농민군 수천명이 전라우수영 군기와 公錢을 빼앗아 간 일, 1894년 7월말에 全州土民이 聯名呈狀한 사항 중에서 國計에 관련되는 7개조의 내용, 각지의 민란 상황, 전라감영 軍司馬 宋寅會와 軍官 金星圭가 농민군의 招諭 歸化에 공이 많으므로 道內守令으로 임명할 것을 전라감사 김학진이 건의한 일, 각지 수령들이 挪用公錢한 사실, 星州에서의 농민군 활동 상황, 각지 수령이 邑弊民瘼의 시정을 건의한 사실, 경상도 醴泉郡의 농민군 활동 상황, 각지에서 농민군이 군기를 빼앗는 일, 전라도 南原중심 일대에서의 농민군 활동상황, 경상도 서남부지역에서의 농민군 활동 상황, 경기도 砥平縣 농민군의 활동 상황.

위의 사실들은 모두 동학농민혁명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들로서, 집강소 단계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함에 있어 기초적인 사실들이 이 책에는 많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鄭昌烈)

9) 갑오사기(조의곤) - 대상시기: 1894~1894

雜著
甲午事記

古阜民擾魁首全明淑率一境民人留自山數月乃與井邑孫
和中興起東徒數十自仁川江會于高敞邑東學之亂自此始
焉其魁報恩崔濟愚崔時亨云而濟愚已被國斬時亨逃之厥
類之倡起又自時亨始焉月初五日復會于古阜之天時水
道監司道本營兵丁擊之見敗乃令各官守城捕賊是時賊勢
方盛初八日屠本邑城翌日屠茂長邑燒滅人家飲掠益甚是
時王師之行聞在隣境閭巷殘民畏其募兵山行草宿者頗多
初十日賊兵自靈光下咸平留屯十五日招討使洪在禧率京
兵三十果到本邑留陣翌日自茂長宿于靈光直抵咸平賊兵
已自羅州至長城之黃龍江屯于月坪翌日京兵陳官李宣傳
學承率兵二百追後陣于茅村合戰不利學承死之乃四月
二十二日也賊之死者甚多賊乃知大軍在後烏合之卒各圖
其生不計晝夜不擇夷險自羊盧嶺復會于井邑不數日而陷完
城據焉監司逃走赤城失守賊勢大振眾舍之燒焚男女之死
傷不可一一記焉二十八日招討使洪在禧回兵到本邑留宿
翌日自興德宿于井邑第三日到全州界留陣于龍頭岾是時
平壤兵丁五百未合兵勢大振相拒數嶮地賊不敢出翌日聯
時合戰大破賊陣賊返開城門守不出翌日請講和招討使

이 자료는 전라도 高敞에 사는 저자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甲午년에 직접 목격한 상황이나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당시 유림의 시각으로 정리해 놓은 글이다. 東塢 趙毅坤의 문집인 『東塢遺稿』 雜著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고부민란의 주모자인 全明淑(全琤準)이 백산에서 수개월 머무르다가 孫和中(孫華中)과 더불어 고창읍에 모였다는 사실, 茂長기포 후 전라도 일대를 석권하는 내용 및 전주성 공방전을 둘러싼 초토사 洪在禧(洪啓薰)와 농민군과의 講和 문제, 錦城(羅州)을 둘러싼 나주목사 閔鍾烈과 농민군과의 일대 격전, 2차 기병에 관한 金箕範(金開南)과 全琤準의 동향에 대한 사실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茂長起包에 관한 부분들에서 일시나 사건의 내용에 착오를 보이는 곳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 자료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 관한 간략한 기록으로서 당시 지방유생의 눈을 통해 주요 사건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는 원광대 박순호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바 있다.

10) 임하유고(김방선) - 대상시기: 1894~1894

林下遺稿

甲午九月日濟行日記

上之三十一年甲午正月日民亂自全羅道古阜郡始郡守趙東甲貪虐無厭勒徵科外之飲白山禾湖等地積穀數千石古阜郡民就食其積穀相聚為亂以全明叔鄭一西金道三為魁首至于三月不解監司金文鉉暗遣營校李在夾營吏趙東昊兵隊三十人掩捕亂魁機事不密反為所縛兵隊一人死於亂棒之下全明叔等懼禍及身收民家銃奪民家農器造鎗劍之屬為拒逐官軍之計民有識見者起其作亂新郡守朴源明請鄭一西金道三誘以禍福解散眾民全明叔知事不成率砲軍五十名往投

茂長東學人孫化中東學之術往在庚申年間慶高道慶州人崔濟愚所作也誦呪焚符詐稱療疾病免災異誘惑眾民以國禁伏誅其道無貴賤之別而八道者稱接長傳道者稱接主傳道多者至萬餘人小者至一二千人專事聚黨沿邑九甚全羅道以徐長玉為首忠清道以崔時亨為首皆濟愚之弟子也明叔之往化中也招聚東學輩五六千名自茂長人川出來旗幟上大書輔國安民倡義六字行不累糧因民之食奪民之財連陷茂長高敞興德古阜井邑泰仁等邑奪取軍器凌辱官長四月初四日八扶安監司金文鉉以李昆陽為領官昆陽者借啣也率監營兵隊三百人募列邑閑丁及負商白丁輩萬餘名進至白山留陣東學

이 책은 扶安 儒生 金邦善(1843~1901)이 서술한 일기이다. 內題는 「甲午九月 日 濟行日記」로 되어 있다. 저자의 자는 益元이고 호는 林下이다.

주요한 내용은 1894년 1월 고부민란이 全明淑(全琫準), 鄭一西, 金道三 등 3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으며, 이후 민군을 해산하고 나서 심복 부하 50명을 거느리고 茂長의 孫化中에게로 가서 다시 동학도 5, 6천명을 거느리고 무장 人川(林內)에서 기포하였다고 기록했다. 또한 교조 崔濟愚 이후 道를 전하여 接長, 接主라고 칭하고 전라도는 徐長玉, 충청도는 崔時亨이 각각 맡고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황토현의 전투와 전주성 싸움의 전말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한편 9월 27일 이후 10월 22일 까지의 기록은 저자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扶安縣 東門 中里를 떠나 西十里 鹽所浦에서 출발하여 濟州 牛島로 가는 여행도중 벌어진 일과 소감을 서술하고 있다. 고부민란과 무장봉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이 지역 유생의 동정을 엿볼 수 있다.

11)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미상)

이 글은 선봉장(先鋒將) 이규태(李圭泰)의 묘지명(墓誌銘)[李承旭 撰(이승옥 찬)]과 그 아들 이종익(李鍾翊)의 1896년(建陽 元) 호적(戶籍)과 1894년 10월, 11월 동학농민군 토벌 기간 중의 이규태(李圭泰)와 각부대 지휘관, 친지(親知) 및 가정 사이에 왕복한 사신(私信)을 수록한 자료이다. 개인사 관련 기록이다. 당시 농민군 토벌에 대한 각지 인사들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2) 戦亂日記(岡田庄兵衛 編)



明治維新을 통하여 天皇制 통일국가를 수립한 일본은 朝鮮을 세력권 아래 두는 것을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876년 朝日불평등조약을 체결시킨 뒤 정치적·경제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던 일본은 1882년 壬午軍亂을 겪으면서 발걸음을 주춤하였다. 淸에 대한 힘의 열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침략의 과제가 淸에 의해 방해받고 좌절당하자 明治정부는 對淸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곧 대대적인 군비확장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그후 조선에 대한 불관섭정책을 취하면서도 淸佛戰爭(1884년)을 틈타 은밀히 친일개화파를 부추겨 甲申政變을 일으키도록 조

장하였다. 그렇지만 淸에 대한 열세는 여전한 것으로 조선지배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甲申政變 이후 일본은 줄곧 군비확장을 전개해 가면서 조선에서의 경제적 이권침탈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조선의 지형, 역사, 사정, 문화 등을 열심히 조사하고 탐구하여 對淸전쟁과 조선침략의 준비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李重煥의 『朝鮮八域誌』(1881년)가 번역되고 林泰輔의 『朝鮮史』(5책)가 1892년에 발간되는가 하면, 육군참모본부에서는 『朝鮮地誌略』(1888년)을 간행하는 등 이루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1880년대에 藩閥정부를 비판하면서 국회개설을 주장하는 自由民權運動이 격화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체제위기적 상황이 심화되자 明治정부는 관료임용체제를 정비하고 ‘제국헌법’의 공포(1889년)와 ‘제국의회’의 개설(1890년) 등을 통하여 대내체제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武士라는 출신성분이나 기질을 통한 정치적 입신출세의 길이 막히고 새롭게 근대적 소양과 학식을 중시하는 시험제도를 통해서만 관계에 진출이 가능하고 선거를 통하여 정계에 입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권력지향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나 권력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옛 武士 계급 출신의 浪人들이 양산되었다. 그들은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 입신이 용이하지 않자 대륙팽창이라는 국가목적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조선을 비롯한 대륙으로 건너가기 시작하였다.

1890년을 전후하여 대대적으로 조선에 건너온 浪人들은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지형을 탐사하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선침략의 사전 준비작업이었고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행동이었다. 이들 ‘朝鮮浪人’ 중에는 육군참모본부, 외무성 등 국가기관의 첩자로 활동하는 자들도 있었고 본국의 전형적인 국가주의 단체인 玄洋社, 國權黨 등 정치단체에서 파견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신문사·잡지사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서 통신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조선사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나가면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대륙침략의 여론을 선동하여갔다. 이들의 주의·주장은 정부의 대조선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막강한 것이었고, 明治정부는 이들을 교묘히 활용하면서 조선침략이라는 목적에 접근하여 갔다.

1892년 12월(양력) 東學의 敎祖伸冤運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1893년 3월 광화문에서의 ‘伏閣上疏’, ‘掛書事件’ 등을 통하여 ‘斥倭洋’의 반침략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자, 일본의 朝野는 조선 문제로 들끓기 시작하였다. 동학교도가 王城인 서울까지 잠입하여 광화문 앞에서 북합 상소하였고 조선정부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던 점, 그리고 동학은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고 많은 교도를 확보하고 있는 반일주의적 종교집단이라는 사실 등은 그들이 충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재류일본인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스스로 자위책과 피난방법을 강구하고 공사관과 본국 정부에 군대의 파견을 요청할 정도였다.

일본정부는 거류민의 보호를 위하여 군함을 파견하는 등 만전의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공사관을 통하여 조선정부에 ‘동학당의 진압’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리고 외무성과 육군참모본부에서는 각각 첩자를 파견하여 동학에 대한 정보수집에 부심하였다.

그런데 5월 초부터 보은집회와 금구집회가 시작되면서 일본에게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전개되었다. 이 집회에서는 ‘斥倭洋’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었고 조직력과 동원력이 종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2,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교도가 집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에게 동학운동의 이같은 전개양상은 단지 거류민보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의 ‘일본의 권익’에 관계되는 문제였다. 즉 淸의 독점적 지배권의 강화와 일본 세력의 후퇴로 연동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인 사이에는 淸의 배후 조종설까지 유포되고 있었다.

동학운동이 일본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신문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자 일본의 朝野는 들끓었고 특히 군함 파견 소식은 전쟁 분위기를 느끼게 할 정도였다. 대외강경론자들은 군대를 파견하여 東學黨을 토벌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玄洋社 같은 단체에서는 ‘의용군’ 결성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전쟁 발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보은집회와 금구집회를 끝내고서 동학운동은 수면 아래 잠복하였으나, 일본은 동학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차후의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1년 뒤 동학농민군이 일어섰을 때 淸日전쟁의 도발과 閔族政權 타도, 친일개화정권 수립 및 농민군 진압이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여기에는 동학에 대한 적개감을 전제로 하여 對淸전쟁에 대비한 군비확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893년 동학운동을 계기로 하여 일본외무성은 부산·목포 등지의 각 영사관과 서울의 공사관을 통하여, 동학의 동태, 淸의 동향, 조선정부의 대응 등 다방면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정보수집에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浪人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浪人들은 외무당국뿐만 아니라 군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본국의 신문과 잡지에 투고하여 사실을 알리는 한편 그러한 문필활동을 통하여 ‘조선문제’ 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 나가면서 일본의 조선침략을 선동했다.

1894년 봄에 접어들어 종래의 동학운동이 질적·양적으로 발전하여 동학농민혁명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5월 1일자(양력) 『東京朝日新聞』에 돌연 ‘東學黨의 再亂’이라는 기사가 실려 ‘東學黨 三千人 전라도에서 일어나 (중략) 京城에 침입의 勢 있고, 支那兵 八百名 파견하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 외 다른 신문도 5월 11일을 전후하여 일제히 ‘淸兵의 파병’, ‘동학당의 入京’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이 ‘淸兵 派兵’의 기사는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對淸전쟁을 목적으로 한 여론조작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1년 전 동학운동의 발발 때부터 정보수집망을 구축하여 놓은 일본은 농민군의 동태 및 淸軍과 조선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일본의 관심의 초점은 ①농민군의 목적은 무엇인가, ‘斥倭洋’인가 아니면 반정부투쟁인가, ②농민군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군은 진압할 수 있는가의 여부, ③淸軍은 개입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일본이 내린 결론은 농민군의 목적은 閔族政權 타도에 있었다, 조선정부는 진압할 힘이 없다, 그리고 淸나라는 親淸의인 閔族政權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라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반정부투쟁’이라고 하여 동학농민군의 반일적 성격이 없어졌다고 결론내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반일적인 ‘배외주의’를 기본에 깔고 있으면서도 농민군 봉기의 계기가 관리의 가렴주구에서 출발하였고 그것이 반정부투쟁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판단 위에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적대감을 전제로 하여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일본의 朝野는 초기에 ‘동학당의 再亂’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점차 ‘朝鮮內亂’, ‘朝鮮兵亂’, ‘朝鮮禍亂’, ‘朝鮮騷擾’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바뀌어갔다. 그리고서는 이를 조선침략의 ‘절호의 기회’로 포착하고서 대응책을 마련해갔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거류민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親淸反日의인 閔族政權을 타도하고 친일개화정권을 수립함과 동시에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淸세력을 조선에서 구축하라는 것이었고, 그후 적당한 시기에 동학농민군을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그후의 역사과정은 그 실천을 여실히 보여준다.

閔族政權 타도, 청일전쟁, 농민군 진압의 세 가지 과제는 ‘조선의 보호국화’ 나아가서는 ‘조선지배’라는 국가목표 아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일본의 朝野가 국내문제에 관하여 각각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조선정책에는 일치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정부 당국의 발표나 언론매체들의 보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을 親淸의이며 ‘완고하고 썩어빠진’ 閔族政權 타도운동이라고 하면서도 동학농민군을 ‘무지몽매한 폭도’, ‘혹세무민의 사 이비 종교집단’ 등으로 매도하고 그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일본 朝野의 이러한 대조선책과는 달리 매우 독자적 발상과 방식으로 이에 접근하는 집단이 있었다. ‘天佑俠’이라고 하는 浪人團이 그것이다. 이 浪人團은 조선에서 오랫동안 기자, 통역, 사법서사, 행상 등을 하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던 전형적인 ‘朝鮮浪人’들로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조선을 일본의 세력권 아래 둘 절호의 기회로 삼고 농민군에 접근하였던 정치결사였다. 이들 天佑俠徒들은 조선 사정과 동학농민군에 대하여 당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해박하고 정통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문과 잡지의 많은 지면을 장식했고 이들이 남겨 놓은 관계기록들이 또한 많다. 그래서 天佑俠에 대하여 특기하여 둔다.

天佑俠는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동학농민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武裝浪人團이다. 그들의 목적은 농민군의 閥族政權 타도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조선에 친일적인 동학정권을 수립하려는 데 있었다. 이들 浪人輩 14명은 마산의 일본인 금광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총기와 다이내마이트 등으로 무장한 후 1894년 7월 8·9일 양일에 걸쳐 전라도 순창에서 전봉준의 농민군과 조우하여 전봉준을 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전봉준을 친견하는 자리에서 동학에 입교시켜 줄 것과 전쟁에 가담시켜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전봉준은 완곡히 거절하고 이들에 막연한 재회의 약속을 해주면서 옷과 돈을 나누어 주고 되돌려 보냈다.

이들이 서울로 향하던 중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부는 일본군의 통역 및 첩자로 암약하였고, 일부는 일본인 금광 습격사건으로 부산의 일본영사관에 체포당하기도 하고 일본으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당시 20대의 젊은 청년들로서 본국에서 정치적 출세의 길이 막히자 조선에 건너와 대륙 침략의 뜻을 펼쳐나가던 전형적인 浪人들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일약 일본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문제 전문가가 되었다. 그후 그들은 明成皇后 시해사건에 가담하는 한편, 1901년에는 근대일본 우익의 본류인 黑龍會를 결성하여 일본근대정치사의 일익을 확고히 차지하게 되었다. 黑龍會는 조선지배를 위하여 대대적으로 露日戰爭을 선전·선동하고 일본이 노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한 뒤에는 조선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統監 및 일본 본국 군벌의 사적인 정보원으로 암약하면서 한일병합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들의 주구로서 매국·매족 행동을 한 것이 李容九·宋秉畯의 一進會임은 익히 알려진 대로이다. 동학의 한 분파인 一進會를 매국괴뢰단체로 만드는 데에 1894년 天佑俠의 동학접촉이 주요한 고리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天佑俠徒들은 당시에는 『二六新報』를 비롯하여 많은 신문·잡지 등에 글을 썼고 그후에도 동학 관계, 天佑俠 활동관계, 기타 조선 사정 등에 대하여 많은 글을 남겼다. 그들은 天佑俠 당시 동학과 제휴하여 한일연합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조선침략의 야욕을 달성하려 하였고 統監府 시기에는 ‘일한합방론’을 내세워 조선식민지화를 획책하여 갔다. 그들의 ‘일한연합론’, ‘일한합방론’은 얼핏보면 ‘양민족의 대등한 합방’이라고 하는 기묘한 연대론처럼 보이기 때문에 침략성을 은폐하여 위장하는 이론적 도구로 이용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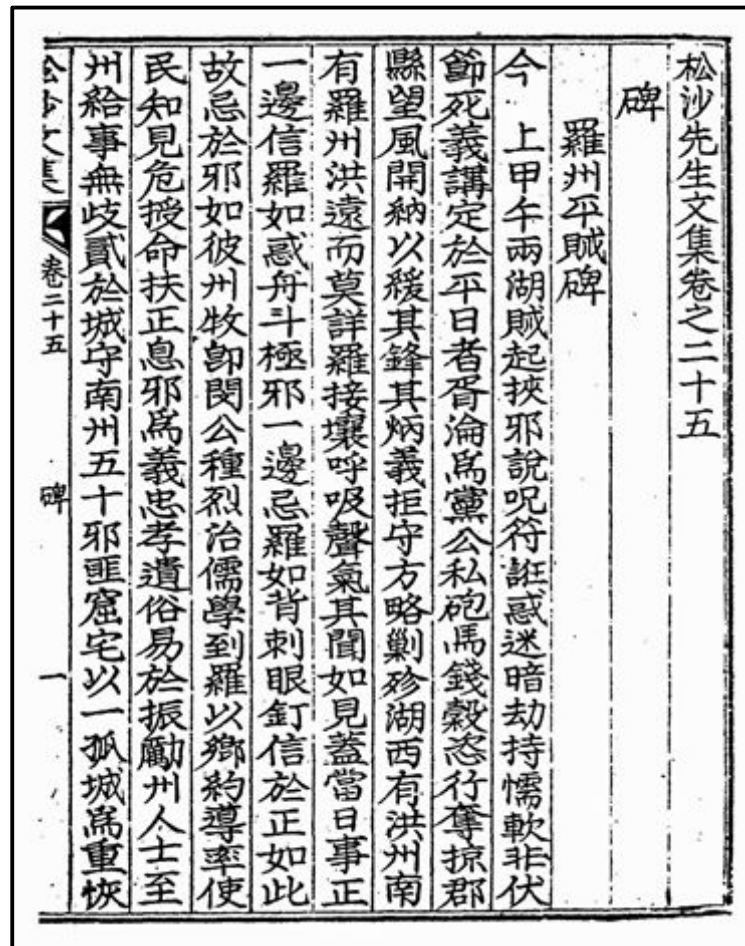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天佑俠徒가 남긴 저작물은 신문자료 외에 『東亞先覺志士記傳』 上卷(黑龍會, 1933년)에 수록되어 있는 동학 및 天佑俠 관계자료, 다케다(武田範之)의 『洪疇遺績』에 수록되어 있는 天佑俠 관계자료, 요시쿠라(吉倉汪聖)가 발간한 소설 형식의 『天佑俠』(新進社, 1903년, 본래 잡지 『黑龍』에 연재되었던 「韓山虎嘯錄(1~11)」을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임), 『玄洋社社史』(玄洋社社史編纂會, 1917)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동학농민혁명 관계의 직접사료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동학 및 농민군의 동향, 당시의 정황 등이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수록하였다. 또한 天佑俠이라는 근대일본의 정통 우익의 사상과 행동의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이들 자료들은 조선침략의 선봉에 섰던 우익 浪人들의 글이라는 점을 전제로 접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이런 저런 잡지 등에서 관계기사를 발췌하였다. 그 중 우미우라(海浦篤彌)의 『東學黨視察日記』는 그가 전봉준을 직접 친견한 자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日清交戰錄』, 『日清戰爭實記』 등은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과정을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京城府史』는 재조선 일본 거류민의 동향과 그들의 입장을 살피는데 참고가 된다.

일본에는 당시 수많은 잡지가 발간되고 있었는데 본 자료집은 우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만을 모은 것이다. 차후에 계속 발굴되는 대로 부록으로 간행할 예정이다.

본 史料大系(日本篇)는 많은 분의 헌신적인 자료 제공과 각고의 노력 끝에 편찬되었다. 이 자료집은 姜昌一이 일본유학생에게서 모은 것을 토대로 高錫珪씨가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수집한 외무성 관계자료와 후지나가(藤永壯)씨가 보내주신 『大阪朝日新聞』과 『大阪毎日新聞』을 수합하여 편집되었다. 또 일본에서 자료를 발굴하고 소개하여주신 趙景達(日本千葉大學 教授)씨의 협조도 특기하여 놓는다. 이 자료집의 편집과 간행은 方光錫씨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姜昌一)

12) 나주평적비(송사집-기우만) - 대상시기: 1894~1894



『松沙集』 권25에 실려있는 「羅州討平碑」는 長城의 儒林 奇字萬(1846~1916)이 쓴 碑文이다. 奇字萬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뒤 이 일대 儒林의 首匠으로 많은 관계 文件을 남겼다. 羅州討平碑는 나주목사 閔種烈과 守城軍의 활동을 적어 나주 官衙에 세웠는데, 이 碑는 지금도 옛 羅州郡廳 안에 여러 비석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 이 碑文은 「錦城平義錄 乙編」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그 文字의 出入이 있어 『松沙集』 권25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에 옮겨 실었다. 「長興府使朴公祭壇碑」는 장흥부사 朴憲陽의 행적을 기려 제단을 세우고 조성한 비문이다. 그는 1894년 12월 남쪽으로 후퇴한 농민군이 장흥 관아와 강진현 강진병영을 석권할 때 농민군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방언 등이 이끈 농민군은 최후의 항전을 벌였는데 이를 장흥전투라 부른다. 그리하여 그의 순의를 기려 제단비를 세우고 永懷園에서 제향을 받들었다. 박헌양은 장흥부를 아전들과 수성군을 조직하고 굳건히 관아를 지켰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96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국가에서 그의 특별한 충의를 기려 참의에 증직하고 여러 선양사업을 벌였다. 간략한 비문이나 장흥전투의 한 단면과 순의한 자의 조정 대우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저술자의 문집인 『松沙集』에 수록되어 있다.(李離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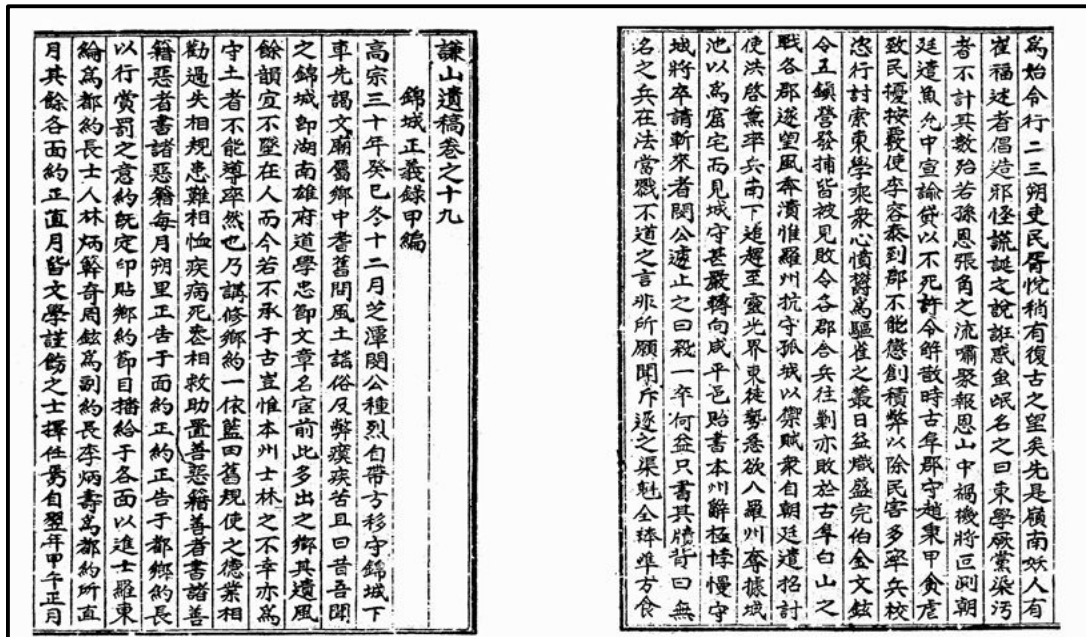
13) 난파유고(정석진) - 대상시기: 19세기말~20세기초



『蘭坡遺稿』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羅州城 守城都統將을 지낸 鄭錫珍(1851~1895)의 문집으로서 4권 1책이며 1913(癸丑)년에 간행되었다. 정석진의 자는 台完이며 蘭坡는 그의 호이다.

여기에는 정석진의 글 몇 건과 그가 都統將으로 있으면서 전후 7회에 걸친 농민군 격퇴의 공을 기리는 나주 유생들의 글, 그리고 나주지방 농민군을 토벌했던 내역을 소상히 기록한 討平日記 및 그의 行狀이 실려있다. 이 자료들은 羅州 儒生 李炳壽의 『錦城正義錄』과 함께 羅州·光州를 기반으로 孫化中(孫華中)·崔慶善·吳權善 등이 이끌던 동학농민군과 羅州牧使 閔種烈·營將 李源祐·都統將 鄭錫珍이 이끌던 수성군 사이에 벌어졌던 나주성 공방전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장흥지방과 관련 내용은 3권에 실린 「甲午討平日記」 말미에 약간 언급되어 있다. 농민군에 의한 장흥 강진 병영의 잇따른 함락 소식, 강진현감 李奎夏, 전라병사 徐光福 등이 피신해오는 내용, 함락 직전의 靈岩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주수성군이 영암까지 진출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14) 금성정의록(이병수) - 대상시기: 1893~1896



全羅道 羅州의 유생 李炳壽(1855~1941)가 나주와 장흥일대의 동학농민혁명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甲, 乙, 丙 3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의 詩文集 『謙山遺稿』 권19·20에 수록되어 있다. 李炳壽는 羅州의 校儒로 있으면서 儒林운동을 벌이고 鄉約의 실시에 앞장서기도 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렀다. 그리고 1894년말 농민군 토벌에 협력하였다.

甲編에는 1893년 말 羅州牧使 閔種烈이 부임하여 鄉約실시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어 1차 고부 봉기와 羅州의 守城사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나주의 接主 吳權善과 농민군지도자 崔慶善 등의 활동상, 全琫準의 나주목사 설득 사실을 적고 2차 봉기 후 孫化中(孫華中), 崔慶善, 吳權善의 나주공격 등을 소상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南平 長興 靈岩 등지의 후기 농민군 활동상을 附記하였다.

乙編에는 주로 乙未년에 이루어진 관계 文件을 모은 것으로 농민군 토벌에 대한 軍功을 적은 「招討使報軍功別紙」, 軍功을 인정받고 난 뒤 그 축하 글인 「本州人士賀軍功狀」, 奇字萬이 鄭錫珍에게 보낸 「討平後寄贈鄭將軍書」, 奇字萬이 쓴 「討平碑銘並序」와 斷髮令 후 義兵모의와 이에 따라 高宗이 내린 密詔 등을 수록하였다.

여기의 글은 사건전개 보다 자료를 모은 것으로 詩들도 포함되어 있다.

丙編은 1896년에 나주와 長城 등지의 儒生들이 義兵을 일으킨 관계사실을 기록하였다. 특히 담양의 高光洵, 진주의 盧應奎 등과 연계를 맺으며 활동한 文件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부정확한 부분도 있으나 羅州와 그 주변 지역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15) 양호우선봉일기(이두황) - 대상시기: 1894~1895

巡撫營 예하 先鋒將(1894년 11월 26일부터는 兩湖右先鋒將) 李斗璜(1858~1916)의 陣中日記로서 1894년 9월 10일부터 1895년 2월 18일까지의 일기체 기록이다. 1894년 9월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함에 정부에서는 巡撫營을 설치하고 竹山府使 李斗璜을 그 예하의 壯衛營領官으로 임명하여 竹山·安城 등지의 농민군을 토벌케 하였다. 이두황은 경기도 일대의 농민군을 토벌하고 이어서 충청도로 내려가 報恩·淸州에서도 농민군을 토벌하였고, 이어서 공주전투에도 참여하였다. 충청도 예산·부여 등지로 진출하여 농민군을 토벌하였고 이어 일본군 사령관 南小四郎의 지휘 하에 전라좌도 남원 방면으로 진출하여 순천·광양 등지에서 현지 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그는 농민군 토벌에 큰 공을 세웠다. 이 일기는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전라좌도의 개황이 특히 상세한 것이 그 특징이다. 고려대와 국립도서관 소장본은 1894년 12월 30일까지의 일기만 있고, 1895년 1월 1일부터 1895년 2월 18일까지의 일기는 尹絲淳 교수 소장본에만 있다.

16) 백석서독(이용목) - 대상시기: 1893~1896

이 자료는 李容穆(1826~?)의 편지를 모은 책이다. 李容穆은 서울 출생으로 老論 4大臣의 한 사람인 李健命의 후손이다. 그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일찍이 경상도 三嘉에서 살다가 만년에 충청도 永同 報恩지방으로 移居하였고 1894년 당시에는 尙州 壯岩으로 피난하였다.

그 자신은 출사하지 않았으나 從兄 李容元은 慶尙監司를 지냈고 三從弟인 李容泰는 古阜 按察使를 지내면서 많은 不法貪虐을 저질렀으며 아들 李重弼(重益)은 報恩郡守, 務安郡守를 역임했다. 그러므로 당시 이들과 書信을 왕래하면서 1893년 癸巳年부터 東學黨 또는 農民軍의 동정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당시 보은 군수였던 아들에게 많은 書信을 보냈는데, 여기에 이 관련 사실을 많이 담고 있다. 특히 아들이 1894년 4월경에 務安郡守로 전임하였을 적에 그 쪽 사정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는 『白石書牘』 중에 12책의 일부분과 13, 14책을 뽑아 수록하였다. 그리고 저자의 또 다른 저술인 『白石詩聚』가 있는데 여기에는 『白石書牘』의 跋文과 자신을 소개하는 自撰文이 수록되어 있다.

비록 書信이어서 安否를 묻는 내용이 위주로 되어 있으나 끝부분에는 農民軍의 동정을 대부분 기술하고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된다.

17) 巡撫先鋒陣營錄(미상) - 대상시기 1894~1895

본 자료는 양호선봉장(兩湖先鋒將) 이규태(李圭泰)가 2차 동학농민혁명 진압과정에서 1894년 10월 11일부터 1895년 2월 5일까지, 각처와 주고받은 공문들을 수록한 것이다.

주요한 내용으로, 선봉장 이규태가 순무영에 보고한 것과 그것에 대한 답변, 선봉장 이규태와 각 지역의 수령들이 주고받은 지시와 보고 내용, 그리고 친군경리청부영관(親軍經理廳副領官) 성하영(成夏永)과 장위영부영관(壯衛營副領官) 이두황(李斗璜)이 선봉장에게 보고한 것과 그것에 대한 선봉장의 지시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공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공문들에는 각 부대의 군수분급(軍需分給) 상황, 각 지역 수령들이 거느린 포군(砲軍)과 선봉진이 함께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던 내용, 그리고 각 지역에서의 일본군 지원 상황, 각 지역의 유흥소, 민회소 등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한 유생들의 활동 상황, 체포된 동학농민군을 심문한 공초(供招) 내용, 각 지역에서 있었던 동학농민군의 군기탈취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공주공방전의 상황과 공주전투 이후 전라도 지방에서의 동학농민군 소탕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본 자료는 2차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다른 순무영 또는 선봉진 관련 자료들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본 자료의 원본은 고려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8) 선봉진전령각진(이규태) - 대상시기: 1894~1894

1894년 10월 14일부터 이해 12월 26일까지 장위영 좌선봉장 이규태가 장위영·통위영·경리청 등의 부대와 휘하 각 영관·대관·별무사 등과 각지의 수령과 의병소와 수성군 등에게 내린 전령을 모은 책이다.

중앙의 부대가 남하하면서 현지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대책을 세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월일별로 문건이 게재되어 있어서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준다. 특히 이규태가 무안 등지로 내려가 무안의 농민군 지도자 배상옥의 농민군을 토벌한 사실을 다른 어느 자료보다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 또 농민군을 섬으로 몰아 토벌하려는 작전과 일본군의 동정도 비교적 다른 자료보다 상세하다. 「순무사각진전령」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원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李離和)

19) 선봉진일기(이규태) - 대상시기: 1894~1894

이 자료는 巡撫先鋒將 李圭泰의 陣中日記로서 1894년 9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李圭泰는 武科에 급제하여 宣傳官과 訓練都正, 全羅右水使 등 內外 武官을 역임하고 동학농민군이 재기하자, 장위영의 先鋒將으로 뽑혀 직접 농민군 진압 일선에 나섰다. 여기에는 10월 18일 발포한 「巡撫先鋒陣榜示文」을 비롯하여 巡撫營, 忠淸監營 各邑守令, 壯衛營 領官 李斗璜 등 각급 지휘관과 주고받은 傳令과 牒報 등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일기체로 기술하였으므로 사건 일시가 정확하며 여러 사건을 망라해 다루고 있다. 다른 기록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시 각처에서 벌어진 정부군과 농민군과의 전투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정부군의 진압 대책과 더불어 농민군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기본 자료라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王賢鍾)

20)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이규태) - 대상시기: 1894~1895

1894년 12월 12일부터 1895년 2월 4일까지 선봉장(先鋒將) 이규태(李圭泰)가 동학농민군을 소탕하기 위해 충청, 전라도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하(隸下) 각부대장(各部隊長)과 각군면동(各郡面洞)에 발송한 관문(關文)과 감결(甘結), 전령(傳令), 방시문(榜示文) 등을 수록한 자료이다. 물자의 엄출(揀出), 인마(人馬)의 동원과 경비, 농민군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지시 등 내용이 풍부하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1) 선봉진정보첩(이규태) - 대상시기: 1894~1895

1894년 10월 11일부터 1895년 3월 22일까지 선봉진(先鋒陣) 소속부대장(部隊長)과 각군(各郡)의 수령(守令) 및 공형(公兄)이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토벌에 관한 사항을 선봉장(先鋒將) 이규태(李圭泰)에게 보고한 첩보(牒報)를 수록한 것이다. 선봉진의 지시에 따라 보고한 내용이어서 그 대책의 관련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본 자료이다.

특히 충청, 전라도 일대 각군의 첩보(牒報)는 농민군 토벌을 위한 제반 준비, 각 부대의 농민군 진압 전투 및 사후 처리사항을 상세히 담고 있다. 또 공주지역 농민군의 배치도 등을 처부하고 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일차적인 자료로 꼽힌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2) 日本士官函牒(이규태)

이 자료는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고 있는 日本軍 大隊長 陸軍大尉 南小四郎과 陸軍歩兵 大尉 森尾雅一, 黒石光正 등이 先鋒將 李圭泰에게 보낸 書翰을 牒録한 자료이다. 편지의 형식과 皮封의 기재 형식도 첨부되어 있다. 특히 농민군 토벌에 대한 作戰事項과 사후 처리 사항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2차 농민 전쟁시 일본군의 진압 방식 및 작전 개입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이며 양측의 異見을 엿볼 수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3) 罪人錄(각진장졸성책-미상) - 대상시기: 1894~1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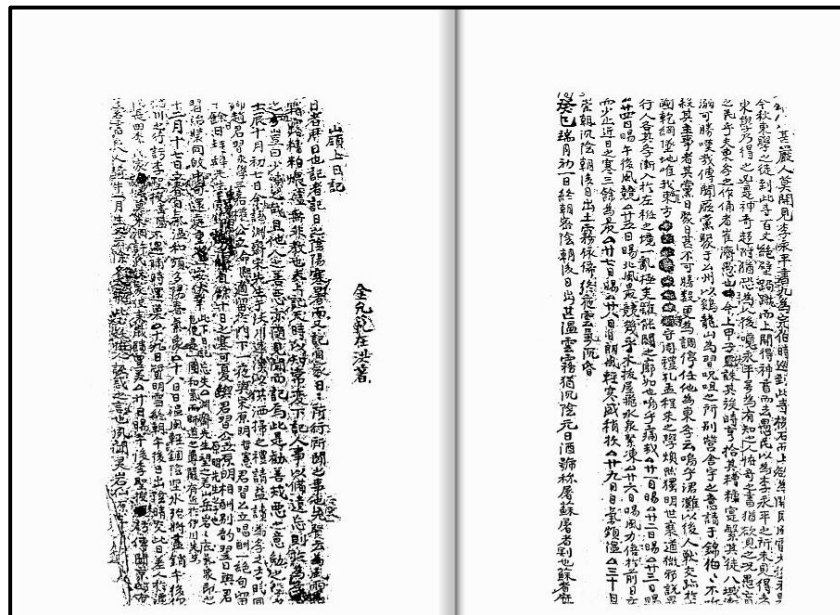
이 자료는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 토벌에 종사한 先鋒陣 率下의 經理廳, 壯衛營, 統衛營, 敎導所 등 各部隊의 將兵의 姓名과 職位를 列記한 各部隊의 費用明細書인 「京各營供給記」, 「先鋒陣出征將卒姓名及騎卜長實數成冊」 및 「倡義人名錄」, 「勿禁帖記」, 「罪人錄」 등 각종 成冊 등이 附記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王賢鍾)

24) 일사(박기현) - 대상시기: 1893~1895

庚辰元月初日己酉 早陰晴金骨 父兄主并請從祖教官公祠安復復得往揭二拜陰而伯
 水洞發家公墓所靜路尋訪諸親戚與知舊人語不人言 初日丙戌 早陰晴金骨從手簡諸親與諸兄
 則是其之墓墓是變出信而紅衣穿黑布束中云云 初日丁亥 早陰晴金骨從手簡諸親與諸兄
 董氏墓在揭揭洞穴非由叔母父從世皆漢大洞 甘泰尋 初日丁亥 早陰晴金骨從手簡諸親與諸兄
 訪山下村幾人到叔親族及種秋間金風習之打煙火焉 初日丁亥 早陰晴金骨從手簡諸親與諸兄
 上從祖考墓墓墓山當祖墓從祖考 初日戊子 晴與諸親從祖考山古之西當秋墓
 墓父諸族戚與知舊人侵家及家 初日戊子 晴與諸親從祖考山古之西當秋墓
 僧道考墓墓與祖考墓墓與從祖考人白草里 初日庚寅 早陰晴金骨從手簡諸親與諸兄
 諸兄家酒解應飢從祖考墓墓與祖考墓墓與從祖考人白草里 初日庚寅 早陰晴金骨從手簡諸親與諸兄
 安重堂家與妹氏 初日辛卯 余送家朝食夕晴夜復 初日壬辰 風陰冷夜月常帶星
 到北村林家宿焉 初日辛卯 余送家朝食夕晴夜復 初日壬辰 風陰冷夜月常帶星
 白癸巳 晴而風冷余隨 初日甲午 朝晴 初日乙未 朝起視窓外白雲鎖塔除機而
 父主歸湯水燈金 初日甲午 朝晴 初日乙未 朝起視窓外白雲鎖塔除機而
 申 晴風陰微而朝從余從龍井里余之妻家尋訪其妻老後父數人午餘復 初日丁酉 朝晴夜陰朝復與
 往紫山間與人教家夕飯于從妹兄余米之宿宿于朴啓明之書院家 初日丁酉 朝晴夜陰朝復與
 首陽里發程午餘入馬居間于村人吾南去去月轉過崖松掌識之任勢不難堪盤筆 十四日戊戌 早陰
 次戰者過此而去越必路遇何其巧運余與格明不得已而程路入橋洞宿于戶桂牙家 十四日戊戌 早陰
 解主人發程得梓吾南父才泰士齊叙禮叙語為揚反於世世相東學之說痛 十五日己亥 早陰
 數不已臨別囑余野讀書世世如此則左不可不勤讀經傳余與格明各白家 十五日己亥 早陰
 十五日庚子 載陰 早晴微陰 十六日壬寅 晴 十五日己亥 早陰
 感問市午餘至牛 十五日甲辰 晴路入風林洞宿致五元牙訪柳元五不遇入雲水洞訪從人
 山者 暮而宿焉 十五日甲辰 晴路入風林洞宿致五元牙訪柳元五不遇入雲水洞訪從人
 諸老 十五日丙午 晴余微 十五日丁未 晴余微 十五日戊申 晴余微
 人 十五日丙午 晴余微 十五日丁未 晴余微 十五日戊申 晴余微

全南 康津 작천 儒生 剛齋 朴冀鉉이 남긴 日記이다. 『日史』는 1891년부터 1903년에 이르기
 까지 長興 康津 일대 향촌 사회의 동향과 함께 朴冀鉉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儒生들과의 교유관
 계, 특히 갑오년을 전후한 시기 長興·康津 일대의 동학농민군측과 관군측의 동향 및 당시 전투상
 황 등을 소상히 알려주는 자료로서 이 일대의 동학농민혁명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
 료이다. 여기에는 1893년 정월부터 1895년 12월까지의 내용이 영인되었다. 甲午年 당시 長興지
 방 동학농민군들의 조직적 활동은 6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25) 嶺上日記(김재홍) - 대상시기: 1892~1895



저자 : 金在洪 (김재홍)

- 필자는 남원에 거주하였다. 그러므로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김개남의 동학농민군 활약상을 상세히 적고 있다는 점이 다른 기록보다 가치가 높다. 예를 들어 남원도회의 개최, 김개남 부대의 조직과 활동, 양반유생들의 가담, 운봉의 박봉양 수성군과의 전투, 동학농민군의 복상과 궤멸 등이 주목되는 사실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 자료는 南原儒生 金在洪이 壬辰年(1892) 10월 초 7일부터 乙未年(1895) 정월 30일까지 자신이 겪은 경험과 傳聞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그는 崔濟愚로부터 시작하여 崔時亨에 이르기까지 東學의 勢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이들의 운동을 邪徒로서 규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실제 향촌에서 벌어진 농민군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癸巳年條에는 2월 10일 東學이 창의를 하여 全羅道 여러 邑의 衙門에 斥倭洋에 관한 榜書를 붙인 사건, 3월에 三南 東學輩가 각도에 都會를 개최하였는데, 충청도 報恩과 영남의 密陽, 호남의 金溝에서 각기 수만 명씩 모인 사건 등을 기록하였다.

甲午年條에는 3월 29일 고부민란의 소식을 전문하고 이후 황토현 전투상황과 전주공방전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한편 농민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淳昌郡守가 실시한 鄉約과 五家作統, 각 지역 守城軍의 활동을 기록하였으며, 6월과 7월 사이에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의 설치를 둘러싸고 벌인 農民軍과 각군 守城軍과 벌인 전투상황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특히 남원 등지에서 부민을 침탈하고 대동미나 전을 압수하는 등 농민군의 집강소 활동을 폐단으로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1893년과 1894년에 걸쳐 전라도 남원지방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또한 지방유생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식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

26) 동도문변(최영년) - 대상시기: 1894~1894

전라감사 김문현의 軍司馬인 崔永年이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에 대해 문답식으로 변명하여 지은 글이다. 곧 당시 김문현의 잘못된 조치로 말미암아 봉기가 유발되었다는 비난을 벗기려고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항목은 「東徒始萌辨」이다. 여기에서는 김문현이 감사로 부임한 뒤 금구집회 등으로 동도들이 일어났다는 설에 대해 감사가 효유문을 반포하고 수습을 하였다고 변명하였다. 둘째 「扶正斥邪辨」이다. 감사는 동도들에게 향약을 실시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섰다고 변명하였다. 셋째 「義兵稅辨」이다. 여기에서는 새 군영인 무남영을 설치하고 百一稅를 받아 원성이 자자했다는 설을 부정한 것이다. 본디 온갖 잡세는 무남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의 군영 경비로 충당했다고 하였다. 넷째 「古阜起擾辨」이다. 여기에서는 고부봉기가 선운사의 남정과 고부군수 조병갑의 불법과 안무사 이용태의 토색질로 유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섯째 「白山敗績辨」이다. 백산에서부터 황토현전투 그리고 전주전투 시기 초토사인 홍계훈이 전주를 지키지 않고 전주성을 비운 탓으로 돌리고 감영군을 지휘한 이경호가 전사하였음을 들고 있다. 또 김문현은 오히려 토적을 굶히지 않았는데 신임감사인 김학진은 적에게 선화당을 내주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였다.

비록 변명을 위해 작성된 글이기는 하나 일부 귀담아 들을 대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서각에 필사본으로 소장되어 있다.(李離和)

27) 거의록(강영중, 박윤화, 강우중) - 대상시기: 1894~1894

興德高敞倡義序

聖人有言立人之道曰仁與義義莫大乎君臣凡
 國家患難其在巨庶為能挺身奮發者只有效義
 之心而死生禍福有不暇顧此所以無愧於聖人
 所謂立人之道也竊惟我興城尹侯不惟武藝
 是聞早涉詩書服膺仁義固已知忠大節矣適其
 知縣也扶氣騁張凶圖狼藉而桐邑異他既無城
 溫兵甲之備則策應全沒夙夜憂憤于時治西士
 人姜泳重索抱慷慨者也乃能以仗義討賊之舉
 議於侯侯深嘉裝與之謀合遂潛募本邑與牟陽
 人士數百誓辭如孫討虜斫柴之為矣及王師
 建暨侯乃馳言于巡撫李公首倡義聲奉把兩邑
 奮力討捕獻俘軍壯夫然後王師不窺大亂易
 定然則向雖無六步七步大鑒一戰迹其設心則
 蓋出於臨亂效義而雖謂之不肖死生禍福可也
 繼又讀侯所為血書則便是捨生取義底意思左
 不覺令人惘然感涕而雖古之忠臣烈士衣帶臂
 臨命詞亦不外乎此於此侯之所存可知也若
 曰無迹而不信次非善悲之道也顧其所處偶不
 得其所耳於是乎有志者不欲泯其義以其事實

興德縣監 尹錫의 협조 아래興德의 儒生 姜泳重, 朴胤和와 高敞의 儒生 姜宇重 등이 1894년 9월 守城軍을 조직하여 활동한 기록을 모은 책이다. 관계기록으로 보아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論功을 할 시기인 乙未年 4월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의 서문은 白樂奎가 썼고 이어 李圭彩가 쓴 舉義事實, 姜泳奎 등이 돌린 聚義通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密令, 傳令上書, 布告文 등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興德守城廳座目」과 「高敞守城廳座目」에는 각기 소임의 명단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끝에는 「高敞守城廳諸員效勞秩」이 있는데 각기 等級을 매겨 놓았다. 이것은 軍功에 따른 기록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농민군과의 전투상황은 기술하지 않고 다만 守城軍의 文件들만 모아 놓았을 뿐이다. 그런 속에서도 井邑의 接主 車致九와 興德의 接主 高永淑과 그외 농민군 지도자를 색출, 처단한 단편적 내용을 알려주며 또 농민군 지도자였다가 변절한 李鳳守가 甑山縣令이 되고 농민군에 피해를 보았던 高敞의 殷壽龍이 농민군 토벌이 나왔던 사실 등도 알려준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이다.

28) **취의록** - 대상시기: 1894~1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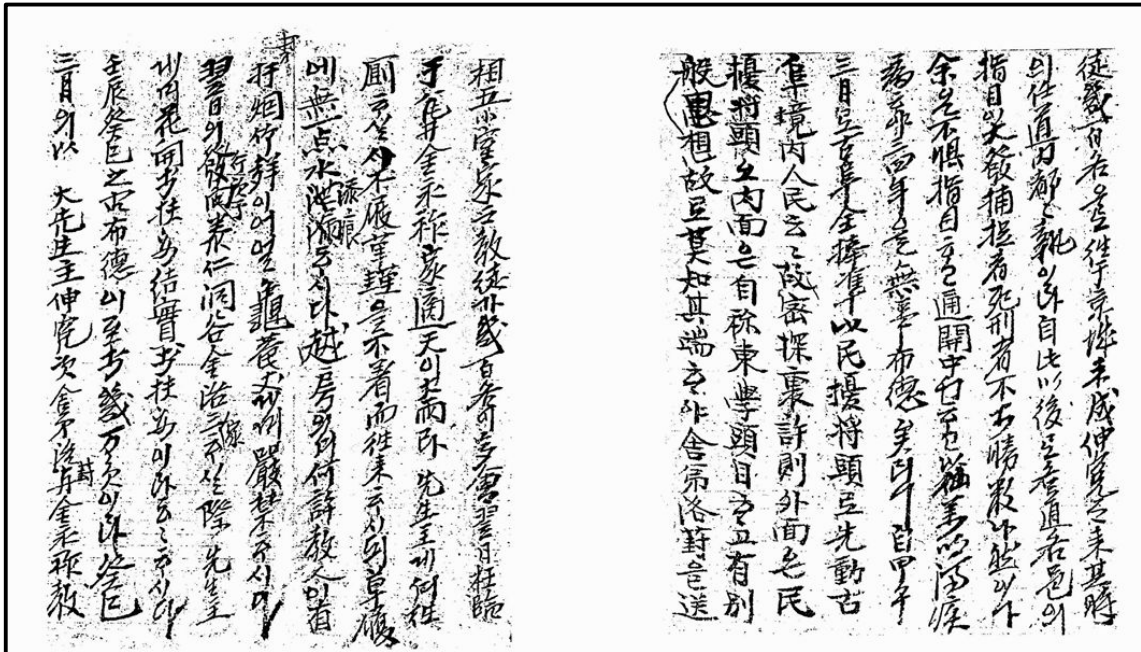


全羅道 興德 高敞의 농민군 토벌을 벌인 守城軍의 명단을 적은 기록이다. 앞 『舉義錄』과 같은 守城軍 명단을 적었으나 序文 등 文件을 수록하지 않고 있다. 다만 끝에 聚義通文을 덧붙여 놓아 그 명단의 성격을 알려준다. 이는 『舉義錄』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한편 명단은 『學義錄』에 있는 것과 중복되나 이 자료의 收錄分이 훨씬 자세하다. 여기에는 興德, 高敞, 古阜 富安面, 扶安 乾先面 牛浦, 長城 北二面, 茂長 등의 순으로 위에 身分과 성명, 아래 字와 居住地를 기재하였으나 때로 字와 居住地가 누락된 부분도 있다. 이들 명단은 興德 高敞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외 지역은 附隨되고 있다. 특히 전봉준이 태어난 마을로 알려진 高敞 德井面 竹林里에서도 全氏 尹氏 등 12명이 守城軍으로 참여한 사실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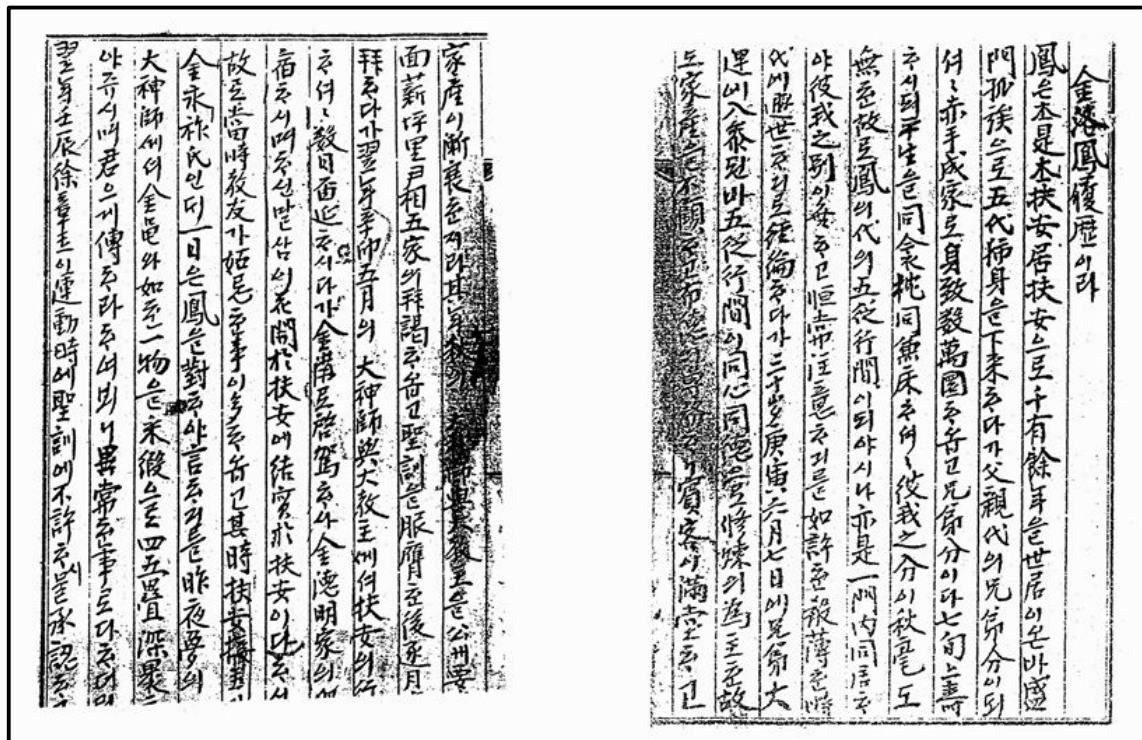
守城軍의 참여 명단은 거의 망라해서 기록한 자료로서 그 의미가 크고 또 희귀한 자료에 속한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이다.

29) 김낙철역사(김낙철) - 대상시기: 1890~1917



扶安 大接主 金洛喆(1858~1917)이 1890년 동학에 입도한 이래 1917년 天道敎 誠道師를 지내
기까지의 일대기를 국한문으로 기록한 자전적 기록이다. 이 글에는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이 제
기포한 이후 경병 및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체포된 전라도 각지의 농민군지도자들의 근
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저자 자신이 나주 招討營에 잡혀 있으면서 문초를 받고 서울로 끌
려와 巡査廳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 과정은 바로 전봉준·손화중·최경원·
김덕명이 체포된 뒤 서울로 압송된 과정과 동일하여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된다. 특
히 장흥 동학농민군지도자 李方彦이 갑오 12월 25일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이듬해 3월
21일 석방되기까지의 경과가 실려 있기도 하다. 원본은 이리에 거주하던 金洛喆의 외손녀가 보관
해 왔으며 천도교 중앙총부 자료실에는 그 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30) 김낙봉 이력(김낙봉) - 대상시기: 1890~1898



1890년 全羅道 扶安에서 兄 洛喆과 함께 東學에 入敎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직접 체험한 金洛鳳(1860~1937)이 1937년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회고 형식으로 남긴 자전적 기록이다. 표지가 없이 본문 첫 장에 「金洛鳳履歷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 이 자료는 127쪽 분량의 한지에 국한문 혼용으로 쓰여 있다. 1894년 3월 충청도 錦山·珍山 일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서장옥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등 1차 봉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金洛喆歷史』와 중복된 부분이 많다.

본문 중에 나오는 大神師는 海月 崔時亨을, 大敎主는 龜庵 金演局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金洛鳳이 동학에 입교하는 1890년부터 동학 2대 교주 해월 崔時亨이 체포되는 1898년까지의 내용을 영인하였다. 원본은 全州에 거주하는 曾孫子 金文哲씨가 소장하고 있다.

31) 김상철이력행장(김상철) - 대상시기: 1892~1895



이 자료는 『枕泉金先生自敘行錄』(1987년 회상사 간행)에 수록된 글 중에서 이력 행장 부분을 발췌하였다. 저자는 전라남도 완도출신의 유생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는 과거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였다. 벼슬을 얻어 보려고 서울의 세력가로 여산에 유배와 있던 李根濤와 그의 동생 李根滢에게 접근하여 서울살이를 하였다. 또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고관인 李範晉의 마름노릇을 하였다. 그는 전임자의 횡령으로 축이 난 도조를 청산해 주고 살길이 없었다. 당시 癸巳年(1893년)부터 동학도들이 곳곳에 일어나자 살길을 찾아 여산에서 선산이 있는 완도로 1894년 2월 이주하였다. 그는 완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다가 동학농민혁명을 만났다.

집강소 전개시기인 이해 6월에 들어 완도에도 농민군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자료에는 이 시기의 고초를 기술하고 있다. 그의 친구가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풀어주려다가 오히려 그 자신이 잡혀 고초를 당하였다. 그는 결박을 당하고 산으로 끌려가다가 결박을 풀고 도망쳐서 살았다. 그 후 완도진의 아전이 매를 맞는 등 꺾박을 당하자 완도진에 연락을 취하여 농민군을 막으려 노력하였고 이어 장정 50명을 모아 반격에 나서기도 하였다.

9월에 들어 전봉준이 전주에서 농민군 지도자를 완도에 보내 집강소를 설치하고 활동을 벌였다. 그는 숨어 지내다가 이일을 수습하려 나서기도 하였다. 다음해 전라감사 이도재의 제의로 완도의 집강 임무를 맡아 일을 처리하였고 그 뒤 都有司로 임명되어 토호 무단을 금지하는 등 완도의 폐정 10조를 제출해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짧은 일대기를 통한 11쪽의 글이지만 특수한 지역의 몰락 유생의 반농민군 활동과 완도라는 섬지방에서 야기된 농민군 활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李離和)

32) 박봉양경력서(미상) - 대상시기: 1894~1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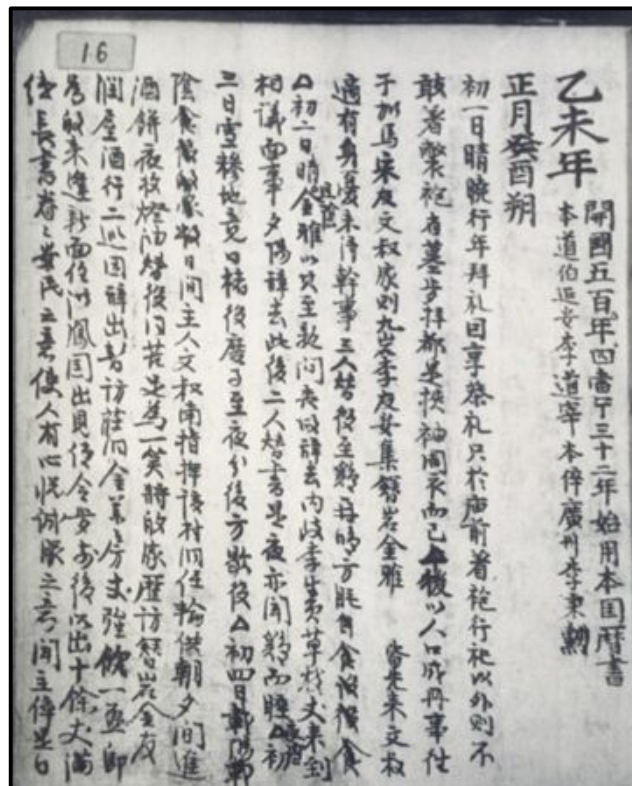
東學農民革命 당시 朴鳳陽의 활동을 기록한 공적서로서 軍功調査委員 總代인 軍部協辦 權在衡에게 제출한 것이다. 金開南이 이끄는 농민군이 1894년 7월 말경 南原에 웅거하면서 雲峯을 거쳐 영남지방으로 진출하려 하자, 이에 民堡軍을 조직하여 방어한 내용을 담고 있다.

朴鳳陽은 吏胥出身으로 注書벼슬을 얻었는데 당시 雲峯에 살면서 8월경 雲峯에 倡義所를 설치하고 격문을 띄워 民堡軍을 조직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攻防戰을 벌여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고 또 2차 봉기 때 金開南이 北上하자, 南原을 점령하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右先鋒 李斗璜이 이곳에 진출하여 朴鳳陽이 도둑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체포, 압송하여 서울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후 內部主事로 임명을 받았고 雲峯에 공적비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이 자료 앞에서는 자신이 벌인 전투경과를 기록한 내용이 있고 이어 同時效勞人 討賊時 死傷人 명단과 노획 물품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경상 각읍에 떠온 격문과 全羅監司 李道宰가 그 공적을 인정하는 글이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南原·雲峯 간의 金開南 농민군 활동상과 영남진출 기도의 사실을 알려준다. 이 原本은 그의 손자 朴秉來씨가 소장하고 있다.

33) 봉남일기(변만기) - 대상시기: 1894~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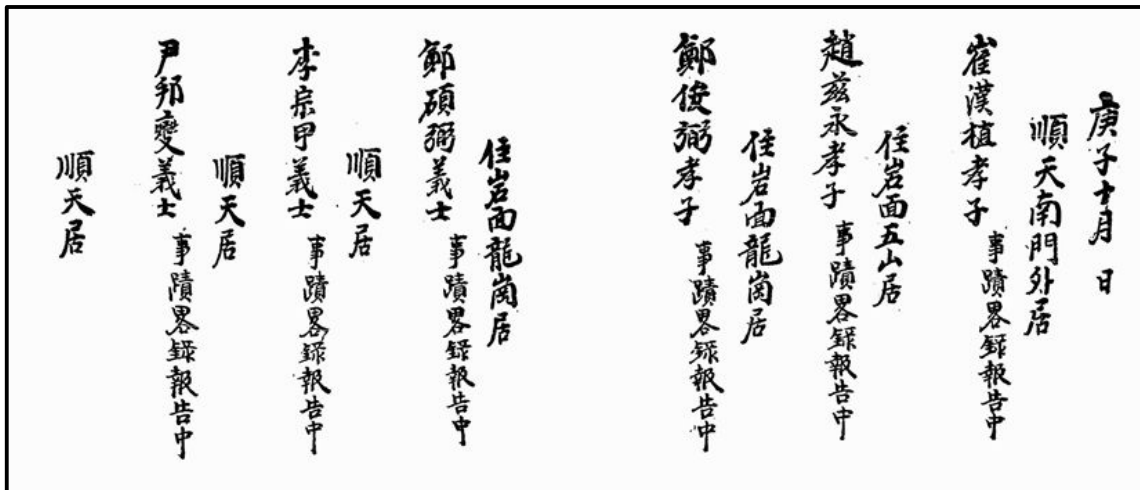


長城의 儒生 邊萬基(1858~1925)의 일기이다. 邊萬基는 長城 長安里 태생으로 甲午年 당시 36세로 目擊한 이야기와 들은 이야기를 日記體로 적어 놓았다.

여기의 수록부분은 甲午年 十月에서 乙未年 二月까지 약 4개월의 日記이다. 당시 농민군이 軍需錢 軍需米를 걷고 또 羅州, 高敞, 長城 등지의 활동상, 長城 月坪의 接所설치 사실, 나주전투의 상황, 전봉준의 움직임 등을 적었다.

끝부분에는 陰城 泰仁전투와 南下하는 농민군 대부분이 京畿 湖中 全州사람이라고 적었고 敗戰한 농민군의 체포와 京軍의 동향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의 原本은 長城 邊時淵씨가 소장하고 있다.

34) 염기(미상) - 대상시기: 1900~1900



1900년(庚子) 10월 전라남도 順天·麗水·光州·靈光·潭陽 등지 孝子 및 土豪·鄉儒들의 성명 및 민간토색을 기록한 자료이다. 여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때 각 지방 접주층들이 민간 討索을 일삼았으며 농민군 진압 시 대개 뇌물을 주고 살아나 이후 더욱 致富하는 등 관련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라도 남부지역 농민군 지도자층의 경제적 기반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지방사회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35) 매천집(황현) - 대상시기: 1894~1894

檄文

討匪倡義檄 甲午平匪李沂

邪說淫辭能言拒是亦聖人之徒亂臣賊子皆得誅不必士師之職竊惟此理之在天地無異有眼而見日星是故勿傷不亦可乎尼父由童汪錡創禮表世足以感矣紫陽為五堂僧與歎

猶皆輝映古今能得撐拄宇宙而況生亦我之所欲粗辦舍魚而取熊見與禮於其君曾聞若鷹之逐雀增氣於暗擊破雙滿腹者節義文章者予我國家聖祖神承重熙累洽山溪不以險美哉衆心咸城兵革無所須久矣國恩如海嗟夫乘除有數否泰相尋川納數藏容有鱗介之與廢物象地大難免孽牙於其間頃緣外邪之闖窺馴致東學之潛熾始也符水療瘳發其為張角道陵之流終乃潢池弄兵居然作龐勛方臘之事乃至列疊危鮮雄鎮波奈玩寇邀君尚謂之朝廷有法開門納賊可恨者封疆無人山東二百州千村盡生荆棘河北才四郡何人不負秦蓬誰料螻蟻之微竟肆蜂蠆之毒蛇豕吞食大隊據有名

黃玟(1855~1910)의 『梅泉集』(필사본, 全大 湖南文化研究所 간행)에서 「討匪倡義檄文」, 「甲午平匪策」를 뽑은 것이다.

黃玟은 『梧下記聞』을 남겨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해 주었는데, 이 두 자료는 反農民軍의 의지를 들어낸 것이다.

「討匪倡義檄文」은 李沂가 1894년 겨울 求禮를 중심으로 民堡軍을 조직하여 農民軍의 남은 세력을 칠 적에 그 격문으로 지었는데 亂臣賊子의 토벌을 강조하였다.

「甲午平匪策」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뒤 그 대책에 대해 쓴 것이다. 여기에는 그 관련자에게 엄격하게 王法을 적용하고 賦斂을 탕감하고 吏弊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 등 10개조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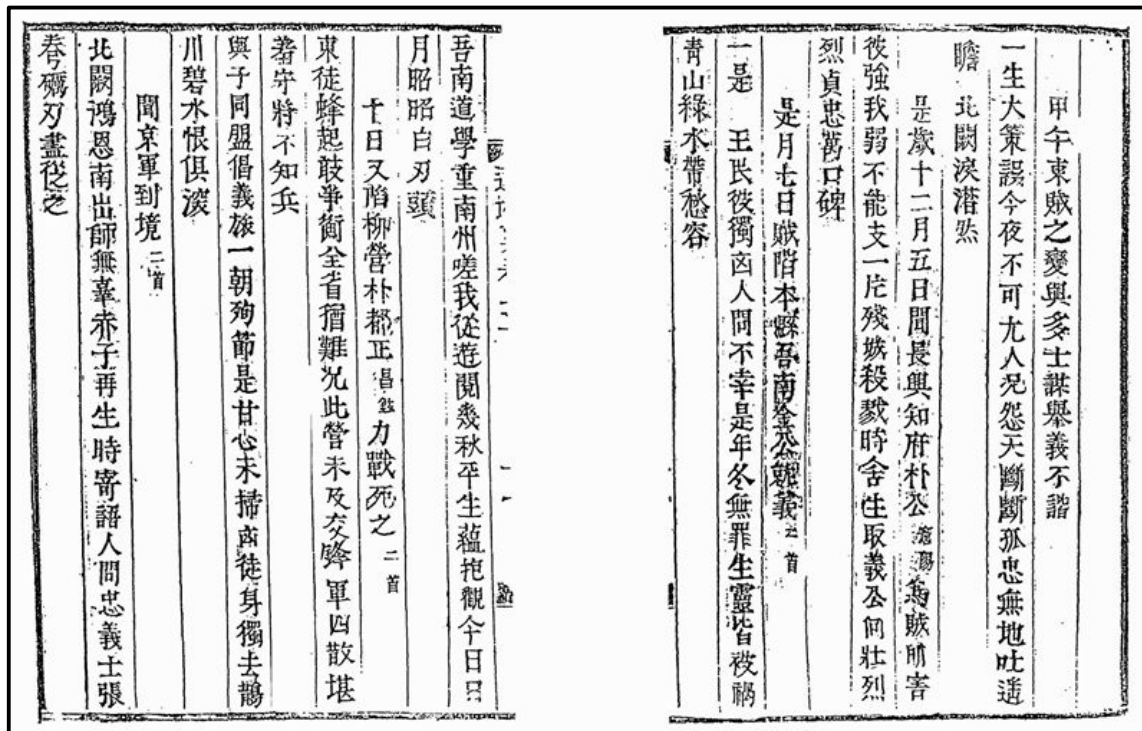
36) 강재유고(박기현) - 대상시기: 19세기말~20세기초



『剛齋遺稿』는 全南 康津儒生 朴冀鉉이 남긴 글을 모아 박기현의 장남 潤亮 등이 1988년 간행한 문집으로서 4권 1책이다. 朴冀鉉(1864~1913)은 1864년 4월 22일 강진 작천에서 출생하였으며 家學에 힘써 학문을 이루었고 강진의 金漢燮, 綾州의 鄭義林 등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문집 외에도 갑오년을 전후한 일기를 남김으로써 장흥 동학농민혁명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日史』 참조) 그의 당숙되는 前都正 朴昌鉉이 1894년 12월 10일 강진 兵營을 사수하다 전사하는 등 피해를 입자 그는 작천면 용정리로 이거하여 후학을 가르치는 일로 업을 삼다가 1913년 6월 1일 50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여기에는 1894년 敎官을 지낸 朴章鉉의 피해 사실을 적은 實蹟, 康津 寶巖面 都統將으로서 康津縣을 사수하다 농민군측에 의해 희생된 金漢燮과 鄭義林·朴繼明 등에 대한 祭文, 朴冀鉉의 行狀 등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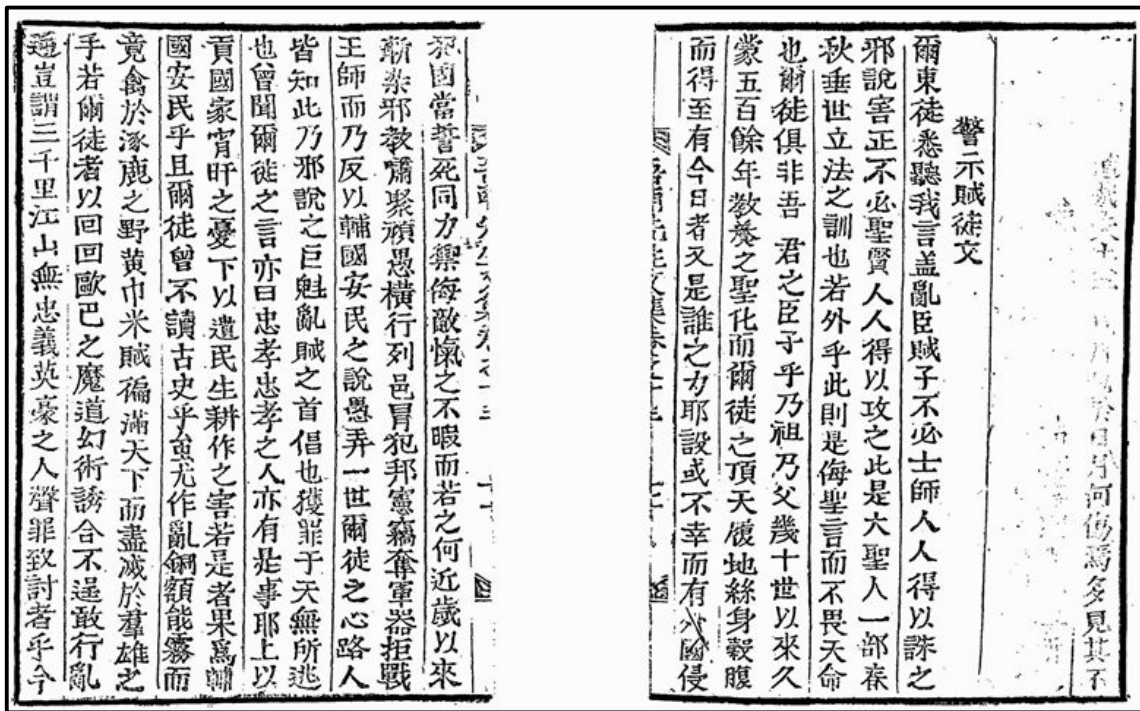
37) 연파집(김병휘) - 대상시기: 19세기말



『蓮坡集』은 康津 儒生 金炳輝의 문집으로서 4권 2책이다. 金炳輝(1842~1903)는 1842년 강진 龍頭里에서 魯澤의 아들로 출생하여 향리에서 가학을 통해 학문을 익히고 宋秉璿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金漢燮, 鄭義林 등과 교유하였다. 갑오년을 즈음하여 향리에 龍岡書塾을 개설하여 후학을 가르치다가 前都正 朴昌鉉, 前進士 金柄潤 등과 모의하여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한 민보군을 결성하였으며 갑오 12월 7일과 10일 강진현과 강진 병영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03년 1월 23일에 타계하였다.

여기에 실린 자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시를 모았고 金漢燮의 記事, 倡義同盟文, 편지 등 갑오 12월의 장흥 강진 및 병영전투와 관련된 사실들이 실려 있으며, 그의 행장에는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모의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38) 오남집(김한섭) - 대상시기: 1894~1894



『五南集』은 장흥 흥룡동(현 부산면 내안리 내동)출신으로 갑오 12월 7일 강진 보암면 도통장으로 강진현을 사수하다 동학농민군에 의해 희생당한 金漢燮(1838~1894)의 문집으로서 13권 7책이다.

김한섭은 1838년 5월 23일 魯鉉의 4男으로 태어났으며 家學을 통해서 학문을 익히고 30세 되던 1867년에는 화서 이항로에게 나아가 수업하였다. 그러나 1년후 화서가 타계하자 다시 고산 임헌희에게 나아가 8여년을 수학하였다. 이 기간에 화서의 문인 중암 김평묵, 성재 유중교, 면암 최익현, 고산 문하의 연재 송병선, 간재 전우, 노사 기정진 문하의 송사 기우만, 남파 이희석 등과 교유하였다. 40세 때 金陵 대명동(현 강진군 성진면 송월리 대월)으로 이거하여 서재를 짓고 講學에 힘썼으며 53세 되던 해에는 수양리(강진군 도암면 수량리 수량)로 옮겨 鳳陽精舍를 짓고 20~30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강학의 일과를 보냈다.

여기에 실린 「적도에게 경고하여 보이는 글[警告賊徒文]」은 갑오년에 들어서 일찍이 그와 동문 수학한 적이 있는 장흥 목촌 출신의 동학집주 이방언에게 지어 보낸 것으로 김한섭은 동학에 대한 배척과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수성군을 조직하는 데 앞장섰다. 그리하여 그는 강진 보암면(현 도암면) 도통장이 되어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민보군을 이끌고 보암면을 지켰으며, 그 해 12월 7일 강진현이 동학농민군에게 점령당할 때, 강진을 지키다가 희생당하였다. 「警告賊徒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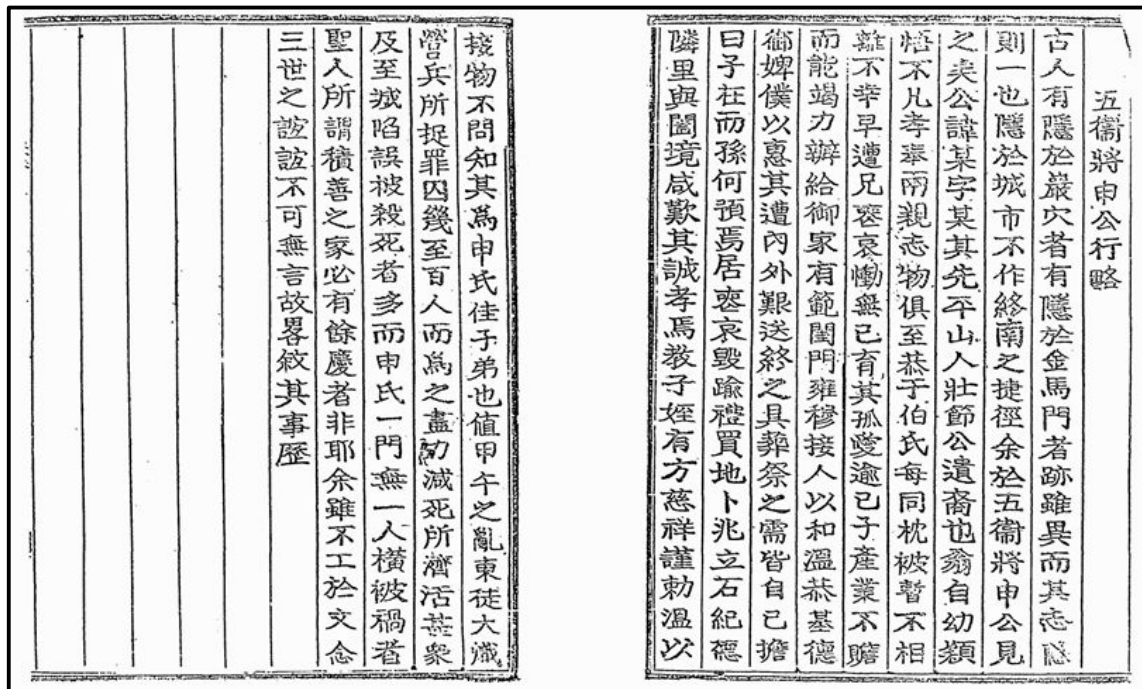
『五南集』 권13, 雜著에 전해지고 있으며 1896년 매천 황현이 강진을 지나다가 그의 죽음에 대해 애도의 뜻을 읊은 조시가 『梅泉集』에 전한다. 『五南集』의 원본은 현재 그의 인척으로서 장흥 부산면 내안리 내동에 은거하며 오남의 학통을 잇고 있는 金太環(1918~)옹의 집에 보존되어 있다.

39) 사복재집(송진봉) - 대상시기: 1894~1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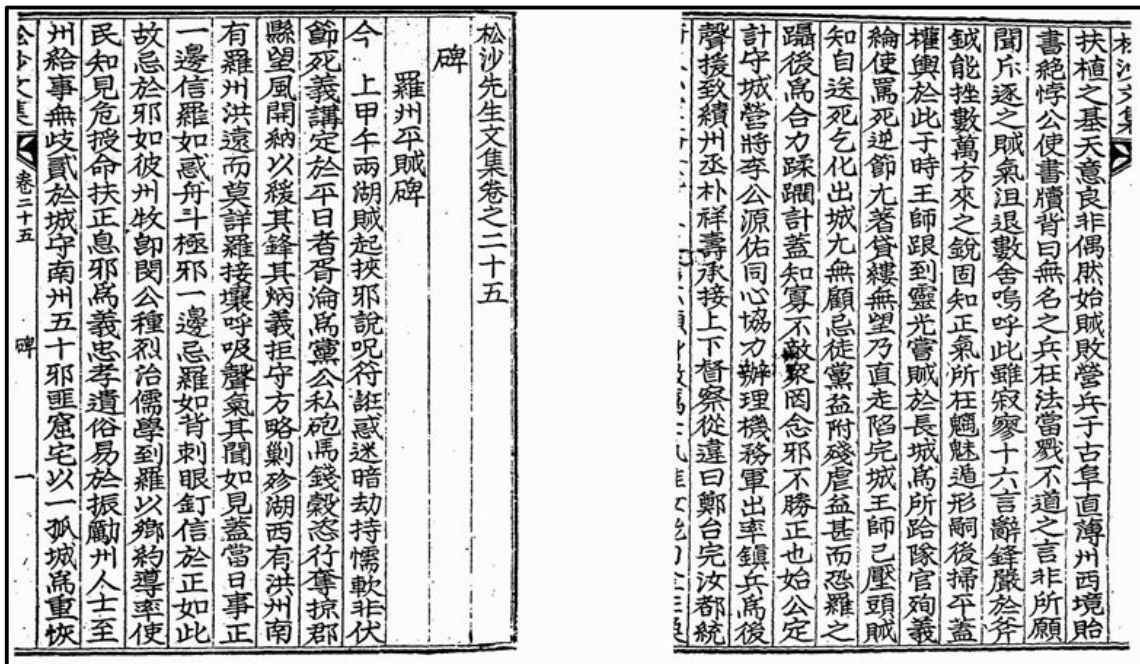
『思復齋集』은 장흥 유생 宋鎮鳳(1840~1898)의 문집이다. 卷五에 실린 「宗人鍾淋甲午事狀」이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이다. 康津 읍천면 桂山里에 세거하던 宋鍾淋(당시 28세)이 갑오 12월 강진 병영이 농민군에게 공격을 받아 위태로울 때, 그의 형 종연과 함께 수성군에 가담하여 형 종연이 농민군의 공격으로 해를 입게 되자 농민군의 공격을 막다가 죽었다. 이러한 사연을 듣고 宋鎮鳳이 그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40) 복재집(위계민) - 대상시기: 1894~1894



『復齋集』은 장흥 유생 魏啓玟(1855~1923)의 문집이다. 魏啓玟은 『六有集』을 남긴 白永直(1841~1912)의 매제이다. 卷五에 실린 「五衛將 申公行略」은 1894년 12월 康津兵營 五衛將으로 있으면서 농민군을 토벌한 申某의 행략이다. 이름과 자를 ‘某’라고 표현하고 있다. 원본은 장흥군 유치면 단산에 살고 있는 손자 위종문씨가 소장하고 있다.

41) 송사집(기우만) - 대상시기: 1894~1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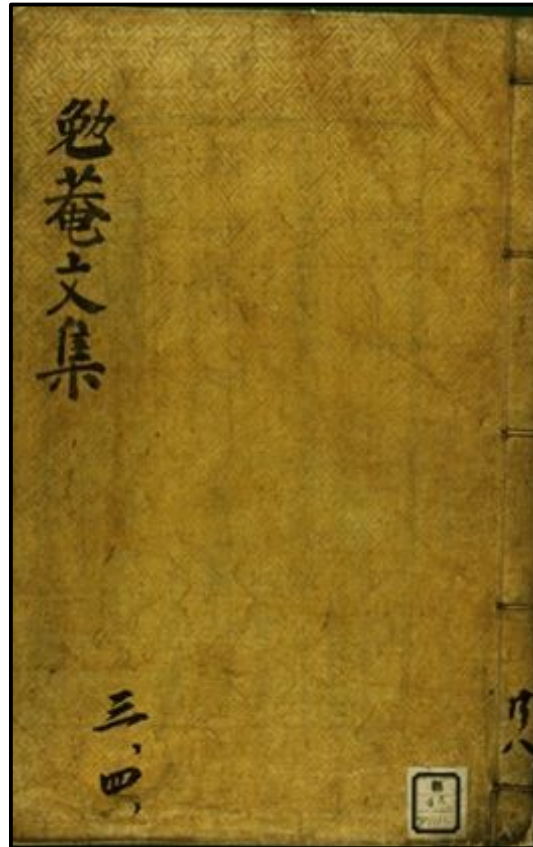


『松沙集』 권25에 실려있는 「羅州討平碑」는 長城의 儒林 奇字萬(1846~1916)이 쓴 碑文이다. 奇字萬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뒤 이 일대 儒林의 首匠으로 많은 관계 文件을 남겼다. 羅州討平碑는 나주목사 閔種烈과 守城軍의 활동을 적어 나주 官衙에 세웠는데, 이 碑는 지금도 옛 羅州郡廳 안에 여러 비석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 이 碑文은 「錦城平義錄 乙編」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그 文字의 出入이 있어 『松沙集』 권25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에 옮겨 실었다. 「長興府使朴公祭壇碑」는 장흥부사 朴憲陽의 행적을 기려 제단을 세우고 조성한 비문이다. 그는 1894년 12월 남쪽으로 후퇴한 농민군이 장흥 관아와 강진현 강진병영을 석권할 때 농민군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방언 등이 이끈 농민군은 최후의 항전을 벌였는데 이를 장흥전투라 부른다. 그리하여 그의 순의를 기려 제단비를 세우고 永懷園에서 제향을 받들었다.

박헌양은 장흥부를 아전들과 수성군을 조직하고 굳건히 관아를 지켰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96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국가에서 그의 특별한 충의를 기려 참의에 증직하고 여러 선양사업을 벌였다. 간략한 비문이나 장흥전투의 한 단면과 순의한 자의 조정 대우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저술자의 문집인 『松沙集』에 수록되어 있다.(李離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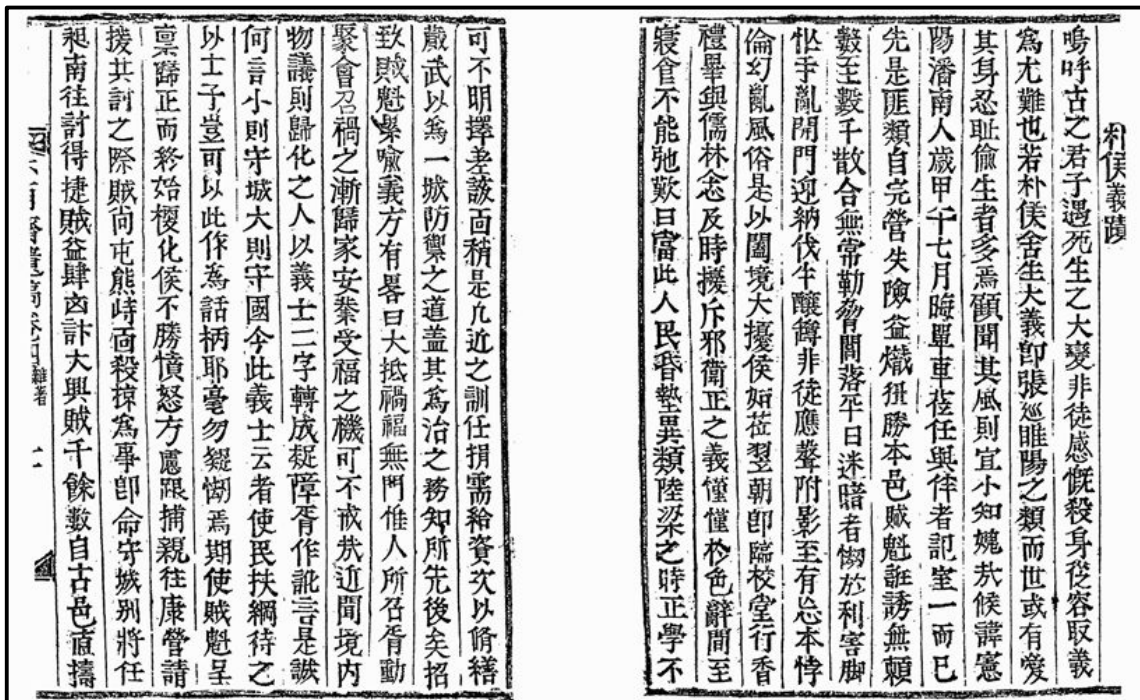
42) 면암집(최익현) - 대상시기: 1894~1894



「李學承殉義碑」는 崔益鉉(1833~1906)의 『勉菴集』에 수록되어 있는 李學承의 殉義碑文이다. 李學承은 壯衛營 隊官으로 洪啓薰의 지시에 따라 1894년 음 4월 23일 先發隊을 이끌고 長城月坪에 주둔한 농민군을 공격하다가 쫓겨 華峴에서 전사하였다.

그후 이곳 儒林 奇宇萬이 주관하여 殉義碑를 세웠고 또 李學承의 출신내력 등을 기술하고 있다. 長城전투와 李學承 관계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 碑文은 지금도 장성농민혁명기념탑 뒤의 華湖里 언덕에 보존되어 있다.

43) 육유재유고(백영직) - 대상시기: 1894~1894



『六有齋遺稿』는 長興 安良面 餘巖里 출신 儒生 六有 白永直(1841~1912)의 문집으로서 8권 3책이다. 白永直은 1841년 4월 12일 晟煥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再從叔으로부터 학문을 익혔으며 1878년에는 노사 기정진, 1891년부터는 중암 김평묵의 지도를 받았으며 奇字萬, 魏啓政 등과 교유하였다. 그는 평생토록 향리인 여암리에 서실 六有齋를 짓고 강학에 힘썼으며 갑오년 간에는 그의 학덕으로 인하여 마을 일대가 병화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1912년 1월 4일 72세로 타계하였다. 卷四 雜著에서 「朴侯義蹟」이라는 글을 통하여 장흥부사 朴憲陽의 행적에 관한 글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는 갑오년간에 장흥지방에서 벌어진 동학농민군과 수성군간의 전투에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원본은 저자의 증손으로 현재 여암리(장흥군 안량면 당암리 여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白日善(1936~)씨가 소장하고 있다.

44) 담원문록(정인보 편) - 대상시기: 19세기말~20세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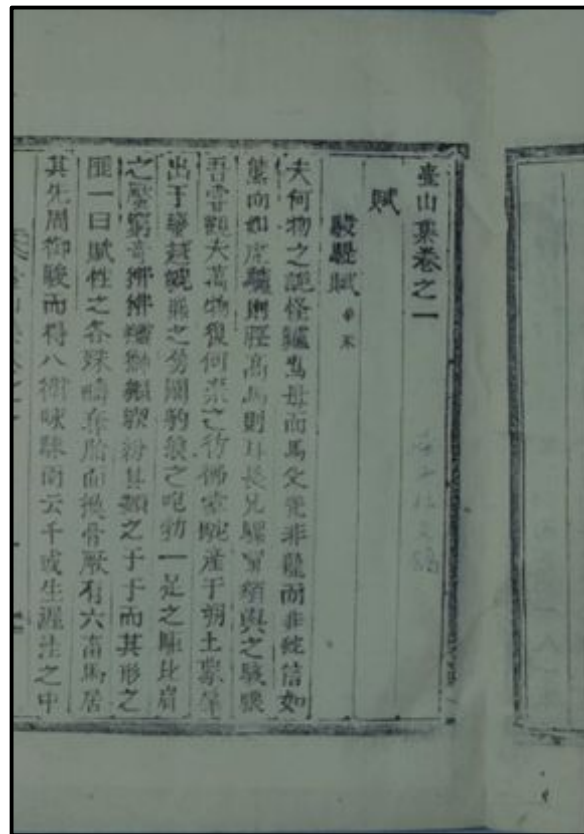
海鶴李公墓誌銘

嗚呼波蕩之日世未嘗無人也顧因於無尺寸之柄
以自馳騁及其不忍弼積犯風濤蹈荆棘以布衣一
介竭蹶區宇之善敗賢者閔之以爲迂不肖者笑之
以爲狂既而身沒國亡而有識之士追論其事始爲
之歎息思見其人而不可得若海鶴李公是已公諱
沂字伯曾先世籍固城而後遷湖南萬頃人

○生 ○憲
長則負智略意言當世之故屬戚晚濁亂日甚地南
之民弗堪腹剝甲午東匪起公謂此可驅之入京覆
政府誅姦惡奉上一新國憲在國及早耳走往
說全瑋準瑋準匪首頗豪善公言用曰吾則請從南
原有金介南公往合之公即馳至南原而介南拒不
見意欲害之公易衣跳以免自是知不可與有爲而
匪放掠且入求禮公糾郡人數百剿截之是時朝政
已變乙未入京以田制于魚度支不能用踰年李公
南往按嶺南要公俱公任募兵調鍊數月有成效辟

「李沂墓誌銘」은 『舊園文錄』(『鄭寅普文集』)에 수록되어 있는 李沂의 생애를 쓴 내용. 李沂가 求禮 民堡軍으로 활약한 과정이 略記되어 있고 그 후의 행적 등도 기술하고 있다. 黃玹과 친구요, 개화파의 한 사람인 進步的 儒生이 동학농민혁명과 시국에 대처한 모습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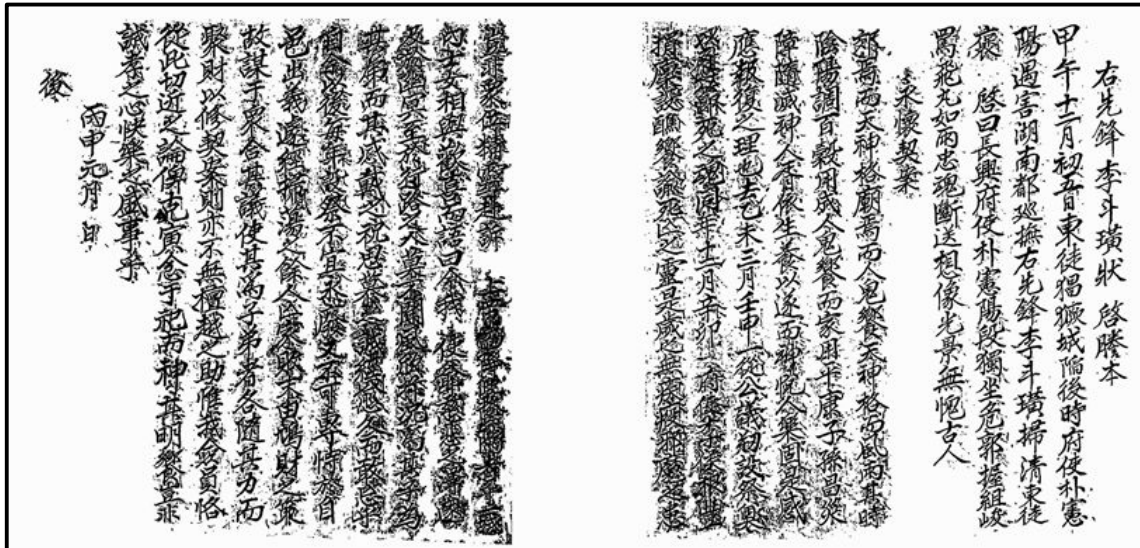
45) 호산집(박문호) - 대상시기: 1884~1898



時事는 斥邪派 계열의 유생인 朴文鎬(1846~1918)의 『壺山集』 雜識外篇의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朴文鎬는 광양 일대에서 글을 가르친 유생으로 宋秉璿 崔益鉉 田愚 등 老論계열의 유생과 교유하였는데 철저한 斥邪衛正派였다.

여기의 내용은 甲申政變 동학농민혁명과 1次 義兵에 대한 견해를 다루고 있는데 身分制 타파와 服制의 개정 등에 강한 반대의견을 말하고 있다. 斥邪儒生의 時局觀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46) 영회당사집(박헌양) - 대상시기: 19세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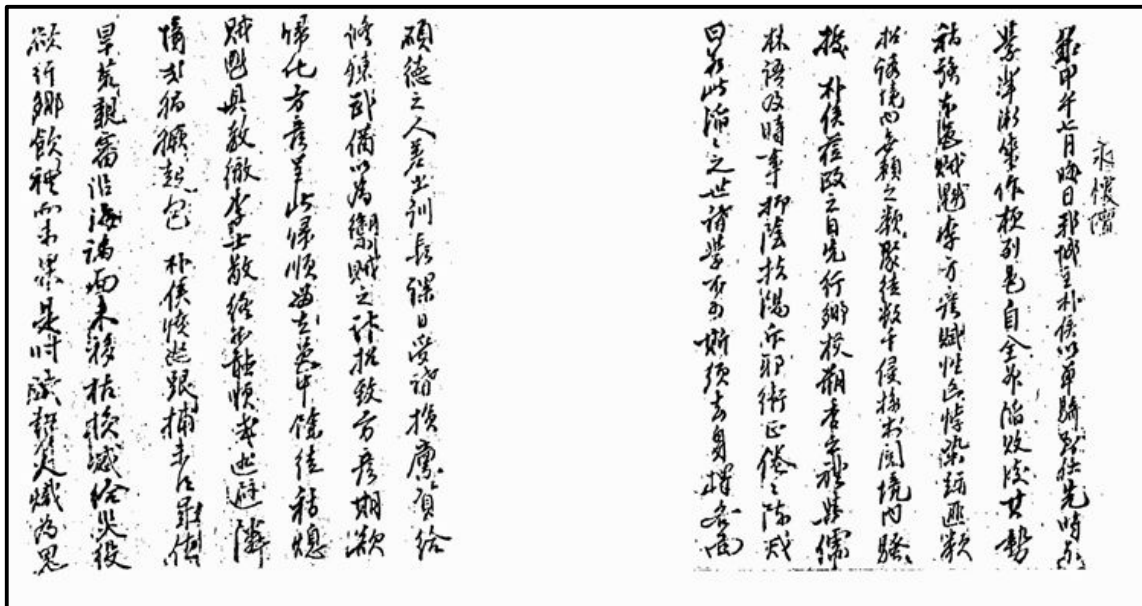
長興 전투에서 희생당한 장흥부사朴憲陽과 守城軍 95인을 추모하기 위해 1898년 건립한 永懷堂의 관련 자료를 모은 책. 永懷堂은 1898년 城의 동쪽에 건립하였다가 1928년 장흥읍 예양리 남산 기슭에 옮겨 현재 보존되어 있다.

앞에는 右先鋒 李斗璜이 朴憲陽의 공적을 알리는 狀啓가 수록되어 있다. 이어 건립자금 捻出의 방법을 적은 永懷契案, 奇字萬이 朴憲陽과 殉節人에 관한 碑文, 永懷堂을 기리는 詩序와 관련 문건, 移建할 때의 「永懷堂移建上樑文」, 「永懷堂重建記」, 「永懷祭參記」 등과 殉節人 96인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끝에는 갑오 6월에 李方彦과 同門修學으로 反農民軍 대열에 서있던 儒生 金漢燮이 農民軍을 경고한 「警示賊徒文」이 덧붙여 있다. 이 글은 金漢燮의 詩文集인 『吾南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에 「永懷堂移建記」가 덧붙여 있다.

이 자료는 反農民 守城軍에 대한 당시의 褒賞과 혜택을 입고 이어 日帝시기에도 유지되는 내용을 알려준다. 이 관계 자료로는 淸州의 「慕忠祠記」 등이 있다. 원본은 金昌祚의 증손 金장곤씨가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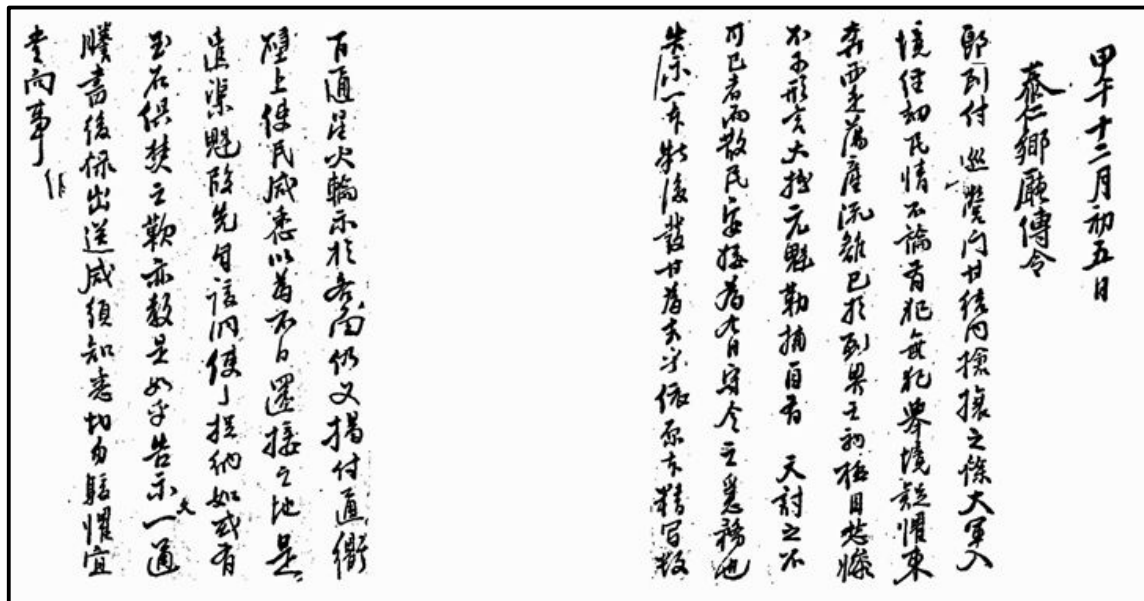
46) 영회기(미상) - 대상시기: 1894~1894



장흥 강진일대 농민군 활동을 개괄하여 쓴 文件. 내용에는 甲午 7월 이후 李方彦의 활동과 朴憲陽이 방비를 도모하면서 李方彦의 歸化를 권고한 사실, 그리고 李方彦이 거짓 歸化했다가 재봉기한 과정, 그 외 농민군 지도자 具敎澈, 李士敬, 李仁煥의 활동, 寶城農民軍과 金溝 金方瑞의 합류사실과 장흥 강진전투의 실상을 적고 있다. 끝에는 朴憲陽 등의 죽음과 장례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

表題에 뒷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永懷」라는 題名과 내용과는 동떨어진다. 짧막한 기록이나 정확한 내용을 알려준다. 필자는 未詳이나 현재 寶城郡 會泉面 會寧里에 거주하는 文在國씨가 소장하고 있다.

47) 김기술 문서



全羅道 泰仁縣 古縣內面 銀石洞(현재 井邑郡 七寶面 武城里 銀石洞)에 살던 金箕述(1849~1929)이 反農民軍 활동을 벌인 사실과 褒賞을 요구한 자료. 金箕述은 金開南과 一族인 道康金氏로 武城書院의 講修齋 掌議를 儒生이다. 그에 대해 梅泉 黃玹은 『梧下記聞』(一筆)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金箕述者 開南之族也 白山之役 拔劍助官軍 介南切齒欲屠之 基述與兄弟 誓不從賊 剗左臂血書 以盟其志 脂其肉藏之 竄伏山中 僅而獲免 及甲午冬 自鳴于監營 導官軍 斬賊頗多 道康之金 賴以雪者衆

이처럼 그는 처음 黃土峴 전투에 참여했다가 패전 후 숨어지냈다. 그 후 농민군이 쫓길 적에 民堡軍으로 농민군 살육에 나섰던 것이다. 그는 金開南이 태인에 숨어있는 사실을 알고 강화도 군사를 이끌고 체포에 나섰다. 이로 인하여 道康 金氏는 두쪽이 나고 말았다. 이 자료는 傳令·綸音·告諭·所志·通文·榜文·私通·報狀 등이 있다. 이것은 官邊 측의 것과 倡義討捕所 이름의 것이 있다.

다음은 위의 문건을 정리한 「泰仁古縣倡義討捕事實」이 있는데, 이는 위의 자료를 새로이 정리한 것이다. 표지에 1904년(甲辰) 2월이라는 연대가 기재된 것으로 이때 작성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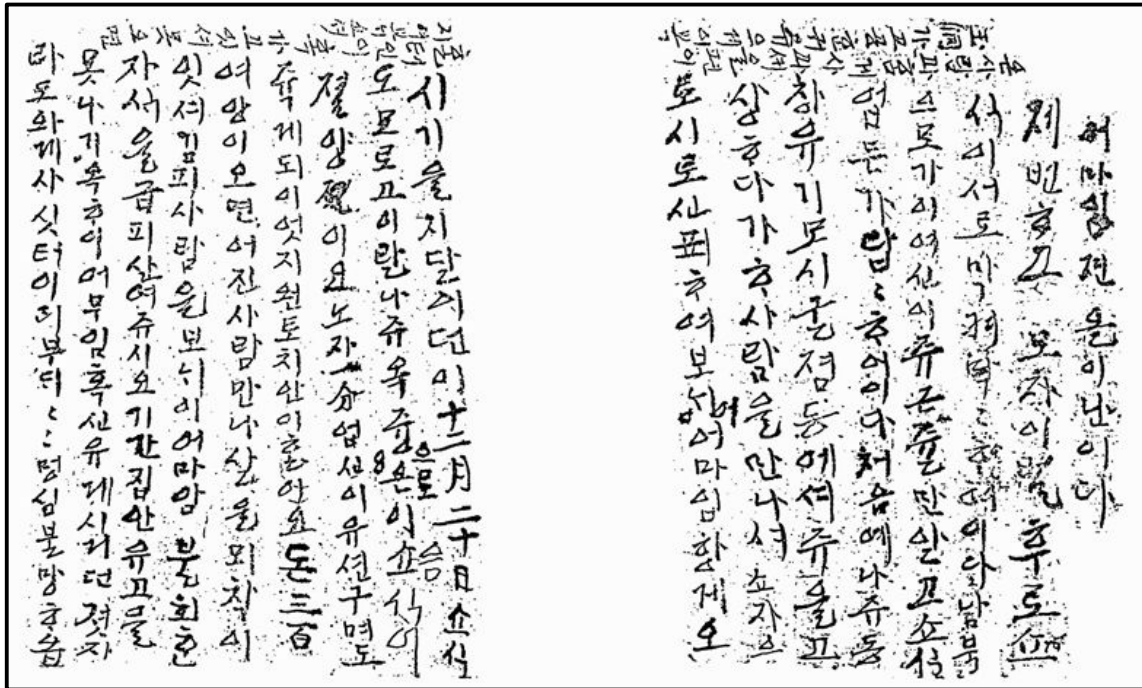
그 다음은 金箕述 등이 자신들의 공적을 적어 沁營兵房과 觀察使 등에 올린 上書가 있다. 이는 褒賞을 위한 것이다.

그 외에 討捕所事目, 守城所이름의 傳令 무기 지급관계 문건이 있다. 끝에는 1901년(光武 5)에 全羅北道 儒生 高敬柱, 鄭海鵬, 李鍾烈 등이 請願人으로 하여 金箕述 등이 의병활동을 벌인 歃血同盟員의 공적을 알리고 포상을 요구한 請願書가 있다.

이들 자료는 잡다하고 또 官의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泰仁縣 관내의 사실과 反農民軍 활동에 대해 알려주는 귀중한 것들이다.

이 原本은 현재 金箕述의 손자 金鉞이 소장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李眞榮이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이 순차는 『全羅文化論叢』(제6집, 1993. 12)에 수록한 대로 따랐다.

48) 한달문 옥중서신(한달문) - 대상시기: 1894~1894



농민군으로 나주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母親에게 보낸 韓達文의 편지이다.

韓達文은 甲午年 12월 民堡軍에게 잡혀 감옥에 있으면서 돈 3백냥만 있으면 살 방도가 있다고 하여 어머니에게 이를 요청하고 있다.

그는 和順 道莊面 東斗山(현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동산)에 살았던 韓致和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한치화는 이곳 농민군 지도자로 일단 나주감옥에서 나왔으나 杖毒으로 이듬해 4월 1일 죽었다고 전한다.

原本은 손자 韓寬鏞(나주 봉황면 용전리 관전부락)이 소장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하였다.

49) 나주명록(미상) - 대상시기: 1894~1894



羅州일대에서 활동한 東學農民軍의 명단으로 2건이 있다.

① 겉에 「名錄」이라 기재되어 있고 「甲午七月 日」이라는 年代가 표시되어 있다. 명단에는 45인의 姓名과 字 本貫 居住地 그리고 나이순으로 기록하였다. 대부분이 羅州居住로 표시되어 있으나 끝의 7명만이 咸平으로 표시되어 있다.

② 앞에 「名錄 羅州 甲午九月 日抄」라 표시되어 있으며 ①과는 달리 姓名 職任만을 표시하고 있다. 기록된 人員數는 78명이나 끝에 「已上 七十三員」이라 附記하였다.

職任에는 都執, 教授, 執綱 등을 표시하였는데, 羅州執綱所의 내력을 적은 것으로 보이나 더 검토가 필요하다. ①의 명단에 있는 인물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들의 역할에 대해 현지답사를 통해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이 자료는 원광대학교 박승호교수가 발견하여 공개하였고 현재 井邑 黃土峴記念館 관리사무소에 소장되어 있다.

50) 전주부전전라도각읍상납증비류소탈전목미태구별성책(全州府) - 대상시기: 1895~1895

開國五百四年八月日全州府別全羅道各邑上納中糧西倉米太區別成冊	
全州	
庚寅條田稅米代錢二千四百二十五兩內	減七百十三兩
實七百十二兩	
鄭房米代錢七百兩	
辛卯條新設米代錢五千五百兩內	減二千七百五十兩
實二千七百五十兩	
壬辰條田稅米代錢三千二百四十兩內	
減二千六百二十兩	
實一千六百二十兩	
兵曹閑六當八當木八同三十三足內	減四同十七足
實四同十六足	
癸巳條田稅米五百五十石內	減二百五十五石
實二百五十五石	
錢五千三百兩內	減二千六百五十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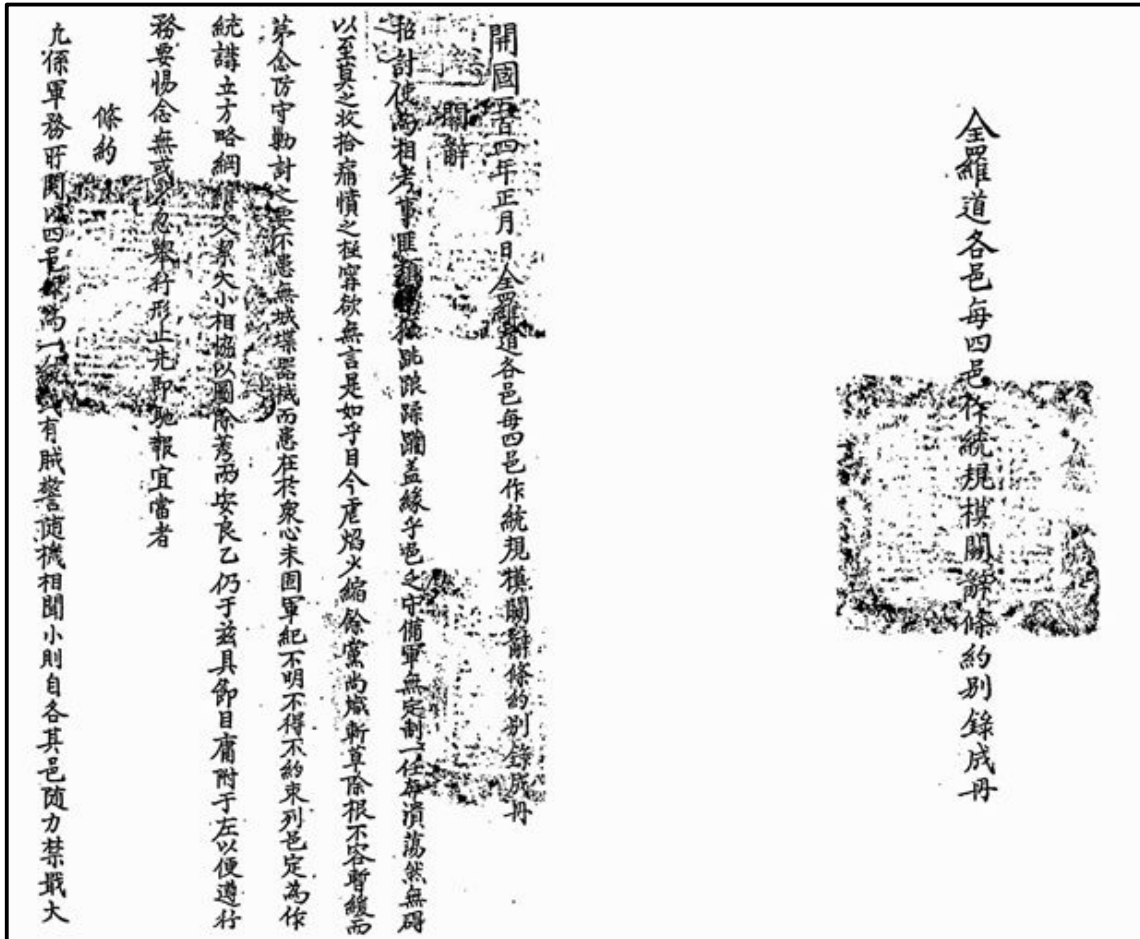
羅州일대에서 활동한 東學農民軍의 명단으로 2건이 있다.

① 겉에 「名錄」이라 기재되어 있고 「甲午七月 日」이라는 年代가 표시되어 있다. 명단에는 45인의 姓名과 字 本貫 居住地 그리고 나이순으로 기록하였다. 대부분이 羅州居住로 표시되어 있으나 끝의 7명만이 咸平으로 표시되어 있다.

② 앞에 「名錄 羅州 甲午九月 日抄」라 표시되어 있으며 ①과는 달리 姓名 職任만을 표시하고 있다. 기록된 人員數는 78명이나 끝에 「已上 七十三員」이라 附記하였다.

職任에는 都執, 敎授, 執綱 등을 표시하였는데, 羅州執綱所의 내력을 적은 것으로 보이나 더 검토가 필요하다. ①의 명단에 있는 인물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들의 역할에 대해 현지답사를 통해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이 자료는 원광대학교 박승호교수가 발견하여 공개하였고 현재 井邑 黃土 峴記念館 관리사무소에 소장되어 있다.

51) 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민중렬) - 대상시기: 1895~1895



1895년(고종 32) 全羅道 招討營의 招討使 閔鍾烈이 營下 各邑을 作統을 실시하면서 各邑에 보낸 關辭, 作統條約, 作統 內容을 수록한 자료이다. 1책(5장)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關辭와 條約, 作統秩로 나뉘는데, ‘關辭’에서는 2차 농민봉기로 인하여 각읍의 수비체제가 극도로 문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作統을 통하여 殘黨의 討伐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作統條約’은 모두 4조로 되어 있는데, 每四邑이 협조하여 작통하고 各邑간의 긴밀한 연락을 취할 것, 守城軍의 상호 협조와 越界로 인한 民弊 엄금 및 討賊方略을 세울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각읍의 ‘作統秩’은 監營을 제외한 52읍을 근접한 四邑別로 作統한 총 13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 ‘作統條約’은 농민군의 殘黨을 소탕하고 지방의 수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시 全羅道 招討營의 진압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王賢鍾)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과 인증 서식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0.3.17] [법률 제10110호, 2010.3.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지역민족문화과), 02-3704-9433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고손자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유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신청자가 유족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의견서를 받으면 이를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전문개정 2010.3.17]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운영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⑤ 국가는 기념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⑥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법률 제7177호, 2004.3.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277호, 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특례)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0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5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10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지역민족문화과), 02-3704-9433
문화체육관광부(지역민족문화과), 02-3704-9433

제1조(목적)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제2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08.12.31, 2013.3.23>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
2.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3.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시·도"로 본다. <개정 2008.12.31>

제8조(유족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4, 2010.5.4, 2010.11.2>

1.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3.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 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 등) ① 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족의 등록을 하고 심의·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실무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유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의 결과)를 통보(전자적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부(전자적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0조(명부의 작성·비치) 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등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②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나 관련자 등이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83호, 2004.7.24>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80호, 2007.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6>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5>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3) [서식1]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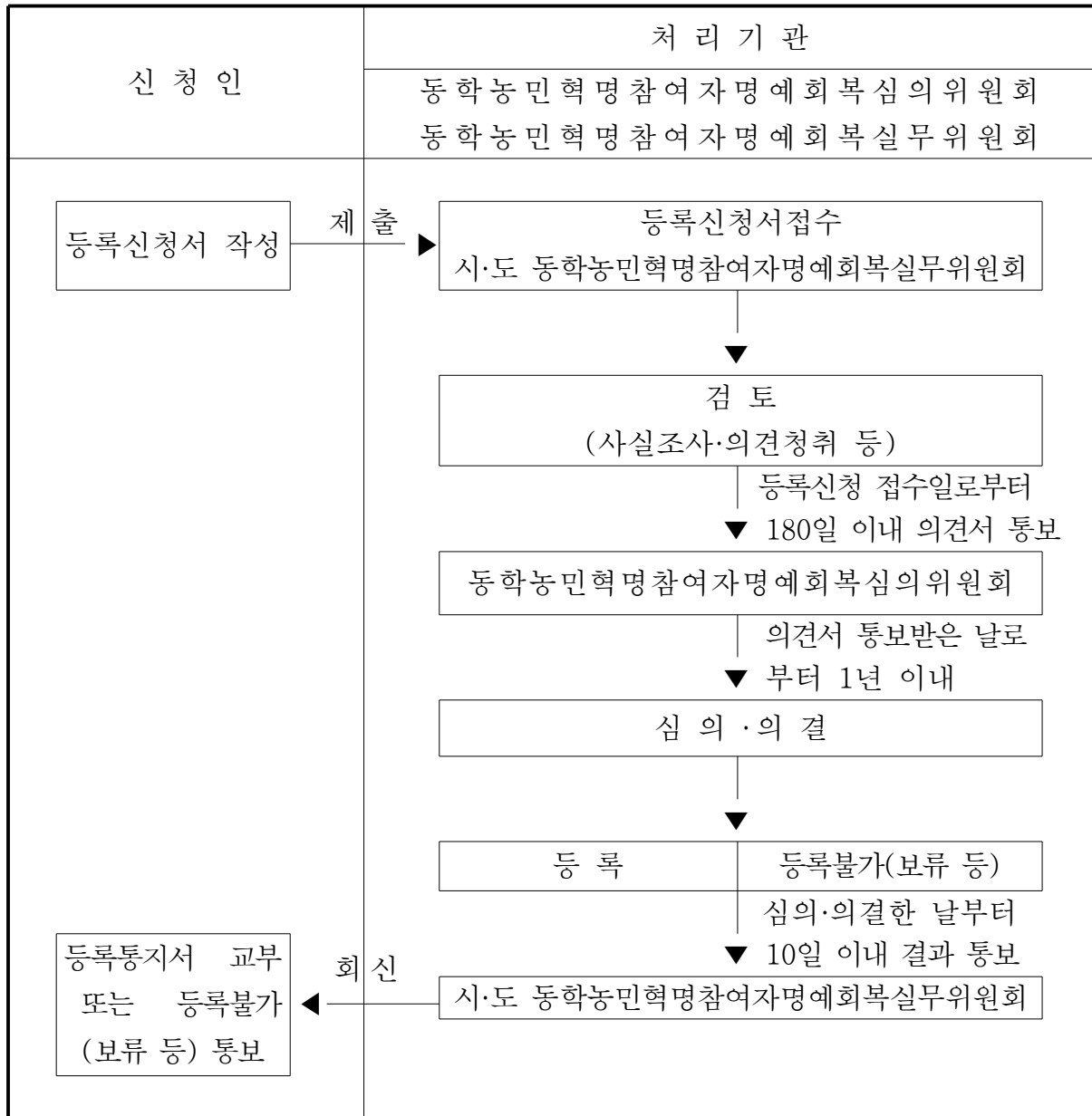
(앞 쪽)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서								
신청인	성명(한자)	()외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참여자	성명(한자)	()	출생연월일		성별	☐ 남		
			사망연월일			☐ 여		
	등록기준지							
	주소							
	동학농민혁명 참여상황	참여일자		당시연령		당시직업		
		참여지역		참여자의 신상변동 (사망·부상·처형·행방불명 등)				
참여내용 (구체적으로)		* 참여자의 참여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요약 기재(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3.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호구단자(戶口單子) 등] 1부 4.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3) [서식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및유족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7.6.4>

동 학 농 민 혁 명 참 여 자 및 유 족 결 정 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참여자	성 명			출생연월일
				사망연월일
	본 적			
유 족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참여자와의 관 계	본 적
				주 소
결정 주문				
결정 이유				
년 월 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3) [서식4]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6.4>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등록번호 :)										
신 청 인	성 명(한 자)	()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참여자와의 관계				전 화 번 호					
참 여 자	성 명(한 자)	()		출 생 연 월 일			성 별	☐ 남		
					사 망 연 월 일			☐ 여		
	본 적									
	주 소									
	동학농민혁명 참 여 상 황	참여 일자			당 시 연 령			당 시 직 업		
		참여 지역			참 여 자 의 신 상 변 동 (사망부상처형 행방불명 등)					
참여 내용										
유 족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참여자와의 관 계	본 적			주 소			
위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3) [서식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및유족명부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7.6.4>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				
등록 번호				
참 여 자	본 적			
	성 명	(한자 :)		
	출생연월일		성 별	□ 남 □ 여
	사망연월일			
유 족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참여자와의 관계	본 적 주 소
	위원회의 결	안전번호		일 자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